2012 제주 WCC 생태 · 문화탐방 길벗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이야기 차례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 이야기》는
〈2012 WCC 생태·문화탐방 해설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프롤로그

200만 년 동안 빚어진 신선한 화산섬 / 13
2만5천 년 사람의 역사를 지닌 독특한 섬 / 14

제주섬 자연에 얽힌 이야기

[한라산] ····· 18

은하수 흐르는 신(神)들의 정원 / 18
- 신령의 방, 영실 / 20
- 꽃바다를 이루는 산상화원, 선작지왓 / 21
- 온갖 희귀식물들의 전시장 / 22
- 노루와 새들의 낙원 / 24
- 한라산의 아픈 기억들 / 25

한라산을 만나는 길 / 27
- 고수목마의 고향, 어리목코스 / 28
- 신선이 사는 골짜기, 영실코스 / 29
- 세계 유일의 구상나무 숲을 관통하는 성판악코스 / 30
- 험해서 더 아름다운 관음사코스 / 30
- 백록담 성채를 휘도는 천상의 길, 돈내코코스 / 31
- 오름 물결 전망대, 어승생악코스 / 32
- 편백나무가 반기는 환상 숲길, 한라산둘레길 / 33
-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 33

Contents

[오름] ····· 34

제주 화산지형의 꽃 / 34
제주 삶의 무대 / 35
- 설화에 등장하는 오름 / 36
- 신들의 집을 품은 오름 / 36
- 삶의 터전이었던 오름 / 36
- 사계절을 함께한 오름 / 37
- 주검마저 평화로운 오름 / 38
- 제주역사를 지켜본 오름 / 39

제주 오름 만나기 / 40
- 아부오름 / 동검은오름 / 다랑쉬오름 / 용눈이오름 / 따라비오름 / 산굼부리 / 붉은오름 / 새별오름 / 녹고뫼(노꼬메)오름 / 당오름 / 세미소오름 / 저지오름 / 송악산 / 성산일출봉 / 거문오름 / 수월봉 / 정물오름 / 별도봉 / 이달오름

[섬] ····· 52

섬 속에 섬을 지닌 섬 / 52

섬 속의 섬 만나기 / 53
- 범섬 / 문섬 / 섶섬 / 새섬 / 차귀도 / 우도 / 비양도 / 가파도 / 마라도 / 추자도

[해안] ····· 60

제주 화산섬, 바다를 만나다 / 60
제주에는 바다에도 밭이 있다 / 61
- 돌 그물 두른 바다밭, '원' / 62
- 귀하디귀했던 소금밭 / 62
- 함께 가꾸고 나누는 바다밭 / 63
- 남자들의 바다풀과 여자들의 바다풀 / 64

제주해안 만나기 / 65
- 서귀포층 패류화석 / 외돌개 / 황우지 12동굴 / 돔베낭골 / 속골 / 지삿개 주상절리대 / 갯깍 주상절리대 / 섭지코지 / 남원 큰엉 / 산방산과 용머리 / 사계해안 / 자구내 포구 / 협재해변 / 제주올레 7코스 / 제주올레 9코스 /

[동굴] ····· 74

용암동굴의 보물섬 / 74
용암동굴의 모든 것을 지닌 종합전시장 / 75

용암동굴 만나기 / 77
김녕굴 / 만장굴 / 당처물동굴 / 용천동굴 / 벵뒤굴 / 수산굴 / 빌레못동굴 /
한림용암동굴지대

[하천 · 계곡 · 폭포] ····· 82

제주의 물을 갈무리하는 아름다운 주름 / 83
제주 하천의 백미 / 84
아름답거나 물이 늘 흐르거나 / 84
제주섬의 젖줄 / 85
움직이는 조각품, 폭포 / 86

제주의 하천 · 계곡 · 폭포 만나기 / 87
돈내코계곡 / 신례천 / 서중천 / 쇠소깍 / 천지연폭포 / 정방폭포 / 산지천 /
안덕계곡 / 선궷내 / 하원수로길

[곶자왈과 숲길] ····· 94

참으로 아름다운 제주섬의 허파 / 94
곶자왈의 어머니는 오름 / 96
한경-안덕 곶자왈지대 / 96
애월 곶자왈지대 / 97
조천-함덕 곶자왈지대 / 98
구좌-성산 곶자왈지대 / 98

곶자왈에 스며든 제주의 삶 / 98
목축문화의 숨결 / 99
돌과 나무를 쳐서 만든 친밭 / 99
최고의 사냥터 / 99
생활도구의 곳간 / 100

Contents

뜻밖의 선물, 물 / 100
숯 생산지 / 101

제주섬의 숲길 만나기 / 102
사려니숲길 / 비자림 / 교래자연휴양림 / 절물오름 장생의 숲길 / 한남시험림

[습지] ····· 106

생명과 조화의 땅 / 106

제주섬의 습지 만나기 / 107
1,100고지습지 / 물영아리 / 동백동산습지

5만 년 자연의 타임캡슐, 하논 / 110

[식물] ····· 112

제주는 놀라운 '식물의 보고' / 112
식물의 족보부터 살펴보자면… / 113
어떤 식물이 얼마나 있나 / 114
더욱 놀라운 한라산의 식물세계 / 115
바다가 육지였을 때 들어온 귀하신 몸들 / 117
세계 유일의 구상나무숲 / 118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의 식물 / 119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식물들 / 120
효돈천의 식물들 / 121
섶섬, 문섬, 범섬의 식물들 / 123

[동물] ····· 124

섬으로 품은 야생동물의 세계 / 124
올망졸망한 동물만 살게 된 사연 / 126

제주섬의 야생동물 만나기 / 126
한라산의 대표선수, 노루 / 126

탐라국의 존재를 알렸던 매 / 127
다른 새들을 배려하는 큰오색딱다구리 / 127
사투리로 노래하는 제주 토종 섬휘파람새 / 128
바람 따라 찾아든 바람까마귀 / 129

제주섬의 시간여행, 역사 이야기

[상고사] ····· 132

제주섬에 묻힌 비밀스런 자취 / 132
구석기시대의 자취 / 133
신석기시대의 자취 / 134
청동기시대의 자취 / 136

제주섬의 특별한 고대 역사, 탐라시대 / 137
탐라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 137
탐라는 어떤 나라였나 / 139

[전 근대사] ····· 142

한국 속의 또 다른 한국 / 142
탐라국 시대가 끝난 뒤 / 144
몽골과 만난 100년 / 145
조선시대의 제주 / 147

조선시대의 제주 만나기 / 150
읍성 안에는 어떤 관아들이 있었을까 / 150
조선시대 국립교육기관 향교 / 151
무예를 수련하던 관덕정에서 제주역사를 보다 / 152
제주 역사 · 문화의 중심지 제주목관아 / 153
제주 동남지역을 관할하던 정의현성 / 154
추사의 정취가 묻어나는 대정향교 / 155

Contents

[근 · 현대사] ····· 156

제주인, 근대를 만나다 / 156
제주의 또 다른 근대, 식민지시대 / 157
현대사 최대 비극, 제주4 · 3 / 159
　북촌 너븐숭이 4 · 3 위령성지 / 160
재건과 개발 그리고 시험과 도전 / 161
미래를 향한 여정 / 163

[제주역사 속 물결] ····· 164

600년 유배의 섬 / 164
　조선시대 유배 1번지, 제주 / 165
유배인과 제주문화 / 166
제주에 유배왔던 인물 만나기 / 167
　광해군 / 소현세자의 세 아들 / 충암 김정 / 동계 정온 / 우암 송시열 / 추사 김정희 /
　정난주 마리아 / 한죽 신임 / 서재 임징하 / 산수헌 권진응 / 조정철과 김윤식

[제주역사 속 향기] ····· 176

조선 천재시인 임제의 제주 유람 / 176
　제주 해안을 일주하다 / 177
　430년 전 저 편의 한라산은 어땠을까 / 180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가 김만덕 / 184

[제주역사 속 에피소드] ····· 186

조선시대 제주를 세상에 알린 외국인들 / 186
　네덜란드인 하멜 / 독일인 겐테 / 프랑스인 타케

[제주역사 속 어두운 기억] ····· 192

상처와 갈망이 낳은 평화의 섬 / 192
제주만의 독특한 방어유적을 만들다 / 194
　별방진 / 194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제주 / 196
야외 전쟁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알뜨르 / 198
섯알오름 일제 탄약고 터가 학살터로 변하다 / 199

제주섬이 지닌 향기, 문화 이야기

[입으로 전해지다]

• 신 화 ····· 202

1만8천 신들의 고향 / 202

제주신화 만나기 / 203
우주를 창조한 천지왕 / 소천국과 금백주 / 서천꽃밭의 꽃감관 할락궁이 / 삼천 년을 산 사만이 /
운명의 신, 가믄장아기 / 바람의 신, 영등할망 / 아름다운 세경신, 자청비 / 도깨비 신화 / 탐라 개국신화 /

• 전 설 ····· 212

드센 땅을 일구어낸 섬사람들의 삶 / 212

제주 자연의 두 얼굴과 비극을 낳은 인물들 / 213
딱 하나가 모자라서… / 213
이 섬의 혈을 끊어버린 바람에… / 214
비범한 인물들이 맞는 비극적인 결말 / 214

• 민 요 ····· 216

산 넘고 물 건넌 제주여성의 한풀이 / 216
끈질긴 생명력으로 전해진 노래들 / 217

• 제주어 ····· 219

한국사람들도 신기해 하는 독특한 한국어 / 219
독특한 말소리가 있다 / 220
독특하게 분화된 어휘가 많다 / 221

독특하게 만들어진 어휘가 많다 / 221
한국어 옛말이 많이 남아있다 / 222
문장구조는 현대 한국어와 다르지 않다 / 223

[풍습으로 전해지다]

• 무속신앙 224

제주문화의 뿌리 / 224

제주무속 들여다보기 / 225
본향당 / 와흘 본향당 / 일뤳당 / 여드렛당 / 해신당

어떤 당굿이 있나 / 228
신과세제 / 영등굿 / 마불림제 / 시만곡대제

굿의 절정, 굿놀이 / 230
세경놀이 / 전상놀이 / 영감놀이 / 산신놀이

별 신앙 / 232

마을마다 치러지는 마을제 / 233

집안을 관장하는 신을 위한 굿 / 234
정기적인 가내신앙 / 234
비정기적인 가내신앙 / 235

• 세시풍속 236

생활리듬과 계절 정서가 녹아 있어 / 236
조상과 자손 모두를 위한 제사, 세시명절 / 237
신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날, 입춘 / 239
신들의 부재 동안 이사하는 철, 신구간 / 240
몸을 보호하는 지혜로움, 세시 음식 / 241
안녕과 풍요 기원하는 세시의례 / 242
일생 동안 거쳐야 할 통과의례 / 244

[삶으로 전해지다]

• 돌문화 ····· 246

흔하지만 허투루 볼 수 없는 쓰임새 / 246
돌문화의 화신, 돌담 / 247
제주 돌문화 감상 포인트 / 249

제주 돌문화의 진수(眞髓) 들여다보기 / 250
방사탑 / 하가리 돌담 / 제주돌문화공원 / 돌하르방공원

• 해녀문화 ····· 252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 온 여성생태주의자 / 252
옛 문헌에 나타나는 역사 속 제주해녀들 / 253
제주 전통문화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 254
제주해녀들의 무대는 제주바다만이 아니었다 / 256
제주해녀 항일운동의 역사적 자존 / 256

해녀문화의 현장 만나기 / 258
김녕리 바다 / 성산일출봉 우묵개 / 서귀포시 법환동 잠녀마을 /
한수풀 해녀학교 / 해녀박물관

• 전통산업 ····· 261

제주자연을 닮은 산업 / 261
중산간 초원의 산물, 제주마와 검은쉐 / 262
제주마방목지 / 263

고통만 안겨주던 특산물, 감귤 / 263
제주만의 농기구, 보습 / 264
덕수 불미공예 / 264

활발한 생산 무대, 바다 / 265
소금밭과 소금바치 / 266
구엄 돌염전 / 267

제주 흙을 이용한 옹기 생산 / 267
제주산 말총을 이용한 갓 생산 / 268
상업중심지, 오일장 / 269
제주 · 서귀 오일시장 / 동문재래시장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제주도예촌 / 갓전시관

• 의생활문화 272

한 조각도 버리지 않았다 / 272

제주섬의 옷 만나기 / 273
봇뒤창옷 / 소중이 / 머리수건과 ᄀᆞ는대구덕 / 물옷 / 갈옷 / 우장 / 호상옷

• 식생활문화 277

'장수의 섬' 제주의 먹거리 / 277
장수의 원천, 제주음식문화 / 278
장수 음식가든 '우영팟' / 279
'바당' 이 좋아, 웰빙 국거리, 죽거리 / 280
여름철 군침 도는 먹거리, 자리돔 / 283
팔전구기(八顚九起), 세손 납짝 고사리 / 284
에코 리사이클링 돼지나라, 돼지고기 요리 / 285
고난과 시련의 극복, 말고기 식용문화 / 287
갈증 풀고 몸보신 하고… 전통음료 / 288
술 익는 마을 성읍의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 289

• 주거문화 290

독특한 삶의 공간 / 290

제주의 전통주거문화가 잘 남아있는 성읍민속마을 / 291
다채로운 풍경 담아내는 성읍민가 / 292

제주의 전통마을은 어땠을까 / 293
제주민속촌 / 294

제주섬의 이모저모, 이런저런 이야기

[기후와 토양] ····· 296

섬 곳곳이 다른 날씨, 다른 땅 / 296
곳에 따라 다른 날씨는 한라산 때문 / 297
바람 타는 섬 / 297

곳에 따라 다른 땅은 화산과 기후 때문 / 298
땅에 따라 다른 문화 / 299

[인구와 취락] ····· 300

역사의 부침 속에서 / 300
들쭉날쭉했던 조선시대 제주의 인구 / 301
수만 명이 섬을 떠나자 내려진 출륙금지령 / 301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일제강점기 / 302
인구 성장이 시작되다 / 303
역사와 맞물린 취락구조 / 304
도시화되다 / 305
물 따라 마을 형성 / 306
마을 물통 / 307
물이 귀했던 섬 제주 / 308
한국명수 100선 중 제주명수 8곳 / 제주 최초의 수도

[산업경제] ····· 310

수치로 본 제주의 살림살이 / 310
전국을 휩쓰는 농산물 / 311
FTA의 파고 앞에 놓인 제주 감귤산업 / 311

나날이 성장하는 관광산업 / 312
관광객 1천만 시대를 꿈꾸며 / 313

이야기로 만나는 제주의 산업경제 / 314
한 해 내내 부지런했던 제주농가 / 314
농번기보다 더 바빴던 농한기 / 315
제주경제생활의 뿌리, 해녀의 '물질' / 316
감귤산업의 선물 / 317

[근대 예술 활동] ····· 318

제주의 창작 무대 / 318
문학 / 미술 / 서예 / 음악 / 연극 / 사진 / 국악 / 무용

[테마로 체험하는 제주] ····· 328

가서, 보고, 느껴라 / 328
국립제주박물관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 생각하는 정원 /
오' 설록 / 아홉굿 의자마을 / 어멍아방 잔치마을 / 불탑사 / 약천사 /
천왕사 / 법화사 / 산천단 / 절부암 / 납읍리 난대림(금산공원) /
여미지식물원 / 한림공원 / 노루생태관찰원 /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
일출랜드 / 제주 4·3평화공원 / 제주삼다수 공장 /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
행원풍력발전단지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에필로그

바람으로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의 보물섬 / 342
제주생물권보전지역 / 343
제주세계자연유산 / 343
제주의 감동적인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 / 345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346

제주세계지질공원 / 346
독특하고 수준 높은 제주세계지질공원 / 348

프롤로그

200만 년 동안 빚어진 신선한 화산섬

제주는 바다에서 태어났다. 그 태동은 200만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즈음 제주는 점토와 모래층을 품은 얕은 바다 속에 잠들어 있었다.

어느 날, 바다 속 지하로부터 뜨거운 마그마가 약한 지층을 뚫고 올라오면서 바닷물과 만나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다. 제주 탄생의 서막, 수성화산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거듭된 수성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수많은 화산체들이 오랜 세월 파도에 깎이고 해양퇴적물과 섞이기를 반복하면서 퇴적층을 두텁게 이루어간다. 그렇게 퇴적층이 해수면 위로 두둑하게 솟아오를 만큼 쌓이자, 60만 년 전부터는 용암이 그 퇴적층을 뚫고 분출하기 시작해 퇴적층을 덮으며 넓은 용암대지를 만들어간다.

30만 년 전부터는 여기저기서 용암대지를 뚫고 용암이 분출해 단성화산체들을 만들어갔다. 화산활동은 점차로 섬 중심부로 옮겨가고 분출된 용암이 겹겹이 쌓이면서 방패형태의 순상화

산체를 이루어낸다. 이즈음 분출해 흐른 용암들로 수많은 단성화산체와 동굴이 만들어졌다.

순상화산체의 꼭대기에서 용암이 분출한 것은 16만 년 전이다. 이때 용암돔이 생겨났다. 2만5천 년 전 순상화산체 꼭대기의 용암돔에서 또 한 번의 폭발적인 화산활동으로 분화구가 생겨나 오늘의 한라산 모양이 빚어졌다.

제주는 바다에서 태어났지만 늘 섬이었던 것은 아니다.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해수면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바다에 둘러싸이기도 하고 대륙과 이어지기도 했다.

제주가 온전히 섬이 된 것은 1만8천 년 전쯤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현재와 거의 비슷해지면서부터다. 그 뒤로도 화산활동은 간간이 이어졌다. 5천 년 전에는 섬의 동쪽과 서쪽 해안지대에서 수성화산활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1천 년 전의 화산활동을 끝으로 제주섬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제주는 200만 년 전쯤에 태어나 1천 년 전쯤에 완성된 셈이다. 제법 오래 전에 생겨나 긴 세월 동안 만들어졌지만 지구 입장에서 보면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이다.

우주의 품속에서 지구라는 녹색별이 태어난 것은 46억 년 전쯤의 일이었다. 지구의 역사를 가늠하기 쉽게 하루 24시간으로 쳐서 계산해 보면, 1초는 5.3만 년이 된다. 제주가 생성되기 시작한 200만 년 전은 38초 전이다.

결국 제주는 하루 가운데 새벽과 아침, 점심과 저녁 나절을 다 보내고서도 자정이 되기 직전인 밤 11시 59분 22초에 지구상에 출현하기 시작해 방금 전에야 다 만들어진 셈이다. 기나긴 지질시대에 비하면 풋풋하다 못해 따끈따끈한 화산섬이 아닐 수 없다.

제주 화산섬은 신선하기도 하지만, 그 탄생에서 완성까지의 과정이 두루 담긴 원래의 지형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 제주섬 전체가 화산활동의 신비로운 자취들을 만나볼 수 있는 살아있는 지질박물관인 것이다.

2만5천 년 사람의 역사를 지닌 독특한 섬

이 신선한 화산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제주섬에는 2만5천 년 전 곧 후기구석기의 유적이 있다. 이 섬에 살았던 사람의 가장 오래된 흔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 제주가 대륙과 연결돼 있었을 1만 년 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초기 신석기 사람들의 유적이 있다. 그들이 대를 이어 정착하는 동안 제주는 서서히 섬이 되어갔다.

5천 년 전쯤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즈음 동쪽과 서쪽 해안에서 수성화산활동이 일어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화산이 폭발하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 엄청난 광경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주에는 숱한 설화들이 전해져 왔다. 설화 가운데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겨나는 이야기,

거대한 여신이 섬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도 있고, 한라산 분화구가 생겨나게 된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인간세상을 관장하게 된 온갖 신들의 이야기가 풍성하다. 그 이야기들은 언제 시작됐을까? 수천 년 전 화산활동을 지켜본 사람들의 눈과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제주섬의 설화들은 신의 솜씨가 아니면 빚어낼 수 없는 위대한 자연의 이야기를 전하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제주섬은 신석기시대 이후 청동기와 철기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도 곳곳에 품고 있다. 그 흔적을 따라가노라면 제주섬은 선사시대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만나게 하는 타임머신이 된다.

타임머신이 2천 년 전쯤에 도착하면 이 섬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고대왕국 탐라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탐라는 그즈음 형성되기 시작해 천 년의 역사를 누린 독립국이었다. 바닷길을 개척해 한반도와 중국, 일본과 활발하게 교역했던 해상왕국이었다.

천 년 전까지만 해도 탐라국이었던 제주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고려시대 때였다. 이 섬의 이름이 '지방' 이라는 뜻이 담긴 '제주' 가 된 것은 1200년대의 일이다.

이후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100년 세월을 보내야 했고, 조선시대 5백 년 동안에는 한숨 어린 유배지의 역사, 가혹한 진상의 역사, 출륙금지로 바닷길을 닫아버린 폐쇄의 역사로 점철된 질곡의 세월을 걸어야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제주도를 주요 군사기지로 인식하고 섬 전역에 군사시설을 강화하는 바람에 제주도민들이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돼 고초를 겪었다. 상당수의 제주도민들이 일제의 전시총동원령에 따라 징병 · 징용 등의 명목으로 부역에 동원되거나 전장으로 끌려갔다. 광복 직후에는 한국현대사에서 6 · 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인 4 · 3을 겪어야 했다.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 4 · 3은 국제적 냉전, 남북한 분단, 좌우이념의 대립, 중앙의 제주섬에 대한 인식 등이 뒤엉켜서 일어난 총체적 사건이었다.

제주도내에는 일제 말기 일본군이 조성해 놓은 거대 군사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제주 4 · 3과 관련된 유적은 해안에서부터 산간지대와 한라산 깊숙한 곳까지 제주도 전역에 숱하게 남아있다. 아픈 교훈으로 남은 이들 유적은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비극의 역사를 전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제주가 '관광' 으로 본격적인 기지개를 켠 것은 1970년대, 불과 40여 년 전의 일이다.

제주는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다. 제주섬을 이루고 있는 자연환경, 제주에서 이어진 사람의 역사, 그 안에 녹아든 문화, 제주에서 키워진 생산물 등 어느 것 하나 관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없다. 그 모든 것의 공통분모는 '독특함' 이다. 그리고 서로서로 얽혀 고리를 물고 있다. 독특한 자연환경 때문에 독특한 역사를 지니게 됐고, 그 자연환경과 역사 때문에 독특한 문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자, 이제 제주섬이 들려주는 독특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제주섬 자연에 얽힌 이야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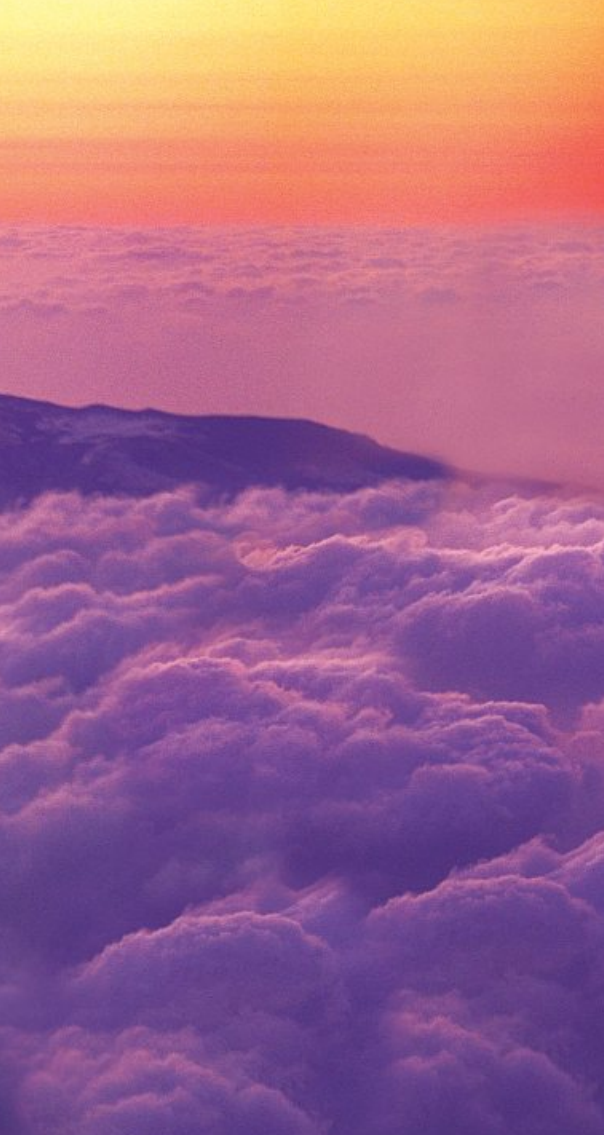
한라산
오름
섬
해안
동굴
하천 · 계곡 · 폭포
곶자왈과 숲길
습지
식물
동물

한라산

은하수 흐르는 신(神)들의 정원

제주섬의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순상화산 한라산은 멀리서 보면 얼핏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알면 알수록 놀라움을 안겨주는 신비로운 산이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어느 마을에서 바라본 한라산 모습이 가장 멋집니까?"

그가 대답하는 마을은 십중팔구 그의 고향 이름일 터이다. 제주사람들은 그렇게 저마다 자기 마을에서 바라본 한라산이야말로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한라산은 제주도 어디서 바라보아도 멋지다는 얘기다.

한라산의 높이는 1,950m다. 한국에서 백두산 다음으로 높고, 남한에서는 최고봉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섬 제주도에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솟아 있는 셈이다.

이 산의 이름 '한라(漢拏)' 역시 높아서 붙여졌다.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을 만큼 높다는 것이다. 그리 높으니 범상치 않았을 터, 신선이 사는 산이라 해서 '영주산(瀛州山)' 이라 부르기도 했다.

산의 생김새 때문에 붙여진 또 다른 이름들도 있다. 봉우리마다 평평하다고 해서 '두무악(頭無岳)' 이라 했고, 봉우리가 높고 둥글기 때문에 원산(圓山:두리메)이라고도 했다. 봉우리 안이 마치 가마솥처럼 패어 있다고 해서 '부악(釜岳)' 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 한라산 정상에 자리한 분화구를 일컫는 것이다.

분화구를 둘러싼 테두리가 예사롭지 않다. 분화구는 하나인데 동쪽과 서쪽의 암질이 확연히 다른 두 종류의 암석을 두르고 있다. 두 번의 화산 폭발이 있었던 흔적이다. 먼저 16만 년 전에 꿀처럼 점성이 높은 조면암질 용암이 솟아올라 멀리 흐르지 못하고 돔으로 굳은 뒤, 2만5천 년 전에 정상부분의 틈을 부수며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용암이 다시 뿜어져 나와 지금의 분화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분화구가 생겨나게 된 사연을 전하는 흥미로운 설화가 전해진다. 한라산 높고 깊은 곳에는 신들이 살고 있어 인간들은 감히 오르지 못했던 옛날, 한 사냥꾼이 금기를 깨고 정상 부근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사냥감을 발견해 활을 당기려는 찰나 실수로 하늘의 신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말았다. 이에 화가 난 옥황상제가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 던져버리는 바람에 분화구가 생겨났고, 날아간 봉우리는 산방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분화구는 백록담이라 부르는 호수를 품었다. 하늘이 내려앉아 쉬고, 오르다 지친 구름이 곧

잘 머물곤 하는 이 산정호수에는 신선이 하얀 사슴을 타고 노닌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한라산에서도 가장 높은 곳, 그 절정의 이름은 '혈망봉' 이다. 백록담을 감상하노라면 하얀 사슴을 타고 노닐던 신선이 혈망봉에 올라 그 위로 흐르는 은하수를 잡아당기는 장면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백록담을 둘러싼 봉우리를 중심으로, 제주사람들이 '오름' 이라 부르는 단성화산체들이 동서남북으로 무리지어 이어지며 장관을 이룬다.

백록담의 동쪽으로는 사라오름과 성널오름, 흙붉은오름, 물장오리(물장올) 등의 오름 무리가 너울처럼 이어진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장구목과 큰두레왓 · 족은두레왓, 윗세오름, 어승생오름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며 황홀한 풍경화를 그려낸다. 그런가 하면 남북쪽으로는 왕관능과 삼각봉, 방아오름이 부챗살처럼 펼쳐지며 색다른 맛을 자아낸다.

이들 오름 사이에는 탐라계곡, 와이계곡, 산벌른내 같은 제주 최대의 하천들이 숨어있다. 한라산의 계곡들은 장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구실을 담당한다. 평소에는 건천이었다가 비가 오면 한라산에 내린 모든 빗물을 갈무리하는 천연 배수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주의 지질과 이 하천들 덕분에 제주에는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홍수 피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신령의 방, 영실

한라산은 어디서 보아도 멋진 산답게 어디를 들어가도 아름답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신령의 방' 이라 일컬어지는 영실(靈室)이다. 그 이름에서부터 신비로움이 묻어나는 이곳은 예로부

한라산의 경치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영실기암

터 한라산이 지닌 절경 가운데 으뜸으로 꼽힐 만큼 빼어난 경치를 선사한다.

꼭대기에서부터 수백여 미터 내지른 골짜기까지 제주사람들이 오백장군이라 부르는 수백의 돌기둥들이 늘어서 있다.

결코 한눈에 다 담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절경은 철따라 다른 풍광을 선사해준다.

봄이면 산철쭉과 진달래가 온갖 형상의 기암괴석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내고, 가을이면 온 산을 태우는 농염한 단풍빛이 가히 환상적이다. 초록빛 가득한 한여름 폭우가 쏟아진 후 절벽 사이로 세 줄기의 폭포가 흘러내리는 풍경은 무더위를 날려버린다.

영실을 다녀간 옛사람들의 감상이 흥미롭다. "층을 이룬 바위들이 옥과 같은 병풍을 만들고 그 사이로 세 갈래의 폭포가 쏟아져 섬 중에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가 가장 좋은 곳"이라 평했는가 하면, "기암괴석이 나열되어 있는데 장군이 칼을 찬 것, 미녀가 쪽을 진 것, 중이 절을 하는 것, 신선이 춤을 추는 것, 호랑이가 걸터앉은 것, 봉황이 날아오르는 것 등 갖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한라산이 석산이므로 산기슭도 장엄하지만, 유독 이 한쪽면의 영봉은 옥을 배열한 듯 마치 풍악의 모양을 닮았고 또한 성벽과도 같아 이채롭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아름다움이 지나쳐 벅찼던 걸까. 애달픈 설화가 전해진다.

한 어미가 오백 명의 아들을 낳고 살았다. 흉년이 든 어느 해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사냥을 나갔고, 어미는 아들들 먹일 죽을 쑤고 있었다. 오백 명이 먹을 죽이니 그 솥이 오죽 컸으랴. 어미는 펄펄 끓는 죽을 젓다가 솥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것을 알 리 없는 아들들은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픔에 어미 찾을 생각을 잠시 잊고 맛있게 죽을 먹었다. 막내아들만이 어미를 찾으며 집안을 뒤지는 사이 가마솥 바닥에서 뼈가 드러났다. 그때서야 제 어미가 담긴 죽을 먹은 것을 알게 된 아들들은 여기저기 늘어서 한없이 통탄하다가 바위로 굳어버렸다. 오백장군이라 부르는 영실의 기암괴석들이 바로 그 아들들이라는 것이다. 막내아들은 제주 서쪽 끝의 차귀도에 가서 제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그때 오백 아들이 흘린 피눈물이 어찌나 진했는지, 아직도 해마다 봄이면 진달래꽃이며 철쭉꽃으로 피어나 한라산을 온통 붉게 물들인다고 전해진다.

꽃바다를 이루는 산상화원, 선작지왓

영실기암 너머 1600고지 일대에는 한라산에서 가장 넓은 벌판 선작지왓이 펼쳐진다. '작지'는 자갈을, '왓'은 밭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선작지왓은 작은 돌들이 마치 사람처럼 서 있는 드넓은 벌판인 셈이다. 그런가 하면 이곳 돌들은 주변의 돌보다 흰 빛을 띠고 있어서 '설다'는 의미의 '선'과 작지왓이 더해져 지명이 만들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백록담을 담은 한라산 주봉이 거대한 왕관처럼 놓여있는 드넓은 고원에 화산 폭발로 튀어나왔을 용암덩어리가 듬성듬성 박혀 있고 그 사이로 진달래와 철쭉, 시로미와 눈향나무들이 무리

봄철 선작지왓은 분홍빛 꽃 바다를 이룬다.

지어 이어진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진달래와 철쭉이 벌판 가득 꽃을 피우면 선작지왓의 비경은 절정에 이른다. 눈 닿는 곳 절반은 푸른 하늘이요, 절반은 진달래와 철쭉꽃의 분홍빛이다. 영실 오백장군의 애잔한 눈물이라는 전설 속의 그 꽃이 미친 듯이 피고 또 피어 바다를 이룬다.

선작지왓에 펼쳐지는 분홍빛 바다는 황홀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 빛에 취하노라면 눈이 시리고 가슴이 저려온다. 오백장군의 슬픈 전설 때문만은 아니다. 화사하지만 어쩐지 슬퍼 보이고, 황홀하지만 마냥 황홀해 할 수만은 없는 묘한 비경이 바로 봄철 선작지왓에서 만나는 분홍빛 꽃 바다다.

선작지왓에 진달래와 철쭉만 있는 게 아니다. 백리향, 설앵초, 구름송이풀, 구슬붕이 같은 이름마저 앙증맞은 들꽃들이 군데군데 무리를 이루며 피어나 이 산상화원을 총천연색으로 수놓는다.

온갖 희귀식물들의 전시장

해발 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는 한라산은 식물의 낙원이자 각종 희귀식물의 전시장이다. 아열대식물에서 아고산대식물까지 2,000여 종이 넘는 식물이 한라산에 자란다. 한반도

에 분포하는 식물은 4,500여 종,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한반도 면적 중 1%에도 못 미치는 좁은 지역인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한라산에는 특산식물이 많다. 그 가운데 '한라', '제주', '섬' 등의 이름이 따라붙는 식물이 많은데, 화산섬의 토질과 거센 바람, 해양성 기후에 적응하면서 본래의 성질과는 다른 종으로 분화했기 때문이다. 한라솜다리, 한라장구채, 한라돌쩌귀, 한라구절초, 한라고들빼기, 한라개승마, 한라사초, 제주황기, 제주달구지풀, 제주산버들, 섬매발톱, 섬바위장대, 섬새우난 등이 대표적인 제주특산식물이다. 이들은 고산식물인데 키는 더 작으면서도 때깔은 더 짙게 꽃을 피워 보는 이의 심장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구절초

한라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작은 식물로 알려져 있는 돌매화나무의 북방한계선이다. 다 자란 키가 고작 2㎝인 이 나무는 환경부 지정 일급 멸종위기 식물로 한국에서는 오직 한라산, 그것도 정상의 암벽에서만 자란다.

한라산에서도 가장 가혹하고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해마다 초여름이면 매화꽃을 닮은 다섯 갈래의 꽃잎을 피워낸다. 청록의 이파리 위로 돋아난 꽃 모양새가 정갈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자태가 청초하다 못해 애처롭다.

한라산은 왕벚나무의 자생지이도 하다. 일본이 자생지로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 한라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왕벚나무 말고도 올벚나무, 관음벚나무, 산벚나무, 한라벚나무, 탐라벚나무 등 열다섯 종에 이르는 벚나무가 한라산에 살고 있다. 이들 벚나무들은 봄철이면 연분홍 꽃잎을 일시에 피워 온 산을 화사하게 물들이곤 한다.

한라산의 수많은 특산식물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구상나무다. 해발 1,400고지에서 정상까지 군락을 이루는 구상나무는 지구상에서 한국에서만 자라는 고유종이다. 개나리, 히어리와 더불어 세계 식물계의 족보에 코리아나(Abies Koreana)라는 학명이 당당히 붙어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나무다.

덕유산과 지리산 고산지대에 드문드문 자라는 구상나무와 달리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600ha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한라산은 세계 유일의 구상나무 순림(純林)을 품고 있는 것이다.

1918년, 식물사냥꾼이라 불리는 영국의 어니스트 헨리 윌슨(Ernest Henry Wilson,

돌매화나무

왕벚나무

1876~1930)이 한라산에서 채집한 구상나무를 아놀드수목원 연구보고서에 실으면서 한라산이 세계 유일의 구상나무 자생지임을 세계적으로 공식 인증했다. 윌슨은 한국의 수많은 식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종으로 구상나무를 선택했을 만큼 구상나무는 독특한 식물이다.

윌슨이 채집해간 한라산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의 원조가 되었다. 당시 유럽에서 그 종자를 개량해 크리스마스트리 시장을 장악하는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지금 같으면 한 그루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시대적 상황 때문에 주인 없는 영웅이 된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지금도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에서 외로이 그 늠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원뿔형을 이루며 곧게 자라 수형이 아름다운 구상나무는 죽순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독특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도 검은 것, 푸른 것, 붉은 것 등 다양하다. 사계절 초록을 띠는 침엽수로 피톤치드 함량이 높아 삼림욕에도 좋은 나무다.

한라산의 구상나무숲을 걸으면서 잎을 살짝 비비면 코를 찌르는 향기에 머리가 맑아진다. 사계절 푸른 잎으로 둘러싸인 구상나무 숲 안에는 한 여름에도 푸른 이끼가 살아 있어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노루와 새들의 낙원

울울한 원시림을 자랑하는 한라산 곳곳에는 노루와 오소리, 족제비를 비롯한 육상동물과 양서류, 파충류가 골고루 자란다. 이 중에서 노루는 한라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동물로 한라산에서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한때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위기까지 몰렸다가 노루보호운동

한라산 하면 떠올리게 되는 노루는 그 수가 늘어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에 힘입어 그 수가 다시 많아졌다.

노루보다 더 자주 만나볼 수 있는 동물은 큰부리까마귀다. 새까만 털빛과 날카로운 눈매가 매력적인 큰부리까마귀는 몸에 다섯 가지 빛깔을 지닌 제주큰오색딱따구리와 더불어 한라산의 대표적인 텃새다. 제주큰오색딱따구리는 나무의 해충을 잡아먹고 까마귀는 숲속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한라산 등산객들이 주는 도시락에 입맛이 길들어 등산객들이 몰리는 시간이면 수십 마리의 큰부리까마귀 떼가 몰려들기도 한다.

유라시아 대륙과 북태평양을 잇는 징검다리처럼 자리 잡은 제주도는 대륙과 해양을 건너는 철새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데, 한라산은 삼광조와 팔색조 같은 희귀철새들이 겨울을 나는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한라산의 아픈 기억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은 제주도를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 일명 '결7호 작전'을 세워 제주 전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는데, 한라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승생악에는 당시에 설치했던 진지동굴과 대공포 진지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러한 군사시설은 광복 후 제주 전역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제주4·3 당시 유격대들의 본

물장오리오름의 일제 진지동굴

거지가 되어 피맺힌 전쟁터로 변하기도 했다. 지금도 한라산에는 당시 유격대와 토벌대들의 주둔소로 이용하던 돌담과 은신처, 유물이 그날의 뼈아픈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 4·3으로 인해 한라산은 1954년까지 금족령에 묶이기도 했다.

국내 최초의 산악 조난사고가 일어난 곳 또한 한라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전문적인 등산을 위한 산악인들이 훈련등반의 목적으로 한라산을 찾았는데, 1936년 당시 경성대 산악부 학생이었던 마에카와 도시하루가 용진각 계곡에서 하산 도중 눈사태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한라산은 또 광복 후 한국 산악운동의 선구자였던 한국산악회 회원들이 한라산 등반에 나섰다가 전탁 대원이 숨진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다.

한라산에서 이런 조난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당시 열악한 등산장비도 문제였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라산의 독특한 기상과 지형 때문이다. 고산 지역에 발달한 평원과 수직의 골짜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변화무쌍한 기상, 강한 바람과 많은 적설량 등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라산 정상부의 용진각과 장구목 등지는 히말라야 설산처럼 눈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악조건 때문에 한라산은 히말라야 등지로 원정등반을 떠나는 산악인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산악코스의 메카가 되기도 한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전국의 내로라하는 산악인들이 한라산을 찾아 거센 눈보라와 험악한 지형을 오르며 설산을 향한 투지를 불태우는 것이다.

한라산을 만나는 길

한라산을 만날 수 있는 길로는 성판악, 관음사, 어리목, 영실, 돈내코, 어승생 등 모두 6개의 등산코스가 있다. 그 가운데 백록담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성판악과 관음사코스다. 성판악코스는 관음사코스에 비해 조금 길기는 하지만 경사가 완만해서 오르기에 편하고, 관음사코스는 경사가 가파르지만 용진각과 장구목, 삼각봉,

백록담 등산객

왕관능 등 웅장한 한라산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다. 어리목과 영실코스는 해발 1,700고지에 있는 윗세오름을 거쳐 백록담 분화구 남벽분기점을 지나 돈내코코스로 이어진다. 어승생코스는 어리목코스 들머리에 있는 해발 1,169m의 오름을 오르는 단거리코스다.

6개의 등산코스 외에도 한라산 원시림을 만날 수 있는 둘레길이 있다.

고수목마의 고향, 어리목코스

어리목 일대는 어승생악과 큰두레왓, 족은두레왓 등의 오름이 에두른 산중의 평원으로 조선시대에는 명마(名馬)의 산지로 이름을 날리던 곳이다. 꼭 등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찾아볼 만한 제주의 관광명소 중 하나다.

어리목코스는 이곳에서 어리목계곡을 지나 사제비동산, 만세동산을 거쳐 윗세오름까지 이어진다. 사제비동산까지는 참나무와 단풍나무 등이 우거져 숲을 이루고 있다. 등산로를 걷다보면 수령이 5백 년이나 되는 참나무를 만날 수 있다. 과거 흉년이 들 때면 풍성한 도토리로 굶주림을 벗어나게 해주곤 했다고 해서 '송덕수(頌德樹)' 라는 이름까지 얻은 나무다. 나이테가 너무 깊었는지 아쉽게도 지금은 잎을 틔우지 못하고 형체만 남아 있다.

송덕수를 지나 사제비동산에 이르면 한라산 고산지대로 들어서게 되는데, 눈앞이 확 트인다. 해안선까지 시

장구목의 노을

원스레 펼쳐진 제주의 서쪽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더 나아가 만세동산에 이르면 한라산 주봉인 백록담 분화구 외벽과 혈망봉이 눈앞에 펼쳐지며 등산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이 벌판에서 소나 말을 놓아기르던 시절의 풍경을 '고수목마(古藪牧馬)' 라 하여 예로부터 제주의 10대 절경을 일컫는 '영주십경' 의 하나로 꼽아왔다.

만세동산에서 어리목코스의 종점인 윗세오름대피소까지 2㎞쯤은 기복 없는 평원이어서 마냥 걷고 싶은 명상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등산로 주변은 한라산의 상징인 노루와 노래 소리 정겨운 산새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자연동물원이다.

신선이 사는 골짜기, 영실코스

봄의 꽃 바다, 여름의 신록,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꽃 등 영실코스는 사계절 내내 절경을 선사해 언제 찾아가도 감탄을 자아낸다. 한라산을 자주 오르는 이들에게, 한라산 등산로 가운데 어느 코스가 가장 아름다운가 물으면 십중팔구 영실코스에 표를 던진다. 조선시대 한라산을 올랐던 선비들이 택했던 곳도 바로 영실코스다.

1,280고지에 있는 등산로 들머리에서부터 만나는 적송숲이 일품이다. 전국의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수상한 이 아름다운 숲길을 지나면 시야가 확 트이면서 웅장한 기암괴석들이 병풍을 두른 듯 펼쳐진다. 영실코스의 가장 큰 매력, 그래서 예로부터 '영실기암(靈室奇巖)' 이라 해서 영주십경의 하나로 꼽아온 풍광이다. 한여름 소나기가 쏟아진 후 절벽에서 쏟아지는 물기둥 또한 장관이다.

눈 덮인 영실

한라산이 품은 신의 정원, 선작지왓 또한 영실코스에서 만날 수 있다. 부드럽게 솟아오른 윗세오름의 세 능선과 불끈 솟아오른 웅장한 화구벽을 배경으로 펼쳐진 선작지왓은 특히 철쭉과 진달래가 만개해 꽃 바다를 이루는 봄철 풍경이 압권이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 등산객들의 발길이 뜸할 때는 수십 마리의 노루들이 이 고원을 뛰어다니는 진풍경을 만나볼 수도 있다.

세계 유일의 구상나무 숲을 관통하는 성판악코스

성판악코스는 9.6㎞로 한라산 등산로 중 가장 길다. 그러나 경사가 완만하고 대부분 숲이 우거져 있어 오르는 내내 아늑함이 느껴지는 코스다.

이 코스에서 사라오름을 만날 수 있다. 360개가 넘는 제주의 오름 가운데 산정호수를 품은 오름은 열 개도 되지 않는다. 그 산정호수를 품고 있는 사라오름은 그 자체의 단아한 아름다움도 일품이지만, 한라산이 제 속살로 감싸 안은 주변 풍광이 넋을 잃게 한다.

겨울의 사라오름 산정호 주위를 상고대가 휘감고 있다.

해발 1,500m의 진달래밭대피소에서 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사계절 내내 푸른빛 감도는 구상나무숲길이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라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숲이다. 구상나무가 뿜는 상쾌한 향기가 산행 내내 몸에 스며들어 산림욕에도 그만인 특별한 등산로다.

백록담 분화구의 동쪽 능선 가까이 이르면 멀리 일출봉은 물론 우도와 제주 동쪽의 오름 물결이 아스라이 펼쳐지는 진풍경을 맛볼 수 있다.

험해서 더 아름다운 관음사코스

성판악코스와 더불어 한라산 정상 등반이 가능한 관음사코스는 가장 험준하기로 이름 높다.

관음사코스는 등산로 들머리 가까이에 있는 관음사라는 사찰의 이름을 빌려온 것이다. 동서로 갈라진 제주 최대의 하천 탐라계곡 가운데 능선이 마치 개미의 등처럼 볼록 솟아 있어서 예전에는 개미등능선이라 부르기도 했다. 제주 산악인들은 아직도 이 코스를 개미등코스라 부른다.

등산로 들머리에서 탐라계곡 사이는 옛날 화전민들이 숯을 굽던 가마터와 표고버섯 재배장 등의 원형을 복원해놓아 정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산책하기에 좋다. 1.5㎞ 지점에 있는 구린굴은 멸종위기종인 황금박쥐가 서식하는 동굴이다.

탐라계곡을 지나 해발 1,200고지 인근에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적송들의 우람한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적송지대가 나타난다. 적송지대는 1,200고지에서 1,400고지 사이에 띠를 두르며 펼쳐져 있다.

관음사코스는 정상 인근의 장구목과 왕관능, 삼각봉 등 웅장하고 수려한 산세로 겨울철에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산악인들의 훈련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용진각 일대는 움푹 파인 지형과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용이 승천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왕관능 또는 왕관바위라 부르는 곳은 저녁 무렵이면 황금빛으로 빛난다. 왕관바위 맞은편에는 솔개의 날카로운 부리를 닮은 삼각봉이 하늘을 향해 곧추서서 한라산 정상을 지키는 전위봉 노릇을 하고 있다.

산세가 험한 관음사코스는 겨울이면 환상적인 설국(雪國)으로 변하고, 단풍이 드는 가을철에는 온 계곡의 나무들이 온산을 화려하게 불태운다.

백록담 성채를 휘도는 천상의 길, 돈내코코스

동백나무와 꽝꽝나무, 굴거리나무, 우묵사스레피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돈내코의 난대림 숲은 어느 계절에 들어도 초록의 상큼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다. 등산로 들머리에는 사시사철 맑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흐르는 돈내코 유원지가 있어 한여름에는 서귀포의 강정천과 더불어 제주 도민들의 피서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한라산 남벽의 겨울

푸른 숲은 지나 살채기도와 평궤대피소를 지나면 한라산의 또 다른 풍광이 펼쳐지고 고도를 높여갈수록 드러나는 한라산 남벽의 웅장함과 함께 걷는 내내 서귀포 쪽빛바다의 푸른 물결이 손에 잡힐 듯하다.

평궤대피소에서 남벽분기점을 지나 윗세오름에 이르는 길은 한라산 아고산대의 전형적인 평원으로 섶섬, 문섬, 범섬 등 서귀포 앞바다의 풍광은 물론 멀리 마라도까지도 시야에 들어온다.

한라산 정상 바로 아래 솟아오른 방아오름 일대의 벌판은 윗세오름이나 선작지왓보다 봄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다. 골짜기에 잔설과 이 벌판에 피어난 꽃 바다가 어우러져 두 계절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곤 한다.

오름 물결 전망대, 어승생악코스

어승생악코스는 어리목코스 들머리 서쪽에 솟아 있는 오름인 어승생악을 오르내리는 코스다. 해발고도 1,169m인 어승생악은 오름의 밑동에서 정상까지 비고가 350여m로 제주 서쪽에서는 가장 덩치가 큰 오름이다.

한라산 정상을 비롯한 큰두레왓, 족은두레왓, 만세동산, 망체악 등 한라산의 고지대와 두 갈래로 뻗어 내린 와이계곡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전망이 좋다.

일출봉을 비롯한 동쪽의 오름들이 아스라이 펼쳐지는가 하면 서쪽의 오름 물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어승생악 분화구

이런 거칠 것 없는 전망 때문에 일제강점기 일본군은 어승생악 정상에 미군 폭격기를 포격하기 위한 대공포 진지를 건설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역사교육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편백나무가 반기는 환상 숲길, 한라산둘레길

한라산둘레길은 한라산을 오르내리는 길이 아니라 빙 둘러 가로지르는 길이다. 해발고도 600~700m 사이를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은 일제강점기 때 생겼다. 일본군들이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냈던 병참도로였던 것. 한라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베어 실어 나르고, 한라산 숲에 조성된 표고버섯 재배장의 생산물을 이 도로를 통해 옮겼다. 한라산을 빙 둘러가며 머리띠 두르듯이 도로가 형성돼있어 머리띠를 뜻하는 일본어 '하치마키' 도로라 부르기도 했다.

법정사와 도순천, 시오름 자락을 지나 남성대 등산로 입구까지 이르는 길에는 촘촘히 돌을 깔아 길을 만들었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길의 중간지점에는 시오름이 솟아 있다. 분화구 없이 봉긋하게 솟아올라 있어 숫(雄)오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오름 자락은 도순천에 비해 조금 작은 내가 흘러가는데, 악근천(岳近川)이라고 한다. 본래의 이름은 '아끈내' 로 큰 내에 비해 조금 작은 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시오름 일대는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지역이다. 삼나무는 어른 둘이 이어 안아야 할 만큼 굵기도 굵다. 삼나무에 비해 생장속도가 느린 편백나무도 우람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나무들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후반부터 광복 전까지 일본인들이 심어놓은 것들이다.

편백나무 가운데는 수령 70년을 넘긴 것도 있어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편백나무로 꼽힌다. 편백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전남 장성군과 경남 남해군의 수림보다 더 오래고 우수한 수림이 이곳에 있는 것이다.

편백나무는 목재로써의 효용 가치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테르핀이라는 물질을 많이 내뿜는 나무여서 삼림욕으로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어리목탐방로 입구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는 탐방정보 제공은 물론, 한라산의 탄생과 역사, 전설, 지형 · 지질, 자연생태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무료 전시공간이다. 한라산의 탄생과 이야기, 생명의 숲 한라산, 한라산 탐방백서를 타이틀로 한 1~3전시실과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인 창작교실,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영상실이 있으며, 한라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 동부지역 오름군락. 멀리 성산일출봉과 우도도 보인다.

오름

제주 화산지형의 꽃

제주섬은 날마다 하나씩 찾아본다 해도 1년이 넘게 걸리는 368개의 작은 화산체를 지니고 있다. 이 작은 화산체를 제주사람들은 '오름'이라 부른다.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은 하나의 섬 안에 이토록 많은 오름을 지닌 지역은 지구상에 또 없다. 제주섬은 세계적인 오름의 나라인 것이다.

제주의 오름들은 저마다 독특한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빚어진 과정에 따라 분석구, 수성화산(응회구, 응회환, 마르), 용암돔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분석구는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분출된 다량의 분석과 용암, 화산 쇄설물 등이 쌓여 만들어진 원뿔형의 화산체다. 일반적으로 직경 수cm 정도의 다공질 스코리아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이 돌을 제주사람들은 '송이'라고 부른다. 제주의 오름 가운데 334개가 분석구다.

섬 전역에 용암대지가 형성된 뒤 만들어지기 시작한 분석구들은 순상화산체인 한라산이 형성되자 산자락과 산허리에서 절정을 이루다가 산의 어깨에까지 이르며 돋아 올랐다. 섬의 여기저기서 불꽃놀이 하듯 앞을 다투며 펑펑 피어올랐을 분석구들의 탄생은 상상만으로도 황홀하다.

고온의 마그마가 지표를 향해 올라오다가 지하수나 지표수를 만나면 마그마는 급격히 식고 물은 끓어 기화하면서 매우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물에 의한 폭발적 분화로 형성된 화산을 수성화산이라고 한다. 제주의 오름 가운데 24개가 수성화산이다.

수성화산 가운데 화구의 크기에 비해 낮은 산체를 지닌 것은 응회환, 높은 산체를 지닌 것은 응회구다. 제주섬의 응회구와 응회환은 물과 만나 생겨난 화산체들이다. 성산일출봉은 전형적인 응회구이고, 수월봉은 응회환이 파도에 침식되어 그 일부분이 남은 것이다. 제주섬 자체가 바다 속에서 시작된 수성화산활동을 기반으로 생겨났으니, 이들은 제주섬 탄생의 비밀을 품고 있는 오름인 셈이다.

마르는 지하수가 마그마의 열로 빠르게 기화해 지표 물질을 날려 보냄으로써 생긴 화산체다. 아부오름과 산굼부리는 마르, 하논분화구는 마르형 응회환이다.

꿀처럼 점성이 높은 조면암질 용암은 분출할 때 멀리 흐르지 못하고 화구 위에서 굳어진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조면암 덩어리를 용암돔이라 한다. 제주의 오름 가운데 10개가 용암돔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대표하는 것은 산방산이다.

제주화산활동의 역사를 온몸으로 전하고 있는 오름은 제주화산지형의 꽃이다. 해안에서 한라산 어깨에 이르기까지 섬 전역에 자리하고 있는 이들 오름 덕분에 제주는 섬 전체가 아름답게 빛나는 화산 전시장이 되었다.

제주 삶의 무대

제주섬은 눈길 닿는 곳마다 오름으로 시작해 오름으로 끝난다. 더불어 이 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오름을 눈과 마음속에 달고 살아왔다. 오름을 빼놓고는 제주사람들 삶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오름은 숱한 제주설화의 무대였으며, 신앙의 성소였다. 제주가 걸어온 길을 지켜본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제주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죽음을 보듬어 안는 영원한 안식처이기도 했다.

설화에 등장하는 오름

오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설화는 제주섬을 창조했다는 여신 설문대 이야기다. 거대한 여신 설문대는 어느 날 치마폭에 흙을 가득 퍼 날라다 바다 한가운데 붓기 시작했다. 얼마나 열심히 날랐는지 드디어 섬이 되었고, 섬 한가운데 커다란 한라산이 생겼다. 흙을 나르다 낡아버린 치마의 구멍 사이로 떨어져 쌓인 흙무더기들은 오름이 되었다. 설문대는 그것이 좋아 보였는지 흙을 일부러 한 줌씩 쥐어다 오름을 만들기도 했다. 오름 가운데 너무 높은 것은 주먹으로 쳐서 다듬었는데, 다랑쉬오름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오름보다 훨씬 더 높은 한라산을 그냥 둘 리 없다. 한라산이 너무 높아 보였는지 봉우리를 꺾어 던져버렸다. 봉우리는 날아가 서남쪽 바닷가의 오름 산방산이 되었다.

설문대는 어찌나 컸던지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관탈섬에 다리가 걸쳐지고, 앉으면 한쪽 다리는 산방산에 다른 한쪽은 일출봉에 닿을 정도였다. 그 큰 키가 자랑거리였다. 그래서 제주섬 안에 있는 물이란 물은 다 들어서보며 깊이를 시험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한라산에 있는 오름 물장오리의 산정호수에 들어섰다가 영영 나오지 못하고 말았다. 물장오리는 밑이 터져 한없이 깊은 물이었던 것이다. 설문대는 그렇게 물장오리에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신들의 집을 품은 오름

제주의 마을마다에는 반드시 본향당이 있었다. 본향당은 마을을 지켜주는 신(神)이 사는 집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마을이 많다.

제주의 당들은 대체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아 조용하고 아늑해 신이 머무르기에 적당한 장소를 택해 모셨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오름 기슭에 자리 잡은 곳이 많다.

오름 이름에 '당' 자가 붙은 곳이 있는데, 이는 특별한 이름이 없던 오름에 당이 자리해 있었음에 연유한다. 대표적인 오름이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당오름이다. 이 오름 북서쪽 기슭에는 제주 마을신당의 원조라고 알려진 송당본향당이 자리해 있다.

삶의 터전이었던 오름

등성이들이 드러난 오름 지대는 대부분 완만한 지형에다가 질 좋은 천연초지를 이루고 있어 예로부터 말과 소를 놓아기르는 목장지대로 이용돼 왔다. 오름은 농토가 되기도 했다. 목장이었던 오름 주변이나 분화구, 돌이 없고 부드러운 흙을 가진 오름 등성이를 개간하거나 화전을 일구어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 지금도 목장으로 사용 중인 아부오름에는 분화구 일부를 개간해

농사를 지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오름 북쪽에서 서쪽 능선까지 좁다란 길이 길게 뻗쳐 있는데, 바로 농사를 지으러 다녔던 농로였다.

나무가 많은 높은 지대의 오름은 표고버섯 재배장으로 이용됐다. 제주에서 나는 표고버섯은 1453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기록될 만큼 예로부터 유명했지만,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된 것은 1905년 이후 일본인들에 의해 산도식 포자접종법이 도입되면서부터다. 한때 표고버섯 재배장은 해발 600고지를 중심으로 76개소에 이르기도 했지만,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대부분 철거되어, 지금은 해발 200~600고지에서 2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사계절을 함께한 오름

오름을 가까이 두고 있는 마을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오름과 인연을 맺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름을 바라보며 그 날의 날씨를 가늠하기도 하고, 그 날의 일정을 짜기도 한다.

오름은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친구였다. 봄철이 되어 풀이 파랗게 돋아나면, 아이들은 소와 말을 몰고 올라가 풀을 뜯게 하고, 술래잡기 같은 놀이를 했다. 그즈음 어른들은 풀을 뒤져 고사리를 꺾느라 정신이 없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오름 여기저기서 따먹을 수 있는 산열매들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더할 수 없이 달콤한 간식거리였다.

겨울의 다랑쉬오름

땔감이 귀한 시절에는 오름에서 솔잎을 긁어모으거나 나무 삭정이를 꺾고, 소똥 말똥을 주워 모아다 군불을 때기도 했다.

겨울이 되면 꿩을 잡는다고 올가미를 만들어 오름에 올랐고, 족제비를 잡는다고 덫을 놓기도 했다. 나무가 우거지고 돌이 많은 오름에는 오소리굴이 뚫려 있어 사냥개를 동원해 잡느라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다.

주검마저 평화로운 오름

오름에 가보면 곳곳에 무덤이 많다. 마을에서 가까운 오름에는 으레 공동묘지가 자리해 있다. 햇볕이 잘 들고 번듯한 오름에 가보면, 돌담을 두른 무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만이 갖는 독특한 장묘 문화로 자연과 역사와 토속신앙이 엮어낸 산물이다.

제주섬은 화산섬이라 곳곳에 암석이 널려 있고, 고려 · 조선시대에는 많은 면적의 땅이 국립목장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중기부터 제주섬에 매장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자 풍수지리를 믿고 후손들이 발복(發福)할 땅을 찾아 무덤을 쓰다 보니, 좋은 곳에는 자연히 무덤이 몰리게 됐던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지관을 데려다 좋은 묘 터를 마련해 시신을 묻고 주변의 돌을 모아 담을 쌓았

오름 자락의 좋은 터에 모여든 산소들

다. 제주에서는 무덤을 '산' 이라 하기 때문에 산을 두른 돌담을 '산담' 이라 부른다. 무덤을 죽은 사람이 사는 집으로 생각하고, 말이나 소가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돌을 쌓아 방비한 것이다. 산담은 또 방목지대에 일부러 불을 놓는 '방앳불놓기' 때 불이 산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방앳불놓기는 진드기 같은 해충을 없애고, 묵은 목초를 태워 없앰으로써 질 좋은 새 풀을 돋게 하기 위해 해마다 이른 봄에 치러지던 풍습이었다. 새별오름의 들불놓기 축제가 바로 이 방앳불놓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담을 두른 무덤들을 제 몸에 눕힌 오름의 풍경은 따뜻하고 평화롭다. 오름은 그렇게 주검마저 정겹게 품어주며 제주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다.

제주역사를 지켜본 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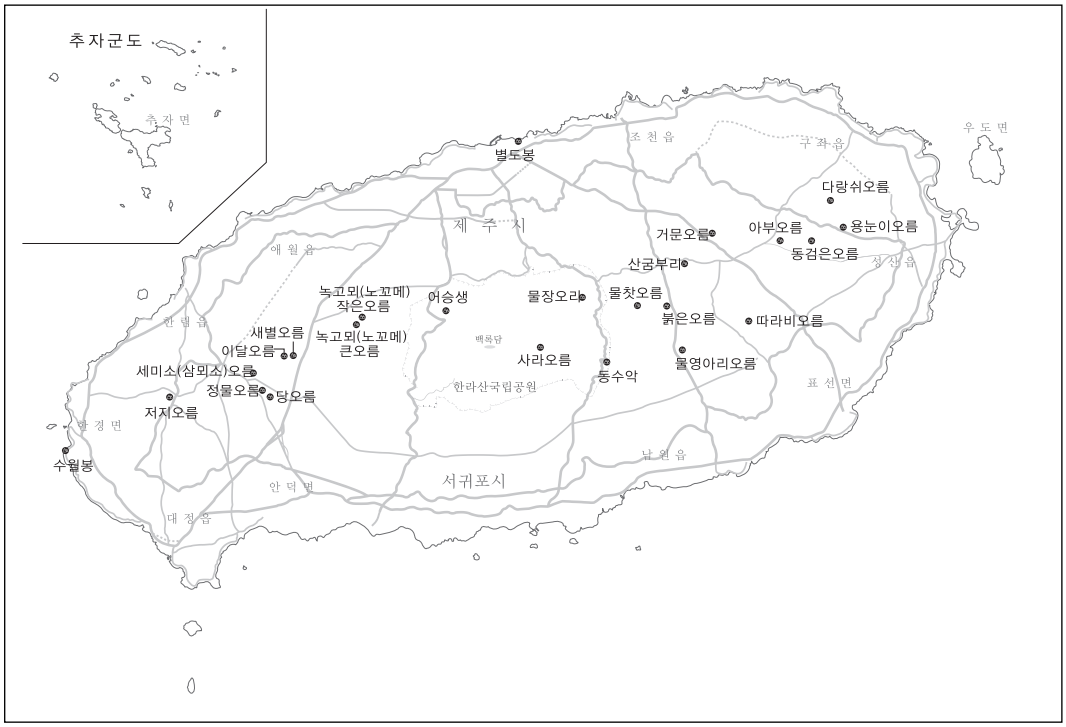
오름은 13세기 원나라가 목마장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내내 국영목마장으로 활용되는 등 말의 고장 제주의 역사를 지켜보았다.

조선시대 때 오름은 또 섬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섬을 둘러 25곳의 오름에 봉수(烽燧)가 설치되기도 했던 것이다. 사라봉, 원당봉, 서우봉, 입산봉, 지미봉, 수산봉, 독자봉, 토산봉, 예촌망, 삼매봉, 모슬봉, 도두봉 등 이름에 '봉' 자나 '망' 자가 붙은 오름들은 대부분 봉수가 설치됐던 오름으로 하나같이 전망이 좋다. 봉수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사들이 주위를 살피면서 연기와 횃불을 신호로 주고받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군사시설을 구축하느라고 굴을 마구 파놓아 많은 오름들이 수난을 당했다. 성산일출봉, 송악산, 삼매봉, 사라봉과 별도봉을 비롯하여, 가마오름, 어승생악, 서우봉, 모슬봉, 섯알오름 등에는 지금도 그 상처들이 진하게 남아 있다.

오름은 제주4 · 3 당시 무장봉기를 알리는 신호탄인 봉화를 올리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민들이 도피처로 삼았던 곳도 무장대가 은거지로 삼았던 곳도 오름이었다. 그런가 하면 토벌대가 나팔을 불거나 장대를 높이 올려 토벌을 알리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고, 사라봉, 섯알오름은 학살터가 되기도 했다. 제주4 · 3의 막바지에 이르러 모라이악, 녹하지악, 시오름, 쌀오름, 수악 등으로 이어지는 한라산 남쪽 중허리 오름들은 주둔소가 설치되어 잔여 무장대의 활동을 차단하는 거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제주 오름 만나기



다랑쉬오름

제주의 오름들은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면서도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넘실거린다. 가까이 다가가 하나하나 뜯어보아도, 멀리서 그 무리를 한눈에 담아보아도 어여쁘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오름' 이라는 이름은 '오르다'에서 생겨난 것이다. 멀리서 바라봐도 좋지만, 제 이름처럼 직접 올랐을 때 그 참맛을 아낌없이 선사해준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어, 만날 때마다 새로운 감흥을 안겨준다.

아부오름

아부오름은 감춰진 보석 같은 오름이다. 오름 자체의 높이는 51m, 그다지 높지 않아 쉬 올라설 수 있는데 등성이에 올라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로마의 원형경기장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분화구를 품고 있는 것이다. 분화구의 둘레는 1,400여m, 그 깊이는 제 높이보다 훨씬 더 깊은 84m다.

아부오름이 자리한 곳은 중산간 해발 300m쯤의 초원지대다. 화산폭발 당시 이곳은 용암대지가 넓게 펼쳐진 고산습지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습지 환경에서 아부오름은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분화구만으로 구성된 독특한 마르형 분화구를 지니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까운 곳에 괭이모루, 서수모루, 대물동산이라 부르는 마르형 지형들이 침식을 받은 채 잘 남아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분화구 안에 둥그렇게 심어진 삼나무가 독특한 풍경을 선사한다. 한때 분화구 안에다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기도 했는데, 분화구에서 골라낸 화산석으로 밭을 두르고, 그 둘레에 심은 삼나무가 자란 것이다. 이 독특한 풍경 덕분에 아부오름은 영화 '이재수의 난' (1999년)의 촬영장이 되기도 했다.

아부오름에는 삼나무 말고도 쥐똥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보리수 등이 살고 있고 찔레나무, 국수나무, 청미래덩굴 등이 곳곳에 뭉쳐 자라고 있다.

아부오름

동검은오름

오름에 성별이 있다면 이 오름은 남자다. 그것도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멋진 남자다. 이 오름을 중심으로 다랑쉬오름, 용눈이오름, 손지오름, 높은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이 에워싸고 있어 주위 풍광에도 눈을 빼앗기곤 한다.

동거미오름은 분석구이지만 깊은 원형분화구와 함께 화구 한 쪽 면이 부서진 말굽형분화구도 지니고 있고,

주변에 작은 언덕들과 분화구의 흔적들도 관찰된다. 여러 개의 화구가 이동하며 분출한, 한 마디로 보기 드문 복합형 화산체다.

급경사의 화구와 완경사의 능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분석구의 다양한 지형을 보여주는 오름이다.

봄이면 동검은오름은 황홀한 꽃잔치를 벌인다. 그럴 때마다 초록빛 풀밭 가득 별들이 내려앉은 듯하다. '개민들레' 라 부르는 서양금혼초 사이사이로 솜방망이, 양지꽃, 씀바귀 등이 피워내는 꽃들이 황금빛 수를 놓는가 하면, 어떤 곳은 토끼풀이 뭉텅뭉텅 피워내는 꽃들로 하얗게 빛나고, 엉겅퀴나 할미꽃, 봄구슬붕이는 수줍은 보라색 꽃으로 풀밭을 밝힌다.

오름 동쪽 자락에 올라 남동쪽 바깥 사면을 보면, 돌담으로 둘러싸인 무덤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북사면에는 서어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 등이 울창하다.

다랑쉬오름

다랑쉬오름은 '오름의 여왕' 이라 일컬어진다. 이 오름이 지닌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산세는 누가 보더라도 오름의 여왕답구나 느끼게 한다. 게다가 이 오름은 제주의 분석구를 대표할 만큼 그 원형을 깔끔하게 간직하고 있다. 분석구의 전형을 보존하고 있는 다랑쉬오름은 제주 오름의 화산활동사를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다랑쉬오름

오름은 자체 높이인 비고가 227m로 상당히 높고 분화구의 깊이도 115m로 꽤 깊다. 오름 정상에 오르면 깔때기형의 분화구가 뚜렷하고 사면의 경사도 가팔라 화산폭발 당시의 상황이 저절로 상상된다.

이 오름은 현재 제주의 오름 랜드마크로 선정되어 오름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오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가을 다랑쉬오름에는 억새가 골고루 피어난다. 그 사이사이에 들꽃이 얼굴을 내미는데, 억새에 기생하는 야고로부터 하늘색 솔체꽃, 보랏빛의 쑥부쟁이, 섬잔대, 쥐손이풀, 우유빛의 물매화, 그 밖에 쉽게 볼 수 없는 절굿대, 꽃며느리밥풀 등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한다.

오름 기슭에 아픈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4 · 3유적지가 있다.

용눈이오름

용눈이오름

구불구불한 능선이 용이 누워 있는 모습을 닮았다는 오름이다. 오르는 길이 평탄하고 부드러워 30분 남짓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볼거리가 많아 오래 머물게 되는 오름이다.

정상에 동서로 길게 이어지며 파인 세 쌍둥이 분화구 모습이 압권이다. 분화구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며 형성된 것은 화산 폭발 당시 화구가 옆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용눈이오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다.

봄이면 민들레, 양지꽃, 미나리아재비, 가락지나물, 괭이밥, 솜방망이 등 노랑색 꽃들과 노루귀, 자주괴불주머니, 살갈퀴, 제비꽃, 각시붓꽃, 할미꽃 등의 자줏빛 꽃들이 널리 피어나 눈을 유혹한다. 여름에는 여뀌, 패랭이꽃, 나비나물, 활나물 등이 꽃을 피운다. 아무래도 들꽃이 환상적일 때는 가을이다. 꽃향유를 비롯해 이질풀과 쥐손이풀, 자주쓴풀과 용담, 익모초와 송장풀, 산국과 쑥부쟁이, 잔대와 물매화에 이르러 이 오름의 들꽃잔치는 절정을 맞는다.

겨울의 설경도 오름의 매력을 도드라지게 한다. 분화구의 바닥은 겨울철에도 초록으로 물들어 있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따라비오름

아담한 세 쌍둥이 분화구가 어우러져 유려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따라비오름은 억새가 은빛 물결을 이루는 가을에 특히 더 아름다운 오름이다. 부드러운 능선에 피어난 억새의 하늘거림이 일품이다. 비가 쏟아지고 난 뒤, 안개 속 분화구에 물이 고인 모습도 환상적이다.

이 오름은 남서 사면에 형성된 말굽형 분화구가 폭발한 뒤에 화구 이동으로 세쌍둥이 분화구가 연이어 폭발하면서 이루어졌다. 동북쪽으로 이어진 봉우리들도 분화구의 흔적들이다.

오름의 분화구 주변에 딸려 있는 아담한 분화구를 제주사람들은 알오름이라고 부른다. 오름이 알을 깐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리라. 실제로 이런 알오름들은 화산 폭발 당시 분화구 주변에서 강력한 용암

따라비오름

폭발에 의해 화산 불기둥이 위치하고 있던 자리의 흔적이다. 따라비오름 북동쪽으로 이어진 알오름 역시 이런 불기둥의 흔적들이다. 때문에 오름은 완만하지만 6개의 봉우리로 보인다.

'따라비' 라는 이름은 학술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민간에서는 '땅의 할아버지' 라는 뜻으로 풀이해 주변에 있는 '모지오름' 을 어머니에, '장자오름' 을 큰아들에, '손지오름' 과 '새끼오름' 을 손자 등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주변에 오름 대가족이 모여 살고 있는 셈이다.

산굼부리

'굼부리' 는 분화구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더불어 '산굼부리' 는 '분화구만으로 되어 있는 산'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산굼부리는 지표면에서 정상까지의 높이는 20~30m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분화구는 200여m나 땅 속으로 푹 꺼져 있다. 이름 그대로 분화구만으로 되어 있는 화산체다. 마르형 분화구의 전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분화구 안은 자연 상태의 습지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총 450분류군의 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식재한 것을 제외하면 442군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목본 90분류군과 상록수 17분류군, 초본 318분류군과 만경류 34분류군으로 제주도 식물 1,800여 종의 4분의 1에 해당되어 지형지질학적 측면에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식물의 보고임을 알리고 있다.

산굼부리

붉은오름

제주에는 붉은오름이라고 이름 붙여진 오름이 몇 개 있다. 이들은 모두 오름을 구성하고 있는 스코리아의 붉은 색 때문에 이름 지어진 것들이다. 그 붉은 돌을 제주사람들은 '송이' 라고 부른다. 이 오름 역시 산체가 송이로 이루어졌다. 예전에는 송이의 붉은 색이 드러나 있었겠지만 지금은 울창한 수림으로 덮여 있다.

붉은오름에서는 송이와 함께 화산탄들이 흔히 관찰된다. 대규모로 형성된 분화구는 완벽한 원형을 갖추고 있다. 예전에는 분화구 바닥에 습지가 형성돼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말라 있다. 그 안으로 보리수나무, 꾸지뽕나무, 가막살나무 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오름 둘레와 바깥 기슭은 삼나무와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능선과 안쪽 사면에는 자연림이 우거져 있다. 때죽나무, 서어나무, 산딸나무를 주종으로 굴피나무, 곰의말채, 팥배나무, 사람주나무, 참식나무와 생달나무 등이 어울려 자란다. 붉은오름의 이 같은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휴양림이 조성되고 있다.

새별오름

새별오름은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갖는 곡선미가 매력적이다. 최고봉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미끄러지듯 쓸려 내려간 남면의 곡선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진다. 반면, 북쪽 봉우리로 가는 능선을 두고 좌우로 우묵하게 들어간 뒤 펼쳐지는 곡선에서는 세밀함과 부드러움이 배어난다.

새별오름은 서쪽 사면에 넓게 휘돌아나간 말굽형 화구와 북쪽 사면에 소형의 말굽형 화구를 지니고 있다. 1차 화산폭발에 의해 동쪽 작은 봉우리의 외륜이 형성되었다가 다시 중앙부에서 화산이 터져 지금의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오름 하류로 이어진 드넓은 초원지대에 빌레못동굴이 위치하고 있다.

새별오름은 해마다 열리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로 유명한 오름이기도 하다.

녹고뫼(노꼬메)오름

녹고뫼오름은 제주 오름의 다양한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주오름의 랜드마크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오름이다.

평지와 경사, 하늘이 보이지 않는 숲터널과 시야가 확 트인 억새 숲길 등 다양한 난이도와 경관으로 '리틀 한라산' 의 맛을 선사한다. 이 오름은 표고가 834m, 오름 자체의 높이만 해도 234m로 이곳부터가 한라산 속살

녹고뫼오름

이라고 할 만하다. 북동쪽으로 이웃해 있는 오름은 녹고뫼작은오름이라 부른다.

녹고뫼오름은 분화구로부터 용암, 송이, 화산재가 동시에 분출되었는데, 다른 오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용암을 분출하면서 애월곶자왈을 만든 오름이다. 녹고뫼오름의 말굽형 분화구 전면에 형성된 애월곶자왈은 이곳 오름에서 발원하여 지형경사를 따라 9㎞를 흘러 금산공원까지 도달한다.

녹고뫼오름 일대에는 노루, 제주족제비, 오소리 등의 포유류와 참매, 황조롱이, 직박구리, 박새, 오목눈이, 쏙독새, 어치, 곤줄박이, 휘파람새 등의 조류, 쇠살모사, 유혈목이, 산개구리, 줄장지뱀 등의 파충류가 서식한다. 식생 또한 풍성해 122과 469종의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오름

풍만한 오름 사면의 풀밭을 오르는 맛이 일품인 오름이다. 이 오름은 보는 방향에 따라 원뿔형으로도 보이고 말굽형으로도 보인다. 오름 정상에 오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정상에는 완벽한 원형의 분화구가 남아 있다. 당오름은 먼저 말굽형 분화구가 형성되고 난 뒤 원형 분화구가 형성된 오름인 것이다.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중산간지대의 드넓은 목장 초지가 가슴을 탁 트이게 해준다,

예전에는 이곳에 당이 있어서 당오름이라 부른다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오름에서 가까운 삼밭구석 마을의 본향당이었을 터인데, 마을 자체가 4·3 때 불에 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북쪽 정상부에는 일제강점기 때 뚫린 진지동굴 5~6개의 흔적이 남아있어, 이래저래 아픈 제주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았을 당오름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세미소오름

세미소오름은 오름에 샘이 있어 이름 붙여진 오름이다. 분화구 안에 물 고인 못이 형성돼 있다.

세미소오름은 응회환으로 분류되는 수성화산이다. 오름 근처에 대형 응회환으로 이루어진 누운오름이 있다. 세미소오름은 이 누운오름과 연관된 화산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세미소오름 주변은 해발 350m 정도의 중산간지대 드넓은 화산평지다. 화산활동 당시에 이곳에는 넓은 습지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세미소오름은 습지화 된 분화구 호수에 천주교에서 '새미 은총의 동산' 으로 조성해 성소로 활용하고 있다. 원래 못이 있던 자리를 정비해 큰 연못을 조성하고 묵주기도처로, 봉우리로 오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로 조성해 많은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저지오름

저지오름은 멀리서 보면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다가가 만날수록 놀라움을 안겨주는 오름이다. 우선 2007년

전국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선정될 만큼 빼어난 숲길을 자랑한다. 정상의 전망대에 오르면 가슴이 탁 트인다. 제주 서부지역의 경관이 사방팔방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분화구다. 깊이 62m, 직경 255m, 둘레 800m 규모의 분화구를 지니고 있는데, 그 안은 나무와 덤불로 우거져 있다. 저지오름은 분화구 형태가 완전하게 남아 있는 화산체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 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260개의 가파른 계단이 설치돼 있다.

송악산

송악산은 5,000년 전쯤에 일어난 제주섬의 마지막 수성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오름이다. 화산체가 매우 독특하다. 1차 수중폭발로 넓은 분화구를 갖는 응회환이 형성된 뒤, 화산활동이 육상으로 옮겨져 분화구 속 분화구를 가진 화산체이다. 직경 500m의 응회암 외륜 속에 송이로 이루어진 분화구가 69m의 아찔한 깊이로 움푹 파여 있다. 송이 분화구는 지금이라도 다시 불끈 터져 오를 것처럼 생생한 모습이다.

송악산

송악산은 제주섬 해안에 분포된 수성화산 산지 가운데 분출 당시의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발자국과 새 발자국 화석이 산출되어 화산지질학과 고생물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꼽히는 오름이다.

송악산 응회환 퇴적층을 살펴볼 수 있는 해안단애의 절벽 아래에는 바다를 향해 뚫려 있는 동굴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군들이 제주도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만들어놓은 군사시설이다. 이곳에 15개의 동굴진지가 설치됐었다.

성산일출봉

제주도 동쪽 끝에 자리한 성산일출봉은, 그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예로부터 해 뜨는 오름이자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세를 타온 곳이다.

성산일출봉은 5,000년 전, 얕은 수심의 해저에서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이다. 높이 182m, 분화구 직경이 600m, 지층의 경사각은 최대 45도, 분화구 바닥은 해발고도 90m로 전형적인 응회구의 형태를 지

성산일출봉

니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성산일출봉과 유사한 수성화산들이 많이 있지만, 성산일출봉처럼 응회구의 지형을 잘 간직하고 있고 해안절벽을 따라 다양한 내부구조를 훌륭히 보여주는 응회구는 드물다.

그런가하면 이곳에는 83과 187속 226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운데는 고란초 등 8종의 희귀식물과 돌토끼고사리 등 9종의 식물종이 있으며, 환경부 법정보호 식물인 풍란도 자라고 있다.

성산일출봉은 천연기념물 제42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지구이자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이기도 하다.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지구에 포함된 오름이다. 이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해안까지 흘러가면서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라는 아름다운 용암동굴무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더 신비로운 이 오름은 화산활동의 생생한 자취와 함께 풍성한 생태환경을 자랑한다. 상록수림, 낙엽활엽수림, 관목림과 양치식물 군락, 삼나무와 곰솔 조림, 초지대 등 다양한 식생구조를 지니고 있어 텃새와 철새를 비롯해 노루, 오소리와 같은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숯을 굽던 가마터,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유적, 4 · 3유적 등도 살펴볼 수 있다.

거문오름

수월봉

수월이와 녹고 남매의 애틋한 전설을 지닌 오름이다. 아파 누운 홀어머니가 온갖 약을 써 봐도 효험이 없자, 남매는 근심으로 날을 보내다 지나가는 스님에게서 처방을 듣는다. 힘을 얻은 남매는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구하려 다녔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 약초를 찾아 헤매다 수월봉 절벽 중간에 나 있는 걸 발견한다. 남매가 손을 잡고 절벽에 매달려 약초를 캐어 건네는 순간, 수월이가 손을 놓치는 바람에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만다. 누이를 부르며 한없이 울던 녹고의 눈물이 바위 속으로 흘러 '노꼬물'이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다.

수월봉의 탄낭

수월봉은 수성화산으로 이루어진 응회환이다. 화성쇄설층의 두께는 약 70m이며, 가장자리로 가면서 점차 얇아진다. 수월봉 절벽에서는 다양한 퇴적구조가 관찰되며 특히 매우 큰 현무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각력암층이 특징적이다. 탄낭구조를

지닌 화산각력암, 괴상의 화산력 응회암, 층상 또는 파동상의 응회암, 거대연흔 사층리를 지닌 응회암과 판상층이 응회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월봉 화성쇄설층은 화쇄난류의 퇴적모델로 받아들여져 해외의 여러 화산지질학 교과서에 대표적인 표식지로 소개되고 있다. 수월봉 응회암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 19,000년 전인 마지막 빙하 최성기에 분출한 화산임이 알려졌다. 이러한 학술적 가치와 중요성 때문에 200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정물오름

정물샘이 있어 정물오름이라 한다.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하며, 표고 466m, 비고 151m로 북서쪽으로 넓게 벌어진 말굽형 화구이다. 오름 남동쪽으로 당오름과 이웃해 있으며 두 오름 사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계가 된다. 가파른 원추형의 남사면을 등으로 하고 북사면은 나직이 우묵지면서 두 팔을 벌린 형태이다.

오름 서쪽 기슭에 비껴서 화구앞 쪽으로 알오름이 있는데 이를 '정물알오름' 이라 한다. 화구 안사면 기슭에는 예전에 식수로 이용했던 정물샘(쌍둥샘 즉, 안경샘)이 있고, 우마용 샘이 여럿 있다. 정물오름은 주로 풀밭과 초지로 이루어져 있고, 해송, 삼나무가 듬성듬성 식생하고 북서 사면 정상부에는 일부 윤노리나무 등이 있다. 이시돌목장을 끼고 있는 정물오름은 평화로를 따라가다 블랙스톤골프장 사잇길로 들어서면 당오름 다음 정물오름이 나타난다.

별도봉

제주시 화북동 북측 해안지대에 자리한 별도봉은 봉우리가 험준한 벼랑을 형성하고 있다. 표고 136m, 비고 92m로 원추형 오름인 별도봉은 서쪽의 사라봉과 사면이 마주보며 같은 능선으로 연결되고 있다. 사라봉과 이어진 사면과 해안절벽을 따르며 해안절경을 볼 수 있어 시민들의 산책로로 유명하다.

이달오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위치한 이달오름은 북쪽에 이웃한 이달이촛대봉과 함께 원추형의 쌍둥이 화산체이다. 이달이촛대봉 정상부에는 용암유출 흔적인 화산암이 노출되어 있다. 이달오름은 전체적으로 풀밭을 이루고 있고, 군데군데 소나무와 삼나무 숲길이 이어진다. 촛대봉 남쪽 벼랑 밑으로는 찔레나무, 꽝꽝나무, 사스레피나무 등 활엽수림이 우거져 있다.

이달오름의 '달' 은 '높다' 또는 '산' 의 의미로, 이달→이달이→이달오름의 변화는 이달촛대봉과 함께 있는 '2개의 산' 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달오름에 오르면 남쪽으로는 한라산과 북도라진오름 등이, 북쪽으로는 비양도와 여러 오름들이 눈에 들어온다.

섶섬, 문섬, 범섬

12

섬 속에 섬을 지닌 섬

제주는 63개의 크고 작은 부속 섬을 거느리고 있다. 제주 본섬 주변 해역의 21개 섬과 추자군도의 42개의 섬이 그것이다.

제주 본섬 주변 바다의 섬들은 제주 화산활동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추자군도의 맥은 한반도 남해안에 닿아 있다. 추자군도의 섬들은 한반도 남해안의 섬들처럼 8,4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세월 동안의 지질구조적인 운동과 풍화작용으로 빚어졌다. 제주도의 화산활동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추자도는 이미 존재해 있었던 것이다.

제주 본섬 주변 바다에서는 어떤 섬이 가장 먼저 생겨났을까? 서귀포 앞바다에 자리한 범섬, 문섬, 섶섬이다.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섬들은 산방산조면암과 함께 제주도 화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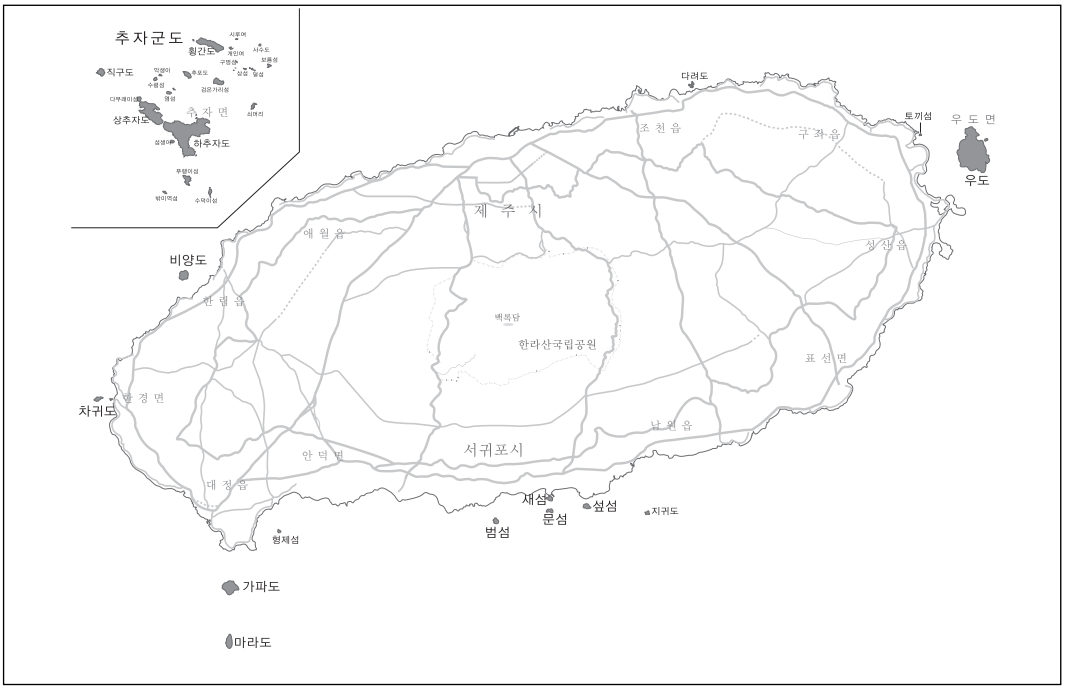
초기인 80만 년 전쯤에 형성되었다. 현무암질조면안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파도 역시 산방산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되었다.

제주가 거느리고 있는 섬들 가운데 유인도는 제주 주변 바다의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4개의 섬과 추자군도의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등 4개의 섬이다.

제주 본섬 주변 바다 4개의 섬이 유인도가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 우도와 가파도에는 사람이 살기 이전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먼저 들어서 있었다. 주민들 삶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가파도는 1842년, 우도는 1844년, 비양도는 1876년, 마라도는 1884년이다. 이처럼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목장 관리를 위해 또는 수산물 채취를 위해 그 이전부터 드나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사람들은 실재의 섬이 아닌 상상 속의 섬 '이어도'를 가슴에 품고 살기도 했다. 제주민요에 등장하는 섬 이어도는 제주 남쪽 바다 어딘가에 있는데, 연꽃이 만발한 저승이어서 일단 그 곳에 가면 돌아올 수 없지만 근심걱정을 잊을 수 있는 곳으로 그려진다. 해녀노래에서는 미역과 전복이 풍부한 섬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척박한 화산 땅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옛 제주사람들에게 이어도는 이상향이었다. 현실의 고난과 좌절을 이겨내기 위해, 현세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상을 제주 남쪽 바다 어딘가에 있을 이어도를 통해 그리고 있는 것이다.

섬 속의 섬 만나기



범섬

범섬은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큰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었다. 80여m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조면암 주상절리와 웅장한 규모의 해식동굴들이 잘 발달해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한다. 그 가운데 '콧구멍' 이라 부르는 해식동굴은 제주섬을 만든 거대한 여신 설문대의 발가락이 닿아 생겼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섬의 서편에 새끼 섬을 달고 있다. 범섬의 암석과 같은 조면암질 용암으로 구성된 새끼섬은 비스듬히 경사진 침식면 상에 드러난 주상절리의 단면이 매우 아름답다.

섬의 정상부는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에 우물이 있다. 과거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던 흔적이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말 원나라의 목자들이 제주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마지막으로 항거했던 곳이기도 하다.

문섬

과거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민둥섬이라는 뜻의 '섬' 에서 음이 변하여 문섬으로 부르게 됐다는 섬이다. 돛단배의 돛을 연상케 하는 새끼섬을 하나 달고 있다. 섬을 구성하고 있는 조면암의 바다와 맞닿는 곳에서 평균 폭 4~5m의 파식대가 섬을 돌아가며 발달되어 있는데, 이 파식대와 더불어 암석 표면에 온갖 무늬를 새기고 있는 풍화혈이 독특한 경관을 자아낸다.

섶섬

조면암의 주상절리가 특히 아름다운 섬이다. 주상절리 암반 아랫부분은 파식대와 함께 암석 표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풍화혈로 거대한 조각 작품을 보는 듯하다.

이 섬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깃들어 있다. 옛날 이 섬에는 용이 되는 게 소원이었던 뱀이 살고 있었다. 제발 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뱀의 정성에 감복한 용왕이 섶섬 앞바다에 숨겨져 있는 구슬을 찾으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했다. 뱀은 백 년 동안이나 온 바다를 뒤졌지만 찾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죽고 말았다. 섶섬 앞바다는 안개가 자주 끼는데 용으로 승천하지 못한 뱀의 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섶섬에는 메밀잣밤나무, 담팔수 등을 포함한 상록활엽수가 우거져 있고 그 아래에서 솔잎난, 지느러미고사리, 손고비, 검정비늘고사리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종류의 식물들이 파초일엽과 같이 자라고 있다. 섶섬이 북방한계지인 파초일엽은 넓고사리라고도 불리는데 화석시대부터 3억5천만 년 가까이 온갖 악조건을 이겨내면서 생명을 이어온 식물이다.

새섬

제주 초가의 지붕을 덮는 풀인 띠를 제주에서는 '새' 라고 하는데, 이 섬에서 바로 그 새가 많이 난다해서 새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서귀포항 앞에 자리해 항구의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 섬 덕분에 서귀포항은 천혜의 요새 같은 형태를 갖게 되었다. 천지연조면안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섬은 상부면이 평탄한 암반 파식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해송이 많이 자란다. 최근에 새연교라는 다리가 설치되어 걸어서 찾아볼 수 있는 섬이 되었다.

차귀도

제주도에서 가장 서쪽에 자리해 있는 섬이다. 차귀도만 있는 게 아니다. 와도와 죽도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섬인 차귀도는 섬을 떠받치고 있는 절벽 위로 평평한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 1911년 2가구가 이 섬에 들어와 살기 시작해 1970년대까지 사람이 거주하기도 했다. 지금도 섬의 중심부에 돌담과 방아 등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차귀도

섬 주위를 돌아가며 바다로 내리지르는 응회암의 경사가 일품이다. 섬의 남측에는 '장군바위' 라 부르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한라산 영실 오백장군 중 막내라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우도

제주 본섬 주변의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이다. 소섬, 이름대로 섬의 모양새가 머리를 들고 누워 있는 소를 닮았다. 소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쇠머리오름이 섬의 남단에 자리하고, 그 외의 지역은 평평한 용암대지를 이루고 있다. 우도의 지질은 현무암을 기반으로 하여 수성화산체인 쇠머리오름으로부터 유출된 용암류와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도에 사람들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것은 1844년쯤부터다. 물론 그 이전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던 것

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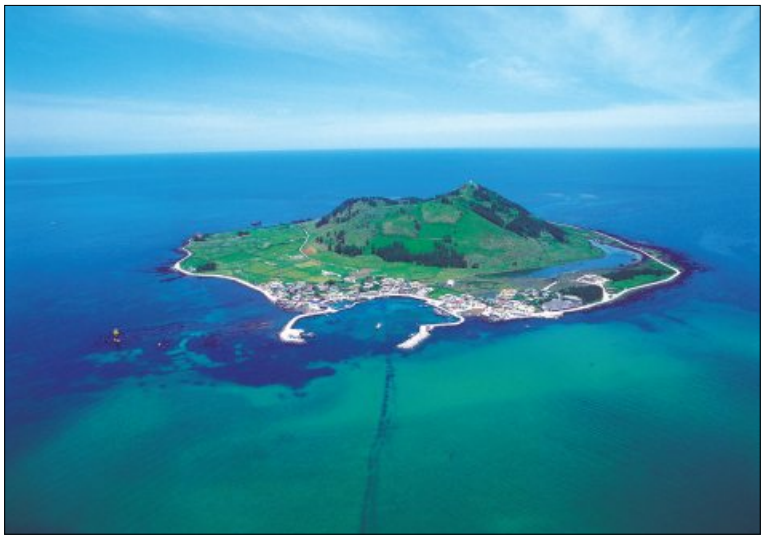
은 아니다. 우도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캐기 위해, 그리고 1697년에 국유목장이 설치되면서부터는 국마를 관리 · 사육하기 위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다.

그보다 훨씬 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있다. 고인돌과 패총 등 곳곳에서 나타나는 선사유적이 그것이다. 선사유적 외에도 갈대화석이 출토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우도는 4개 리, 12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땅콩을 비롯해 전복, 오분자기, 소라, 돌미역, 우뭇가사리, 모자반 등의 특산물과 함께 우도팔경으로 꼽히는 비경, 소라축제, 동굴음악회 등의 볼거리로 관광지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비양도

수석작품 하나가 바다에 떠 있는 듯 어여쁜 모양새를 지닌 비양도(飛揚島). 제 이름 뜻대로라면 '날아온 섬'이다. 흥미로운 설화가 전한다. 옛날, 한 임산부가 이 섬이 먼 바다에서 떠오는 것을 발견했다.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래서 손가락질하며 "아, 저기 섬이 떠온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만 지금의 자리에 딱 멈춰버렸다는 것이다.



비양도

섬 가운데 해발 114m의 비양봉이 솟아 있다. 비양도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오름은 송이로 이루어진 분석구다. 오름 중앙에 분화구가 2개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한국에서 유일한 비양나무 자생지여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분석구뿐만 아니라 해안을 따라 다양한 화산생성물이 분

포돼 있어 섬 전체가 화산박물관 같다.

비양도는 제주 화산활동이 기록된 옛 문헌에 나오는 내용, 곧 고려시대인 1002년 또는 1007년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난 섬이라 전해져 왔다. 이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인 1876년 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 입주하면서부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고려 말 해상방어를 위해 망수(望守)를 배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사람이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섬의 남서쪽 해안단애의 표토층에서 4,000~5,000년 전 시기의 신석기시대 토기 조각 2점이 발굴되기도 했다. 어찌된 일일까?

어쨌거나 2002년에 섬 탄생 1천 년 행사를 거행하기도 했던 비양도에는 현재 70세대에 16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가파도

가파도는 멀리서 보면 얇게 저며져 바다 위에 살짝 얹어놓은 듯 보인다. 배를 타고 좀 더 가까이 가다 보면 파도에 섬이 휩쓸릴 것처럼 느껴진다. 이 섬의 본디 이름은 '더우섬', 파도에 파도가 더해지는 섬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이름 '가파' 역시 더할 가(加)에 물결 파(波)이니, 이래저래 파도와 함께 사는 섬인 셈이다. 상동과 하동 두 개의 마을에 현재 130여 세대 3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가파도

이 섬은 매우 평평한 해안단구가 발달된 지형특성을 지녔다. 섬의 기반이 된 조면암 위를 송이퇴적층과 해빈역암층이 덮고 있다. 이 섬의 해안단구는 과거 간빙기의 해수면 상승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주도에서 대표적인 단구지형이다.

북서쪽 해안에 지름이 5m쯤 되는 둥근 조면안산암이 놓여 있다. 주민들이 '왕돌'이라고 부르는 이 바위에 올라가면 풍랑이 인다고 전해진다. 서쪽의 '물앞'이라고 부르는 해안에는 20~40㎝ 크기의 자갈이 해빈을 이루고 있다. 자갈 표면에 둥근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놀랍게도 조개들이 파놓은 흔적이라니 그저 신기하기만 하다.

제주도의 다른 섬들과 달리 개발의 손길이 크게 닿지 않았던 가파도는 최근 들어 청보리축제가 열리고 올레길이 생기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누구나 가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섬 베스트 10'에 선정되기도 했다.

마라도

마라도는 국토최남단이라는 상징성으로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섬이다. 북쪽에서 보면 한국의 마지막 점이지만 남쪽에서 보면 그 시작점이다.

이 섬은 남북으로 살짝 길쭉한 타원형인데,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형태의 지형을 지녔으며 해안선을 따라 해식애와 해식동굴이 발달해 있다. 특히 동쪽 해안의 높이 34m로 깎아지른 해식애, 서쪽 해안에 밀집해 있는 해식동굴 가운데 '남대문' 이라고 부르는 아치형의 특이한 해식동굴이 눈길을 끈다.

사람이 살기 전, 이 섬은 아름드리나무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이 살려니 농사지을 땅을 마련하려고 숲을 태웠단다. 그 숲이 어찌나 울창했던지 100일이 지나서야 불길이 멎었는데, 그 바람에 이 섬에 살던 뱀들이 꼬리를 물고 바다를 헤엄쳐 제주본섬의 동쪽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마라도에는 뱀과 개구리가 없다.

마라도

이 섬에는 섬사람들을 지켜주는 처녀당이 있는데, 슬픈 설화가 전해진다. 사람이 살지 않던 시절, 모슬포의 해녀들이 이곳에 물질하러 오면서 한 해녀의 어린아이와 그 아기를 돌보는 애기업개 소녀를 함께 데리고 왔다. 물질을 마치고 모슬포로 돌아가야 했는데, 배를 타려 할 때마다 풍랑이 심해져 발이 묶이고 말았다. 그러기를 몇 번, 해녀들은 애기업개를 섬에 두고 가야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는 꿈을 꾸었다. 어쩔 수 없다고 여긴 해녀들은 애기업개만 남기고 떠나버렸다. 배는 무사했지만, 소녀는 울다 지쳐 죽고 말았다. 훗날 마을사람들이 그 자리에 당(堂)을 만들어 소녀의 넋을 위로하는 제를 지냈고, 소녀는 마을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이 되었다.

추자도

제주 본섬과 전라남도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는 추자도는 '제주도의 작은 다도해' 라고 일컬어진다. 상추자, 하추자, 추포, 횡간도 등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 등 모두 42개의 섬들로 이뤄져 있어 '추자군도' 또는 '떼섬' 이라고도 부른다.

행정구역상 제주도에 속해 있지만, 제주도와 추자도는 서로 다른 형성과정을 지니고 있어 그 지형 특성을 비롯한 지질과 경관 자원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언어와 풍속 등 문화도 다르다. 추자도는 1896년에 전라남도 완도군으로 편입됐다가 1910년에 제주도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제주도이면서 언어와 풍속 등은 전라남도 색이 짙은, 그야말로 '색다른 제주' 가 추자도다.

상추자도와 하추자도의 거리는 100여m, 옛날에는 이 두 섬 사이에 가래나무가 우거져 나무를 타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전설에는 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용이 되고자 했던 이무기가 착한 일을 한다며 두 섬을 가까이 끌어당겨 다정히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랬어도 배를 타고 건너다녀야 했는데, 지금은 길이 340m, 폭 8.6m의 다리가 개설돼 두 섬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

하추자도는 상추자도보다 3배 이상 큰 섬이다. 그러나 인구는 426세대 900여 명으로 상추자의 907세대 2,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면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행정편의시설들도 상추자도에 집중돼 있다. 횡간도는 현재 12가구에 20여 명의 주민만이 살고 있지만, 과거 한때는 보리농사와 멸치잡이로 추자 제1의 부자 마을이었다. 추자군도의 유인도 중 가장 작은 추포도에는 현재 3가구에 6명이 살고 있지만, 20여 년 전에 들여온 염소가 엄청 불어나 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추자는 바다낚시의 천국이다. 섬을 둘러싼 모든 갯바위가 낚시 포인트로 사계절 내내 낚시꾼들이 넘쳐난다. 바다낚시와 함께 추자10경으로 대표되는 매혹적인 절경, 트레킹코스인 올레길,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떠오른 추자참굴비 등이 추자도 특산 자랑거리다.

추자도

해안

제주 화산섬, 바다를 만나다

제주섬을 두르고 있는 해안선의 길이는 530.09㎞(육지부 419.99, 도서부 110.10). 그 해안선을 이루고 있는 지형과 암석들은 제주 화산활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맑고 푸른 제주바다와 어우러져 제주섬만의 독특한 풍광을 그려낸다.

제주해안을 한 바퀴 도노라면, 새까만 바위가 매끈하게 또는 거칠게 펼쳐지기도 하고, 절벽으로 또는 돌기둥으로 서서 바다와 얼굴을 맞대기도 하는가 하면, 더러는 물결 따라 자갈거리는 자갈밭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모래밭으로, 신비로운 검은 모래밭으로 펼쳐지기도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경관을 보여준다.

제주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해안은 새까만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해안이다. 현무암 해안은 제주 해안선 길이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엊그제 일어난 일인 듯 용암이 흐른 흔적이 생생하다. 이는 현무암질 용암류가 최근세까지 해안으로 흘러 현재의 해안선을 만들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현무암질 용암은 파호에호에(pahoehoe)와 아아(aa)로 구분되는 두 얼굴에 따라 서로 다른 해안을 만든다. 파호에호에는 표면이 매끈하며 넓게 퍼져 평탄한 암반해안을 만든다. 표면이 뾰족뾰족해 발 딛기 힘들 만큼 거칠고 험한 바위들이 있는 해안은 아아가 만든 것이다. 아아는 두께도 10~20m로 두꺼워 단애 해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경사가 완만한 지형의 일부 해안에는 현무암질 암반 위를 덮고 있는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자갈, 모래, 펄 해안이 펼쳐진다. 이들 해안은 대체로 규모가 작지만 그래서 더 어여쁘다.

자갈 해안은 제주섬의 하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 큰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모래해안은 바다와 바람의 합작품이다. 바다로부터 바람이 날라다 준 해양성 모래가 완만한 해안지형에 쌓여 언덕을 이룬 곳이 더러 있는데, 조개류 껍데기 조각들로 이루어진 하얀 빛 모래해안은 바로 그 모래언덕 앞에 펼쳐져 있다. 검은 빛 모래해안은 인접해 있는 수성화산체의 응회암이 부서져 만들어진 응회암의 부산물 곧 돌가루로 이루어져 있다.

절벽해안은 절경으로 꼽히는 곳이 많다. 송악산, 수월봉, 성산일출봉 일대의 해안에서는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을, 안덕과 서귀포 일대의 해안에서는 조면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을, 남원과 애월 일부 지역에서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을 만나볼 수 있다.

제주 해안선이 발을 담그고 있는 바다 속에는 용암류가 흘러간 모습 그대로 연결돼 있는 곳이 많은데, 제주사람들은 이를 '걸바당' 이라 부른다. 이 걸바당은 용암류가 한창 흐를 무렵에는 이곳이 바다가 아니었음을 전해주고 있다.

제주에는 바다에도 밭이 있다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은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엮은 책이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있는 '밭' 의 뜻풀이는 한결같다. "물을 대지 않고 채소나 곡류를 심어 가꾸는 땅" 이거나 "식물이 저절로 들이박혀서 무성한 땅" 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제주섬 사람들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바닷가나 바다 속에도 밭은 있다고 한다. 미역이 많은 곳을 '미역밭' , 구젱기(구젱이) 곧 소라가 많은 곳을 '구젱기밭' , 자리돔이 많은 곳을 '자리밭' 이라고 한다. 땅에 밭이 있는 만큼 바다에도 밭은 있다는 말이다.

바다밭은 갯바닥의 조건에 따라 나뉘기도 한다. '빌레밭' 은 질펀하게 암반이 깔린 곳이다. 뭍에서건 바다에서건 이와 같은 곳을 '빌레' 라고 한다. 큰 돌멩이들이 깔려 있는 바다밭은 '머흘밭' , 자갈이 수북하게 깔려 있는 곳은 '자갈밭' 이다. '모살밭' 은 모래가 깔린 바다밭이고, 펄과 모래가 뒤섞여 있는 곳은 '펄모살밭' 이다.

바다밭은 또 주변 지형의 모양새에 따라 나뉘기도 한다. 용암이 길게 뻗어나간 모양의 바닷가를 '코지'라고 하고, 그와 반대로 후미진 곳을 '개'라고 한다. '내깍'은 하천의 하류지점을 이르는 말이다. '깍'은 끝의 의미를 갖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내깍은 바닷물과 냇물이 어우러지는 곳이라 좋은 어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뭍의 밭이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라면, 바다밭은 바다를 삶터로 살아가는 갯마을 사람들 공동의 소유물이다. 제주도 바다밭에는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들이 숨어 있다.

돌 그물 두른 바다밭, '원'

바닷가의 생김새가 후미진 곳에 돌담으로 둘러막아 놓고 고기떼들을 가두고 잡는 '원'이 있다. 조천읍 조천리에서부터 구좌읍 하도리까지는 이를 '개'라고 부른다. 원은 한자어 원(垣)에서, 개는 바닷가 후미진 곳이라는 데서 비롯한다.

제주도의 원은 마을의 공동소유물이다.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원도 있고, 돌담으로 에둘러 막아 만들기도 한다. 천연적인 원보다 인공적인 원이 훨씬 많다. 천연적인 원에 가두어진 물고기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러나 인공적인 원은 돌담 보수에 참여한 마을사람들만이 물고기를 잡아낸다.

원

제주도 원의 돌담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는다. 돌담의 모양은 대개 직선형이거나 곡선형이다. 그리고 돌담의 단면은 직삼각형과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삼각형이 더 일손을 탄다.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의 '원담'은 직선형 또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돌담을 만드는데, 그 단면 모양은 거의 직사각형이다. 파도의 영향이 곧바로 미치는 곳의 원담은 곡선형인데, 그 단면은 직삼각형이다.

제주 바다밭이 품은 유형의 문화유산인 원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귀하디귀했던 소금밭

제주는 바다로 둘러싸였으면서도 소금이 귀했다. 소금밭, 즉 염전을 앉히기 어려운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두 가지 종류의 소금밭 곧 빌레소금밭과 모래소금밭이 있었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제염은 빌레소금밭에서만 이루어진다. 판판한 빌레소금밭에서는 함수(鹹水)와 천일염을 만든다. 애월읍 구엄리 염전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움푹한 빌레 소금밭에서는 함수를 만든다. 그 함수를 솥에 달여 소금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빌레소금밭에서만 소금 만들기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기에 한반도로부터 모래소금밭을 도입한다. 제주도에 도입된 모래소금밭의 제염은 도입기, 정착기, 확산기, 소멸기를 거친다.

구엄리 돌염전

도입기는 1498년부터 1702년 전후까지 거의 200년 동안으로 이 시기의 모래소금밭은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소금밭이다. 정착기는 1702년 전후부터 1874년 전후까지 거의 170년 동안이다. 그 시기의 모래소금밭은 한경면 두모리, 대정읍 일과리, 구좌읍 종달리에 있었다. 1874년 전후부터 1930년까지가 확산기인데, 이 시기의 소금밭은 모두 20곳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두 종류의 소금밭이 있었어도 소금은 귀했다. 확산기에 든 1910년 안팎의 시기에도 자급률이 24%에 지나지 않았으니, 제주에서의 소금은 참 오랫동안 귀한 존재였던 셈이다.

소금밭 건설과 생산 확대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1930년부터 소금밭전매법이 발효한 1956년 사이에 제주도의 빌레소금밭과 모래소금밭은 소멸의 길에 들어서고 만다.

함께 가꾸고 나누는 바다밭

화산섬의 바다에는 갈조류의 바다풀이 무성하다. 더불어 이를 먹고 자라는 전복과 소라 따위도 많다. 이것이 제주도 바다밭의 본디 모습이다.

제주도 바다밭은 층위별로 크게 갯가, 걸바다, 걸바위, 펄바다로 나뉜다. 이 바다밭마다 생산되는 해산물과 나눠 갖는 방법이 다르다.

갯가는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곳으로 제주사람들은 이를 또 웃밭, 중간밭, 알밭으로 나눈다. 갯가에는 해조류와 패류와 자란다. 그리고 바람에 밀려온 해조류인 풍조(風藻)도 올라온다. 그 가운데 거름용 해조류와 풍조는 마을사람들 공동의 소유물이다.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일정한 날을 택해 공동으로 채취해 공동으로 분배한다.

걸바다는 썰물 때 드러나는 곳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암반과 돌무더기 그리고 모래가 깔려 있는 바다밭이다. 암반과 돌무더기가 깔려 있는 곳을 '걸바다', 걸바다 위에 모래가 덮여있는 곳을 '모살바다' 라고 한다. 이 모살바다도 걸바다인 셈이다.

걸바다는 마을 공동소유의 바다밭이다. 수산업법상으로 '1종 공동어장' 이다. 걸바다의 해산물 중에서 거름용 해조류, 상품성 해조류 그리고 상품성 패류는 마을 사람들 공동의 소유물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채취한다. 미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마을에서는 미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다가 일정한 날을 택해 채취하도록 한다. 이때 마을의 해녀들은 자유롭게 미역을 따는데, 저마다 따낸 미역은 그것을 딴 개인 소유물이다. 이것이 제주도의 보편적인 바다밭의 소유구조다.

걸바위는 걸바다가 끝나는 지점이고, 펄바다는 걸바위에서부터 수심 100여m까지 개펄이 깔려 있는 바다다. 걸바위와 펄바다는 어느 마을에도 속하지 않은 공유의 해역이다. 너나없이 물고기를 잡는다.

남자들의 바다풀과 여자들의 바다풀

갯가와 걸바다 바다밭에서는 바다풀이 자란다. 제주 해안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바다풀을 따면서 생계를 꾸려간다. 마을사람들은 이곳에서 공동으로 바다풀을 따고 서로 분배한다. 그런데 남자들이 따는 바다풀과 여자들이 따는 바다풀이 다르다.

실겡이와 노랑쟁이는 남자들의 바다풀이다. 목이 가늘고 그 길이는 3m 정도로 길다. 그러니 물 바깥 곧 배 위에서 채취하기 쉽지만 해녀들이 물속으로 잠수해 캐어내기에는 곤란하다. 실겡이는 '솔치(쑤기미)' 의 산란장이다. 솔치는 실겡이에 알을 붙인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실겡이 숲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솔치 알에 쏘이면 그 통증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실겡이 채취를 꺼린다. 그래서 실겡이는 이래저래 남자들의 바다풀이다. 남자들은 배 위에서 아시, 듬북낫, 공쟁이 따위로 따낸다.

미역, 감태, 고지기, 몸, 우뭇가사리, 정각은 여자들의 바다풀이다. 미역, 감태, 고지기는 목이 굵고 길이는 1m 정도다. 그러니 해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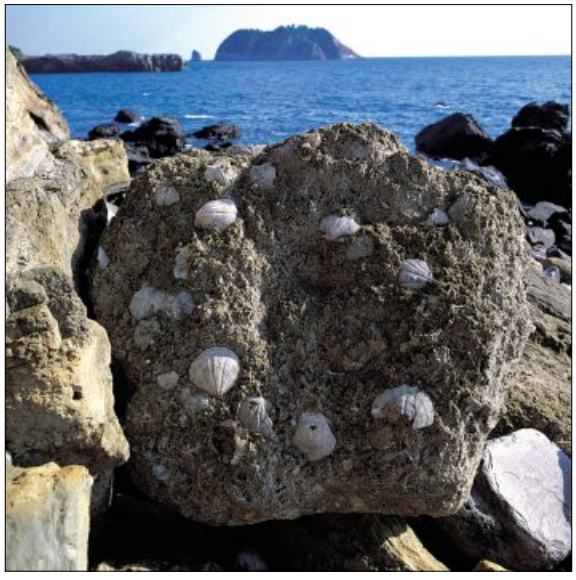
몸이라는 바다풀은 실겡이와 노랑쟁이처럼 목이 가늘고 길이도 길지만 여자들의 바다풀이다. 왜 그럴까. 몸은 1m쯤 자란 여린 걸 따내야 식용이 가능하다. 그러니 해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바다풀을 베어내는 낫인 '정게호미' 로 따낸다. 그리고 우뭇가사리와 정각의 길이는 5㎝ 내외다. 해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맨손으로 따낸다.

남자들이 실겡이와 노랑쟁이를 채취하는 동안 여자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거들어준다. 남자들 역시 여자들이 미역, 감태, 고지기를 따내는 동안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거들어준다.

제주 해안 만나기

서귀포층 패류화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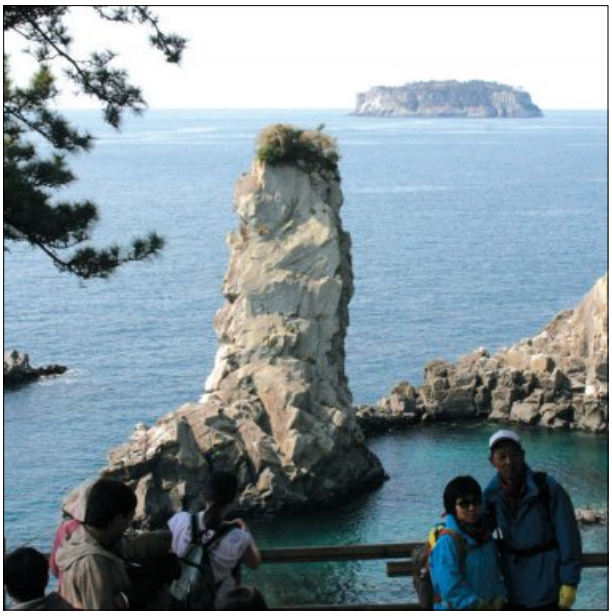
천지연폭포의 남쪽 해안 절벽에 서귀포층 패류화석지가 있다. 서귀포층의 패류화석은 한국에서 화석으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제195호, 1968. 5. 23)로 지정되었다. 서귀포층은 제주가 화산활동을 시작하던 초기에 만들어진 지층으로 제주섬 형성사가 새겨진 매우 중요한 지질자원이다. 신생대 제4기 플라이스토세 초기에 형성된 해양퇴적층으로부터는 연체동물 화석뿐만 아니라 유공충, 개형충, 완족류, 산호, 고래뼈, 상어이빨, 생물흔적화석 등 많은 화석이 산출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유일한 신생대 제4기초의 퇴적층이자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지층이다.



패류화석

외돌개

외돌개는 '바위 하나가 외따로 서 있는 포구'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어부들이 배를 매어두던 작은 포구였던 것이다.


외돌개

언제부턴가 외돌개는 해안 절벽과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서있는 수중 갯바위 자체를 일컫는 이름이 됐다. 이 바위의 높이는 23m, 폭의 상부는 7m, 하부는 10m 정도다. 이 거대한 바위기둥 꼭대기에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어 신기하다. 주변에 해식동굴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내만형 해식애 구조들이 발달된 것으로 보아 외돌개는 파도의 공격 면에 따른 해식동굴의 차별침식으로 만들어진 구조로 추정된다.

옛날 금실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던 할아버지가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하자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기다리던 할머니가 울다 지쳐 바위가 됐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황우지 12동굴

외돌개 동쪽 해안 절벽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왕자갈로 이루어진 해안선이 나온다. 이곳에는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 퇴적된 응회암퇴적층을 따라 일본군들이 파놓은 12개의 해안갱도가 있다. 이 퇴적층은 현무암의 유리질 쇄설물이 수평층리를 이루고 있으며 수성화산 활동 당시에 형성된 퇴적동시성 단층이 발달되어 있다. 이곳 해안에 파여진 굴을 '황우지 열두굴' 이라고 한다. 동쪽의 깎아지른 수직절벽을 바닷가로 타고 넘으면 서귀포층의 상부 노두가 해안선에 노출된 황우지 해안으로 갈 수 있다.

돔베낭골

'돔베' 는 도마를, '낭' 은 나무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예전에 이곳에 도마를 만드는 나무가 많아 '돔베낭골'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주올레 코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는 올레 7코스가 이곳을 지난다.

해안선을 따라 높이 15~20m의 주상절리 단애가 길게 이어진다. 주상절리의 현무암질 용암 표면에는 벌집형태의 매우 큰 기공이 아름다운 형태로 발달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절벽을 따라 해안으로 내려가면 바닷가

쪽으로 넓게 형성된 암반 조간대가 펼쳐져 있다. 썰물 때면 넓게 드러나는 암반 조간대에서 조개 잡는 여인네와 낚시꾼들의 모습이 정겨운 곳이다.

이곳 해안에서 삼매봉 쪽 해안은 높이 40여m의 깎아지른 절벽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급경사의 수직단애로 된 해안이다. 해안단애와 곳곳에 해식동굴이 많이 발달해 있다.

돔베낭골

속골

'속골' 은 사시사철 많은 양의 냇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골짜기다. 그 하류에 지름 1m 크기의 왕자갈이 해안선을 이루고 있다. 왕자갈 해안은 1㎞ 남짓 분포되어 있다. 이곳 해안에서는 다양한 암석들과 화산암층을 만나볼 수 있다. 해안 동쪽 끝 부분에서 해안선 바닥에 패류화석을 포함하는 서귀포층의 노두가 확인된다. 이 층은 500여m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최대 두께 10m인 수성화산 쇄설성 퇴적층도 만나볼 수 있다.

망팟 화산체에서 유래된 이 퇴적층은 서귀포층, 응회암, 현무암의 파편들을 품고 있다. 퇴적층 하부는 풍화가 심한 조면암의 노두가 해안선을 따라 노출되어 있으며 그 상부를 현무암질 용암류가 덮고 있다.

망팟은 바다 속에서 분화한 수성화산이다. 조선시대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망을 보던 둥그런 연대가 복원돼 있다.

지삿개 주상절리대

보는 이마다 감탄을 아끼지 않는 해안이다. 신의 조각품이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주상절리들이 말을 잃게 한다.

서쪽 해안선으로 내려서면 지삿개 주상절리대의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다. 주상절리 절벽이 깎아지른 듯 수직으로 서 있고, 바닷가에서 해수면과 만나는 곳에는 지름 1m의 바위들이 깔려 있다. 주상절리 하부와의 사이에는 해식동굴이 2개 보인다. 동굴 입구는 먹돌 바위들로 채워져 있다.

주상절리 앞바다에는 주상절리가 무너져 만들어진 여들이 서너 개 물속에 잠겼다가 얼굴을 드러내곤 한다.

주상절리는 용암류에 형성되는 기둥모양의 평행한 절리로 고온의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수축작용에 의해 생겨난 '틈' 이다. 위에서 보면 일정한 다각형의 형태를 보이는데 대부분이 6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지삿개

수축점에서 발달하는 안정각이 각 방향으로 120°가 되어야 하므로 생겨난 현상이다.

이곳 주상절리는 최대 높이가 25m에 이르며 상부 층으로 갈수록 주상절리가 소멸되어 사라지고 아아용암류의 클링커로 바뀌는 것이 관찰된다. 이 용암류는 대포동 현무암으로 25만~14만 년 전에 형성된 암석으로 밝혀졌다. 주상절리대 해안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주상절리대 동쪽의 후미진 곳에서 보는 주상절리는 또 다른 묘미를 준다.

갯깍 주상절리대

갯깍 하구에서 동쪽 해안선을 따라 걸어가면 둥글둥글한 까만 먹돌로 이루어진 해안이 200m 정도 이어진다. 다른 해안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이곳 해안의 주상절리대는 높이는 40여m, 바다로 내리지른 수직의 해안단애를 형성하고 있다.

이 해안에서 15m 높이의 웅장한 해식동굴을 만날 수 있다. 제주해안을 따라 형성된 해식동굴 중에서 그 규

갯깍

모와 발달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꼽힌다. 특히 이 동굴은 주상절리 암반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서로 트여 있어 이채롭다.

이곳의 해안단애 중간 부분에는 색달동 바위그늘집자리로 알려진 유적이 있다. 높이 4~5m, 폭 8~9m, 깊이 30여m에 이르는 해식동굴이다. 동굴을 이룬 암석은 조면안산암인데, 바닥에는 두꺼운 퇴적층이 평탄하게 쌓여 있다.

동굴유적지에서 동쪽 해안으로는 40여m 높이의 아주 웅장한 주상절리 해안단애가 이어진다.

이곳 해안은 주상절리를 직접 만져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상절리대 하부에서 해식동굴이 형성되는 과정도 만날 수 있고, 주상절리가 형성된 후 바닷가로 무너져서 해안 암석으로 바뀌는 주상절리의 소멸과정을 시리즈로 만나 볼 수 있는 곳이다.

섭지코지

'코지' 는 쑥 내밀어있는 지형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바다 쪽으로 몸을 쑥 내밀고 있는 섭지코지는 좁은 목으로 뭍과 연결되어 있다. 바람에 의해 퇴적된 모래언덕이 형성됨으로써 뭍과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곳은 그림 같은 언덕과 푸른 바다의 조화가 빼어나 영화나 드라마 배경으로 많이 등장한 곳이기도 하다.

섭지코지의 남쪽 바다에 자리 잡아 그림 같은 언덕은 붉은오름으로 화산체가 파도에 깎여 드러난 송이의 붉

섭지코지

은색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름 서쪽의 해안에서 그 속살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 붉은색과 검은색의 스코리아가 사층리를 이루고 있어 이채롭다. 오름 언덕 위에는 주변 바다를 감시하던 조선시대 연대가 자리하고 있다. 이 협자연대는 원형이 잘 남아있는 연대로 꼽힌다.

붉은오름의 중심은 바다 속에 있다. 그 중심부였던 곳에는 원통형 용암기둥이 우뚝 서서 파도를 만나고 있다. '촛대바위' 또는 '선녀바위' 라고 부르는 높이 23m의 이 바위에는 옛날 용왕의 아들이 이곳에 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보고 반해서 따라 올라가려다 용왕의 노여움을 사 바위로 굳어버렸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남원 큰엉

'엉' 은 바위가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는 지형을 이르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큰엉' 은 제 이름답게 20여m의 높이의 거대한 바위들이 모여 이룬 절벽이 바다와 직접 맞닿아 있다. 이곳의 바위는 바늘 모양의 장석이 많고 감람석 반정을 품은 침상장석감람석현무암이다.

절벽 아래쪽에는 큰 규모의 해식동굴들이 발달해 있고, 용암은 마치 시루떡을 층층이 쌓아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절벽 위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가노라면 바다로 깎아지른 큰엉 해안의 위용과 아름다운 옥빛 바다를 한눈에 담아 볼 수 있다.

산방산과 용머리

산방산은 본디 한라산 봉우리였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 오름이다. 신기하게도 백록담 분화구와 산방산의 둘레가 비슷하고 구성 암석도 비슷해 그럴 듯도 하지만, 산방산은 한라산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인 80만 년 전쯤에 생겨난 오름이다.

산방산은 꿀처럼 점성이 높은 조면암질 용암이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불룩한 형태로 굳으면서 만들어진 용암돔이다. 한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희귀한 화산지형으로 돔의 형태가 종을 닮았다 해서 종상화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벌집 모양의 풍화혈이 온갖 무늬를 만들어놓은 중턱에 '산방굴사' 라 부르는 석굴이 있다. 고려시대 유명한 승려 혜일이 수도하다 입적하는 등 예로부터 수도승들의 도량으로 이용되었다는 굴 속 사찰이다. 굴 내부는 온통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천장에서 맑은 물방울이 사시사철 일정하게 떨어진다. 약수로 이름 높은 이 물은 산방산을 지키는 아름다운 여신 산방덕이가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라는 전설이 내려온다.

산방산은 398m의 높이로 우뚝 솟아있는데다, 해양성 난류가 흐르는 해안에 자리하고 있어 지형적 특성과 기후적 요인에 의해 고유한 생태환경을 지니게 됐다. 특히 제주섬에서 유일하게 섬회양목이 자생하고 환경부 지정 보호식물인 지네발란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등 식물학적인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제 376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산방산과 용머리

산방산의 남쪽에 자리한 용머리는 산방산보다 훨씬 이전에 생겨난 화산체다. 제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수성화산체로, 응회환의 일부만 남아 용이 머리를 들고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개의 지층묶음으로 구성돼 있어 세 개의 화구로부터 분출됐음을 알 수 있다. 분출 도중에 화산체가 무너져 분화구가 막히자 화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분출했던 흔적이다.

흥미로운 설화가 전해진다. 세상을 평정할 인물이 제주섬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중국의 왕이 풍수사 호종단을 보내 혈을 끊어버리라고 했다. 호종단은 산방산 일대를 조사하다가 용머리를 찾아내 꼬리부분과 잔등부분을 칼로 내리쳤다. 그러자 바위에서 검붉은 피가 솟았고 산방산은 신음소리를 내며 울었다는 것이다.

사계해안

사계리 해안은 제주섬을 이루고 있는 자연이 조화롭게 골고루 모여 있는 곳이다. 모래밭을 중심으로 바다와 섬, 기묘한 암석들과 산이 연이어 펼쳐지며 절경을 선사한다.

해안 양쪽 끝에 산방산과 송악산이 해안을 둘러싸듯이 방패처럼 버티고 있어서인지 사계해안은 언제나 조용하고 평온해 안정감을 안겨준다.

해안 앞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가까이에서는 형과 아우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제섬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고, 멀리로는 마라도가 아스라이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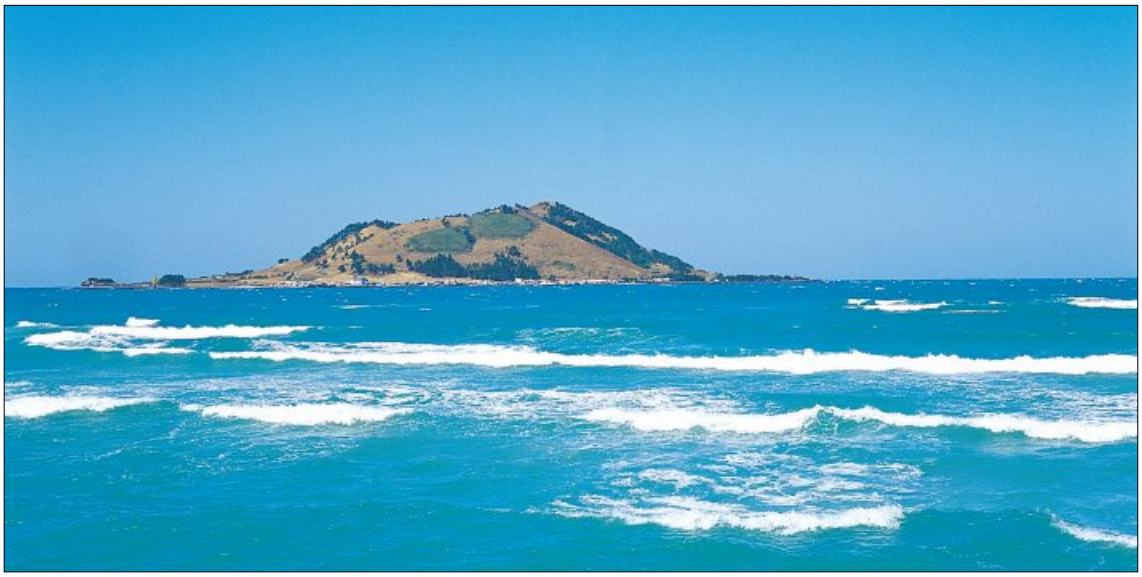
사계해안

자구내포구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자구내포구는 수월봉을 지나면 만날 수 있다. 제주도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자구내포구 끝에 서면 차귀도와 해안절벽이 어우러진 빼어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자구내는 고산평야에서 바다로 흘러내려오는 하천의 이름이다. 자구내포구에서 뱃길로 10분 거리에 차귀도가 있으며, 자구내포구에서 차귀도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쾌속정이 수시로 운항한다. 자구내포구의 절경은 해양수산부가 '아름다운 어촌마을' 로 지정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등대인 도대불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뛰어난 풍광을 배경 삼아 배낚시를 즐기려는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협재해변

협재해변은 에메랄드빛의 투명한 바닷물과 흰 모래가 섞여 길게 이어진 아름다운 백사장을 지니고 있다. 낙조의 경관이 환상적인 이곳 앞바다에는 비양도가 그림같이 떠 있어 섬속의 섬, 바다와 한라산을 조망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얕고 새파란 바닷물 밑으로 비치는 새하얀 모래사장은 비양도까지 걸어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한다.



협재해변에서 바라본 비양도

제주올레 7코스

외돌개를 출발하여 법환포구와 제주풍림리조트를 경유해 월평포구까지 이어진 해안 올레길이다. 외돌개, 황우지해안, 폭풍의 언덕, 동너븐덕 등을 지나 산책로가 있는 돔베낭길을 지나면 속골에 도착한다. 이 구간은 과거 서귀포시민들의 휴식처로 손꼽히는 곳으로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한류관광 1번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곳을 지나면 자연생태길인 '수봉로' 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두머니물~서건도 해안 구간인 '일강정 바당올레' 와 몽돌해안이 있는 '풍림올레교' 로 길은 이어진다. 이어서 악근내가 있는 풍림리조트를 지나면 강정천과 강정포구를 볼 수 있으며, 일강정을 지나면 월평포구에 이른다.

제주올레 9코스

작고 정겨운 대평포구에서 시작해 말이 다니던 '물질' 을 따라 걷노라면 절벽 위의 드넓은 초원인 박수기정이 나온다. 품질 좋은 제주의 조랑말을 박수기정 위에서 키워 물질로 대평포구까지 배에 실어 원나라로 보냈다고 한다. 박수기정은 보리수나무가 우거진 볼레낭길로 이어진다. 월라봉을 오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곳곳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펼쳐 보여준다. 임금님전망대와 자귀나무숲길을 지나면 안덕계곡과 만나게 된다. 제주의 원시모습을 간직한 안덕계곡은 제주의 감춰진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는 비경으로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꼽힌다. 이어서 황개천, 동화동 폭낭을 거쳐 화순금모래해변에 이르는 올레9코스는 길이는 비교적 짧지만 박수기정과 월라봉에 올라야 하는 쉽지 않은 코스다.

당처물동굴

동 굴

용암동굴의 보물섬

동굴은 자연이 만든 천연동굴과 사람이 일부러 파놓은 인공동굴로 나눌 수 있다. 제주섬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뚫려진 진지동굴이 곳곳에 있다.

천연동굴은 또 크게 해식동굴, 석회동굴 그리고 용암동굴로 나눌 수 있다.

해식동굴은 해안절벽을 이룬 암석이 파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깎여 들여가면서 생긴 동굴이다. 제주섬 가파른 해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현재 30여 개의 해식동굴이 있다.

석회동굴은 석회암지대에서 틈을 따라 지하로 스며든 물이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염 성분을 녹이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동굴로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계속 밟게 된다. 한반도 육상에 형성된 천연동굴은 대부분 석회동굴이다. 제주섬에 석회동굴은 없다.

용암동굴은 이름 그대로 화산활동으로 분출한 뜨거운 용암이 흐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용암동굴은 용암이 흐르다 굳으면 그 자체로 동굴형성이 완료된다.

제주섬의 지세는 멀리서 보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지역은 급하고 험준한 데 비해 서쪽과 동쪽 지역은 완만하다. 남쪽과 북쪽 지역은 용암동굴 발달이 미약하지만, 동쪽과 서쪽 지역은 한라산 허리께에서 해안가에 이르기까지 용암동굴이 발달해 있다. 특히 동북지역과 서북지역에 제주도의 용암동굴을 대표하는 동굴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화산활동으로 인해 분출된 용암이 현무암질이어서 낮은 지대인 해안가까지 거침없이 그리고 힘차게 내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에는 수많은 용암동굴이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도 140여 개, 이 섬의 지하에 얼마나 더 많은 용암동굴이 숨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제주는 용암동굴의 천국인 것이다.

그렇다면 용암동굴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분화구에서 분출한 뜨거운 용암은 땅 위에서 내를 이루며 경사를 흘러 내려간다. 바깥 공기와 만난 용암천의 표면은 양쪽 가장자리부터 굳어지면서 용암지붕이 만들어지고, 용암천의 줄기는 고온을 유지하면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 내려간다. 이윽고 분화구에서 용암 공급이 멈춰지고 내부의 용암이 다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빈 공간 길이 생긴다. 이른바 용암동굴의 탄생이다.

이렇게 용암동굴이 탄생하려면 몇 가지 물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용암의 양이 많아야 한다. 그 용암은 고온을 유지하고 점성도가 낮아야 한다. 그래야 지표면을 따라 멀리 흘러내려 갈 수 있다. 주로 현무암질 용암이 해당된다. 그리고 지표면의 기반은 어느 정도 경사진 완만한 평면을 이루고 있거나, 긴 평면을 지닌 골짜기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제주섬의 용암동굴들은 30만~10만 년 전 유동성이 크고 점성도가 낮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신선한 데다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세계적으로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동굴이 많다. 제주도를 용암동굴의 보물섬이라고 일컫는 이유다.

용암동굴의 모든 것을 지닌 종합전시장

제주의 용암동굴은 그 수가 많기도 하지만, 규모도 형태도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용암동굴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징들, 곧 미지형(微地形)과 동굴생성물들을 아낌없이 지니고 있다.

용암동굴 미지형은 동굴 내부로 뜨거운 용암이 계속 흐르면서 만드는 독특한 형태의 소규모 지형들이다. 동굴 입구를 비롯하여 용암선반, 밧줄구조, 용암석주, 용암주석, 튜브-인-튜브(동굴 속의 동굴), 용암교, 용암유선 등이 그것이다.

용암 동굴생성물은 뜨거운 용암이 흘러가면서 천장이나 벽, 바닥에 만들어진 갖가지 모양의 고형체들이다. 용암종유, 용암석순, 용암곡석, 용암표석(용암구), 용암기포, 용암산호 등이 있다.

용암선반은 동굴 내부를 흘러가던 뜨거운 용암이 벽면에 달라붙거나 벽면이 열침식작용을 받아 녹아 깎여 나가면서 선반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밧줄구조(또는 새끼줄구조)는 먼저 식어가던 용암의 표면이 뒤를 이어 흐르는 용암에 의해 유동방향이 밧줄처럼 휘어진 구조를 일컫는다.

용암석주는 동굴 천장에 형성된 용암종유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바닥의 용암석순과 연결되어 기둥모양의 석주를 형성한 것이다. 또한 천장에서 공급된 용암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바닥과 붙어 기둥모양으로 굳어지기도 한다.

만장굴

용암주석은 내부를 흘러가던 한 갈래의 용암이 장애물을 만나 두 갈래로 나눠진 상태로 흐르다가 다시 한 갈래로 만나 기둥모양으로 형성된 것이다.

튜브-인-튜브는 일단 동굴이 만들어진 후 다시 동굴 속으로 용암이 흘러갈 때, 흐르던 용암의 표면이 먼저 굳고 내부의 용암이 다시 흐르면서 생기는 동굴 속의 동굴을 말한다.

용암교는 동굴 내부에 마치 다리가 세워진 것처럼 양쪽 벽면을 가로지르며 걸쳐 있는 형태의 지형이다.

용암유선은 용암이 내부를 흘러갈 때 용암의 높이가 줄어들면서 벽면에는 용암이 흐르던 자국이 생기게 되는데 대개는 줄무늬 구조를 이룬다.

용암종유는 용암이 내부를 지날 때 뜨거운 용암 열에 의해 천장의 용암이 부분적으로 녹아내리다 공중에서 굳어진 것으로 용암종유석이라고도 한다. 둥글고 긴 관 모양은 용암종유관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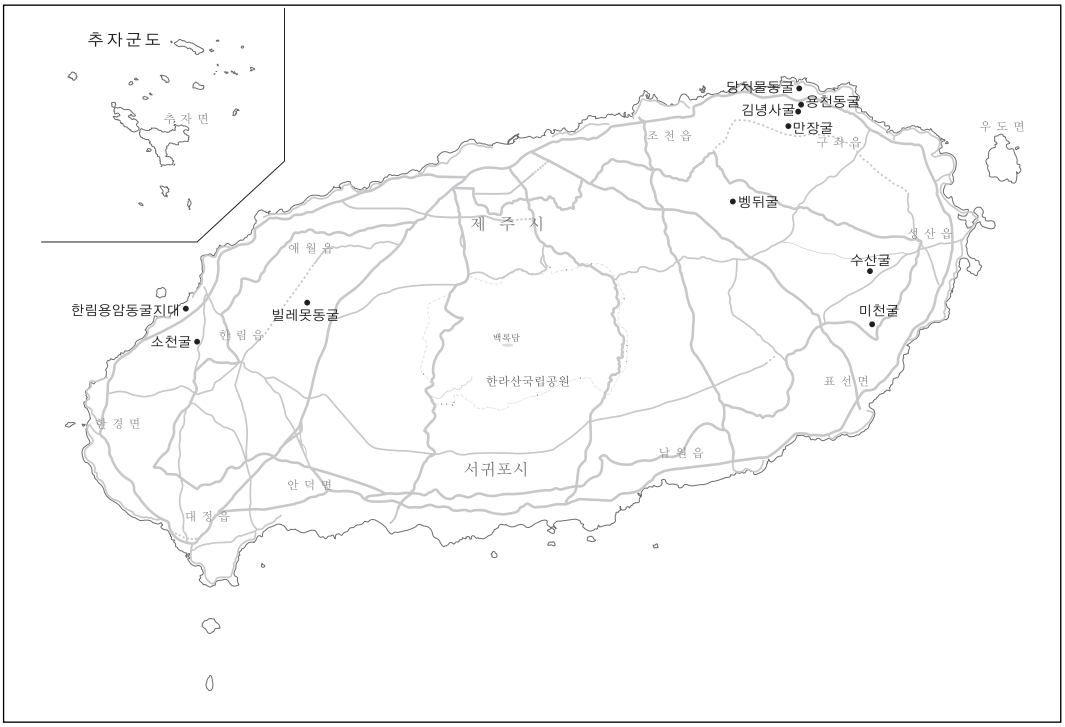
용암석순은 내부에 용암이 지나갈 때 천장이나 벽면에서 먼저 굳어진 용암이 녹아 방울방울 떨어져 바닥에 죽순모양으로 쌓인 것이다.

용암곡석은 용암종유관이 마치 치약을 짜낸 것처럼 꼬불꼬불한 모양을 이룬 것이다.

용암표석은 내부에 용암이 흐를 때 천장에서 이미 굳어진 용암표면이 흐르는 용암 속에 떨어져 떠내려가다가 흐르는 용암과 함께 굳어진 것이다.

제주섬의 용암동굴은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용암동굴의 종합전시장인 셈이다.

용암동굴 만나기



제주는 용암동굴의 보물섬답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암동굴이 11개나 된다. 그 가운데 제주도 동북지역에 위치한 단성화산체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류가 지표의 경사면을 따라 해안가까지 가 닿으면서 형성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에 속한 5개 동굴은 세계자연유산이다.

제주섬의 용암동굴을 직접 만나보기는 쉽지 않다. 일반에 공개된 동굴이 단 4곳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동굴들은 탐방객들의 안전도 우려스럽지만 무엇보다 동굴생성물이 파괴되고 훼손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꽁꽁 숨겨두고 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가운데 공개된 동굴은 만장굴 1㎞ 구간뿐이다. 이 밖에 공개된 동굴은 제주도의 서북부

미천굴

지역에 자리한 협재굴과 쌍용굴, 동부지역에 자리한 미천굴이 있다.

김녕굴

김녕굴은 제주에서 가장 먼저 관광용 동굴로 개방했던 곳이자, 한국의 모든 동굴 가운데 가장 처음 천연기념물(제 98호, 1962년 12월)로 지정된 동굴이다.

김녕사굴(金寧蛇窟)이라고도 부른다. 동굴 형태가 마치 대형 뱀이 살아서 꿈틀거리듯 구불구불하게 뻗어나가는 S자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양 때문인지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이 굴 안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해마다 어린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온갖 변괴를 부려 흉년이 들게 하며 주민들을 괴롭혀왔는데, 조선시대 제주에 판관으로 부임해온 서린이라는 19세 젊은이가 물리쳐줬다는 것이다. 김녕굴 입구에 제주판관서린공사적비(濟州判官徐燐公事蹟碑)가 세워져 있어 사굴의 전설을 그럴듯하게 전하고 있다.

만장굴

김녕굴 바로 인근에 위치한 만장굴은 1970년 3월 김녕굴에 편입되는 형태로 김녕굴과 똑같이 천연기념물 제 98호로 지정되었다.

만장굴

만장굴의 길이는 용암의 유출방향을 따라 해안가 쪽으로 구불구불하게 형성된 웅장한 규모의 주 동굴 길이 5.3㎞에다 상층굴과 하층굴 구간을 합쳐 총 7.4㎞이다. 최대 폭 18m, 최대 높이 23m이며 구간에 따라 2층 또는 3층의 상층굴과 하층굴 등 다층구조가 발달해 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동굴로서 세계적으로도 대형 동굴에 속한다. 동굴 내부의 구조와 형태, 동굴의 미지형과 동굴 생성물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보존상태 역시 매우 양호해 학술적 가치는 물론 경관적 가치도 매우 높은 동굴로 평가 받고 있다.

만장굴은 천장 세 곳이 무너지면서 3개의 입구가 형성되었는데, 현재 제 2입구에서 용암석주까지 1㎞ 구간만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동굴 내부는 연중 15~16℃ 안팎을 유지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탐방객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만장굴의 공개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동굴의 웅장한 규모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동굴미지형과 동굴생성물을 만나볼 수 있다.

동굴 양쪽 벽면에서 펄펄 끓는 시뻘건 용암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줄무늬는 용암유선이다. 벽면에 달라붙어 선반이나 탁자모양으로 홈을 이루며 튀어나온 것은 용암선반이다. 만장굴의 명물 거북바위는 동굴이 만들어진 뒤 용암이 다시 흐를 때 뜨거운 열에 의해 천장이나 벽에서 떨어진 용암덩어리가 용암과 함께 흐르다가 용암의 양이 줄거나 속도가 느려지자 현재 장소에서 그대로 식어 굳어버린 용암표석이다. 상어이빨과 고드름 모양을 하고 있는 용암종유는 주로 천장 높이가 낮은 좁은 동굴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용암이 흐를 때 표면이 먼저 굳으면서 밀려서 생긴 밧줄구조도 볼 수 있고, 용암이 흐를 때 먼저 굳어진 용암 표면의 틈을 따라 내부에 있던 용암이 빠져 나온 형태인 용암발가락도 눈길을 끈다.

압권은 높이 7.6m로 위용을 뽐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용암석주다. 이는 동굴이 만들어진 뒤 지표를 흐르던 용암이 천장 틈에서 동굴 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돌기둥 모양으로 굳어진 동굴생성물이다.

국내 최대의 긴날개박쥐 서식지이기도 한 만장굴에는 60여 종의 동굴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당처물동굴

당처물동굴은 1996년 12월 천연기념물 제364호로 지정되었다.

길이는 110m로 짧고, 천장 높이 0.3~2.7m, 동굴 폭 5.5~18.4m 등 단순한 구조를 가진 동굴이다. 그러나 동굴 내부는 탄산염 성분이 수천 년에 걸쳐 침전돼 쌓인 석회장식 동굴생성물로 갖가지 특이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놀라운 동굴이다.

용암동굴이면서 내부는 석회동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세계 동굴전문가들의 평가다.

동굴지대 위는 하얀 모래언덕이 이루어져 있다. 해안으로부터 조개류 껍데기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진 흰 모래가 바람에 날아와 오랜 기간 동안 사구 퇴적층을 이룬 것이다. 빗물에 녹은 모래의 탄산염 성분이 동굴 틈을 타고 스며들어 동굴 안으로 한 방울, 한 방울 쌓이게 된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용암동굴에는 석회동굴에서 나타나는 탄산염동굴생성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용천동굴

용천동굴은 2006년 2월 경관적, 학술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466호로 지정되었다. 동굴 하류 막장에 거대한 호수가 있어 용천(龍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용암동굴에서 대형 호수가 발달한 사례는 아직까지 이 용천동굴이 유일하다.

지표면에서 9m 깊이의 수직입구를 갖는 용천동굴은 총 길이가 3.4㎞인 대형동굴이다. 140m에 이르는 용암두루마리, 용암단구, 용암선반, 용암폭포, 용암유선, 도랑구조, 튜브인튜브 등 갖가지 동굴생성물과 미지형이 발달함으로써 용암동굴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온갖 모양과 종류의 탄산염동굴생성물이 아름답게 동굴 안을 장식하고 있다.

용천동굴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토기를 비롯하여 철기, 동물 뼈, 패각, 숯, 동굴 벽면에 새겨진 글자와 각종 무늬 등 인위적 요인들이 발견되어 신비로움과 함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벵뒤굴

2008년 1월 천연기념물 제490호로 지정된 벵뒤굴은 해발고도 300~350m인 용암대지에 발달해 있다. 중산간 지역 널따란 평야, 곧 평대(坪垈)을 뜻하는 제주토박이 말인 '벵뒤' 에서 유래한 벵뒤굴은 이름 그대로 광대한 용암대지에 형성된 동굴을 의미한다. 동굴 내부가 2층 구조, 3층 구조와 수많은 가지굴들이 상하좌우, 사통팔달형 등 여러 갈래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한 미로형 동굴에 속한다.

수산굴

제주도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암동굴 가운데 가장 동쪽에 위치한 수산굴은 2006년 2월 천연기념물 제467호로 지정되었다. 총 길이는 4.5㎞이다. 제주도의 용암동굴 가운데 빌레못동굴, 만장굴에 이어 세 번째로 긴 동굴이다. 동굴입구에서 바닥까지 깊이가 10m 넘는 수직입구를 갖고 있다.

빌레못동굴

평평한 암반지대를 뜻하는 제주토박이 말인 '빌레' 와 연못을 일컫는 말인 '못' 을 합쳐 '빌레못동굴' 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동굴 입구에서 북서방향으로 100여m 지점에 연못이 있다. 이 동굴은 1971년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 1984년 8월 천연기념물 제342호로 지정되었다.

총 길이가 9㎞이다. 한국의 모든 동굴 가운데 가장 길고 세계 용암동굴에선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동굴 내부는 주굴보다 가지굴의 길이가 3배 이상 길 정도로 망상 미로굴이다. 동굴 길이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구간에는 용암주석이 발달해 있다. 동굴 바닥에서 68㎝나 자라난 용암석순, 높이 28㎝의 규산주, 길이 7m에다 높

이 2.5m인 용암구 등은 세계적인 규모의 용암 동굴생성물로 평가받고 있다.

1973년, 대륙에서 서식하는 갈색곰(공인된 것은 아님)의 턱뼈와 관절뼈의 화석과 구석기시대 유물인 박편석기와 골각기, 불을 땐 흔적인 목탄 등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빌레못동굴은 구석기시대의 편년(編年)과 당시 인류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를 가진 동굴로 주목받기도 했다. 어쩌면 이 동굴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집터가 아닐까.

빌레못동굴

한림용암동굴지대

1971년 9월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된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는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등 3개의 용암동굴을 지칭한다. 협재굴의 연장선상에 쌍용굴도 있다.

소천굴은 그 이름에서부터 동굴의 특색이 드러난다. 1968년부터 1970년 첫 학술조사가 이뤄질 당시 입구에 녹색으로 치장한 양치식물 군락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빛이 나며 유난히 아름다워 '밝다, 환하게 비추다' 의 뜻을 가진 한자어 '소(昭)' 와 하늘을 뜻하는 '천(天)' 를 합쳐 '소천' 이란 이름이 붙었다.

전체 길이는 3㎞다. 240m에 이르는 '튜브-인-튜브, 그 위쪽 부분이 갈라져서 이뤄진 코핀(coffin) 등 동굴 내부의 작은 지형은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것으로서 소천굴의 큰 자랑거리다. 지표면에 사구층을 이룬 지역의 동굴 내부엔 탄산염동굴생성물이 분포하고 있다.

황금굴, 협재굴, 쌍용굴은 한림공원 경내에 있다. 협재굴은 동굴이 자리한 마을 이름을 딴 것이고, 쌍용굴은 동굴 내부의 형태가 두 마리의 용이 빠져나간 것 같은 모습에서 붙여졌다. 황금굴은 동굴 내부의 탄산염동굴생성물이 마치 황금빛으로 장식된 궁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빛이 난다고 하여 붙여졌다.

길이는 협재굴이 99m, 쌍용굴이 393m, 황금굴이 180m로 짧은 편이다. 그러나 동굴 내부에 탄산염동굴생성물이 자라고 있어 경관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 동굴 가운데 관광용 동굴로 개방되고 있는 곳은 협재굴과 쌍용굴이다.

쌍용굴은 세 갈래의 수평동굴로 이뤄져 있는데, '지하의 대교각(大橋脚)' 이라고 부르는 용암기둥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돌기둥에 사람의 머리를 맑고 좋아지게 하는 지혜의 신이 살았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어,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신의 도움으로 머리가 좋아진단다.

하천 · 계곡 · 폭포

제주의 물을 갈무리하는 아름다운 주름

제주는 한국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연평균 강수량이 2,000㎜로 한반도보다 한 배 반이나 더 많다. 제주에서도 한라산 지역의 강수량이 많다. 겨울철에는 많은 눈이, 여름철에는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나 제주에는 홍수피해가 거의 없다. 어찌된 일일까? 그 많은 물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제주섬을 창조한 거대한 여신 설문대는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빚어놓았다.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려도 섬이 스스로 갈무리할 수 있도록 물이 빠르게 통과하고 스며드는 화산암과 화산토로 섬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제주섬은 한라산 백록담을 정점으로 북쪽과 남쪽 사면은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가 짧은 반면, 동쪽과 서쪽 사면은 완만하고 길이가 긴 타원형의 형상을 하고 있다. 구성암석도 다르다. 남 · 북 사면에는 비교적 점성이 높은 조면암, 조면질안산암, 현무암질조면암의 용암류가 분포하고, 동 · 서 사면은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용암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섬의 물길인 계곡과 하천은 바로 이런 제주섬의 지형과 지질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것들은 대부분 남 · 북 사면에 발달하며, 동 · 서 사면에는 빈약하다. 한라산 정상지역에 내리는 많은 양의 빗물이 경사가 급한 남 · 북 쪽으로 모아져 흐르면서 침식곡들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동 · 서 사면은 경사가 완만하고 물 빠짐이 좋은 지질구조를 통해 빗물이 먼저 지하로 빠르게 스며들기 때문에 하천 발달이 빈약하다.

제주의 토양 역시 하천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제주도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화산회토는 토양입자가 가볍고 수분보수력이 크며 내부배수가 빠르다. 다시 말해 물이 빠르게 빠지는 바람에 고여 있다 흐를 틈이 없는 것이다.

제주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140여 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그 길이가 짧고 깊이도 얕다. 그리고 대부분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다. 제주의 하천은 장마나 집중호우 등으로 하루 평균 50~80㎜ 이상의 비가 내려야 물이 흐른다. 그러나 그것도 2~3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건천이 되고 만다.

제주섬에 내리는 빗물은 물 빠짐이 좋은 지형과 지질적인 특성으로 많은 양이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된다. 제주도에 내리는 강수가 지하수로 함양되는 비율은 한반도부의 10~20%보다 최고 4배 이상 많은 46%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고도 남는 물은 계곡과 하천이 갈무리해 바다로

흘려보낸다.

제주섬의 이런 지형과 지질 특성 때문에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홍수피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제주 하천의 백미

계곡은 지표에 깊고 길게 파인 골짜기를 말한다. 산과 산 사이,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에 만들어진 지형을 일컫기도 한다. 제주의 계곡은 대부분 하천과 연결돼 있다. 제주 하천의 발원이 되기도 하고 허리가 되기도 하고 발끝이 되기도 하면서 하천의 하이라이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름답거나 물이 늘 흐르거나

제주에는 빼어난 풍광으로 이름난 계곡들이 여럿 있다. 한천의 발원지대인 탐라계곡을 비롯해 광령천의 상류인 Y계곡, 어리목 능선을 끼고 돌아가는 한라계곡, 창고천의 하류인 안덕계곡, 효돈천의 중상류인 돈내코계곡, 신례천의 중류지대인 수악계곡 등이 계곡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대표선수들이다.

돈내코 원앙폭포

계곡은 형성 초기에는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건곡을 이룬다. 그 다음 점차적으로 파이면서 밑바닥이 지하수면에 이르게 되면 항상 물이 흐르는 계곡이 된다. 제주섬은 지하수위가 훨씬 깊은 곳에 자리해 있어 늘 물이 흐르는 계곡이 드물다.

그러나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도 있다. 하천변에서 솟아나는 용천수 덕분이다.

한라산 중턱의 돈내코 계곡, 영실, Y계곡 등 일부 하천은 용천수가 솟아나 짧은 거리를 흐르다 다시 지하로 흘러든다. 이들 중 Y계곡 용천수는 어승생저수지의 주된 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돈내코 계곡 용천수는

여름철 '물맞이'로 애용된다.

산지천, 외도천, 옹포천, 창고천, 중문천, 도순천, 연외천, 동홍천의 해안 가까운 곳은 연중 물이 흐른다. 이들 하천변에서 많은 양의 용천수가 솟아나기 때문이다. 상수도가 집집마다 보급되기 이전에는 이들 하천의 물을 식수는 물론 빨래, 목욕, 가축급수,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했었다. 강정천과 옹포천의 용천수는 현재도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제주섬의 젖줄

제주의 하천은 제주사람들의 젖줄이자 생활공간이었다. 제주의 하천은 대부분 건천이었지만, 곳곳에 용천수가 솟아올라 고이기도 하고 흐르기도 했다. 식수가 나는 이들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마을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화산섬 제주의 하천은 마을 역사의 원류이자, 삶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돈내코 상류

하천이 생활공간으로 이용된 사례로는 식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하던 물통, 거주공간인 하천변의 바위그늘집터, 농사용 수로 흔적 등이 있다.

하천변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를 식수로 사용했던 곳은 한두 곳이 아니다. 제주도 최초의 간이수도(1926년)가 설치됐던 정방천을 비롯해 외도천, 강정천, 효례천, 옹포천, 산지천 등에서 솟는 용천수는 제주사람들이 생명수로 이용했던 대표적인 곳들이다.

하천변의 용천수를 이용해 논농사를 짓기 위한 농수로를 만들었던 곳도 있다. 창고천 하류의 황개천을 비롯해 중문천의 물을 성천리까지 끌어당긴 수로, 강정천의 물을 이용한 논농사용 수로, 영실물을 하원저수지로 끌어 모으기 위한 수로 등이 있다.

하천은 예로부터 마을과 마을 사이의 경계선 역할을 하기도 하고, 본향당이 자리해 마을의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적 공간이기도 했으며, 기암괴석과 상록수림대 등 절경을 배경으로 신선놀음을 하는 유희적 공간이기도 했다.

움직이는 조각품, 폭포

하천의 물이 수직이나 급한 경사를 이루며 떨어지면 폭포가 된다. 폭포는 지반형태와 지질구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 하천을 흐르던 물이 깎아지른 낭떠러지를 따라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 비교적 완만한 경사 위에서 급류를 따라 미끄러지듯 흘러내리는 것, 몇 개의 단으로 나뉘어 떨어지는 것 등 여러 종류의 폭포가 있다.

폭포는 일반적으로 단층작용으로 만들어진 기반암의 계단지형 위로 하천이 흐를 때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상단에는 단단한 암석이 선반모양으로 놓여 있고 하단의 암석이 상단보다 연약할 경우, 상단의 단단한 지층은 침식을 견디어내지만 하단의 연한 지층은 침식돼 급사면이나 절벽을 이루게 되어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만들어지게 된다.

정방폭포

폭포의 아래쪽과 뒤쪽에 낙하 웅덩이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상단의 단단한 덮개암이 붕괴하고 하상이 침식되는 과정이 계속될수록 폭포는 상류 쪽으로 점점 물러나고 하류 쪽으로는 계곡이 만들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천지연폭포다. 천지연폭포 주변의 암석은 상단에는 단단한 용암으로 하단에는 서귀포층의 연약한 퇴적암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천지연폭포는 폭포수 아래와 뒤쪽으로 침식이 일어나고 상부 용암의 붕괴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상류로 후퇴하여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됐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화산이 폭발할 때 뜨겁게 분출된 용암이 급격히 냉각 · 수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주상절리 암벽에 의해서도 폭포가 형성된다. 주상절리가 해식애가 발달한 하천이나 해안 근처에서 이뤄질 경우에는 주상절리의 하단부분이 먼저 침식되면 기둥모양으로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러면 남아 있는 암벽은 수직모양의 절벽을 이루게 되고, 그 위로 물이 흐르게 되면 해안가 폭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방폭포다.

제주의 하천 · 계곡 · 폭포 만나기

제주섬의 물길이 이루어놓은 계곡과 하천 그리고 폭포는 절경으로 꼽히는 곳이 많다. 물의 힘이 그렇듯 이들은 온갖 생명을 불러 모아 풍성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돈내코계곡

돈내코계곡은 산남 최대의 하천 효돈천의 한 줄기다. 한라산 정상에서 발원해 쇠소깍에 이르러 바다와 만나는 효돈천은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큰 하천이다.

생태휴식을 겸한 유원지로 개발된 돈내코계곡은 한 번 왔다간 사람이면 예외 없이 추천하는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다.

계곡 중간쯤에서 목재탐방로 1.5㎞를 20여 분 걸어 들어가면 계곡 양편에 빼곡히 들어찬 상록수림 사이로 높이 5m 규모의 두 줄기 원앙폭포와 작은 못이 탐방객을 맞는다. 하늘을 가릴 듯이 우거진 천연 숲 덕분에 바람소리도 청량하다.

한 쌍의 폭포가 사이좋게 흘러내린다고 해서 '원앙' 이라 이름 붙은 폭포는 제 이름만큼이나 아름답다. 아담

돈내코 계곡 주변 산책로

한 규모이지만 옹골차게 하얀 포말을 그리는 폭포수와 물웅덩이는 당장이라도 물속에 뛰어들고픈 충동이 일게 한다.

원앙폭포 주변은 매년 음력 7월 15일 백중날 등 제주사람들의 물맞이 장소로도 유명하다. 물맞이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얼음같이 차가운 물줄기를 반복적으로 온몸에 맞으면 신경통 등 온갖 통증이 낫는다는 민간요법으로 더위를 식히는 데도 안성맞춤이다.

돈내코계곡은 환경수종인 사스레피나무가 천연림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색다른 삼림욕 장소이기도 하다. 한국관광공사는 이곳을 맑은 공기와 나무향이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안겨줄 수 있는 웰빙 관광지로 규정,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신례천

총 유로연장이 17.35㎞인 신례천은 효돈천 돈내코 계곡과 함께 전 구간이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신례천의 발원지는 가장 고지대인 해발 1,750m 진달래밭을 비롯해 산정호수가 있는 사라오름, 성판악으로 널리 알려진 성널오름 등 모두 5곳이다. 신례천은 이 외에도 수많은 지류 하천들이 본류로 이어지면서 높이 100m가 넘는 심곡인 수악계곡 등을 통해 해안으로 유입된다.

신례천

신례천의 가장 특이한 점은 하구에서 하천 줄기가 두 갈래로 갈리어 흐르면서 그 사이에 전형적인 삼각주가 생겼다는 것이다. 남북 길이 200m, 동서 폭이 30여m, 면적 약 1만㎡의 대규모 삼각주다. 주민들은 이곳을 '명살이' 라고 부르는데 일반주택은 물론 어린이놀이터와 운동장, 과수원까지 들어서 있어 삼각주 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하천 안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넓다.

서중천

서중천

총 유로연장이 22.43㎞인 서중천은 제주 동남부 지역인 남원읍을 관통하는 하천이다. 하천의 중류와 하류는 한남리, 의귀리, 남원리, 태흥리 등의 설촌과 함께 주민들의 삶과 궤적을 같이 해오고 있다.

서중천의 주요 발원지는 한라산 해발 1,280m 일대 흙붉은오름이다. 서중천은 성판악 등반로를 따라 남동방향의 유로를 보이면서 수많은 실개천이 얽혀진 복잡한 하계망을 띠다가 다시 본류를 형성한 가운데 남원리와 태흥리 해안가로 유입된다.

하천 발원지 일대의 상류계곡을 비롯해 주변 마을의 하류계곡에 이르기까지 용암이 흐를 때 형성된 갖가지 기암절벽이 신비감을 드러내고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등 상록활엽수림대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쇠소깍

쇠소깍

쇠소깍은 효돈천의 끝자락에서 바다와 직접 맞닿으며 형성된 하천지형이다.

쇠소깍은 제주도 고유 지명이다. '쇠' 는 원래 효돈 마을을 뜻하고, '소' 는 깊은 못, '깍' 은 접미사로서 끝 지점을 의미한다. 쇠소깍은 이름만큼이나 신비스럽고 재미나며 독특한 지형을 보여준다.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이뤄진 연못은 평균 수심 3~4m, 가장 깊은 곳은 6m, 너비 10~30m, 길이 250m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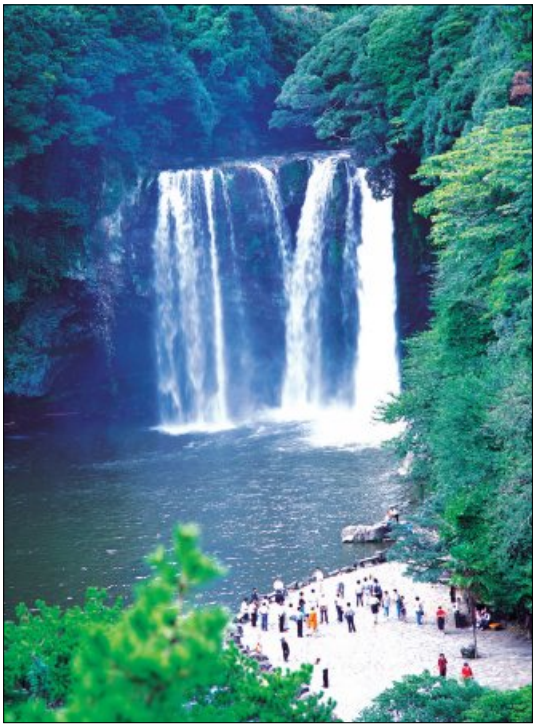
규모로 호수를 방불케 하면서도 바닥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맑다.

용암이 만들어낸 기암괴석과 수령 150년이 훌쩍 넘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계곡을 장식하고, 해안가엔 조면암으로 형성된 검은색 모래사장까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절경이 따로 없다. 마을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우 체험을 통해 쇠소깍 구석구석까지 감상할 수 있다.

쇠소깍에는 용이 살고 있어서 용소(龍沼)라고도 불렀는데,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릴 만큼 영험이 컸기 때문에 옛날부터 마을에선 성소(聖所)로 여기면서 신성시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일까. 이곳에서 함부로 고성방가를 하거나 돌멩이를 던지면 용이 노해 갑자기 큰 바람이 일고 날씨가 나빠진단다.

천지연폭포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룬 못이라 하여 천지연(天地淵)이라 이름 붙은 이곳은 제주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 가운데 하나다.



천지연폭포

천지연은 계곡 하류에서 상류인 폭포에 이르기까지 난대 상록수림지대를 이루고 있어 생태자원의 보고(寶庫)로도 유명하다. 숲이 어찌나 울창한지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정도다. 천지연난대림지대는 자연의 원형을 보존하는 표본지역으로 인정되어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79호)로 지정되어 있다.

난대림 가운데 폭포 서쪽 물가에서 자생하고 있는 담팔수 5그루는 천연기념물 제163호다. 담팔수는 한국에서 제주에만 자라는 나무다. 제주섬은 담팔수의 북방한계지인 것이다.

그런가하면 천지연폭포 아래 못은 천연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 무태장어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태장어(無太長魚)는 '이보다 더 큰 장어는 없다' 는 이름 뜻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성어가 되면 몸길이가 2m에다 몸무게가 20㎏ 이상에 이르는 대형어종이다. 태평양의 열대구역, 동부 아프리카, 인도, 대만 등지에만 분포하는 열대어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희귀종에 속한다.

이 못에는 또,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용이 살고 있는데 그 영험이 커서 가뭄 때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빠르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천지연폭포 일대는 이래저래 신기한 곳이 아닐 수 없다.

정방폭포

정방폭포

정방폭포는 명승(名勝) 제4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다.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와 더불어 제주의 3대 폭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방천으로도 부르는 동홍천의 하구 물줄기를 거느린 정방폭포는, 한국은 물론 동양권에서 폭포수가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유일한 폭포로 더욱 유명하다.

폭포 양쪽에 주상절리대가 발달한 높이 23m의 해안절벽에서 너비 10m 규모의 두 줄기 폭포수가 수직으로 떨어지며 내는 폭포 소리가 장쾌하다. 서귀포 앞바다를 지키고 있는 섶섬과 문섬이 손에 잡힐 듯하고, 폭포 주위에 우거진 노송과 상록아열대식물 등이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이룬다.

그래서인지 정방폭포는 예로부터 '정방하폭(正房夏瀑)' 또는 '정방관폭(正房觀瀑)' 이라며 영주십경의 하나로 예찬되면서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았다. '정방하폭' 은 웅장한 폭포와 쏟아지는 낙하수의 물보라가 햇볕에 반사되면서 연출되는 무지개, 여기에 푸르른 해안절경까지 절묘하게 어우러진 장관을 여름철에 바라보면 더욱 멋지고 아름답다는 뜻이다.

절경 덕분인지 흥미로운 전설을 품고 있다. 중국 진나라 시절, 서복(徐福) 또는 서불(徐市)이라는 방사(方士 : 천문, 의학, 신선술, 점복 등을 연구하는 사람)가 불로장생을 원하는 진시황제의 명을 받아 제주섬에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가 정방폭포 절벽에 '서불과차(徐市過此 : 서복이 이곳을 지나갔다)' 라는 마애명을 남겨놓고 서쪽(중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서귀포(西歸浦)라는 지명은 여기서 유래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폭포 위 서쪽 지대에 서복전시관이 있다.

산지천

산지천은 한천, 병문천과 함께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3대 하천 가운데 하나다. 총 유로연장 11.35㎞, 한라산 해발 720m 지점에서 발원해 제주시 아라동, 이도동, 일도동을 차례로 거쳐 하구인 건입동의 제주항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

예로부터 산지천은 제주에서 가장 이름 있는 하천이었다. 상류는 건천이지만 하류 구간과 그 주변에서 맑은 용천수가 사시사철 솟아나 식수공급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다. 상수도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인 1960년대 초까지 제주시민의 젖줄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때 산지천 하구는 고기를 잡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산포조어(山浦釣魚)라 하여 영주십경의 하나로

산지천

꼽히는 등 운치 있는 장소로도 유명했다.

지금은 제주항으로 탈바꿈하면서 무역항으로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하류 해안가에는 건입포라는 산지포구가 있어 각종 선박이 입출항하는 제주의 주요 관문이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주상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1960년대 주택이 밀집되면서 생활하수와 각종 쓰레기 오염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660m 구간을 덮어 상가건물을 짓고 동문로터리를 중심으로 제주시 중심상권의 역할을 이어갔다.

하지만 복개 후에 오염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졌고, 복개구간이 재해위험지구로 판명나기도 했다. 이에 산지천을 문화와 역사의 정취가 살아있는 옛 모습으로 살리자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 동안 474m 복개구간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됐다. 이로써 산지천은 시민들의 쉼터로 돌아오면서 제주도내 최대의 재래시장인 동문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안덕계곡

안덕계곡은 한라산 1100도로 탐라각휴게소에서 동서로 나란히 서 있는 삼형제오름 고산습지에서 발원해 안덕면의 7개 마을을 거쳐 하구인 황개천에 이르는 창고천의 하류에 만들어진 계곡이다.

안덕계곡

안덕계곡의 태동과 관련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고려 목종 10년(1007) 화산폭발로 하늘이 울고 땅이 진동하며 안개가 짙게 낀 지 7일 만에 인근에 있는 군산(높이 335m)과 월라봉(높이 210m)이 솟아나면서 창고천도 함께 생겨났다고 한다. 이 같은 이야기는 안덕계곡이, 동쪽 군산의 북사면에서부터 남쪽 월라봉의 서사면이 절단되면서 이루어진 계곡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어 흥미롭다.

'안덕' 이라는 이름은 큰 산들이 일어서고 거대한 암벽 사이로 시냇물이 굽이굽이 흘러 치안치덕한 곳이라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안덕계곡은 제주도내 계곡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계곡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계곡 깊숙이까지 대부분 조면암으로 이뤄진 채 병풍처럼 둘러쳐진 기암절벽의 위용하며, 평평하게 깔려진 암반 바닥을 쉼 없이 흐르는 맑은 물하며, 깊은 계곡에 울울창창한 상록수림은 안덕계곡의 운치를 신비하고 멋스럽게 자아내고도 남는다.

안덕계곡 상록수림대는 절벽 밑 냇가의 바위틈 등에서 희귀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다 냇가의 사면과 절벽 위에 이르기까지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잘 유지하고 있는 난대 원시림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제377호)로 지정됐다.

선궷내

선궷내

선궷내의 지명은 선궤에서 유래한다. '선' 은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궤' 는 바위굴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현재의 약천사 인근에 작은 바위굴이 있었는데 예로부터 이를 선궤라고 일컬었다. 따라서 선궷내는 그 바위굴 앞을 흐르는 하천이라는 얘기다.

선궷내는 크게 두 물줄기로 발원했다. 한라산 1100도로변 서귀포휴양림 서쪽에 있는 거린사슴과 남쪽에 위치한 갯거리오름 일대에서 저마다 발원해 하류지대인 약천사 남쪽 구시목에서 합류한 뒤 남쪽 해안가 선궷내깍으로 유입된 것이다.

선궷내 하류는 사시사철 풍부한 용천수가 솟아 흐른다. 그 풍성하고 맑은 물속에 은어, 매옹이, 다슬기 등이 서식하고 있다. 하천 하구인 선궷내깍 서쪽 일대에는 지삿개보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주상절리가 눈길을 끈다.

하원수로길

하원수로길은 서귀포시 하원동 산1번지인 한라산 영실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옛 수로길이다. 이 길은 과거 하원 방면에서 한라산을 등반하는 코스이기도 했다. 최근 이 수로길을 여타 자원과 연계하여 정비 ·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하원 주변에 있는 불교유적과 연계한 불교탐방로로 만든다는 계획 하에 영실 존자암-하원 법정사-법화사-대포 약천사까지 아우르는 하원수로길이 열리고 있다.

곶자왈과 숲길

참으로 아름다운 제주섬의 허파

'곶자왈'은 제주토박이 말이다. 지역에 따라 곶, 고지, 골밧, 수덕, 자왈, 자월, 숨벌, 섬벌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제주어 사전》에서 '곶'은 '숲.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이라 했다. '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서 수풀 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이라 했으며, '곶자왈' 역시 그런 곳이라 풀이돼 있다. 결국 곶자왈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거나 꽉 들어찬 숲인데, 그 숲은 다양한 식물이 저희들끼리 자연스럽게 다투어 자라며 이룬 곳이라는 얘기다.

조선시대인 1601년(선조 34) 제주에 안무어사로 파견되었던 김상헌은 제주섬을 둘러보고 쓴 《남사록》에 곶자왈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기암과 괴석은 쪼고 새기고 갈고 깎은 듯, 삐죽삐죽 솟아나 나란히 서있기도 하고, 꼼짝 않고 서있기도 하고, 삐딱하게 서있기도 하고, 짝지어 서있기도 하고, 서로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돌아보며 좇고 따르며 줄지어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조물주가 재주와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다. 좋은 나무와 기이한 나무가 푸르게 치장을 하여 산림이 빽빽한데, 서로 손잡고 서있기도 하고, 등을 돌리어 서있기도 하고, 옆으로 누워있기도 하고, 비스듬히 서있기도 하고, 누가 어른인지 다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잘났느냐고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여 어지럽게 일어나 춤추며 절하고 줄을 지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토지신이 힘을 다하여 심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김상헌의 감상처럼 곶자왈은 토지 신의 작품이랄 수밖에 없지만, 제주에서는 예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라 해왔다. 커다란 바위에서부터 조그만 돌멩이에 이르기까지 온갖 크기의 돌로 온통 뒤덮여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곶자왈 지대는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채로 천연의 숲을 풍성하게 이루고 있다.

곶자왈 지대에는 화산이 분출할 때 다양한 크기로 쪼개어진 현무암질 용암류가 평균 10m 이상 얼기설기 쌓여 넓게 분포해 있다.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었던 동굴이 무너져 생긴 지형인 싱크홀(sink hole)도 적지 않다. 비가 내리면 빗물이 그 틈을 타고 빠르게 지하암반 밑으로 흘러

들어간다. 제주사람들은 그런 물길을 '숨골' 이라고 부른다. 제주는 화산섬이라 전역에 숨골이 분포하고 있는데, 곶자왈은 매우 중요한 숨골 지대라 할 수 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풍부하게 머금고 있는 소중한 공간인 것이다.

곶자왈 지대의 숨골은 또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겨울엔 따스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풍혈 기능도 한다. 곶자왈 지대에 깊게 깔린 용암류의 하부는 거의 변하지 않는 동굴 속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한다. 싱크홀 등의 숨골을 통해 뿜어져 나온 지하 공기의 온도와 외부 온도와의 차이로 인해 곶자왈 지대 안은 여름에는 21℃, 겨울에는 12℃쯤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거의 대부분 포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하수 함량이 풍부하고 뛰어난 보온·보습 효과를 지닌 곶자왈 지대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뒤섞여 자라는 매우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특성 덕분에 겨울이면 한라산의 추운 날씨를 피해 이동해온 야생동물들의 겨울나기 장소가 되기도 한다.

곶자왈 지대는 수풀로 가득 찬 숲을 이루고 있다. 숲의 중요성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1등 공신임을 다 알기 때문이다. 숲이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삼림욕을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임을 모르는 이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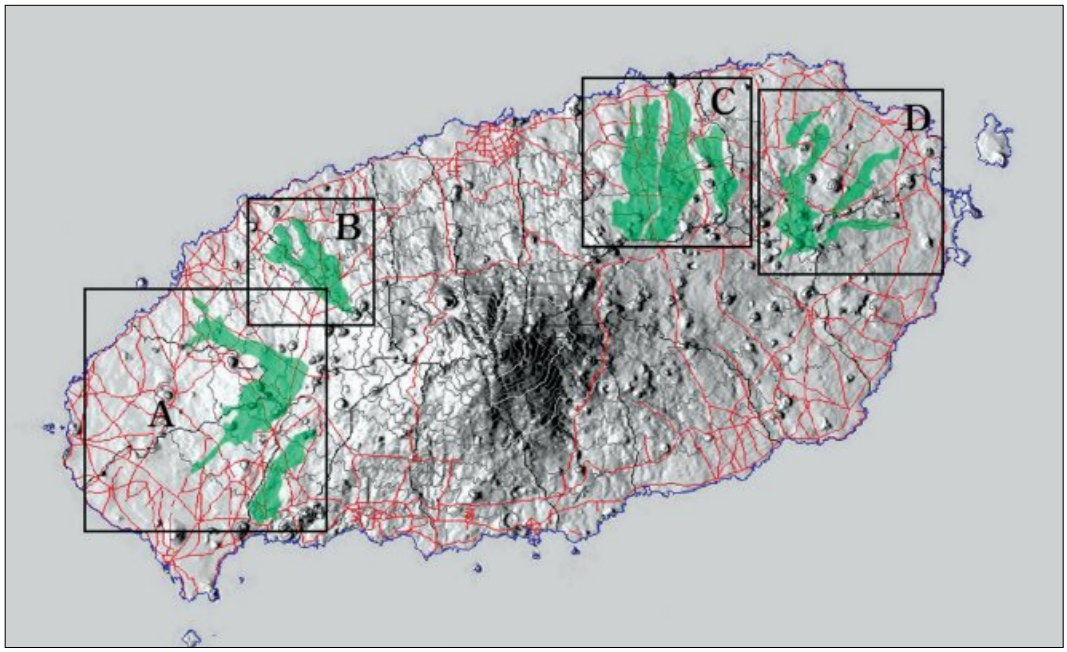
이렇듯 곶자왈은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곳이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남방·북방한계 식물계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이자, 자연 치유의 공간이다. 곶자왈은 제주섬을 살아 숨 쉬게 하는 제주의 허파요, 생명의 땅인 것이다.

곶자왈의 어머니는 오름

곶자왈은 제주섬의 동부, 서부, 북부에 걸쳐 넓게 분포해 있다. 곶자왈 지대를 이루고 있는 용암류는 인근에서 화산활동을 한 오름들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들 오름으로 인해 형성된 용암에 따라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한경-안덕 곶자왈지대

제주 서부지역인 이곳은 도너리오름곶자왈용암류와 병악곶자왈용암류로 나뉜다. 한림읍 금악리 지경의 해발 330m에 위치한 도너리오름에서 시작된 도너리오름곶자왈용암류는 한림읍 월령리와 대정읍 영락리의 해발 20m 지역까지 두 갈래로 나뉘어 펼쳐져 있다. 도너리오름에서 영락리 방향으로 갈라진 곶자왈용암류의 최대 연장거리는 12.5㎞이고, 월령리 방향으로 갈라



제주도 곶자왈지대　　A : 한경－안덕 곶자왈지대　　B : 애월 곶자왈지대
C : 조천－함덕 곶자왈지대　　D : 구좌－성산 곶자왈지대

진 곶자왈용암류의 연장거리는 11.5㎞이다.

병악곶자왈용암류는 해발 492m의 병악에서 시작되어 화순리 방향으로 9㎞에 걸쳐 분포하는데, 평균 1.5㎞의 폭으로 산방산 근처의 해안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화순곶자왈은 병악곶자왈용암류로 해발 492m인 병악에서 시작되어 화순리 방향으로 총 9㎞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1,5㎞의 폭으로 산방산 근처의 해안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가시나무, 새우란, 더불살이고사리와 직박구리 등 50여 종의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신평곶자왈 숲길은 1.2㎞ 가량 이어지며, 숲을 통과하는 데 40분 정도 소요된다. 제주올레길 11코스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으며, 동식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곶자왈에는 제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제주산 양치식물, 한국 미기록종, 환경부 지정 보호 야생동물과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애월 곶자왈지대

애월 곶자왈지대는 해발 839m인 녹고뫼오름에서 시작되어 해발 90m의 애월읍 납읍리와 원동지역까지 9㎞에 걸쳐 분포한다. 해발 200m까지는 2~3㎞의 폭으로 이어지다가 납읍리와 하가리 방향으로 갈라진다. 지형의 경사가 비교적 급한 녹고뫼오름 주변에서는 폭이 좁은 편이지

만, 해발 200~300m 사이의 완만한 경사 지역에서는 최대 폭이 3.2㎞에 이를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다.

저지곶자왈은 애월곶자왈지대에 포함되며, 곶자왈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조천-함덕 곶자왈지대

제주 북부 지역에 펼쳐진 곶자왈 지대다. 조천-대흘곶자왈용암류, 함덕-와산곶자왈용암류, 서검은이오름곶자왈용암류로 나뉜다.

해발 500m에 위치한 민오름 주변에서부터 시작된 조천-대흘곶자왈용암류는 큰지그리오름, 작은지그리오름 그리고 바늘오름 주변을 거쳐 조천리 해발 20m 지점까지 11㎞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 곶자왈용암류가 시작되는 민오름 주변에는 5개의 분석구들이 거의 일정한 폭으로 자리하고 있다.

함덕-와산곶자왈용암류는 돔배오름의 북측 해발 486m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 부근까지 평균 2~3㎞의 폭으로 12㎞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 곶자왈용암류의 폭은 해발 200~300m 사이 지역이 가장 넓고, 말단부인 함덕리 부근으로 오면서 점차 좁아지는 분포 상태를 보인다.

해발 454m인 거문오름에서 시작된 서검은이오름곶자왈용암류는 알밤오름과 북오름 사이를 지나 해발 80~100m 지점에 있는 '선흘곶' 까지 이어진다. 총 연장거리는 7㎞, 폭은 1~2㎞ 정도다.

구좌-성산 곶자왈지대

제주 동부 지역에 있는 곶자왈지대다. 동거문이오름곶자왈용암류, 다랑쉬오름곶자왈용암류, 용눈이오름곶자왈용암류, 백약이오름곶자왈용암류로 나뉜다. 최대 연장거리는 25.8㎞이며, 해발고도 382m에서 시작해 30m 미만까지 펼쳐져 있다.

곶자왈에 스며든 제주의 삶

곶자왈 지대는 곶자왈이 지닌 환경적 특성 덕분에 좀처럼 바람을 타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더위도 추위도 타지 않는다.

소와 말을 놓아기르는 제주에서는 사시사철 안전하고 먹이가 풍부한 곶자왈 지대를 목장으로 삼아왔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집을 짓거나 농기구를 만드는 나무 재료

는 물론 땔감을 구하는 장소였고, 맷돌 등 생활도구와 온돌 재료인 돌을 구하는 장소였다. 그런가 하면 야생동물이 풍부해 사냥터가 되기도 했고, 산신제 등을 지내는 신앙 터가 되기도 했다.

수풀이 우거지고 지형이 복잡한 곶자왈 지대는 제주4·3 당시 지역주민들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은신처나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목축문화의 숨결

곶자왈 지대에는 지금도 우마급수장, 잣성, 테우리동산 등의 목축문화 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테우리'는 소나 말을 돌보는 목자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테우리동산은 테우리들이 방목한 우마들의 이동을 살피거나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하니 높은 지대일 터, 언덕을 이루고 있기 십상이다. 곶자왈 지대의 테우리동산은 암설사태층의 일부분이다. 분석구의 불안정한 부분이 무너져 퇴적된 지층으로 수㎜에서 수m에 이르는 암설들이 작은 언덕을 이룬 것이다.

조선시대에 축조된 잣성은 목마장을 구획하는 경계에 쌓은 돌담이며 공간 분할선이다. 곶자왈 지대 곳곳에서 높이 1~2m 정도의 외담 또는 겹담으로 길게 쌓여진 잣성을 만날 수 있다.

돌과 나무를 쳐서 만든 친밭

곶자왈은 예로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 여겨졌던 곳이다. 돌투성이인 데다 나무와 덩굴이 마구 엉클어져 빽빽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사짓는 땅으로 일구어놓기도 했으니, 이른바 '친밭'이다.

친밭이란 나무나 덩굴을 베고 쳐서 만든 밭이다. 따비를 이용해 돌을 일구고 가시덤불을 태워 거름으로 활용해 농작물을 생산했던 화전이다. 곶자왈을 끼고 살아가야 했던 지역주민들은 친밭을 통해 경작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땀을 쏟았던 것이다. 곶자왈의 친밭에는 불모지를 개척해 농토를 만들었던 제주인의 강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

최고의 사냥터

조선시대 제주목사로 왔던 이형상이 만든 화첩《탐라순력도》의 '교래대렵'은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해 곶자왈 지대에서 거행했던 수렵장면을 전하고 있다. 당시 사냥했던 동물들은 사슴, 멧돼지, 노루, 꿩 등이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사람들에게 곶자왈은 노루, 오소리, 꿩 등을 잡으러 다녔던

사냥터였다.

곶자왈 지역에서도 제주에서 '빌레'라 부르는 편평한 지대는 덫을 놓아 멧돼지를 사냥하는 장소였다.

'빌레'는 너럭바위 또는 암반지대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암반이 평편하게 돌출되거나 연장되는 빌레지대는 균열이 거의 없는 용암류가 대부분이어서 나무들이 자랄 수 없다. 이러한 빌레지대는 사람이나 우마 그리고 짐수레가 다녀도 좋을 만큼 평탄한 지형으로 사람들에겐 휴식장소나 이동통로로 많이 활용됐던 곳이다.

수풀이 우거진 곶자왈은 제주에서 '코'라 부르는 올가미를 놓아 노루며 오소리, 꿩 등을 사냥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사냥감은 곶자왈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곶자왈에서의 사냥법은 코, 덫, 창 등의 도구를 이용한 집단 사냥과 도구 없이 개와 함께 대상물을 몰아 잡는 몰이사냥이 있었다. 그 가운데 '코'를 이용한 사냥이 대중적으로 행해졌다. '코'는 주로 노루와 꿩을 사냥하는 데 쓰였는데, 노루를 잡는 코를 '노리코', 꿩을 잡는 코를 '꿩코'라 불렀다.

생활도구의 곳간

곶자왈의 숲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가옥, 농기구, 어구 등의 재료나 땔감으로 활용되었다.

종가시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으로는 주로 집을 짓거나 어구를 만들었고, 윤노리나무, 조록나무, 자귀나무, 솔비나무 등으로는 주로 농기구를 만들었다. 그 외의 나무들은 주로 땔감이나 숯을 생산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띠는 초가지붕 재로로, 초는 우마들의 먹이로 활용되었다.

빌레를 이루는 용암류는 시루떡을 쌓아놓은 형태를 띠는데, 두께가 10㎝에서 2m가 넘기도 한다. 제주사람들은 두께가 얇은 것은 온돌 재료로 사용했고 두꺼운 것은 맷돌이나 돌방아 등의 생활도구를 만드는 데 많이 활용했다.

뜻밖의 선물, 물

곶자왈이 분포하는 지역은 비가 오는 족족 지하로 이동시키는, 숨골 역할을 하는 지질 특성 때문에 지표에 물이 고이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곶자왈이 선사하는 뜻밖의 물도 있다. 용암이 흐를 때 마치 물결이 치듯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흐름을 멈추게 되면 물결 모양의 곡선이 지표에 그대로 남게 된다. 넘실대는 물결이 그대로 멈춘 모습처럼 생긴 지형인 이 스탠딩웨이브가 분포하는 지역의 오목한 곳에 물이 고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용암류와 용암류 사이에서 용천수가 솟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용천수는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은 '봉근물' 이라고 부른다. '봉그다' 는 '줍다' 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곶자왈에서 뜻밖에 만난 물을 그냥 주운 물이라는 뜻을 담아 '봉근물' 이라 표현한 게 재미있다. 통 속에 있는 물이란 뜻으로 '장통물' 이라 부르기도 한다.

숨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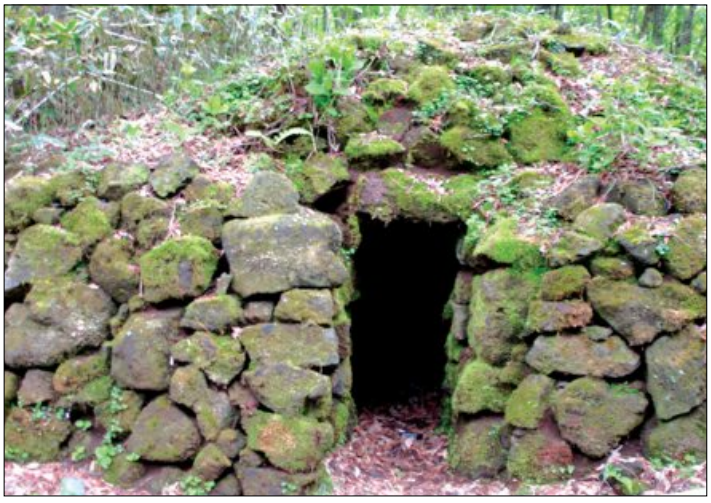
숯 생산지

곶자왈은 숯 생산지이기도 했다. 숯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연료였기 때문에 농한기면 곶자왈에서 숯을 생산하는 일은 1970년대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었다. 아직도 곶자왈 지대 곳곳에서 숯가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대정지역 곶자왈에 있는 숯굽궤는 곶자왈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숯가마로, 원형이 거의 보존된 채 남아 있는 것도 있어 당시 숯을 굽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생활문화유적이다.

참나무, 밤나무, 꾸지뽕나무, 산딸나무, 보리수나무, 소리나무 등의 교목과 정금나무, 가막살나무, 꽝꽝나무 등의 관목 그리고 줄기덩굴 등이 숯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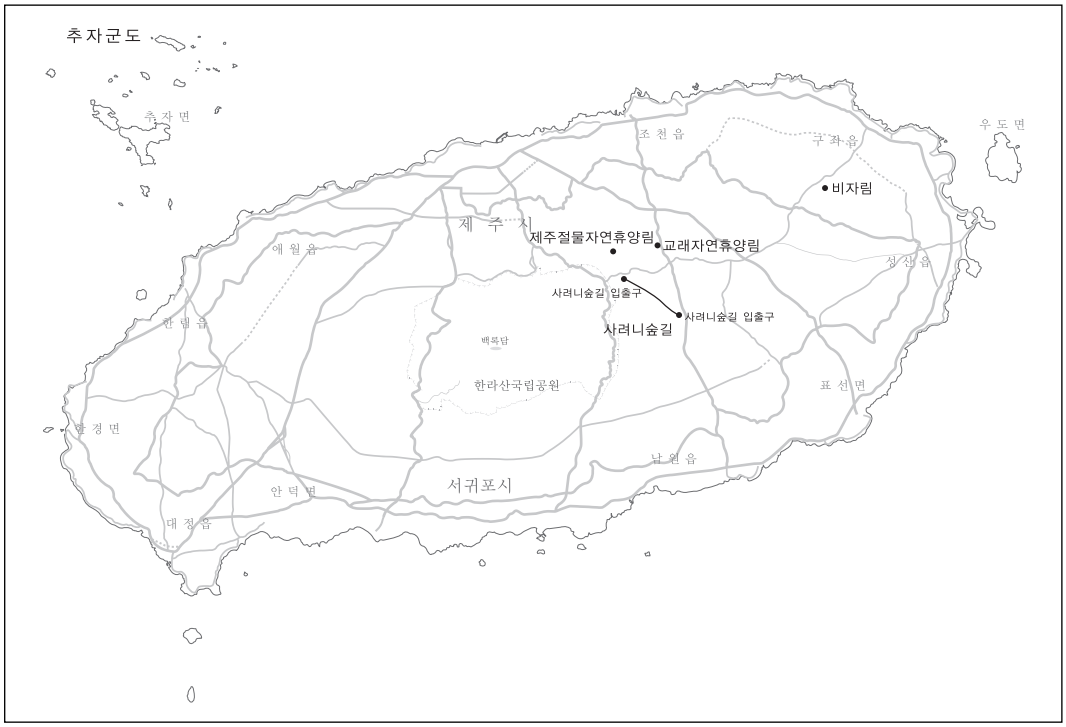
숯을 굽는 작업은 규모에 따라 2~3명에서 규모가 큰 곳은 10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숯은 숯가마 속에 20~30cm 가량으로 자른 나무를 둥그렇게 쌓아올린 후 불이 잘 붙도록 마른 풀을 그 위에 덮고 구워냈다. 숯가마 안쪽은 흙으로 잘 발라 내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다고 전해진다.



숯가마

제주섬의 숲길 만나기



제주에는 그저 거닐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숲이 넘쳐난다. 숲 덕분에 건강해지는 게 어디 사람뿐이랴. 제주섬 자체를, 한국을, 더 나아가 지구촌을 건강하게 해주는 '치유의 세계'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피부로 느껴볼 일이다. 귀하고 독특한 숲을 지니고 있는 이 섬에는 등반, 캠프, 산림욕 등 보건휴양에 폭넓게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정비한 자연휴양림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속세를 잊고 푹 빠져볼 만하다.

사려니숲길

사려니숲길은 제주시 지경에 자리한 절물오름 남쪽 비자림로에서 물찻오름을 지나 서귀포시 지경에 있는 사려니오름까지 15km나 이어진다. 그러나 완만한 평탄지형이라 발걸음이 버겁지 않다.

해발고도 500~600m, 전형적인 온대산지인 사려니숲길에는 자연림으로 졸참나무, 서어나무가 우점하고 산딸나무, 때죽나무, 단풍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삼나무, 편백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다. 주변에 물찻오름, 말찻오름, 괴편이오름, 마은이오름, 거린오름, 사려니오름 등과 천미천계곡, 서중천계곡 등이 분포한다.

마은이오름 일대에 형성됐던 화전민 마을과 숯가마터 그리고 목장의 경계인 잣성 등의 흔적이 남아있어 제주도 산림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곳은 또 제주 표고버섯 생산의 메카로 명성을 날렸던 곳이기도 하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곱 군데의 표고버섯재배장이 있었다. 지금은 그 자취가 거의 사라져 표고버섯재배장을 만들기 위해 냈던 숲길만 남아 있는 상태다.

최근 들어 숲 가꾸기 사업, 임산물 생산, 산불예방 등의 공익적 관리의 필요성과 숲길을 이용한 산림 치유, 자연학습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표고버섯 재배장을 연결했던 숲길을 재정비해 사려니숲길이 조성되었다.

사려니숲길

사려니숲길은 사람들에게 산림문화 체험과 함께 건강을 증진시키며 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탄소흡수원인 나무심기를 통해 자연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는 생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자림

제주도 삼림욕장 1호인 비자림은 단일수종의 숲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독특한 숲이다. 천연기념물(제374호)로 지정되어 있다.

500~800년 수령의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도 감탄할 일인데, 비자나무에 붙어사는 나도풍란, 풍란, 통짜개란, 흑난초, 차걸이난 같은 희귀식물들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어 감탄을 더한다. 곰솔, 아왜나무, 생달나무, 후박나무 등의 상록수들, 비목, 팽나무, 자귀나무, 예덕나무, 때죽나무, 덧나무 같은 낙엽수목들도 함께 자라고 있다. 비자나무마다 일련번호가 붙여져 있고, 다른 나무들에는 이름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나무 이름을 알아가는 재미도 특별하다.

사시사철 녹음이 짙은 비자나무 숲속의 산림욕은 풍부한 피톤치드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며 리듬을 안정시키는 자연건강의 치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자나무 숲속에는 40여 분 걸리는 짧은 코스와 1시간 20여 분이 걸리는 긴 코스, 두 가지 길이 있다. 짧은 코스는 유모차와 휠체어 통행이 가능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숲 가운데서 만나는 최고령 비자나무는 비자나무의 조상목이라 일컬어지는 '새천년 비자나무' 로 수령 800년 이상, 높이 25m, 둘레 6m가 넘는다.

비자나무의 열매인 비자는 예로부터 구충제 등 약재로 쓰였고 중요한 진상품이기도 했다. 비자나무는 재질이 좋아 고급 가구나 바둑판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했는데, 비자나무바둑판은 최고명품으로 쳤다.

비자림의 '새천년 비자나무'

교래자연휴양림

제주돌문화공원의 대규모 부지 가운데 70%가 곶자왈 천연림이다. 그곳에 조성된 교래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목장지대와 천연림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다.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 속에 옛 말목장 지역의 일부 면적을 이용해 향토성과 예술성을 살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제주만이 갖는 산림휴양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교래자연휴양림은 함몰지와 돌출지가 불연속적으로 형성된 지형의 영향으로 난대수종과 온대수종이 공존하는 독특한 식생과 다양한 식물상을 지녔다. 전형적인 2차림 지대와 달리 숲이 안정되고 있고 서식 식물종이 다양해 원시림 식생의 특징과 공통적인 부분을 잘 간직하고 있다.

산책로 일부 구간에는 1940년대 산전을 일구었던 산전터와 1970년대 이전까지 숯을 만들었던 가마터가 온전히 남아 있어 인문학적인 가치와 생태환경적인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최초로 곶자왈 지대에 조성된 교래자연휴양림은 230만㎡의 방대한 면적에 숲 속의 초가, 야외공연장 등이 갖춰진 휴양지구와 야영장, 야외무대, 풋살경기장 등이 자리 잡은 야영지구, 곶자왈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지구, 3.5㎞의 오름산책로를 통해 큰지그리오름을 오르내릴 수 있는 삼림욕지구 등 총 4개 구역이 있다.

절물자연휴양림

절물오름 장생의 숲길

'제주시 숨은 비경 31' 가운데 하나인 이 숲길은 울창한 삼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절물자연휴양림 안에 형성된 자연 그대로의 흙길이다.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 사이사이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숲길의 총 길이는 11km로 3시간쯤 소요된다.

숲길을 따라 곳곳에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숲길 끝의 반환점에 이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숲길을 내려가도록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올라온 사람들이 잠시 쉴 수 있는 넓은 쉼터로 연결되어 있다.

한남시험림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에서 관리하는 한남시험림은 한라산 남동 사면 해발 300~700m에 위치하며 사려니숲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다. 1,191㏊의 부지에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흰새덕이, 굴거리나무 등 상록활엽수와 서어나무, 졸참나무, 때죽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섞여 있으며, 삼나무 조림지가 곳곳에 남아 있다. 탐방 2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예약해야 하며, 수요일~일요일에 한해 탐방이 가능하다. 1일 탐방인원은 평일 100명, 주말 200명으로 제한된다.

물장올 화구호

습지

생명과 조화의 땅

제주는 습지도 독특하다. 화산섬이라는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습지 역시 내륙지방과는 다른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철새도래지, 조간대 습지도 그러려니와 특히 오름을 중심으로 형성된 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상을 보여준다.

한라산에는 백록담을 비롯한 화구호와 함께 1,100고지습지, 숨은물벵듸, 물가마왓, 불래오름 일대, 선작지왓 일대의 대규모 습지대와 왕관능 일대, 만세동산 일대, 개미등 일대, 성널폭포 일대 등에 소규모 습지대, Y계곡, 영실계곡, 선녀폭포 등의 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물영아리, 물장올, 1,100고지습지, 동백동산이 습지보호지역 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물찻오름, 숨은물뱅디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라산이 품은 습지들은 비교적 자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보전상태가 양호한 편이어서 제주 생태계의 주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섬의 습지 만나기

1,100고지습지

1,100고지 휴게소가 있는 도로 동쪽에 형성되어 있는 습지다. 제 이름처럼 해발고도 1,100m 전후에 자리해 있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습지는 절반은 늘 물이 고여 있고, 절반은 육상식물이 주로 자라는 건습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지형은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조건이 되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을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100고지습지

습지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탐라층과 볼래오름용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탐라층의 상부에는 유기물을 함유한 이탄층이 잘 발달해 있다. 습지의 토양은 탐

라층 하성퇴적층인 이질사암으로 두께는 1m 내외다. 유기물을 국지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1,100고지습지는 주변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표수에 의해 형성된 곳으로 지표수가 이동하는 구간과 그렇지 않는 구간이 확연히 구분된다. 유입되는 지표수량에 따라 주변 퇴적물의 운반에도 영향을 주는데, 습지 안에 퇴적물이 쌓인 곳은 생태적인 섬을 이루고 있다.

습지 주변에는 큰 암석들과 산철쭉, 꽝꽝나무 등의 관목류가 분포하고 있다. 평상시에도 고도상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곳곳에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올챙이, 고랭이, 기장대풀 등 수초들이 자라고 있다.

1,100고지습지는 동쪽의 불래오름과 어슬렁오름 사이에서 시작되어 서쪽의 숨은물벵듸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습지와 습지 주변에는 106과 207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습지의 식생은 좀개수염, 좀괭이수염, 올챙이고랭이, 도깨비사초, 한라부추, 누운기장대풀이 주요 우점종이며, 주변부에는 제주조릿대, 개서어나무, 서어나무, 졸참나무, 단풍나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가 하면 등빨간소금쟁이, 소금쟁이, 검정땅콩물방개 등을 포함한 11과 149종의 곤충이 확인되었고, 노란실잠자리, 애소금쟁이, 메추리장구애비, 송장헤엄치게, 머리테물방개, 굴뚝날도래류 등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머리류와 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제주도롱뇽 등의 양서류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고도가 1㎞ 상승하면 기온은 6.4℃ 하강한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다. 그렇다면 1,100고지에 있어 봄과 가을철에도 수온이 낮은 이 습지는 생물 서식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다. 그런 조건에서도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한다는 점에서 1,100고지습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영아리

물영아리는 오름 정상 분화구에 물이 늘 잔잔하게 고여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 오름 동쪽에 자리 잡은 오름은 분화구에 물이 고이지 않으므로 '여물었다' 는 뜻에서 '여문영아리' 라고 부른다.

물영아리에 물이 고이게 된 전설이 흥미롭다. 남원읍 수망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의 일이다. 들에 놓아 기르던 소를 잃어버린 한 젊은이가 소를 찾아 들을 헤매다가 이 오름 정상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젊은이는 배고프고 목도 마르고 너무 지친 나머지 기절하듯 쓰러져 잠이 들었다. 꿈속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소를 잃어버렸다고 상심하지 마라. 내가 그 소값으로 이 산꼭대기에 큰 못을 만들어 놓을 테니, 제 아무리 가물어도 소들이 목말라 하지는 않게 되리라. 너는 가서 부지런히 소를 치면 살림이 부쩍 늘어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눈을 번쩍 떠보니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낮에는 멀쩡했던 하늘이 갑자기 어둑어둑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삽시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놀라 허둥대다가 이상하게 자기 옷은 하나도 젖지 않고 있는 걸 깨닫고 꿈에 본 노인이 떠올랐다. 그때, 하늘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불이 번쩍 눈을 스쳐갔다. 젊은이는 혼절했고, 뒷날 아침에야 정신을 차렸다. 언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느냐는 듯이

물영아리

날이 활짝 개어 있었다. 그가 쓰러졌던 산꼭대기는 넓게 파여 있었고 물이 가득 차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젊은이는 마을로 내려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지런히 소를 쳤다고 한다. 그로부터 이 오름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물영아리라 부르게 됐다는 것이다.

물영아리는 돌아가며 기복을 이루는 구릉지 복판에 큰 덩치로 높다랗게 형성돼 있다. 산정부에는 함지박 형태의 산정화구호가 있다. 둘레 300여 m, 깊이 40여 m, 바깥둘레는 1,000여 m다.

오름 전체가 예덕나무, 참식나무, 때죽나무 등 상록낙엽수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숲 그늘에는 큰천남성, 섬새우란, 금새우란, 사철란 등이 자생하고 있다. 야생동물인 노루, 오소리, 독사, 꽃뱀 등도 서식하고 있다.

화구호 주변에는 곰취 소군락, 둘레에는 찔레나무가 울타리를 이루며, 그 안에는 고마리, 물고추나물, 보풀, 뚝새풀, 세모고랭이 등 다양한 습지식물이 자라고 있다.

물영아리오름은 습지보호구역으로, 또 람사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해발고도는 504m, 분화구바닥은 468m이며 전체면적은 554,281㎡인데 이 가운데 300,000㎡정도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습지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대단하다. 습지 식물군락의 종 조성과 공간적 분포양식이 극히 원시적인 상태로 발달해 있으며, 제주도 난온대와 냉온대 산지 습지의 전형적인 구조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 물영아리늪은 인간 간섭으로부터 격리되어 그 원형이 거의 2,600여 년 동안 유지되어온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교육적인 가치 역시 대단할 수밖에 없다. 제주의 자연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교과서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간 간섭에 의한 생태계의 연속적, 불연속적 분포양식을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야외 학습장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생물지리학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과 생물종의 교류 등에 대한 도서생물 지리분포 연구지역으로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자원적인 가치도 관심을 끈다. 희귀종 및 주요 특산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그에 따른 생태계의 독특한 자연 먹이사슬이 발달해 왔으니,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자연자원과 생물유전자원의 보존창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영아리습지의 식생은 그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전 가치가 극히 높은 자연식생을 품고 있다. 단일

면적에서 양서 · 파충류의 종 다양도는 전국 제일로 평가되고 있다.

동백동산습지

조천-함덕 곶자왈지대 안 선흘곶의 일부 지역인 동백동산(제주도기념물 제10호)은 백서향과 변산일엽 군락(제주도기념물 제 18호)을 포함해 제주도에서 평지에 남아 있는 넓은 면적의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천연림으로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원래 동백나무가 많다 하여 '동백동산' 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나, 이 지역의 식생은 주로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후박나무, 빗죽이나무, 동백나무 등 난대성 수종이다. 특히 육박나무와 백서향 나무 밑에는 변산일엽, 골고사리, 새우난초, 보춘화, 사철란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제주만의 특수지형인 곶자왈용암지형과 빌레용암이 혼합되어 있는 선흘곶은 선흘, 김녕, 덕천 일대에 걸쳐 광대한 면적에 분포하고 있다.

선흘곶은 저지곶에 비해 개체수가 적지만 개가시나무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만장굴의 끝부분인 동굴 함몰지 주변에서 쇠고사리와 제주지네고사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돈네코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관찰되던 희귀한 식물이다. 미기록 식물인 창고사리도 서식하고 있다. 선흘곶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식물은 제주고사리삼이다. 제주고사리삼은 최근에 국내학자에 의해 발견되어 한국특산 속 식물로 기록되었다.

'멋물깍' 이라고도 부르는 동백동산못은 과거에 목축용으로 이용됐던 곳이다. 물은 곶자왈에서 흘러내려 모여지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손질한 흔적도 보인다. 주변에 민가나 환경오염원이 없는 동백동산못은 천연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습지생태계를 연구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다.

동백동산 습지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다. 멸종위기종 1급인 매와 멸종위기종 2급인 순채, 팔색조, 비바리뱀, 삼광조, 벌매 등 모두 9종의 멸종위기종이 관찰됐다. 이 밖에도 원앙, 물장군, 물부추 등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큰 암반지대 위에 형성된 연못의 면적은 500여 ㎡, 평균 수심이 1~2m 깊이로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식물로는 어리연꽃, 가래, 택사, 실말, 마름, 송이고랭이, 좁은잎미꾸리낚시, 흑삼릉, 물꼬리풀 등이 있다. 관찰된 주요 동물은 쇠백로, 해오라기, 유혈목이, 누룩뱀, 쇠살모사, 참개구리, 산개구리, 제주도롱룡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다양한 수서곤충이 서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 소금쟁이, 장구애비, 물방개류, 물땡땡이류 등이 출현하고 있다.

동백동산 일대는 곶자왈, 동굴, 습지 등 다양한 자연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자연생태계 관찰과 환경교육, 휴양목적의 최적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만 년 자연의 타임캡슐, 하논

하논은 거대한 원형경기장을 연상케 하는 곳이다. 제주에서 최대 규모의 마르지형 특징을 보여주는 응회환

화산체이다.

화구를 싸고 있는 화구륜의 지형이 거의 완벽히 남아 있으며 화구 중앙부에는 화구구(火口丘)인 보롬이(scoria cone)가 자리하고 있다. 평지의 전체 면적은 21만 6천㎡다.

하논

이렇듯 넓은 평지를 지니고 있는데다가 화구 북쪽 사면 기슭에서 샘이 흘러나와 오래 전부터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이름도 그렇다. 하논은 '많다, 크다'를 뜻하는 제주토박이 말 '하다'와 '논'이 합쳐진 이름으로 '논이 많은 곳'이라는 얘기다.

하논 지형에 대한 풍수지리설이 커다란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 주위의 각시바위는 학의 머리, 그 좌우의 능선은 학의 날개, 하논은 학이 알을 낳는 둥지, 하논을 둘러싸고 있는 삼매봉을 비롯한 주변의 능선은 학의 알을 집어먹으려는 뱀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전설도 흥미롭다. 옛날에는 이곳이 완전한 흐렁논('흐렁'은 수렁을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어서 농사짓기가 매우 불편했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가던 지관이 마을사람들에게 술 한 상을 내오면 논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마을사람들이 푸짐한 주안상을 마련해 대접했다. 그러자 지관은 '동쪽 언덕을 파서 물골을 내면 편안하게 논농사를 지을 수 있다.' 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지금의 하논 입구인 동쪽을 파서 물골을 내니, 논농사가 한결 쉬워졌다는 것이다.

하논 분화구는 전체적으로 한라산 조면암에 대비되는 지질층서를 보여주고 있다. 하논은 호수의 저습지가 넓게 발달한 저지대의 습지 평원이었을 것이다. 화산 분화 당시 마그마의 심도가 비교적 깊은 곳에 있었고 화산재 분출 초기에는 물의 양이 충분했다. 그러나 말기에는 호수의 물이 소진되어 화산활동이 육성화산활동으로 전이되었고 분화구 내부에 분석구를 만들게 된 것이다. 하논 분화구는 과거에 저습지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이다. 수만 년 동안의 퇴적작용으로 현재는 분화구 바닥이 메워져 습지 형태를 거의 상실해가고 있다.

분화구 내부의 습지 퇴적층은 분화구 형성 이후인 지난 5만 년 동안의 기후 변화 기록을 타임캡슐처럼 저장하고 있어, 하논은 전 세계적 관심사인 지구온난화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하논 동쪽으로는 솜반내가 흐르고 분화구 내의 풍부한 용출수는 하논 전체를 적셔주고 있는데 습지의 생물들은 주로 용출수가 고이는 작은 연못과 물이 흐르는 배수로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동물은 백로, 왜가리, 참개구리, 유혈목이, 미꾸리, 붕어, 물달팽이 등이며, 습지식물은 통발, 줄, 부들, 갈대, 물냉이, 개구리밥, 미나리, 물질경이, 벼, 피 등이다.

식물

제주는 놀라운 '식물의 보고'

한반도의 지질역사는 1억 년이 넘고, 제주는 200만 년 전에 태어난 섬이다. 한반도 지질 연륜에 비할 것도 없는 이 새내기 땅의 면적은 1,849㎢로, 한반도 면적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런 섬이 한반도 전체 식물종의 25%에 해당하는 1,990종의 식물을 품고 있다. 제주를 '식물의 보고(寶庫)'라 일컫는 이유다. 제주는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식물세계를 지니게 됐을까?

제주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대륙 동안에 위치해 있어서 계절 변화가 뚜렷한 동안 기후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그런데 사방이 넓고 넓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데다가 한가운데 높은 한라산이 있다. 따라서 지리좌표, 산악지세, 동중국해로부터 오는 난류의 영향 등으로 기후대는 해발고도에 따라 난대, 온대, 한대에 이르는 수직분포를 나타낸다. 더불어 해발고도에 따라 체감율이 다르고, 강수량도 다르게 나타난다.

제주는 또 바람의 섬이다. 사시사철 잦은 바람이 제주를 다녀가지만 특히 여름엔 강한 태풍이 섬을 휩쓸고, 겨울엔 독한 북서풍이 길게 이어진다. 제주섬의 겨울계절풍은 여름계절풍인 태풍보다 풍속은 약하지만 장시간에 걸쳐 분다. 초겨울이나 늦겨울에는 3~4일, 때로는 1주일 동안 계속 불기도 하며, 기압이 서고동저형으로 배치될 때는 특히 더 강해진다. 이런저런 요인이 생태계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전북식물구계의 동아시아식물구계구에 속한다. 더구나 독특한 지리적, 지사적(地史的) 위치에 있어 동시베리아식물구계구뿐만 아니라 인도말레이시아구계구 요소들의 분포 경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식물은 대륙으로부터 남하한 식물군, 중국과 제주도 그리고 일본에 걸쳐서 분포하는 식물군, 열대와 아열대 기원의 식물, 제주도와 타이완 그리고 일본에서 분화한 식물군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면적에 비해 많은 종이 분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섬 한가운데 1,950m 높이의 한라산이 솟아 있어 식물의 수직분포가 뚜렷하다. 고지대에는 한대성 또는 고산성의 식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백두산, 만주, 시베리아, 몽골 등에 공통으로 분포하고 있는 대륙계의 식물들이다.

제주는 바다로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그에 적응한 특산식물 또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빙기와 간빙기에 바다의 진퇴에 따라 중국, 한반도, 제주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 시기와 섬으로 고립된 시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육지로 연결됐던 시기에 대륙에서 들어온 식물이 섬으로 고립된 뒤 섬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아 제주만의 특산식물이 된 것이다.

결국, 제주의 독특한 식물세계는 제주의 위치, 지형, 지질, 기후 등이 이루어낸 종합작품인 셈이다.

식물의 족보부터 살펴보자면…

식물도 족보가 있는데, 제법 복잡하다. 우선 크게, 물과 영양이 통과하는 관다발이 없는 선태(蘚苔), 곧 '이끼식물'과 관다발이 있는 '유관속식물'로 나뉜다. 유관속식물은 다시 포자, 곧 무성생식을 하기 위해 형성하는 생식세포인 홀씨로 번식하는 '양치식물'과 씨를 만들어 번식하는 '종자식물'로 나뉜다. 그리고 종자식물은 '속씨식물'과 '겉씨식물'로 또 나

뉜다.

식물의 족보가 이렇게 복잡한 것은 진화 과정 때문이다. 식물은 지구에 나타난 지 4억 년 이상 된 생물로 그 시작은 물속에 살던 녹조류였다. 그것이 기나긴 세월 동안 육지 환경에 잘 적응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해 온 것이다.

물속에 살던 녹조류가 뭍으로 올라오면서 진화한 게 이끼식물이다. 습기가 많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이끼식물을 마른 땅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관다발 조직이었다. 가장 먼저 관다발식물로 진화한 것이 양치식물이다. 양치식물이 이끼식물보다 먼저 출현했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거나 양치식물은 종자식물로 진화했다. 건조한 환경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 어린 식물을 보호하고 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씨를 만들어 번식한 것이다. 종자식물 중에서 먼저 등장한 것은 겉씨식물이다. 이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번식하기 위해 암수로 분화된 생식기관을 발달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꽃' 이다. 겉씨식물이 속씨식물로 진화한 것이다. 속씨식물로의 진화를 시점으로 수많은 종이 번성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식물이 얼마나 있나

양치식물은 고생대 데본기 이후부터 페름기(이첩기) 동안 매우 번성했으며, 오랫동안 지표면을 덮었던 식물이다. 현재는 1만3천여 종이 발견되고 있는데, 열대와 아열대에서 주로 분포하지만 아한대까지 영역을 넓혀 자란다.

한국에서 자라는 양치식물 252종 가운데 78%인 197종이 제주에 분포하고 있다. 그 중 한국에서는 제주에만 분포하는 종은 60종이고, 제주도가 북방한계선에 해당하는 종이 21종, 남방한계선에 해당하는 종이 6종이다. 또한 긴다람쥐꼬리, 제주고사리삼, 제주개관중, 섬돌담고사리, 애기좀고사리 등 5종은 제주특산종이다.

겉씨식물은 진화과정에서 최초로 종자를 갖게 된 식물로 모두 풀이 아닌 나무다. 나자(裸子)식물이라고도 한다. 중생대에 번성했던 식물로 현재는 900여 종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지표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숲을 이루어 살고 있다. 소나무, 소철, 잣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따위가 있다.

한국에서는 50여 종의 겉씨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10종이 제주에서 자란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겉씨식물은 주목, 비자나무, 소나무, 곰솔, 구상나무, 눈향나무, 노간주나무 등이다.

꽃을 피우는 식물, 그래서 꽃으로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씨를 만드는 속씨식물은 1억 2,500만 년 전 중생대 후기인 백악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나타난 식물이다. 그러나 폭넓은 적응능력

으로 빠르게 번성하며 6,500만 년 전인 신생대부터 지구를 덮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식물 종은 이 부류에 속한다.

속씨식물은 세계적으로 26만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열대지역에서 툰드라까지 폭넓게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기록된 속씨식물은 3,000여 종, 그 가운데 1,783종이 제주에 분포해 있다.

피자(被子)식물이라고도 하는 속씨식물은 또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로 나뉜다.

곰솔

제주에 있는 외떡잎식물은 492종이다. 그 가운데 제주조릿대, 가는개밀, 자주이대, 잡골사초, 제주사초, 제주검정곡정초, 좀각시둥굴레, 제주둥굴레, 한라꽃창포, 제주상사화, 섬새우난초, 두잎감자난초 등 12종은 제주특산종이다. 또한, 제주도가 북방한계선에 해당하는 종이 2종이고 남방한계선에 해당하는 종이 22종이다.

쌍떡잎식물은 1,072종이다. 그 중 제주산버들을 비롯한 79종은 제주특산종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북방한계선에 해당하는 9종, 남방한계선에 해당하는 89종이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제주에는 양치식물이 197종, 겉씨식물이 10종, 속씨식물 중 외떡잎식물 492종과 쌍떡잎식물은 1,072종 해서 모두 1,990종의 식물을 품고 있다. 그리고 전체 식물종 가운데 제주특산종이 96종, 북방한계 분포종이 32종, 남방한계 분포종이 118종에 이르는 특수한 식물세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한라산의 식물세계

한라산의 식물 수직분포대는 방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해발 600m까지는 난대 상록활엽수림대, 해발 600~1,400m는 온대 낙엽활엽수림대, 해발 1,400~1,950m는 아고산대이다.

난대 상록활엽수림대에 분포하는 상록활엽수는 구실잣밤나무, 송악,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영산홍

등 90여 종에 달한다. 이 분포대에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속한 생달나무와 물부추가 자라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적색목록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보호야생식물로 한란, 풍란, 나도풍란, 지네발란, 죽백란, 대흥란, 으름난초 등 난과식물을 비롯해 솔잎란, 순채, 죽절초, 만년콩, 파초일엽, 개가시나무, 갯대추나무, 무주나무, 황근, 박달목서, 삼백초, 제주고사리삼 등이 분포해 있다.

온대 낙엽활엽수림대에 분포하는 주요 수종은 졸참나무, 개서나무, 신갈나무, 당단풍, 가막살나무, 제주조릿대 등이다.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식물인 백운란, 산작약, 자주땅귀이개 등과 제주특산속인 두잎감자난초가 이 분포대에서 자라고 있다.

아고산대는 주로 침엽수림과 관목림으로 되어 있다. 침엽수는 주로 구상나무인데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주목이 혼생하고 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구상나무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아고산 관목림이거나 초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844ha에 달한다. 이곳의 식생은 진달래-산철쭉군집, 눈향나무-진달래군집, 시로미-산겨이삭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달래-산철쭉군집은 산철쭉과 털진달래를 비롯해 좀새풀, 바늘엉겅퀴, 제주조릿대, 애기솔나물, 가시엉겅퀴, 호장근, 두메대극, 산매자나무, 산겨이삭 등이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

눈향나무-털진달래군집은 눈향나무와 털진달래를 비롯해 좀새풀, 애기솔나물, 산철쭉, 백리

향, 구름떡쑥 등이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

시로미-산겨이삭군집은 시로미와 산겨이삭을 비롯해 제주조릿대, 섬쥐손이, 가시엉겅퀴, 구름떡쑥, 미역취 등이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

바다가 육지였을 때 들어온 귀하신 몸들

한라산 아고산대 지역에는 146종의 극지고산식물이 자라고 있다. 이 종들은 대부분이 극동 시베리아와 만주, 홋카이도를 비롯한 일본의 북부 등 동북아시아의 북부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한라산의 경우는 위도상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주극고산식물의 주 분포지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

146종 가운데 제주산버들, 한라장구채, 섬매발톱나무, 제주달구지풀, 두메대극, 좀향유 등 33종은 제주특산종이고, 남방한계분포종이 56종, 북방한계분포종이 3종이다.

돌매화나무

돌매화나무의 경우 위도상 제주도가 최남단에 속하고 있다. 손바닥난초, 들쭉나무 등 기타의 종들도 시로미와 돌매화나무 등과 유사한 분포양상을 나타내는데 시베리아, 북아메리카의 알래스카, 캐나다 등 주북극지역 거의 전 지역에 분포하는 종들이다. 그러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식물지리학적으로 난대지역이며, 아북극지역과는 연속적인 지역이 아니라 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분포지로서는 동북아에서 최남단에 속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제주도가 동북아의 극지고산식물 분포한계지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면적에 비해 특히 특산종이 많다는 것은 빙하기 이후 1만여 년 동안의 격리와 기후변동 등 특수한 환경적 요인으로 종 분화가 매우 활발히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들 고산식물은 빙하기 유존종으로서 제주도가 일정기간 동안 육지와 연결됐었다는 강력한 생물학적 증거다. 바다도 육지였던 빙하기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를 거쳐 제주도로 들어

왔던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한라산 정상부에만 자라고 있는 돌매화나무는 주극식물이다. 한반도에서는 백두산, 관모봉, 두류산, 북수백산, 한라산에만 분포하고 있는 시로미 역시 주극식물이다. 특히 한라산에서 자라는 시로미는 변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빙하기 때 들어와 고립되었지만 그 후 기후 변화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자생지 환경에 잘 적응해 안정된 집단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들 고산식물들이 처음부터 한라산 정상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빙기 중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분포했었는데, 후빙기 들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평야와 낮은 산지는 난대성 혹은 온대성 식물들이 차지하면서 고산식물의 분포영역은 점점 산정 부분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결국, 한라산 아고산대에 살고 있는 극지고산식물들은 빙하기 때 제주에 들어와 제주 화산섬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아 56종은 남방한계분포종이 되었고, 33종은 종 분화를 통해 제주만의 특산식물로 재탄생한 매우 귀하신 몸들인 셈이다.

세계 유일의 구상나무숲

구상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침엽교목이다. 소나무과는 10속 250여 종이 주로 북반구에 분포하나 한반도에는 소나무속, 전나무속, 잎갈나무속, 가문비나무속, 솔송나무속 등 5속 16종이 자생하고 있는데 북쪽의 국경지대에 자라는 풍산가문비나무와 구상나무 등 2종의 특산종이 있다.

구상나무가 속한 전나무속은 세계적으로 45종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는 전나무, 분비나무 그리고 구상나무 등 3종이 있다.

전나무속 식물은 대부분 아극지 또는 아고산대에 분포하며 세계적으로 40여 종에 달하고 있으나 제한된 지역에 특산종으로 분포하고 있는 종은 구상나무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다. 이 종은 러시아의 시호테알린산맥에서 한국의 고산지역을 따라 제주도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분포면적이 매우 좁고 극소수의 개체가 분포하고 있어서 IUCN의 적색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는 구상나무가 광대한 면적에 순림을 형성하고 있다. 한라산의 구상나무숲은 사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해발 1,300m에서 정상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603ha에 달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상나무숲이다.

남쪽지역에 분포중심지가 있고 북쪽으로 갈수록 분포가 적어지는 경향을 띠는 전나무속 식물은 구상나무가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다. 전나무속 식물에서는 유일하게 구상나무가 동북아시아 최남단의 격리된 섬 제주에 집중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라산 남사면의 구상나무 군락

한라산 구상나무숲은 대부분 순림을 형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분한다면 구상나무 군집, 구상나무-제주조릿대군집, 구상나무-신갈나무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상나무군집은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의 해발 1,590m에서 정상 사이에 주로 분포한다. 이 군집 내에는 산개버찌나무, 섬매발톱나무, 홍괴불나무, 계박쥐나물, 쥐털이슬, 나도옥잠화, 두루미꽃, 큰앵초 등이 함께 자란다.

구상나무-제주조릿대군집은 해발 1,550~1,840m에 걸쳐 산재하고 있으며, 산개버찌나무, 섬매발톱나무, 윤노리나무, 꽝꽝나무, 분단나무 등이 함께 자라고, 지표에는 전역에 걸쳐 제주조릿대가 나타난다. 개족도리, 털대사초 등도 많이 살고 있다.

구상나무-신갈나무군집은 해발 1,370~1,700m에 분포하며 대부분 북사면에 편중되어 있다. 이 군집에는 신갈나무와 제주조릿대가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털단풍나무, 함박꽃나무, 분단나무, 고로쇠나무, 애기나리, 호자덩굴 등도 함께 자라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의 식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성되어진다. 제주의 핵심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 영천·효돈천 천연보호구역, 섶섬·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이다. 한라산에서는 정상부와 하천지역 91.9㎢인데,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182호 천

한라산 북사면의 식생

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151.35㎢)과 중첩되고 있다. 그리고 섶섬 파초일엽 자생지(천연기념물), 문섬과 범섬 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2000)인데, 이 지역은 섶섬, 문섬, 범섬 서귀포해양도립공원(1999)과 중첩되고 있는 곳이다.

완충지역은 육상으로는 한라산 국립공원 인접 국유림과 국립공원 북측 일부이고, 해양으로는 서귀포 시립해양공원 일부가 포함된다.

전이지역은 해발고도 200~600m의 중산간 지역, 하천(효돈천 및 영천)변 양측 500m 구간, 서귀포시립해양공원과 효돈천 하구 앞 해상이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식물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분포하는 특산식물은 53종이다. 그 중 한국특산식물은 14종으로 구상나무, 한라사초, 떡버들, 좀고채목, 개족도리, 누른종덩굴, 새끼노루귀, 모데미풀, 자주꿩의다리, 털바위떡풀, 참양지꽃, 병꽃나무, 구름체꽃, 털잔대 등이다.

제주특산식물은 39종인데, 32종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에만 분포하는 식물이며, 나머지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외에 공통으로 분포한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분포하는 제주특산식물은 애기좀고사리, 제주산버들, 병개암나무, 한라장구채, 한라투구꽃, 바위미나리아재비, 섬매발톱나무, 섬바위장대, 제주괭이눈, 한라개승마, 왕벚나무, 제주황기, 제주달구지풀, 애기나비나물, 섬쥐손이, 두메대극, 좀갈매나무, 제주사약채, 좀시호, 한라산참꽃나무, 한라꽃향유, 좀향유, 깔끔좁쌀풀, 한라송이풀, 제주현삼, 좀현삼, 애기솔나물, 좀쥐오줌풀, 흰섬잔대, 애기더덕, 섬쑥, 눈개쑥부쟁이, 바늘엉겅퀴, 한라고들빼기, 한라솜다리, 한라분취, 한라산비장이, 좀민들레 등이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분포 상 북한계거나 남한계인 한정분포 종 중 북한계종은 4종, 남한계종은 53종이다. 그 중 북한계종은 거꾸리개고사리, 흰이삭사초, 섬잔대, 구름떡쑥이다.

남한계종은 왜구실사리, 두메고사리, 층층고란초, 구상나무, 검정겨이삭, 좀새풀, 바랭이사

초, 한라부추, 나도옥잠화, 애기원추리, 두루미꽃, 손바닥난초, 개미난초, 떡버들, 좀고채목, 개족도리, 가는범꼬리, 한라돌쩌귀, 누른종덩굴, 새끼노루귀, 모데미풀, 자주꿩의다리, 애기물매화, 명자순, 털바위떡풀, 좀양지꽃, 산쥐손이, 시로미, 뽕잎피나무, 두메천궁, 털기름나물, 두메당근, 돌매화나무, 산진달래나무, 털진달래, 산철쭉, 산매자나무, 들쭉나무, 큰앵초, 설앵초, 흰그늘용담, 네귀쓴풀, 큰잎갈퀴, 털둥근갈퀴, 댕댕이나무, 개들쭉, 병꽃나무, 둥근잔대, 가는잎잔대, 털잔대, 구와쑥, 산귀박쥐나물 등이다.

효돈천의 식물들

효돈천은 한라산 정상에서 발원해 남쪽 사면을 흘러 서귀포시와 남원읍의 경계를 이루면서 효돈동과 신례리의 해안에 이르는 하천이다. 더불어 효돈천의 식물대는 상록활엽수림대(0~700m), 낙엽활엽수림대(700~1,400m), 아고산대(1,400m~정상)로 구분된다.

이 하천이 바다로 유입되는 지점의 동측은 순비기나무 군락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바위틈에는 갯까치수영이나 번행초 같은 제주도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안식물이 다양하게 자라고 있다.

하천의 하류에는 해송이 우점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측 사면의 일부는 구실잣밤나무림이 울창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서측 사면도 종가시나무, 사스레피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난대 상록활엽수종들이 자라고 있다. 한라산 남측에만 분포하고 있는 머리꽃나무 같은 식물도 하천 바위틈에서 만날 수 있다. 특징적으로 자라는 식물들이 남아 있다.

효례교에서 하례리 윗동네까지는 계곡의 폭이 50~100m로 매우 넓지만 양측 사면, 특히 하례리 측 사면이 직벽을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보존이 잘되어 있으며, 토심이 깊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암벽이 노출된 곳이 있고 하상의 암석들의 형태가 다양해 식물의 종수가 매우 많다. 구실잣밤나무를 우점종으로 동백나무, 돈나무, 아왜나무, 광나무 등이 울창하며, 이 구간에도 양호한 담팔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담팔수 자생지로서 손색이 없다. 이러한 큰키나무

효돈천 계곡의 남내소

에는 백화등, 왕모람, 모람, 콩짜개덩굴 등 덩굴성 식물들이 매우 조밀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하층식생으로는 후추등, 산호수, 백량금, 족제비고사리, 큰지네고사리, 홍지네고사리 등이 많다. 암벽에는 바위고사리, 선바위고사리, 석위, 바위손 그리고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1호인 솔잎란이 자라고 있고, 하상에는 산철쭉, 머리꽃나무, 고란초, 산수국, 누리장나무 등이 살고 있다.

이 구간 중에 경관이 매우 뛰어난 속칭 남내소에는 수면에서 30m 정도의 수직 벽이 동서 양측에 형성되어 있는데, 상부에는 주로 구실잣밤나무, 담팔수, 좀굴거리, 자귀나무, 참식나무, 참꽃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암벽에는 백화등, 석위, 수수고사리, 선바위고사리, 일엽초 등이 붙어살며 특이한 경관을 선사한다.

남내소에서 걸쇠오름까지는 수고 15m, 직경 30cm 이상인 구실잣밤나무를 우점종으로 감탕나무, 참식나무, 조록나무, 좀굴거리, 담팔수 등 다양한 큰키나무들로 구성된 난대상록활엽수림이 울창하다. 하층식생으로는 산호수, 자금우, 백량금, 수정목 등 난대성 소관목들과 바위손, 꼬리고사리, 왕모람 등 착생식물 그리고 큰지네고사리, 족제비고사리, 윤개관중 같은 양치식물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암벽에는 석위, 고란초, 수수고사리 등 착생식물들이 빈 공간이 없을 만큼 높은 밀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상의 바위틈에는 머리꽃나무를 비롯해 바위고사리, 산철쭉 등이 자란다.

이 지역 식생의 특징은 난대상록활엽수림이 계곡의 양 사면을 따라 매우 잘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 다양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지역처럼 웅장한 난대림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걸쇠오름에서 돈내코를 거쳐 해발 700m까지는 효돈천 난대 상록활엽수림의 중심지대다. 주요 구성 종은 구실잣밤나무를 우점종으로 종가시나무, 붉가시나무, 조록나무 등 큰키나무들과 사스래피나무, 자금우, 백량금 등 작은키나무들 그리고 백화등, 멀꿀, 송악 등 덩굴성 식물들이 매우 울창하게 숲을 형성하고 있다. 우점종으로 본다면 대부분 구실잣밤나무 군락이지만 해발 300m에서 500m까지는 참가시나무와 종가시나무가 꽤 많고, 여기에서 해발 700m까지는 붉가시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이 붉가시나무 군락은 웅장한 효돈천의 양사면에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는데 나무의 높이가 15m, 밑둘레가 1m를 넘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다. 한국 최대의 붉가시나무 군락이다.

제주에 분포하고 있는 상록성의 참나무과 식물은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등 4종이 있는데 효돈천에서 이들 4종 모두를 만나볼 수 있다. 이 구간의 붉가시나무 군락은 효돈천 상록활엽수림대 중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백나무, 조록나무, 황칠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들도 함께 살고 있다. 해발고가 높아질수록 졸참나무, 단풍나무, 서어나무, 나도밤나무 등 낙엽활엽수들이 많이 보여 온대 낙엽활엽수림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발 1,100m에서 1,500m 사이에 해당하는 온대 낙엽활엽수림대는 큰키나무로는 서어나무, 졸참나무, 단풍나무 등이 우점하고, 하층식생으로는 제주조릿대를 비롯해 산수국, 백화등, 털대사초 등이 많다.

섶섬, 문섬, 범섬의 식물들

섶섬은 섬 전체가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아왜나무 등 상록수림지역이다. 이 섬에 제주재래종인 홍귤 5그루가 자라고 있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감귤류의 천연자생지라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성은 이곳이 파초일엽의 북방한계라는 점이다. 파초일엽은 양치식물로서 꼬리고사리과에 속한다. 일본 규슈의 남부, 오키나와, 대만, 중국 상해이남, 인도차이나를 비롯한 동남아에 널리 분포하는 종이지만 섶섬보다 북위도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문섬에서는 123종의 식물이 살고 있다. 상록수로는 27종이 서식한다. 담팔수, 좀굴거리, 무늬천남성, 왕작살나무, 구실잣밤나무, 가는쇠고사리 등이 있다.

범섬에는 147종의 식물이 있다. 그중 양치식물 12종, 상록활엽수 15종이 자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거문도와 제주본섬 용수리(절부암에 4그루)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달목서가 10여 그루 자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토심이 깊은 곳에서는 까마귀쪽나무-도깨비고비군집을, 토심이 얕은 곳에는 돈나무-사철나무군집을 이루고 있다.

섶섬의 식생

동물

섬으로 품은 야생동물의 세계

제주에는 포유류 30종, 양서류 7종, 파충류 9종, 조류 380여 종, 곤충류 4,0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제주는 섬이다. 조류와 곤충류는 날개가 있으니 날아서 들어왔다 치고,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이 섬에 들어와 살게 됐을까.

빙하기 시대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아 제주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대륙, 일본열도와 뭍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 시기에 조류를 비롯해 포유류, 양서파충류가 제주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 해수면이 현재와 같아진 것은 1만여 년 전이다.

그 후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 되었고, 더불어 육상을 통한 동물 이동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다도 육지였을 때 들어온 동물들끼리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곤충류와 조류는 아직도 계절에 따라 제주섬을 오간다.

제주섬이 품어 살고 있는 동물상은 과거 지질시대를 거치는 동안 동물의 이동경로와 그 서식범위를 추적해 특정 종의 생물진화 단계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서식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물상 변화를 알려준다.

제주도의 동물상은 동물 지리적으로 구북구의 시베리아 아구와 만주 아구에 속하기 때문에 한반도와 중국, 일본에 분포하는 종들과 공통적이지만,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 동양구에 속하는 동물상도 나타난다.

비바리뱀

또한, 중심에 1,950m의 한라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해안저지대에서 백록담에 이르기까지 기후와 식생 차이에 의해 동물상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해안저지대나 상록 계곡림에서는 아열대성에서 속하는 곤충류나 참개구리, 팔색조, 물꿩, 흰날개해오라기와 같은 종들이 나타나며, 한라산 고지대에서는 산굴뚝나비, 가락지나비와 같은 한대성 곤충류가 서식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한반도에는 분포하지 않는 제주풍뎅이, 제주집게벌레, 탐라무늬먼지벌레, 한라산밤바구미와 같은 특산종도 나타난다. 양서류, 조류, 포유류는 같은 종이라도 제주 고유의 종(種) 또는 아종(亞種)으로 진화된 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도롱뇽과 제주등줄쥐는 한반도에서 서식하는 집단과는 별개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류의 경우,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종은 없지만 제주진박새, 섬휘파람새, 제주큰오색딱다구리 등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분류된 아종들이 있다.

또 제주섬은 무당개구리, 맹꽁이, 줄장지뱀, 쇠살모사, 누룩뱀의 남방한계선이 되고 있는가 하면, 비바리뱀의 북방한계선이 되기도 하며, 이동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번식지, 월동지가 되기도 한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제주에 서식하는 조류의 종다양성에도 변

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몇 년 사이에 제주도에서 새로 기록된 종이 늘어나는 추세다. 몇 년에 한 번 올까말까 했던 '물꿩' 은 출현뿐만 아니라 아예 번식에 성공했으며, 부채꼬리바위딱새, 큰군함조, 작은뻐꾸기사촌 등과 같은 아열대성 조류들의 출현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쇠물닭, 흰뺨검둥오리, 가마우지 등의 철새들이 점차 텃새화 되어가고 있다.

올망졸망한 동물만 살게 된 사연

제주의 야생동물 가운데 포유류는 노루, 오소리, 제주족제비, 박쥐류, 들쥐류 등 29종이 한라산을 비롯해 곶자왈, 오름, 계곡, 용암 동굴 등에 분포한다.

예전에는 살쾡이, 대륙사슴, 멧돼지도 살았지만 멸종됐다. 멧돼지의 뼈는 고고학적 발굴 과정에서 계속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제주도 전역에 많이 서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갈색곰, 큰노루 등의 화석 기록도 있다.

이 섬에 대형동물도 맹수도 없고 작고 순한 포유류들만 올망졸망 살게 된 설화가 전해진다.

아흔아홉골이라는 곳이 있다. 크고 작은 골짜기가 고랑과 이랑을 이루며 뻗어 내린 곳인데, 그 골짜기가 하도 많아 아흔아홉골이라 이름 붙었다.

이곳이 원래는 백 개의 골짜기로 이뤄져 있었다. 그때는 제주에 많은 맹수들이 날뛰고 있었다. 어느 때인가 중국에서 한 승이 건너와 백성들을 모아 놓고 사람을 괴롭히는 맹수들을 모두 없애주겠다며 큰소리로 '대국 동물대왕 입도' 라고 외치라고 했다. 무서운 맹수들을 없애준다니, 백성들은 큰소리로 그리 외쳤다. 그러자 기이하게도 모든 맹수들이 모여들었다. 이에 불경을 한참 외고 난 승은 맹수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 이제 너희들이 나온 골짜기는 없어질 것이다. 만약 또 오면 너희들 종족이 멸하리라."

그러자 호랑이, 사자, 곰 할 것 없이 맹수들이 다 한 골짜기 안으로 사라지고 그 순간 그 골짜기도 없어져버렸다. 그 뒤로 제주에서는 맹수가 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제주섬의 야생동물 만나기

한라산의 대표선수, 노루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난대, 온대, 한대로 구분되어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며 중산간 목장지대와 같은

초지대와 해발 1,400m 이상 지역의 아고산 초지대가 있어 노루와 같은 초식동물이 서식하기에는 매우 알맞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노루는 사슴과에 속하는 초식 동물로, 앞발은 뒷발보다 짧다. 꼬리는 흔적만 있을 뿐이며, 뿔은 수컷에만 있다. 노루의 먹이로는 송악, 마삭줄, 새우난, 제주조릿대 등 초본류나 관목과 교목의 어린 나무의 잎과 새싹으로 특정 식물이나 식물 부위만을 골라 먹는다. 초겨울이나 초봄에 먹이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앞다리를 이용해 쌓인 눈을 파헤치기도 한다.

예전의 제주에서는 동물가죽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겨울철에 한라산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수렵생활이 성행했는데, 주로 노루, 오소리, 족제비, 꿩 등을 잡았다.

조선시대에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이형상이 남긴 《탐라순력도》에도 노루 수렵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1702년 10월 11일에 지금의 교래리와 가시리 인근에서 사냥을 통해 사슴 177마리, 멧돼지 11마리, 노루 101마리, 꿩 22마리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라산에는 멧돼지, 사슴, 노루가 상당수 서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덧 한라산에는 멧돼지도 사슴도 사라지고, 1980년대 전후에는 노루마저 멸종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 이후로 한라산의 대표 동물을 지키기 위해 겨울철 먹이주기, 밀렵근절, 보호구역 출입금지 등 캠페인이 펼쳐졌고, 이제 노루는 제주도 전역에서 관찰될 정도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탐라국의 존재를 알렸던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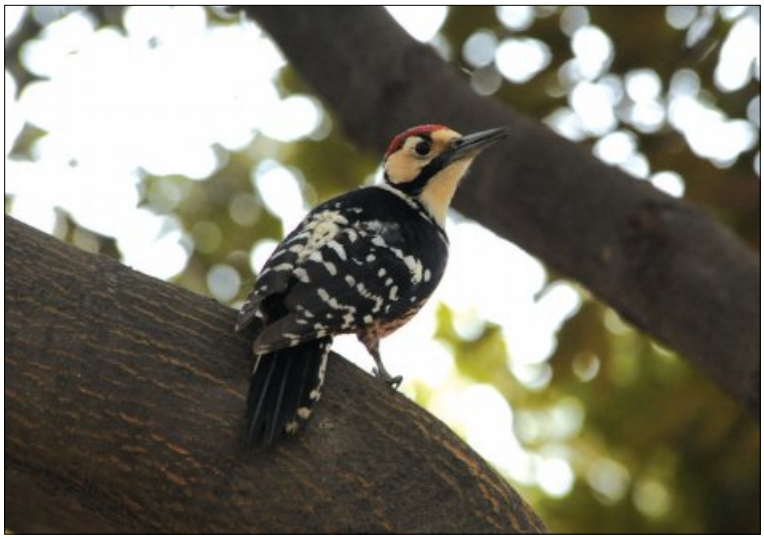
매는 한국의 대표적인 맹금류다. 제주도에서는 대정읍 마라도, 애월읍 신엄리, 우도면 조일리, 남원읍 남원리 등의 해안절벽에서 번식한다. 매는 매과에 속한 텃새로, 맹금류 중에서 가장 날쌘 새다. 수리과에 비해 날개의 폭이 좁고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 보통 단독으로 비행하며 번식기에는 암수가 함께 활동한다.

제주에서는 매와 관련된 설화가 있다. 옛날 중국 풍수지리가인 호종단이 황제의 명을 받아 장차 상당한 인재의 배출이 기대되는 탐라국의 지맥을 끊어버리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호종단이 제주의 주요 지맥을 끊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차귀도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라산의 산신이 매로 변신해 차귀도로 날아왔다. 그리고 폭풍을 일으켜 호종단 일행이 탄 배를 침몰시켰다. 그래서 차귀도(遮歸島), 곧 '돌아가는 것을 막은 섬' 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다.

다른 새들을 배려하는 큰오색딱다구리

딱다구리류는 세계적으로 216종이 분포한다. 호주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에 골고루 서식하는데, 분포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모두 11종이 보고되어 있는데, 제주에는 큰오색딱따구리만 서식하고 있다.

암수에 따라 깃털 색깔이 다르다. 수컷은 머리 꼭대기가 붉은색이고, 암컷은 검은색이다. 큰오색딱다구리는



큰오색딱다구리

해발 400m 이상의 낙엽활엽수림 지대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며 죽은 곰솔이나 밤나무 등에 나무구멍을 내어 둥지를 튼다.

이 새는 제주도, 특히 한라산에서 일 년 내내 볼 수 있는 텃새이면서 나무의 해충을 잡아먹는, 숲에 이로운 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또한 번식했던 나무 구멍은 이듬해에 다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산새들이 보금자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큰오색딱다구리는 제주도의 상징새로 지정되어 있다. 이 새의 살아가는 모습이 제주도민의 근면성과 희생정신을 닮았고, 지리적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며 밤낮으로 애써 건강한 제주를 일궈온 제주사람들의 일면을 엿보게 하기 때문이다.

사투리로 노래하는 제주 토종 섬휘파람새

제주토박이 말로는 '호비작새' 라 부른다. 섬휘파람새는 육지부에서 번식하는 개체군과는 분명 다르다. 육지부에서 볼 수 있는 휘파람새는 여름철새로 주로 중국 동부, 한국, 러시아 연해주, 일본 등에서 번식하고 중국 양자강 이남, 필리핀, 대만, 일본 등에서 겨울을 보낸다.

섬휘파람새

그러나 섬휘파람새는 이동하지 않고 주로 섬 지역에 번식하는 텃새로 제주도를 비롯해 한국 남서해안 도서, 일본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개체군과 동일한 집단이다.

휘파람새는 알파와 베타 울음소리를 지니고 있다. 휘파람새가 내는 '휘-익' 하는 알파음은 암컷

을 유인하기 위한 음으로 노래를 시작할 때 내며, '호르륵' 하는 베타음은 자기 영역에 포식자나 침입자가 나타났을 때 내는 소리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섬휘파람새는 내륙에 도래하는 휘파람새보다 다양한 알파음을 낸다. 섬이라 면적이 한정돼 있어 개체 수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수컷끼리의 경쟁에서 이겨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해 독특하고 다양한 음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휘파람새가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고립되어 적응하느라 텃새화되면서 울음소리도 고유한 사투리로 발전되고, 형태적 특징이나 습성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3월부터 노래하기 시작하는 내륙 휘파람새와 달리, 섬휘파람새는 2월 초 · 중순부터 번식을 위한 노랫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참으로 청명하고 아름답다. 처음에는 한라수목원, 천지연, 천제연, 신산공원과 같은 저지대의 관목림이나 계곡림에서 들을 수 있으며, 날씨가 따뜻해지는 3~5월에는 곶자왈과 오름을 비롯해 한라산의 계곡 주변과 윗세오름 일대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

바람 따라 찾아든 바람까마귀

예로부터 제주도에는 엄청난 까마귀 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애환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제주도에 유배 왔던 김락행(1708~1766)의 〈탐라오(耽羅烏)〉란 글을 보면 그 시절의 까마귀 떼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

'제주도에 귀양 가 있을 때, 집안은 물론 부뚜막까지 쳐들어와 그릇 뚜껑을 차서 깨뜨리며 밥이고 고기고 간에 사정없이 먹어치우던 까마귀 떼의 가증스런 행동에 지칠 대로 지쳐 원망과 저주를 퍼부은 것이다. 집에 닭

떼까마귀

이 알을 낳아도 다 먹어치워 병아리조차 부화할 수가 없다. 참다못해 화살로 쏘아봤자 워낙 무리가 많아 아무 소용이 없고, 작대기로 쳐도 가만 앉아 꿈쩍도 않고 맞는다는 것이다. 밤에는 나무 가득 새까맣게 올라 잠을 자다가 날이 밝기가 무섭게 까악, 까악 대며 먹을 것을 찾아 집 근처로 몰려든다.'

지금도 제주에서는 수백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를 볼 수 있는데, 그 종은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나 까마귀가 아니고 떼까마귀라는 겨울철새다. 제주 사람들은 떼까마귀를 '바람까마귀' 라 부른다. 겨울바람이 부는 날 이들의 비행은 장관을 이루기도 하지만, 제주사람들에게 험한 손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주에서는 까마귀, 큰부리까마귀, 떼까마귀, 갈까마귀 등 4종을 볼 수 있다. 큰부리까마귀와 까마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텃새이고, 떼까마귀와 갈까마귀는 해안저지대의 농경지, 중산간 목장이나 초지대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다.

떼까마귀는 보통 10월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주에서 겨울을 나는데, 주로 구좌읍, 우도면 일대의 당근밭이나 보리밭에서 큰 무리를 관찰할 수 있다. 월동 개체수가 워낙 많아서 농작물 피해가 심한 편이다. 갈까마귀는 떼까마귀 무리 속에 아주 적은 수가 섞여 있는데, 몸 크기가 작은 편이서 식별이 가능하다.

제주섬의 시간여행, 역사 이야기

상고사

전 근대사

근 · 현대사

제주역사 속 물결

제주역사 속 향기

제주역사 속 에피소드

제주역사 속 어두운 기억

삼양동선사유적지

상고사(上古史)

제주섬에 묻힌 비밀스런 자취

맨 처음 제주에 발을 디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때 그가 보았던 제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저 궁금해 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짐작해볼 뿐,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이 화산섬에서 사람의 역사를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섬에 살았던 옛사람의 자취는 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얼마나 더 묻혀 있는지 역시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랜 사람의 흔적은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이다. 제주에는 적어도 25,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25,000년 전부터 1,000년 전까지 제주에 살았던 옛사람들의 이야기는 27,000년 전에서 12,000년 전 사이의 '구석기시대', 그 이후부터 3,000년 전까지의 '신석기시대', 그 이후로부터 2,200년 전까지의 '청동기시대', 그 이후로부터 1,000년 전까지의 '탐라시대'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다.

구석기시대의 자취

제주의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애월읍에 자리한 '빌레못' 동굴과 서귀포 천지연 계곡에 자리한 '생수궤' 동굴이 있다.

빌레못 동굴에서는 구석기시대 중기 단계의 긁개류 석기들과 대륙성 동물인 곰뼈가 출토되어 6만 년 전쯤의 중기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한때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석기들이 모두 하나같이 도구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도구의 부정형성(不定形性), 유물 위를 덮고 있는 퇴적층 두께가 너무 얇다는 층위의 불명확성, 곰의 뼈 역시 인간의 수렵에 의한 것인지 자연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동물뼈 분류의 이견 등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다.

천지연 계곡 '생수궤' 동굴 유적에서는 돌날몸돌(石核), 돌날(石刃), 좀돌날몸돌(細石核), 좀돌날(細石刃), 그리고 긁개, 밀개, 홈날, 톱니날 따위의 잔손질 석기류가 다량 출토되었다. 특히 돌날과 좀돌날은 후기 구석기 석기 제작방식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됐고 한반도 내륙지방의 석기와는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연대측정 결과, 생수궤 동굴유적은 28,000년 전에서 25,000년 전 사이의 유적으로 판명됐다.

제주의 구석기시대 유적은 이 두 동굴유적 말고는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다. 그 즈음부터 신석기시대가 시작되기 전인 12,000년 전까지는 1만수천 년 세월이다. 그 긴 기간 동안 제주에서 살았던 사람은 이들뿐이었을까? 그리고 25,000년 전 저편의 제주에서는 사람이 아

생수궤

무도 살지 않았던 걸까?

'제주지질형성사' 를 살펴보면 5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까지는 제주도 화산 최성기였다. 중기 구석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는 시기인 10만 년 전에서 25,000년 전에 단성화산군이 활동해 마지막 단계의 제주섬이 만들어진다. 그런 상황이라면 제주에 30만 년 전 이전의 전기 구석기 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10만 년 전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질 · 지형 변화 때문에 당시 수렵인들에게 제주는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되었을 것이다. 행여 중기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이 제주에 살았다 해도 극히 짧은 기간에 존재했을 것이다.

생수궤 동굴유적을 남긴 후기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제주에 살 무렵은 제주가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즈음은 한라산 꼭대기에서 두 번째 화산폭발이 일어난 시기와 맞물린다. 그들은 그 엄청난 장면을 보지 않았을까?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공포를 맛보았을지도 모른다. 어딘가에 또 묻혀 있을지도 모르지만, 끝나지 않은 화산활동이 제주에 구석기시대 유적이 귀하게 된 이유는 아니었을까.

신석기시대의 자취

제주 신석기시대의 토기는 한반도 남부지방 신석기 토기 흐름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 축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제주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대표 유물로 꼽히는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1만 년 전을 중심연대로 하는 제주고산리식토기 단계가 한반도에는 없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북촌리, 고산리, 온평리, 신천리, 삼양동, 성읍리, 하모리, 외도동, 용담동 · 도두동, 강정동, 사계리, 오라동 유적 등 70여 개소에 이른다. 제주본섬은 물론 본섬 주변에 거느린 섬들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확인되는 추세다.

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은 제주 서쪽지대인 한경면의 평탄하고 광활한 지역에 묻혀 있던 고산리유적이다. 여기에서 1,700점이 넘는 화살촉 종류를 포함한 석기 9만9,000여 점과 토기 조각 1,000여 점 등 무려 10만여 점에 이르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는 후기 구석기 말기에서 신석기 초기에 해당되는 유물들로, 1만 년 전 제주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다. 이곳은 제주는 물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이기도 하다.

고산리 유물을 남긴 사람들은 좀돌날 등 후기 구석기 전통석기를 제작해 사용했으며, 화살과 작살을 만들어 발빠른 짐승과 새, 물고기 등을 사냥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은 식물줄기를 섞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썼다는 점이다. 이런 섬유질그릇은 한반도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고산리식 토기' 가 한국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그릇인 셈이다. 이는 고산리식 토기를 만든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제주도 신석기유적 분포도

고산리식 토기와 동일한 토기문화는 시베리아의 아무르강 유역과 연해주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곳 어딘가에 살던 사람들이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제주까지 이동해온 것이다. 어찌된 일일까?

고산리 선사인들이 제주에 들어올 즈음은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때까지 제주는 대륙과 연결돼 있었다. 당시는 육지였을 지금의 황해를 통해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제주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는데, 빙하기가 물러가고 해수면이 서서히 상승하더니 1만 년 전쯤에는 제주가 섬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고산리 선사인들이 제주에 최초로 정착한 주민집단인 셈이다.

최근 고산리유적에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집단 정주취락지로 보이는 유물들이 발굴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후 고산리 초기 신석기문화는 제주 전역으로 확산된다. 그리고 8,000년 전 무렵에는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들어온 신석기문화와 섞이기 시작한다.

5,000년 전쯤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삼양동, 오등동, 김녕리 그리고 서귀포시 강정동, 예래동, 사계리, 온평리 등지에 그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동쪽과 서쪽지역에서 일어난 제주의 마지막 수성화산활동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신석기 말기인 3,000년 전쯤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이전의 유적이 있었던 지역은 물론 성읍리, 북촌리, 하모리, 한남리, 월령리, 우도 등에 그 유적이 산재해 있다.

이 시기는 또 본격적인 패총이 만들어지며 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확산되고 안정된 생계패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신석기시대를 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신석기시대는 사람들이 수렵과 채집 그리고 어로생활을 했던 시기다. 해발 300m 아래 자리한 넓은 벌판과 따스한 기후조건이 제공하는 풍부한 야생 열매, 화산섬에 주어진 해안의 풍부한 해산물, 온갖 새들이 깃들어 살며, 맹수가 아니라 사슴, 노루, 멧돼지 등 초식동물이 풍부한 동물상 등, 신석기시대의 제주는 당시 사람들에게 최상의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을까.

청동기시대의 자취

수렵과 어로생활이 신석기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제주에, 농경문화를 가진 집단이 한반도에서 들어온다. 2,700년 전쯤에 들어와 대정읍 상모리 해안가에 자리 잡은 이 집단으로 인해 제주에 농경생활이 시작되었다.

상모리 유적에서는 화덕시설, 집터로 추정되는 유구, 조개무지와 더불어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구멍무늬토기 등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농경과 어로를 병행하며 인구 200명 남짓의 작은 마을을 형성했던 흔적이다. 상모리 선사인들은 제주 최초의 농경정착민이자 선진집단인 셈이다.

상모리 선사인들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농경 못지않게 어로생활에 치중했고, 사냥과 채집생활도 하며 작은 마을을 이루어 정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의 자연환경 때문이다. 제주의 척박한 토질과 거세고 잦은 바람이 농경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기도 했지만, 해산물이 풍부한 바다가 있어 삶의 터전으로 삼을 만했던 것이다. 이후 상모리 문화는 제주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다. 제주에 농경생활과 더불어 소규모 마을을 이루는 정착

상모리유적지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청동기시대 말기에는 한반도에서 송국리문화를 가진 집단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만나면 부딪치든지 섞이든지 하며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회적 배경은 문화적 접변과 복합적 양상이 두드러지며 집단 양자 간의 이해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시기는 제주도 초기농경을 기반으로 바다 산물의 채취에 의존하는 생활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대정읍의 상모리를 비롯해 제주시의 삼양동 삼화지구, 제주세무서 부지, 용담동, 월성로, 구좌읍 김녕리, 한림읍 동명리, 서귀포시 강정동, 조천읍 북촌리, 애월읍 곽지리 등에 산재해 있다.

제주섬의 특별한 고대 역사, 탐라시대

농경생활과 어로생활을 병행하려면 바다와 가까운 곳에 살아야 한다. 더불어 해안가를 중심으로 모여 소규모 마을을 이루고 살다가 점차 대규모 마을로 확대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나라가 탐라다.

탐라는 2,200년 전쯤에 형성되기 시작해 1,000년 전까지 천 년 남짓 고유한 체제를 유지했던 독립국이었다.

제주의 상고시대를 구분하면서, 철기시대라든가 원삼국시대 등 한반도의 시대구분과 달리 굳이 '탐라시대'라 정리하는 것은 제주는 탐라 형성시기부터 한반도와는 다른 강한 지역 색을 띠기 시작했고, 한반도 내에서도 토착적인 지방색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탐라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탐라형성기는 한반도의 초기 철기시대 뒤를 이은 원삼국시대 전반에 해당된다. 이 무렵 제주에는 제법 규모가 큰 마을들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다. 이들 고대마을 유적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견됐지만 가장 오래고 큰 마을유적은 용담동유적이다.

제주시 용담2동에 자리한 용담동유적은 2011년 1월에 발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수혈움집, 2층 창고, 공동취사와 작업공간, 각종 저장구덩이, 우물, 기둥구멍 등이 확인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유적이 탐라국 형성 초기의 최대 취락지구 중심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탐라형성기의 대규모 마을유적은 삼양동선사유적이다. 삼양동선사유적은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부여의 송국리 문화가 2,300년 전에 제주도로 유입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발굴조사 결과, 크고 작은 움집, 창고, 저장구덩이, 토기가마, 조리장소

상모리패총

뿐만 아니라 마을공간을 구획한 석축, 배수로, 폐기장까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토기, 석검, 동검, 동촉, 철기, 옥팔찌 등 유물도 많이 출토됐다.

발굴 구역에서만 250여 가구터가 확인됐는데, 집자리들은 대부분 중앙에 타원형의 작업 구멍이 있는 원형 움집, 이른 바 '송국리식 집자리'다. 그리고 '단위 주거군'을 이루고 있다. 한가운데 집회용 화덕자리를 중심으로 작은 광장이 있고, 그 주위로 원형 주거지들이 둥그렇게 들어서 있는데, 지름 6m 정도의 대형 주거지 한 동에 열 동 안팎의 소형 주거지가 배치돼 있는 것이다.

2천여 년 전의 이 마을에는 이미 권력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분에 따라 거주지가 배치되었던 셈이다.

그렇게 2,300년 전에 형성된 삼양동선사마을은 1,800년 전 무렵 폐허가 돼버린 것으로 보인다.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용담동유적 인근에 용담동고분유적이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탐라시대 유적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곳이다. 용담동고분유적에서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이어진 석렬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에 두 개의 묘역이 나타났다. 두 묘역에서는 저마다 시대가 다른 유물이 나왔다.

남쪽 묘역에서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원형 석곽묘 3기와 더불어 토기류가 출토됐다. 북쪽 묘역에서는 기원후 1세기에서 2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옹관묘 7기와 석곽묘 1기 그리고 무덤 내부와 주변에서 1m가 넘는 장검과 화살촉 등 각종 철제무기와 유리구슬이 출토됐다.

다시 말해 2,200년 전에서 1,9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과 1,900년 전에서 1,8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같은 장소에 묻혀 있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후기의 무덤에는 1m가 넘는 장검 등 철제무기가 함께 놓여 있었다.

용담동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무기류는 고대 지배계급의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철제 무기류의 주인이 묻혔을 석곽묘는 시대가 다른 두 집단 묘역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철제 장검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혹 탐라국을 열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용담동 고분유적과 유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기존 세력과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세력

이 만나 통합을 이루었음을 엿보게 한다.

같은 시기에 삼양동 선사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일도 이들 세력과 만나 밀려나거나 흡수됐음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세력 간의 만남에 충돌과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탐라형성기의 제주사람들은 전쟁보다는 연맹과 화합을 택한 게 분명해 보인다. 같은 장소에 나란히 묘역을 쓴 것도 그렇지만, 제주에는 세 신인이 사이좋게 땅을 나눠 갖고 함께 나라를 열었다는 '탐라개국신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는 탐라형성기부터 바닷길을 개척해 외부와 교역하고 있었다. 이 시기 유적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유물들이 외래품이었다. 특히 삼양동선사유적에서 출토된 옥팔찌, 산지항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제품과 화폐유물, 종달리유적에서 출토된 거울과 화폐 그리고 세형동검 등으로 미루어 탐라형성기의 물자교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다. 이때부터 탐라는 이미 중국-한(韓國)-왜(倭)를 잇는 동북아 교역 네트워크 속에 편입되어 당시 국제화되는 단계로 적응·변화해 나갔던 것이다.

탐라는 어떤 나라였나

탐라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3세기에 쓰인 중국 역사서 《삼국지》에서다.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탐라의 대외 교역활동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어 흥미를 끈다. 탐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호(州胡)'가 등장하는데, 주호인들은 배를 타고 중한(中韓)과 왕래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한은 어디일까. 옛 마한 지역의 남해안 일대, 곧 3세기경에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지방에 결성된 29개의 소국 연맹체를 일컫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시기의 교역 흔적은 제주와 남해안 지역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도 나타나고 있다.

탐라국을 연 주역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기원 후 철기문화를 가지고 제주로 이주한 고구려 계통의 북방민족이거나 삼한(三韓) 계통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세기부터 제주는 각종 문헌기록에 '탐라(耽羅)'라는 명칭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고대 왕권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는 시기다. 탐라가 5~7세기에는 백제와, 7세기 중엽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신라와 관계를 성립하고 일본과 당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의 문헌자료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600년대 중반 무렵, 탐라는 활발한 해상활동으로 그 위력을 떨치고 있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이 신라 인근의 아홉 개 나라를 불력(佛力)으로 제압하기 위해 황룡사 9층탑을 세웠는데, 이 9층탑의 네 번째가 탁라(托羅)인 것이다. 탐라는 통일신라시대에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지닌 나라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나라 왕조 정사 '구당서(舊唐書)' 에도 600년대 중반의 탐라 위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나온다. 당나라는 신라, 백제, 왜국과 더불어 탐라를 외교상 한 국가로 대우하고 있었다. 이때 탐라의 서열은 왜국보다 오히려 한 순위 높았다.

탐라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용담동제사유적' 이다. 용담동제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수입품이자 최고급품이었다. 그릇은 모두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고급 회색도기다.

이곳에서 출토된 금동제 허리띠장식은 지금까지 경주 등 다른 신라지역에서 확인된 바 없다. 이는 탐라가 중국 당나라와의 직교를 통해 들여온 물품이라는 얘기다. 중국 당나라와의 교류를

탐라 형성기~탐라 전기의 물자 교류

입증하는 또 하나의 유물이 있다. 역시 용담동제사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8세기경 중국 절강성 월주요(越州窯)에서 생산된 중국제 청자인 대접과 주전자가 바로 그것이다.

탐라는 주변지역과 자체적으로 대응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가진 교역 중심의 국가 체제를 지닌 나라였던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구좌읍 용천동굴 유적도 탐라의 전성기를 짐작케 하는 유적이다. 동굴 바닥과 동굴호수 수중에서 통일신라시대인 8~9세기대의 인화문이 그려진 토기류와 철기류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들 토기류 역시 모두 경주 왕경, 혹은 전라도 남해안 가마에서 생산된 외래품이자 최고급품들이었다.

탐라는 2천여 년 전 형성되기 시작해 대외 교역 중심의 활발한 해상활동으로 재부(財富)를 축적하고 자체적이고 독자적으로 나라의 문물 · 제도를 마련하며 천 년 역사를 누린 고대왕국이었다.

한반도의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가 출범한 초기까지도 독립 체제를 유지했던 탐라는 12세기 이후 탐라군으로 고려에 병합되고 만다. 《고려사》에 '제주' 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229년의 일이다. 이 시기에 '탐라' 는 '제주' 로 바뀐 것이다.

정의현성

전 근대사

한국 속의 또 다른 한국

제주는 한국의 한 지방이다. 그러나 여느 지방과는 다른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같은 한국이지만 분명히 다른, 한국 속의 또 다른 한국이 아닐 수 없다.

바람과 돌 그리고 여자가 많은 삼다의 섬, 대문과 도둑과 거지가 없는 삼무의 섬, 세 가지 재난이 잦은 삼재의 섬, 신들의 고향, 전설의 고향, 민속의 보고, 당오백 절오백, '사람은 서울로 말(馬)은 제주로' 등 예로부터 제주를 표현해 온 많은 이야기들이 그 이유를 짐작케 한다.

제주는 동북아시아 중앙에 자리해 있는 화산섬이다.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위치, 화산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면에 망망대해 바다를 두르고 있는 섬이라는 점 등이 한데 얽혀 제주만의 독특한 역사를 이어가게 됐던 것이다.

툭하면 제주사람들을 괴롭혔던 세 가지 재난, 곧 '풍재, 수재, 한재'는 모두 제주의 지리적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면이 큰 바다여서 태풍 피해(四面大海風災)가 잦았고,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비 피해(山高深谷水災)도 많았으며, 돌이 많고 토질이 박해 가뭄 피해(石多薄土旱災)도 컸던 것이다.

동북아시아 중앙에 자리한 이 섬의 지리적 위치는 제주가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왕래하는 중계지 역할을 하게 했고, 이 섬의 인근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는 동남아나 유구열도 등의 남방해양문화를 나르는 역할을 했다.

몽골족의 나라 '원'이 제주도에 직할령을 설치하고 100여 년 동안이나 간섭하게 된 배경도 따지고 보면 이런 관계적 위치에 기인한다. 세계 제패국을 꿈꾸던 원이 일본이나 남송을 정벌하기 위한 중간기지로 제주도를 택했던 것이다.

고려 말 이래 왜구의 침범이 빈번한 것도 단순히 제주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라기보다는 왜구의 주 약탈대상 지역이었던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해 있었기 때문이다. 왜구는 거점 확보라는 면에서 제주에 자주 침범해 왔던 것이다.

전근대 시대를 살았던 제주사람들 삶의 역사는 개척정신과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진다.

개척정신은 제주의 지리적 환경과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제주사람에게 바다는 바깥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바깥세상을 열어주는 길이었고, 바깥세상과 이어주는 고리였다. 주변 외국과 활발히 교역했던 탐라의 역사 역시 제주사람들의 개척정신에서 기인한 것이다. 제주사람들이 제주섬을 결코 고립된 변방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은 제주에 전해지는 많은 설화에 투영된 우주중심적 세계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주가 독특한 역사를 지니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공존공영의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체 의식은 전근대의 한국 농업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요소지만, 제주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강한데다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제주의 산촌(山村)은 반농반목(半農半牧)하고, 해촌(海村)은 반농반어(半農半漁)하는 이중의 생계수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목축과 어업은 마을단위의 공동목장과 공동어장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동체성은 혈연보다는 마을을 중심으로 집결되었다. 척박한 환경을 함께 극복하려면 더불어 살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혈연적 유대보다 마을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재앙에 대비한 다양한 계 조직, 마을의 연자방아, 마을단위의 당 신앙 등은 제주의 독특한 공동체성을 엿보게 한다. 외부의 권력이나 새로운 문화의 유입으로 공동체성이 위협 받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체성이 마을단위에서 제주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곤 했던 것도 제주만이 갖는 독특한 역사의 한 단면이다.

탐라국 시대가 끝난 뒤

천년의 역사를 누린 제주의 고대왕국 탐라는 고려시대 들어 독립국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탐라국의 지배세력을 회유하고 포섭하는 방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독립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그러나 왕권의 기틀이 어느 정도 정비되자, 탐라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탐라는 점점 고려의 지방제도 속에 편제되어 갔다.

'고려사' 에 '제주' 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고종 16년, 곧 1229년의 기록이다. 독립국이었던 '탐라' 는 지방을 뜻하는 이름 '제주' 가 된 것이다.

그러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 고려의 힘이 강력하게 미치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이때까지도 제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삼별초의 항파두리성

1231년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기 시작해 이후 4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싸웠지만 힘이 모자라 굴욕적인 화해를 하게 된다. 고려에서 대몽항쟁을 전개하던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온 것은 몽골과 고려가 강화를 맺은 1270년의 일이었다.

세계 제패를 꿈꾸던 몽골은 당시 북쪽의 러시아와 서쪽의 중앙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지만 중국의 남쪽에 있는 남송(南宋)과 바다 가운데 있는 일본은 정복하지 못한 때였다. 그래서 남송과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의 요충지였던 제주에 진작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삼별초가 제주에서 항쟁을 전개했으니 몽골로서는 무엇보다 삼별초를 토벌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로 인해 제주는 고려와 몽골 그리고 삼별초가 벌이는 싸움에 휘말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처하고 만다.

몽골과 만난 100년

1273년, 고려군과 몽골군으로 구성된 여몽연합군 1만2,000명이 제주에 들어와 삼별초를 진압한다. 그 뒤 제주는 몽골이 직접 관리하는 직할령이 되고 만다.

몽골은 1279년에 남송 정벌은 마쳤지만, 일본 정벌은 두 차례 실패하고 나서 추진과 중지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 시기에 한반도 백성들도 상당한 곤욕을 치렀지만 제주민들의 고통은 더 심했다. 몽골이 제주를 삼별초 무력평정 뒤 얻은 정복지로 간주하고 제주민을 마치 집단포로처럼 동원해 혹사시켰기 때문이다.

몽골이 일본 정벌에 실패하고, 이에 집착하던 황제 쿠빌라이가 사망하자 고려가 몽골에 요청해 제주를 고려에 환속시킨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뒤 다시 몽골에 귀속되었고, 그로부터 80여 년 동안 제주는 번갈아가며 고려와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제주로서는 설치된 지배기구의 관할권 소재가 고려에 있느냐 몽골에 있느냐 하는 현상적인 변화였을 뿐, 100년 동안 이중으로 귀속된 채 몽골의 영향력을 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100년 동안 제주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제주가 겪은 가장 큰 변화는 목축이었다. 그 이전부터 제주는 말 사육이 번성했던 지역이었다. 전통적인 유목민족인 몽골이 제주를 '방성(房星)' 곧 '말의 수호신이 임하는 곳'으로 여길

제주마

만큼 제주는 천연의 조건을 갖춘 말 방목지였던 것이다.

몽골이 몽골말 160마리를 제주에 들여와 동쪽의 수산평 일대에 풀어놓은 것은 1276년의 일이었다. 그때 제주에 목마장이 처음 설치된 셈이다. 몽골의 목호(牧胡)들도 들어왔다. 목호는 말을 기르고 관리할 목축기술자들이었다. 1300년 무렵에 제주목마장은 몽골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만큼 우마 수가 크게 증가하고 사육시설과 운영인원의 규모도 커졌다.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변화도 겪는다. 몽골이 직할령으로 삼은 초창기에는 1만223명이었던 제주도민 수가 1374년에 이르러서는 3만 명 내외에 달했을 정도로 늘어났다. 제주 인구는 몽골과 관련되기 이전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사람이 유입되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몽골사람과 제주사람의 혼인으로 더욱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100년 사이에 군인, 관인, 목호 등 상당수의 몽골사람이 제주에 들어왔다. 1273년부터 제주에 오기 시작한 몽골사람들은 공민왕대(1352~1374)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이 모여 사는 부락을 이미 이루고 있었을 정도로 상당수가 정착하거나 오랜 기간 거주했다. 당시 몽골사람들은 제주를 낙토(樂土)로 여길 정도였다니, 제주사회의 몽골세력이 어느 정도였고, 제주에서의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겠다.

1370년 몽골족의 나라 원(元)은 쇠망하고, 중국에는 명(明)나라가 들어선다. 명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고려는 1372년 명나라에 바칠 말을 가지러 관리를 제주에 보냈지만 목호의 반발과 기세에 눌려 가져가지 못한다.

1374년 명나라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제주에서 좋은 말 2,000필을 가려 뽑아 보내라고 한다. 이에 고려가 말을 가져가려 하자, 목호들은 자신의 황제 쿠빌라이가 풀어놓아 기른 말을 명나라에게 바칠 수 없다며 300필만 내준다. 고려에 왔던 명나라 사신이 2천 필을 채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공민왕은 제주 정벌을 결정한다.

제주출정군은 최영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정예군 2만5,605명과 전함 314척으로 구성된다. 당시 제주인구와 맞먹을 만큼 대규모 병력이었다. 당시 고려가 제주의 목호세력을 얼마나 막강하게 여겼는지 짐작되는 대목이다.

제주 목호도 출정군에 맞설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기병 3,000여 명과 수많은 보병을 거느리고 있었다. 목호군이 수천 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락을 이루어 살았을 몽골족, 이들과 혼인한 제주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반(半)몽골족화의 제주민 그리고 고려관리의 잦은 수탈에 반감을 품었을 제주사람들도 가세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374년 최영의 제주출정군은 제주에 들어와 목호군과 한 달여 간 밤낮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이른바 '목호의 난' 을 평정한다.

"우리 동족이 아닌 것이 섞여 갑인(甲寅)의 변을 불러들였다. 칼과 방패가 바다를 뒤덮고 간과 뇌는 땅을 가렸으니 말하면 목이 멘다."

이는 최영의 출정군과 목호세력의 전투가 있은 지 40여 년 뒤에 제주목 판관으로 부임했던

하담(河澹)이 제주사람들로부터 직접 목격담을 들은 소감문의 일부다.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했었는지를 엿보게 한다.

추자도에 있는 최영장군 사당

그렇게 최영이 출정군을 거느려 제주에 들어왔던 1374년 8월 28일부터 평정을 마치고 제주를 떠난 9월 23일까지 25일 동안 벌어진 총력전으로 목호세력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제주사람들은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로써 몽골의 제주 지배 100년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나 그 뒤에도 제주에는 고려와 명에 반(反)하는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었다. 최영의 평정 때 제주사람들도 많이 희생됐고, 관리의 수탈과 행패는 여전했을 뿐만 아니라, 목호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뒤 제주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최영의 목호 평정 이후 명은 제주 말을 계속 가져갔다. 1379년부터 1392년까지 고려가 명나라에 바친 말 3만여 필 가운데 2만 필 이상이 제주에서 가져간 말이었으니,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제주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1386년 고려는 제주사람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제주 토착세력들의 자식을 불러들여 달래기도 하고 벼슬을 주기도 했다. 제주에서 고려와 명에 대한 반기가 일어나지 않고, 고려가 제주 관할에 자신을 가진 것이 이때부터다. 이로써 제주는 명실상부하게 고려에 다시 귀속된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제주

조선은 목마장 등 제주를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지배권을 강화해 나갔다. 1416년 제주에는 삼읍, 곧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이 설치된다. 삼읍 구조는 그 후 500년 동안 제주도 내에 지역별로 문화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남북보다는 동서간의 문화적 차이가 더욱 깊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의 제주도(濟州島)는 행정구역상 전라도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전라도 지역과는 차

별된 대우와 통치를 받았다.

양반의 세력이 절대적으로 약했던 제주도는 중앙정치 무대의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한 사족세력(士族勢力)보다도 향촌사회에 거주하는 향임세력(鄕任勢力) 등 토착세력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다. 제주지역에는 대표적인 토착세력으로 토관(土官)이라는 특수한 제도가 존재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제주역사는 중앙과 지방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전개되었다. 마치 제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처럼 인식되어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말(馬)은 제주로 보내라' 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조선의 중앙정부는 제주에 파견한 제주목사 등 관권(官權)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를 중앙정부로 집중하고자 했고, 제주 지방세력은 중앙정부나 관권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제주 향촌사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제주사회를 주도해 나가려 했다. 제주도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심지어 독립국 건설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조선시대 제주역사는 또, 중앙정부의 제주도민에 대한 가혹한 경제적 수탈과 저항이라는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지방통치자에게 많은 통치권이 위임되어 있었고, 그들에 대한 중앙의 감독 · 통제도 거의 불가능했다. '제주목사를 역임하면 3대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는 지배 권력에 의한 구조적 수탈 외에도 관리에 의한 자의적

제주목관아

수탈이 횡행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중앙정부는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모두 목장으로 만들어 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더불어 제주민들은 해변 지역의 일부 땅만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야 했다. 가뜩이나 농업환경이 불리한데다 경작지마저 모자라 흉년이 겹쳐 굶어 죽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조선조 500여 년 동안 제주의 인구가 5~6만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제주특산물 감귤 또한 조선시대 제주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다. 감귤이 익기도 전에 관리들이 장부를 들고 나와 감귤나무마다 그 열매의 수를 일일이 세어 기록해 두었다가 징수해갔다. 따라서 도민들은 고통을 주는 나무라며 밤에 몰래 귤나무에 더운 물을 끼얹어 고사시켜버리는 일도 허다했다.

전복 등의 해산물 진상, 한라산 곳곳에서 생산되는 약재의 진상 등 온갖 진상과 잡역(雜役), 잡세(雜稅)에 시달려야 했던 제주도민들은 한 사람이 열 사람의 몫을 해내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갓 태어난 어린애, 늙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들에게까지도 역(役)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민 특히 남자들은 1인 10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목마(牧馬)를 담당하는 목자는 처자식을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전복 진상을 담당하는 포작인(鮑作人)의 경우 '혼자 굶어 죽을지언정 포작인의 아내는 되지 않겠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 생활은 비참했다.

땅이 메말라 가뜩이나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부담해야 할 진상과 공물이 지나치게 무거워 아예 제주섬 밖으로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부, 양인, 군인, 노비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공물에 대한 상납과 부역을 견디다 못해 다른 지방으로 떠나버려 날이 갈수록 도민의 수가 줄어들었다. 1435년 제주 인구는 6만3,093명이었는데, 1672년에는 2만9,578명으로 나타난다. 200여 년 사이에 제주섬에는 절반 이상의 인구가 줄어든 셈이다. 급기야 1629년, 제주도민은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출륙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이후 200여 년 동안 제주도민의 발을 묶어버리게 된다.

조선시대 제주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민란은 대부분 지방 관리와 중앙정부의 수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극심한 수탈에 대한 저항, 곧 생존권 투쟁의 차원에서 전개된 운동이었으며, 변방으로만 남아 있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한편, 조선시대의 제주는 동북아시아 주변의 다양한 문화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서양의 문화 등 대외 정보를 중앙정부에 제공하기도 했다.

일례로, 표류와 표도의 기록은 수없이 많지만 1477년 귤 진상을 위해 한반도를 향해 출항했던 김비의(金非衣) 일행이 승선한 배가 태풍을 만나 유구국 윤이시마(閏伊是麽)에 표류함으로써 유구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653년에는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이 탄 상선이 제주 대정현 지역에 표착함으로써 서구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제주 만나기

제주섬에는 조선시대의 제주를 만나볼 수 있는 유적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제주를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삼읍으로 나누고 설치했던 읍성과 그 안의 중심에 들어섰던 관아시설들이다.

제주목사 오식(吳湜)이 부임해 왔을 때까지만 해도 제주는 17현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를 비효율적이라 여긴 오식이 1416년(태종 16) 3읍을 중심으로 흡수통합하자는 건의를 조정에 올리며 제주는 삼읍으로 개편된다. 이에 읍성을 쌓고, 그 중심에 지방행정을 관할하기 위한 관아(官衙)를 세우게 된다.

국가가 새로 세워지면 나라 일을 할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이념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한다. 조선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표방하고 이의 학문적 전파를 위해 중앙에는 성균관을 두고 각 지방에는 향교를 세웠다. 제주에도 향교가 세워졌는데, 특히 제주목에는 1392년에 일찌감치 들어선다. 조선 태조 원년의 일이고, 제주가 3읍 체제로 나뉘기 이전의 일이다.

읍성 안에는 어떤 관아들이 있었을까

관아는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거주하며, 업무를 보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다. 관아의 모양, 건물배치 등에는 당시의 정치이념과 사회가 담겨 있다. 관아를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는 이유다. 그래서 관아의 구조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객사는 임금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지방관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국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며 망궐례(望闕禮)를 올린다. 이로써 국왕은 지방의 군현을 정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객사는 또 왕명을 받고 온 관리들의 숙소이기도 했다. 암행어사와 같은 중앙관리는 객사에 머물렀다. 이처럼 객사는 관아 내의 다른 건물보다 중요한 건물이었기에 홍살문을 앞에 두고 모든 건물의 가장 북쪽에 자리를 잡는다.

동헌은 수령이 집무를 보던 공간으로 외대문과 내대문을 지나 관아의 안쪽에 위치한다. 건물 또한 높게 지어 수령의 권위를 내보인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 재판장면이 나오는데 죄인은 마당 뜰에 꿇어앉고, 섬돌에 하급관리가 서면 수령은 마루에 올라앉아 판결을 내리던 장소가 바로 동헌이다. 동헌의 당호는 지방관의 시정 지침에 따라 이름을 짓는다.

향청(鄕廳)은 그 지역 양반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했던 공간이다. 외지에서 온 수령은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지역의 양반과 토호세력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향청을 제2의 권력기관이라 하여 이아(貳衙)라고도 하였다. 향청의 장을 좌수(座首)라 하여 지방의 영향력 있는 자로 선임했으며, 그 밑에 여러 명의 별감(別監)을 두었다. 별감은 수령에 대한 자문, 풍기 단속, 향리 규찰, 수령 임무의 보좌 등의 역할

을 담당했다.

질청은 아전들의 집무처다. 아전은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등 6방과 허드렛일을 하는 향리들로 지방행정의 문서수발에서 말단 일까지 대부분의 실무를 관장했다. 그 외에 기생들의 처소인 교방(敎坊)과 죄수들을 감금했던 감옥 등이 있다.

조선시대 제주에 파견된 지방관은 제주목사와 정의현감, 대정현감이 있다. 이렇게 파견된 수령의 임기는 통상 5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주와 같은 변방지역인 경우는 그 절반인 2년 6개월, 곧 30개월로 조정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제주에 부임하는 목사들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 국립교육기관 향교

제주목에는 조선 태조 원년인 1392년에 제주향교가 들어서고 1416년 3읍체제가 정비된 이후에는 대정현과 정의현에도 향교가 설립된다.

교생을 가르치는 교수관은 제주목에는 교수(敎授, 종6품)를, 대정현과 정의현에는 훈도(訓導, 종9품)를 파견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군현이 약 330여개 소에 달했으니 교수관의 충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정식 관인이 아니면서 교수직을 감당하는 자들을 생원 · 진사 중에서 선발해 충원하기도 했다.

제주향교

향교는 공자를 중심으로 현인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자를 모신 사당을 대성전이라 한다. 그 양 옆 아래쪽으로 유현들을 모신 동무 · 서무가 있다. 그리고 유생들이 공부하는 학사인 명륜당과 기숙사가 있다.

향교에서 공부한 유생들은 과거시험을 거쳐 조정의 관리가 된다. 양반은 물론 양인들에게도 공부의 기회를 주었으니 신분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에 과거시험은 치열해진다. 이와 더불어 서당과 서원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원래 지방의 유학자에 의해 성현을 모시고 제자를 양성하던 사립교육기관이었지만, 조선중기 이후 지방 토호세력들을 중심으로 막강한 사학기관으로 변모해간다.

그러나 제주는 다른 지방에 비해 유학자가 많지 않았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보니 여력이 없기도 했고, 과

대정향교 대성전

거시험에 응시할 여건도 나빠 굳이 학문을 익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을 목사들이 설립했다. 조선초기에는 제주성 남문 안에 향학당을, 명월성 서쪽에 월계정사를 그리고 동쪽에 김녕정사를 세우고, 후기에는 삼천서당과 정의서당, 대정서당 등을 세워 학문을 전파했다.

사액서원으로는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죽은 충암 김정의 넋을 위로하는 사당을 시원으로 하여 오현을 모셨던 귤림서원(橘林書院)과 제주의 삼을나를 모신 삼성사(三姓祠)가 있었다.

무예를 수련하던 관덕정에서 제주역사를 보다

1702년(숙종 28) 전도의 문무사관이 모여 활쏘기 시합을 하는데 장소는 관덕정 앞마당이다. 1901년 신축성교란 당시 관덕정 앞에는 민란의 충돌로 죽은 시신들이 수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1910년 봄에는 입춘굿 놀이가 한창이었다. 관덕정 주변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 앞에서 심방과 무녀들이 춤을 추고 풍년을 기원하는 걸궁팀은 분장을 하여 행렬을 이룬다. 이후 관덕정 앞마당에서 신작로를 연결하는 거리에는 시장이 서고, 기념식 등의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1947년 3월 1일 3 · 1만세운동 기념식 날, 관덕정 앞 제주경찰서 망루에서 울린 총성은 제주 현대사의 비극 4 · 3의 도화선이 되어 버린다. 이처럼 관덕정은 제주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본 산 증인과도 같은 건물이다.

관덕정은 1448년(세종 30) 제주목사로 부임한 신숙청(辛淑晴)에 의해 지어졌다. 병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였다. 관덕(觀德)이라는 이름은 《예기(禮記)》의 〈사의편(射儀篇)〉에 '활을 쏘는 것은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 라는 글에서 따온 것이다. 곧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덕행을 쌓으면 공이 이루어지고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다' 는 의미다. 원래 정자의 편액은 안평대군에게서 하사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불타 없어지고 이산해의 글씨가 대신하고 있다.

관덕정

관덕정은 설립된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듭하다가 1924년 일본인들에 의해 처마가 2척 정도 잘려나가며 변형되어버린다. 이에 1969년 완전 해체하여 보수했지만 정확하게 복원하지 못했다가 2006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단층 팔작지붕 건물로 실내에는 중국의 고사를 그린 벽화 7점이 있다. 관덕정은 국가 보물 제322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제주 역사 · 문화의 중심지 제주목관아

'묵은성' , 지금은 구도심 또는 원도심이라 일컬어지며 다른 지역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과거 이곳은 탐라시대부터 주요 관아시설이 있던 곳으로 제주의 정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지였다. 제주읍성을 둘러싸고 그 안쪽을 성안이라 했는데 그 중심에 제주목관아가 있었다.

관아에는 우선, 수령이 집무를 보던 동헌(東軒)이 있다. 제주목 동헌의 당호는 연희각(延曦閣)으로 '임금의 성덕으로 인도하겠다' 는 시정의 지침을 이름으로 지었다. 관아 건물 중 가장 북쪽에 자리 잡는 객사(客舍)는 임금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목사로 부임된 이들은 제일 먼저 이곳을 찾아 참배를 한다. 객사의 당호 역시 그 고을의 옛 이름을 따서 붙이는 규칙에 따라 제주에서는 한라산을 영주산이라 했던 것에 기인해 영주관이라 했다.

제주목사는 행정업무 외에 군사업무도 보는 절제사와 방어사의 직책을 겸한다. 그래서 제주목에는 관찰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청(營廳)이 있었다. 이는 '임금의 덕화가 백성들에 미쳐 복을 받는다' 는 뜻에서 홍화각이라 했다.

그리고 '서울을 향해 바라보는 누각' 이라는 뜻의 망경루(望京樓)가 있고, 새벽과 저녁이면 성문을 열고 닫는 신호를 위한 종이 있는데, 이는 동헌의 외대문인 종루(鐘樓) 위에 자리했다. 그 외에도 군관들이 있던 군관청과 각 업무를 담당하던 근무청, 각종 무기와 곡식들을 보관하던 창고 등이 있었다.

제주목관아의 전체 구조를 보면, 관덕정을 중심으로 좌측인 북쪽에는 객사와 동헌 등의 주요 시설들이 들어섰고, 우측인 남쪽에는 판관과 관련된 향청과 질청 등의 시설이 있었다. 이는 유교의 위계질서와 풍수지리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는 배치다.

제주목관아는 거듭되는 증개축으로 원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복구하고자,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아시설물들은 크게 세차례에 걸쳐 건축되어졌음이 밝혀지고 홍화각(弘化閣) · 연희각(延曦閣) · 우연당(友蓮堂) · 귤림당(橘林堂) 등의 건물터와 유구(遺構)가 확인되었다. 이에 1993년 3월 30일에 제주목관아지 일대가 국가사적 제380호로 지정된다.

제주목관아는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초석 · 기단석(礎石 · 基壇石) 등을 토대로 한 복원사업을 통해 외대문, 홍화각, 연희각, 우연당 등이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주 동남지역을 관할하던 정의현성

원래 성산읍 고성리에 있었다. 하지만 위치상 너무 동쪽에 치우쳐 있어 백성들의 관청 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성산 앞바다로 왜구의 침입이 잦아 관아가 자리 잡기에 적합지 않다는 의견에 1423년(세종 5)에 지금의 자리인 성읍리로 옮기게 된다.

정의현성

정의현성은 제주목의 판관 최치렴에 의해 쌓아졌다고 하는데 단 5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3읍의 백성들이 동원되어 쌓았다고는 하나 둘레 2,520자, 높이 13자의 성읍이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다.

현재 복원된 정의현성은 원형을 많이 잃은 모습이다. 《탐라순력도》 등의 과거 기록을 보면 정의현성에는 동문, 서문, 남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문자리에 집이 있어 복원을 못하고 서문과 남문만 두었다.

정의현에는 종6품의 현감이 임명되는데 절제도위의 군직을 겸한다. 현감이 업무를 보던 청사인 동헌은 '임금을 쳐다보는 것처럼 바른 정사를 행한다' 는 뜻으로 일관헌이라 불렀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원래의 건물이 불타버리자 이아(貳衙)를 고쳐지은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못 복원되는 등 원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태풍으로 일관헌 옆의 팽나무가 쓰러지면서 건물이 일부 파손되었다. 이를 계기로 발굴전문가

와 관계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제대로 된 복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추사의 정취가 묻어나는 대정향교

대정향교는 대정읍 인성리 단산 아래 있다. 고즈넉한 소나무와 어우러진 모습이 눈길을 끈다. 처음엔 1416년(태종 16) 대정현(大靜縣) 북성 안에 건립됐었는데, 여러 번 자리를 옮기다가 1653년(효종 4) 이원진 목사에 의해 지금의 위치에 다시 지었다.

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지방 백성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세운 국립교육기관이었기에 국가의 보조로 관리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나라로부터 토지와 노비 · 책 등을 지급 받아 운영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 · 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하며 초하루 · 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경내에는 남쪽에 강학 공간인 명륜당(明倫堂)이 북향해 자리 잡고 그 북쪽에는 대성전(大成殿)으로 가는 삼문(三門)이 있으며, 이 문을 들어서면 남쪽을 향해 서있는 대성전을 만날 수 있다. 명륜당의 편액은 1811년(순조 11) 현감 변경붕이 썼고, 기숙사인 동재의 현판은 이곳에 유배 왔던 추사 김정희(金正喜)가 '의문당(疑問堂)'이라 써줬다. 이 현판은 현재 제주추사관에 옮겨 전시되고 있다.

대정향교

대정현성에 유배 왔던 추사는 곳곳에 자취를 남겼다. 대정향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산방산과 안덕계곡 등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또한 유배기간 동안 '세한도'를 그리고 '추사체'를 완성한다. 세한도의 소나무에서 향교 앞 소나무가 연상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재 대정향교에는 대성전, 명륜당, 동재(東齋) · 서재(西齋) · 신삼문(神三門) · 정문 · 대성문(大成門) 등이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만큼 많은 보수공사를 거치며 본래의 모습에서 조금씩 변형되고 있다. 대성전에는 5성(聖), 송조4현(宋朝四賢)과 한국 18현(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어 4월과 9월 제례를 올린다.

관덕정 앞에서의 4월혁명 시위(1960. 4. 27)

근 · 현대사

제주인, 근대를 만나다

19세기 말 제주도는 근대사회로 넘어가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었다. 1876년 개항 이후 제주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 어부들이 제주도 어장으로 진출하며 제주도 연안마을에 모습을 나타냈고, 천주교 선교사들이 섬에 들어와 서구의 종교와 문화를 전파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제주도민은 중앙에 바치던 말 · 귤 · 전복 등 진상에서 해방되었고, 근대식 행정체계 및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새로운 행정관리가 등

장하고 신학문이 대두했다.

개항과 개화정책의 시행에 따라 제주도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제주도는 출륙금지령을 내려 유배의 섬으로 묶어놓았던 조선왕조의 변방이 아니라, 자본과 문명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갔다.

'탐라' 라는 독립국의 지위로 있다가 고려시대에 지방의 일개 군현으로 전락했고, 이후 800여 년이 지나는 시간 속에서 제주도는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지방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 변화의 대체적인 방향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제주도가 중앙의 강력한 집권체제에 더욱 예속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조선 후기와 한말에 빈발했던 민란은 그 예속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었다.

1901년 '이재수란' 은 제주가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갈등, 전통과 외래문화 사이의 충돌로 일어난 민란이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와 일본의 군함이 출동해 제주도를 둘러싸고 무력 충돌이 빚어질 뻔하기도 했다.

제주인들은 전통문화를 배척하는 외래 종교 · 문화에 강력하게 저항함으로써 한동안 근대화에 대한 반발감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외부인들의 섬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향리층이나 서민층이 성장함에 따라 20세기 제주사회의 주도권은 서서히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세력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지역사회의 지배엘리트들은 시대적 변화를 자각했고 섬 밖으로 유학해 근대교육의 세례를 받았다. 전국적인 근대교육의 추세에 따라 의신학교, 제주공립보통학교, 신성여학교 등 근대학교가 속속 설립되었다.

개항은 교통과 산업의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 많은 제주도민들은 새로운 일터를 찾아 내륙지방이나 일본 등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18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해녀들의 내륙지방 출가 물질은 조선 후기 출륙금지령에 얽매여 있던 제주여성들의 해양유목민 기질을 더할 나위 없이 보여준 특수한 현상이었다.

개항은 제주도민들에게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외부 문명과 문화를 만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서게 되었다.

제주의 또 다른 근대, 식민지시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한국의 역사는 타민족 일제의 지배 하에서 더욱 심하게 왜곡되었다. 이 시기 제주사회는 한국의 다른 지역 못지않게 심한 식민지적 수탈과 착취, 민족차별적 탄압을 받는 가운데 이전 시기보다 예속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

식민지 지배체제가 구축되면서 1915년 제주에는 도제(島制)가 실시되었는데, 초대 도사(島

司)로 일본인 이마무라(今村鞆)가 부임한다. 도사는 제주경찰서장을 겸임함으로써 행정과 경찰을 일원적으로 통치하는 막강한 실권을 쥐게 된다. 모든 관공서에 일본인이 배치되었고, 교육기관의 교장은 물론 교사들도 일본인으로 충원되었다.

1913년부터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은 국 · 공유지가 많았던 제주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과거 목장토와 역둔토를 경작하던 빈농과 화전민들은 토지조사사업과 화전경작금지로 경작지를 구하지 못해 외부에서 생활기반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민 대부분이 빈궁과 기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를 벗어나기 위해 일본 등으로 나가 탄광이나 방직공장 등에서 열악한 조건 아래 노동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특히 1923년 제주도와 일본 오사카 사이에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도항해 갔다. 1920년 여름에는 콜레라가 4개월 동안이나 번져 4,134명의 도민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일제는 1912년부터 1918년까지 도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해안에 일주도로를 개설한다. 이 해안 일주도로는 제주의 각종 산물을 산지 · 한림 · 성산포 · 서귀포 등의 항구로 쉽게 수송해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도민들에게 신작로라 불리던 일주도로의 개설로 조선시대 이래 대촌(大村)이었던 성읍 · 홍로 · 명월 · 대정과 같은 마을은 쇠락하고, 성산포 · 서귀포 · 한림 · 모슬포 등이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다. 일본을 통한 자본의 유입으로 제주도민들의 생활이 일부 향상되었는지는 몰라도, 제주도의 자생적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인들은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1918년에 이미 법정사를 중심으로 중문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항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3 · 1운동이 있기 전 처음으로 일어난 대중적인 항일투쟁으로 기록되었다. 1919년의 조천 만세시위운동 이후 제주도의 항일운동은 사회주의 청년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1925년 '신인회' 결성을 시발로 1930년대 중반 일제의 탄압 때문에 지하로 잠적할 때까지 도내 운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 시기 최고 절정을 이루었던 운동은 해녀들의 투쟁이었다. 이 운동은 1931년부터 1932년 초까지 구좌면 · 성산면의 6개 마을 해녀들이 관제화된 해녀조합의 횡포에 저항해 일본인 도사(島司)를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투쟁에 연인원 1만7,000여 명이 참여했고, 검거된 사람만도

100여 명에 이르는 제주도 최대의 항일운동이자, 한국 최대의 여성운동·어민투쟁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운동세력은 지하로 잠적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로 접어들면서 제주도를 주요 군사기지로 인식한 일제는 섬 전역에 군사시설을 강화시켜 갔다. 군사시설 공사에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동원돼 고초를 겪었다. 제주도내에는 일제 말기 일본군이 조성해 놓은 거대 군사 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상당수의 제주도민들은 일제의 전시총동원령에 따라 징병·징용·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부역 동원되거나 전장으로 끌려갔다.

침탈과 저항의 역사로 점철된 식민지시대에도 제주사회는 꾸준히 내면적인 변화의 움직임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인구는 이전에 비해서 급격히 늘었고,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제주민들이 일본 오사카의 공장을 찾아 바다를 건넜다. 해녀들은 무리를 지어 남해, 동해, 일본 연안 등으로 출가 잠수 노동에 나섰다. 이제 제주사람들은 제주도 안에 갇혀 살지 않고 밖에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한편, 제주도 내에서도 한말 이래 신흥세력들이 일제와 타협하며 자본을 축적해 신흥자본가로 성장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유지세력이 형성되어 갔다. 이들은 1920년대 이후 각종 읍·면협의회를 주도했으며, 조선인에게 주어진 읍·면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은 철저히 일제에 타협하는 친일파로 전락하기도 했지만, 지역 주민의 신망을 받으며 도민 편에서 각종 이권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자제 가운데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울이나 일본으로 유학한 청년엘리트들이 많았는데, 사회주의, 자유주의, 아나키즘 등 서구이념을 수용한 상당수의 민족운동가가 배출되기도 했다.

결국,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제주도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근대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민족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민족의식을 깨우치게 되어 민족교육과 야학이 성행했고, 그 결과 활발한 항일운동이 펼쳐졌다. 또한 자본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밖에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제주도 밖으로의 활발한 진출은 제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수백 년간 섬 안에 갇혀있던 제주민들에게 일제강점기는 억압과 착취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와의 단선적인 관계에 얽매여 있던 굴레를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대, 또 다른 근대이기도 했다.

현대사 최대 비극, 제주4·3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당국의 정책 실패와 사회 문제 등으로 민심이 불안한 상황에서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도민은 민 · 관 총파업으로 저항했고, 이에 대응해 미군정은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 단원을 제주도에 파견해 테러와 고문을 일삼았다.

결국,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 · 단정 반대를 기치로 무장봉기했고, 5 · 10 총선거에서 제주도 2개 선거구만이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게 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뒤 정부는 제주에 군 병력을 증파해 강력한 진압작전을 펼쳤다. 이 해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대대적인 강경 진압작전이 전개된다. 이때 제주도 전역에서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1950년 6 · 25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자와 내륙지방 형무소 재소자 등이 또다시 희생되는 등 4 · 3은 몇 해에 걸쳐 제주섬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제주4 · 3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2만5,000~3만 명의 주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세계적인 냉전 상황과 한반도 분단체제의 고착화 과정에서 일어나 전개됐던 제주4 · 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집단희생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반세기 넘어서야 진상규명운동을 할 수 있었고, 명예회복을 통한 화해와 상생의 해결 과정을 밟았다.

북촌 너븐숭이 4·3 위령성지

1949년 1월 17일 새벽 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군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세화 주둔 제2연대 3대대의 중대 일부 병력이 군 차량으로 대대본부가 있던 함덕으로 가던 도중 무장대의 기습을 받은 것이다. 제주4 · 3 당시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오전 11시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쳐 온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켰다.

증언에 의하면, 당시 군 지휘관들이 주민들을 운동장에 집결시켜놓고 회의를 하던 중, 한 장교가 적을 사살해본 경험이 없는 군인이 대부분이니 적을 사살하는 경험도 쌓을 겸 몇 명 단위로 데려가서 총살하자는 제안이 불씨가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인근의 '당팟', '너븐숭이', '탯질밭' 등으로 사오십 명씩 끌고 가 무차별 사격으로 3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주민들이 밭일을 하다가 돌아올 때 쉬어가던 넓은 팡이 있어 이름 붙여진 '너븐숭이'는 바로 그 학살의 현장이다. 그리고 400여 채 가옥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그 이튿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함덕리로 소개되어 갔으나 또 거기에서 '빨갱이 가족 색출작전'에 휘말려 다시 수십 명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으로 북촌마을은 후손이 끊겨진 집안이 적지 않아서 한때 무남촌(無男村)으

로 불리기도 했다. 해마다 섣달 열여드레 날이 되면 북촌리에서는 집단적인 제사를 지내고 있다.

군경의 탄압을 피해 가까운 야산 숲속과 동굴에 숨어있던 상당수의 주민들은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전단을 보고 손들고 내려왔다가 잔혹한 고문으로 죄가 씌워져 정뜨르비행장에서 집단 처형당하거나 바다에 던져져 수장되기도 했으며, 육지 형무소로 보내져 행방불명되기도 했다.

북촌 너븐숭이 4·3위령성지 내 '순이삼촌 문학기념비'

1993년 마을 원로회에서는 제주 4 · 3의 진실 규명을 위해 피해조사를 단행, 439명의 희생자와 재산피해 상황을 조사했고 유족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합동위령제를 봉행해오고 있다.

이곳 너븐숭이에 위령비를 세우고 제단을 마련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위무하고, 이 자리를 평화시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기념관을 세웠다. 너븐숭이 4 · 3 위령성지는 총 부지 2,532㎡, 건물 294㎡로 위령비, 영상실과 전시관이 있는 4 · 3기념관, 산책로, 현기영의 순이삼촌 문학기념비, 휴게소, 방사탑 등이 시설되어 있다. 산책로를 따르다 만나게 되는 자그마한 애기무덤들은 당시의 잔혹상을 말해주는 듯하다.

재건과 개발 그리고 시험과 도전

1950년 6 · 25전쟁 발발 이후 피난민들이 대거 제주에 들어왔다. 제주섬에는 수만 명의 제주4 · 3 이재민과 한반도에서 온 피난민들로 들끓었다. 전쟁 발발 10개월이 지난 1951년 5월 중순에는 피난민이 15만여 명에 이르러 전체 도민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였다. 이들 피난민과 제주도민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950년대 제주도의 사회 · 경제는 6 · 25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의 입도, 1954년 제주4 · 3으로 소개되었던 중산간 지대 주민들의 원주지 복귀 등으로 혼란과 정착이 엇갈렸다. 경제는 제주 4 · 3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에 치중했고, 지역 개발은 다음 시기의 과제로 넘어갔다.

1960년 4 · 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남으로써 한국사회는 민주적인 시민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도 4월 27일부터 3일간 대대적인 학생 · 시민 데모가 일어나 제주4 · 3 이후 처음으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자유당 인사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책

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7 · 29 선거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혁신계 정당인 한국사회당의 김성숙(항일운동가)이 자유당 출신의 현오봉을 누르고 남제주군 선거구 민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제주대학 법과생들은 제주4 · 3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5 · 16군사쿠데타로 단절되고 만다.

1961년 5 · 16군사쿠데타 이후 30여 년 동안 군부정치, 군사문화가 20세기 후반부 한국역사를 관통하게 된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해 행정기구와 안보기구 등을 중심으로 국가체제와 사회를 모두 장악하는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를 실시했다. 한편으로는 근대화를 통한 경제 번영이라는 최고 목표가 설정되어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 갔다.

박정희 시대 제주도민들은 높은 여당 지지율을 보였고, 이에 답하기라도 하듯 박 대통령은 제주도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1966년의 제주도 특정지구 지정, 1971년의 제주도종합개발 10개년계획 수립, 1973년의 제주도특정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치면서 제주도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증식되기 시작한 감귤은 이 시기 제주도민들의 수입 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다.

1970년대 초가집이 헐리는 모습

물과 전기 · 통신의 보급, 도로와 항공로의 개설 등 20세기 문명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했던 때였다. 소위 '보릿고개'란 말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19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으로 마을길이 포장되고, 초가지붕이 개량되는 등 농촌근대화 열풍이 불었다.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제주도의 모든 마을은 외형적으로 변화했지만, 아울러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문화가 파괴돼버렸다.

한국사회는 1960~70년대를 통해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인 산업화, 곧 자본주의 발전을 경험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중산층 시민계층의 성장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대외적으로 1980년대 후반 소연방의 해체, 동유럽 국가들의 탈사회주의는 냉전체제의 붕괴를 가져와, 한국사회에 세계화 · 개방화의 파고가 밀려오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관이 유행하게 되었다.

1990년대 부활한 민선자치의 시행으로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고, 시민단체의 활동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민선자치는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우기도 했지만, 단기적이고 선심성에 치우친 행정으로 일관해버리는 병폐를 낳기도 했다.

1990년대 제주도의 경제는 이전과 달리 뚜렷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개방화 정책의 표방으로 제주도의 경제를 지탱해왔던 감귤산업이 위기를 맞이했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냈던 '지속 가능한 도민 주체의 개발' 공감대는 시험대에 서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IMF 위기상황으로 인해 제주도의 발전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책적 대안으로 국제자유도시 플랜이 도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환경보전과 개발의 상충, 개방과 전통고수의 가치관 대립 등 20세기 말 제주사회는 시험과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미래를 향한 여정

20세기 제주역사는 변방의 외로운 섬 제주가 고립에서 개방으로, 바깥으로부터의 압박에서 자율적 공동체로 진전하는 과정이었다. 개방은 제주인들에게 커다란 시련을 겪게 했다. '이재수 난'을 통해 외래문화의 영향이 미쳐지게 되었고, 어장 침탈로 시작된 일제의 제주 진출은 결국 식민지로 전락되어 36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겪어내어야 했다. 일제의 강압적 지배 뒤에 찾아온 해방공간에서 미·소 냉전체제의 희생물인 제주4·3이 발생했다. 1960년대 이후 자본의 유입에 따른 본격적인 개발로 경제적 복리를 누렸지만, 오랫동안 공유지로 전해 내려오던 중산간지대 토지가 잠식되었고,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의 파괴를 불러왔다. 감귤의 국내 시장 독점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앞으로 외국상품과의 경쟁은 필연적이다.

그렇다고 개방이 제주인들을 옥죄어온 것만은 아니었다.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자본과 기술, 인력 덕택으로 경제적 복리를 누렸고, 외부문화의 접촉과 주체적 수용으로 알찬 제주문화를 키워나갔다. 거꾸로 제주인들은 육지로, 일본으로 진출해 각지에서 활동하며 제주문화를 외부에 알렸고, 그들은 다시 고향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듯이 제주의 근·현대사는 제주섬을 에워싼 외부의 인간·환경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저항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 과정이었다. 과거 1백 년 동안 제주사회가 세계와의 만남을 시작했다면, 새로운 1백 년은 세계와의 만남이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20세기 제주도가 외부와의 만남을 애써 외면하고 배척했다면, 이제 새로운 21세기는 세계를 향해 더욱 활발하게 지식·정보·문화를 나누는 시대가 될 것이다.

추사유배지

제주역사 속 물결

600년 유배의 섬

원악도, 제주가 지닌 또 다른 별칭이다. 왕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로 차단되어 고립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일찍부터 멀고 험한 섬 '원악도(遠惡島)'로 불려졌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유배인들이 이곳에 들어왔다.

제주도로 유배왔던 인물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정치적 신념 때문에, 또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최고 권력자나 주류 정치집단으로부터 배척받아 격리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일종의 정치범 또는 양심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뜻을 같이하는 학

문적 동지들로부터 격리되어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야만 했다. 유형, 곧 유배라는 형벌제도 때문이었다.

추사유배지의 위리안치

제주도를 유배의 섬으로 처음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몽골족의 나라 원(元)이었다. 고려 말 제주에 들어와 대몽항쟁을 전개하던 삼별초가 진압된 해인 1273년, 제주를 직속령으로 삼은 원나라는 다른 나라의 왕족이나 세력을 가진 대신 등 몽골에 두기 곤란한 인물들을 제주도로 유배시켰다. 1317년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가 그 처음이었다. 그 후 1340년 삭란해대왕(索蘭奚大王)을 유배시킨 것까지 170여 명이 제주에 유배 왔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유배인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1343년 고려 28대 충혜왕 때부터다. 학선(嚞仙)을 시작으로 조득구(趙得球), 김용(金鏞), 석기(釋器) 등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고려 때는 많은 사람이 유배 온 것이 아니었고, 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조선시대 유배 1번지, 제주

조선시대 제주의 유배역사는 3대 태종 때부터 시작된다. 1402년(태종 2) 태조의 비 신덕왕후 강씨 인척인 강영(康永)이 제주도 함덕리에 유배되었고, 1409년에는 태종비 원경왕후의 두 동생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가 뒤를 이었다. 1637년에는 왕위에서 쫓겨난 광해군이 제주에 유배되기도 했다. 그 후 1911년 이승훈의 제주 유배까지 500여 년간 200여 명의 주요 인물들이 제주에 들어왔다. 한편 1647년 소현세자의 세 아들이 제주에 유배되면서 그 중 3남인 네 살짜리 이석견(李石堅)은 최연소 유배인이 되었고, 1721년 유배 온 신임(申鋹)은 84세로 최고령 유배인이 되었다.

왕족에서부터 당대의 저명한 선비와 문화예술인 그리고 종교인까지 중앙정계의 변동 때문에 멀고도 험한 제주로 등 떠밀려 내려왔다. 그들은 내려오면서, 또는 내려와서 시문(詩文)을 남기며 자신의 처지를 읊조렸다. 유배인들은 한라산과 제주바다를 바라보며 위안을 삼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 뜻과 이상을 곱씹기도 했다.

유배인들이 제주에 들어올 당시 제주목사 등 수령들이 누구였는가에 따라 그들의 대우는 천

차만별이었다. 아무래도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던 주요 인물들인지라 정적(政敵)을 만날 때도 있지만, 친분이 있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유배 온 낯선 곳에서 더욱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으며, 대접을 받고 편히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 예로 선조 계비인 인목왕후의 모친이었던 노(盧)씨는 광해군 때인 1618년 제주에 유배되어, 당시 양호(梁護) 목사의 학대를 받고 심한 고초를 겪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자 노씨부인은 서울로 돌아가 명예회복을 이루고, 그를 학대했던 양호 목사는 참형을 당했다.

조선시대 제주에 유배된 인물들은 대체로 제주의 삼읍에 나누어 적거했는데 그들의 적소는 수령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곳에 마련되었다. 위리안치(圍籬安置)와 같이 적소 울타리에 가시나무넝쿨을 두르고 바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곳도 있었다.

제주에서도 대정현 지역에 적거했던 유배인이 유난히 많았다. 그것은 제주 삼읍 중에서도 이 지역이 가장 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온 유배인은 대부분 절개가 있고 깊은 학문을 이룬 학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항상 독서하며 학문탐구에 몰두했고, 나아가 지역의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큰 공헌을 한 이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예부터 대정은 의리와 명분을 이어받은 선비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다.

유배인과 제주문화

유배인들은 제주의 인문환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제주도는 고려 후기부터 유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조선시대에는 '유배일번지(流配一番地)'로 불릴 정도가 되었다. 유배는 한 번 명령이 내리면 세상이 바뀌거나 뜻밖의 정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종신형이었다. 낯선 곳에서 자신의 생활기반을 모두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은 힘든 고통이었다. 따라서 절망 속에서 현실 도피의 사고도 지닐 법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유배인들은 체념을 극복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현지에 적응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갔다. 독서나 시작(詩作) 활동 등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을 후학 양성과 제주민 교육에 투자했다.

제주민들 역시 유배인들에게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다. 먹거리부터 기후, 풍토, 식생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까지 토착민에게서 습득하는 것은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유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제주민도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을 깨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무대와 멀리 떨어진 변방의 절해고도에서 이들 유배인으로부터 당대의 깊은 지식과 다양한 문화를 섭취하며 제주사회의 지적 · 문화적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유배인과 제주민의 이 같은 관계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두며 제주의 인문환경을 한 차원 승화시켜갔다.

제주에 유배왔던 인물 만나기

광해군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인 공빈 김씨 소생으로 임진왜란 때인 1592년 세자로 책봉되었다. 1602년 선조의 계비로 들어온 인목왕후가 1606년 영창대군을 낳는다. 1607년 선조가 갑자기 죽자 광해군은 1608년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했다. 그 후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은 왕권에 위협적인 세력으로 비쳐졌다.

1613년(광해군 5) 서양갑(徐羊甲) 등 7명의 서얼들이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역모를 꾸몄다는 이른바 '7서의 옥' 이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영창대군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봄 강화부사 정항(鄭沆)은 적소를 불태워 영창대군을 죽였으며, 광해군 지지세력들은 인목대비까지 폐비시켰다. 이로 인해 광해군은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아우를 죽였다는 이른바 '폐모살제(廢母殺弟)' 의 약점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유교 윤리를 훼손시킨 군주를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1623년 재야의 서인세력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왕위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유배되었으며, 이후 15년 동안 몇 차례 적소를 옮겨 다니다가 마침내 1637년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당시 제주목사로 도임한 이시방(李時昉)은 인조반정의 공신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을 모질게 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시방 목사는 광해군을 학대는 커녕 극진히 대우했다. 광해군은 그렇게 이시방 제주목사의 도움으로 지내다가 1641년 67세의 나이로 제주에서 병사하고 만다.

광해군이 죽자 인조는 3일간 조정을 정지시키고, 소찬으로 조의를 표했다고 한다. 그리고 예조참의 채유후를 보내 호상을 맡게 했다. 광해군은 경기도 양주에 묻혔다.

소현세자의 세 아들

소현세자는 인조의 맏아들이었다. 병자호란(1636) 때 아우인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9년 동안의 인질생활 끝에 1645년 2월 귀국했다. 그는 조선으로 돌아갈 때 청나라에서 친분을 맺은 독일인 신부 아담 샬(Schall, J. A.)로부터 받은 천문, 수학, 천주교 서적 및 여지구(輿地球), 천주상(天主像) 등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병자호란의 굴욕을 씻기 위한 북벌론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런 소현세자의 처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인조는 세자 일행이 북경에서 가져온 서양문물과 서적들에 대해 매우 노여워했다. 뜻하지 않은 부왕과의 갈등으로 인해 그해 4월 병석에 눕게 된 소현세자는 4일 만에 갑자기 죽었다.

1646년 인조는 소현세자빈 강씨가 역모를 꾸몄다며 사약을 내리고, 이듬해 자신의 손자인 소현세자의 아들 3명을 제주에 유배시켰다. 이때 장남 석철은 12세, 석린은 8세, 막내인 석견은 4세였다. 유배 1년 뒤 장남 석철이 풍토병으로 먼저 죽고, 두 달 뒤 차남 석린마저 병사했다. 그 후 막내 석견은 강화 · 교동 등지로 옮겨졌다

가 10년 만인 1656년(효종 7) 유배에서 풀려 귀경했지만, 1665년(현종 6) 22세의 나이로 병사하고 만다.

소현세자 세 아들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막내 이석견(경안군)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혼(李焜)과 이황(李熀)이 그들이었다. 이들 역시 1679년(숙종 5) 10세를 갓 넘긴 나이로 제주에 유배되었다. 강화도 축성장 이우가 보내온 무명인의 투서에 소현세자의 손자를 내세워 역모를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이들은 1684년에야 겨우 사면령이 내려져 유배에서 풀려 귀경했다. 이처럼 제주는 소현세자의 자식, 손자까지 2대에 걸친 유배지가 되기도 했다.

충암 김정

1486년(성종 17)에 태어난 충암(冲庵) 김정(金淨)은 1507년 과거에 장원급제한 후 홍문관부제학, 대사헌 등을 거쳐 1519년(중종 14) 34세의 나이로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는 일찍이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사림파의 대표적 존재로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개혁정치를 폈다. 대표적인 정책은 현량과(賢良科) 실시, 미신타파, 향약의 시행 등이었다.

그러나 1519년 훈구세력의 반발로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 조광조는 사약을 받고 김정은 충청도 금산으로 유배된다. 그런데 금산으로 가던 중, 몸이 아픈 노모에게 들러 문병을 했던 모양이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1520년 서울로 압송돼 국문을 받고 이번엔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제주에서의 유배생활 1년여 될 무렵, 그의 배소 이탈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고 결국 유배지 제주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그는 유배생활 동안《제주풍토록》을 집필했는데, 이 책은 16세기 전기 제주의 자세한 실정을 알려주는 역사지리서로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충암 김정 적려비

세월이 흘러 1578년(선조 11), 제주판관 조인후가 그를 추모하기 위해 충암사(冲庵祠)를 세웠다. 그 후 충암사는 1682년(숙종 8) 김정 외에 송인수(宋麟壽), 김상헌(金尙憲), 정온(鄭蘊)을 더 모셔 귤림서원(橘林書院)으로 승격되었으며, 1695년에는 송시열(宋時烈)까지 봉향해 오현(五賢)을 모시게 되었다. 귤림서원은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헐리게 된다.

1892년, 제주 유생 김희정이

중심이 되어 귤림서원 자리에 오현의 뜻을 기리고자 조두석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다. 이곳이 제주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오현단(五賢壇)이다. 지금도 경내에는 오현의 위패를 상징하는 높이 43~45cm, 너비 21~23cm, 두께 14~16cm의 조두석이 저마다 33~35cm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오현단 조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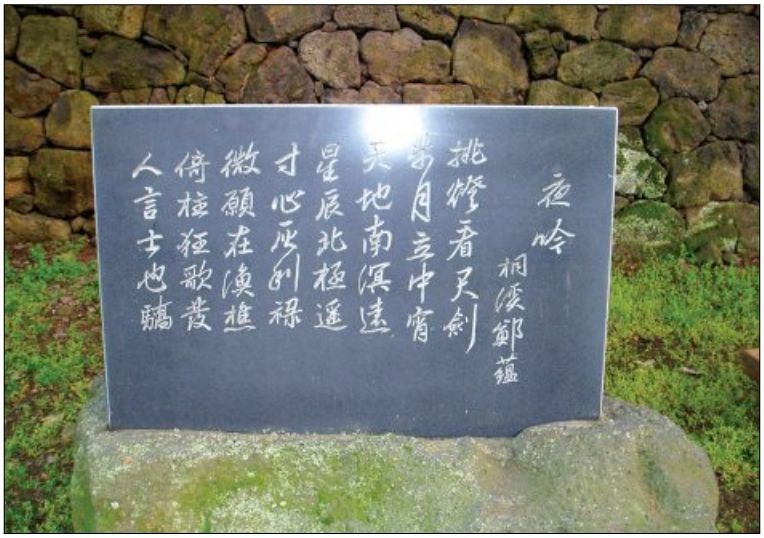
조두석 바로 오른쪽 암벽에는 1856년(철종 7) 판관 홍경섭 때 세운 '증주벽립(曾朱壁立)' 의 마애명이 있다. 이는 '증자와 주자가 벽처럼 서 있네' 라는 뜻으로 공자 유학의 정통을 잇는 제자(증자)와 신유학인 성리학의 완성자(주자)를 높인다는 의미다. 이 필적은 송시열의 글씨로 서울 성균관 인근에도 새겨져 있다. 아마도 홍경섭이 성균관 인근의 송시열 필적을 탁본해 이를 제주 귤림서원 내에 새긴 것으로 보인다.

동계 정온

1569년(선조 2)에 태어나 1610년(광해군 2) 문과에 급제한 동계(桐溪) 정온(鄭蘊)은 사간원 정언을 역임했다.

정온은 1614년 영창대군이 강화부사 정항에 의해서 피살되자 격렬한 상소를 올려 정항을 처벌할 것과 당시 일어나고 있던 폐모론(廢母論)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노한 광해군이 국문할 것을 명하고 이어서 제주도로 유배 보낸다.

정온은 인조반정(1623)으로 유배가 풀릴 때까지 10년 동안 제주



정온의 시비 '야음'

에서 오직 독서생활로 일관하는 등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온은 유배될 때 많은 책들을 가지고 왔는데, 당시 대정현감이 그를 위해 적소 안에 서실(書室) 두 칸을 만들어 주기까지 할 정도였다. 그의 글을 모은 《동계집(桐溪集)》의 〈동계선생문집연보〉 부록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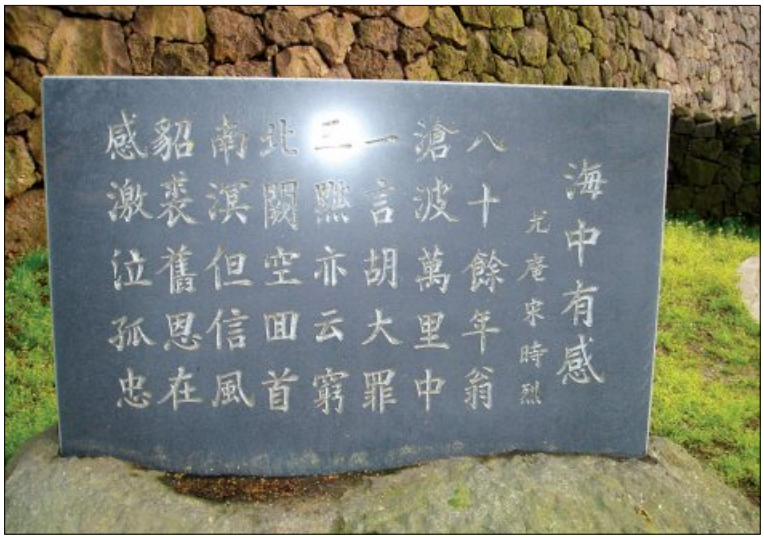
> 현감이 선생을 위해서 서실(書室) 두 칸을 지어 주었는데, 서실 옆의 서쪽 울타리 앞쪽으로 귤나무 숲을 마주하고 있었다. 선생이 날마다 그곳에 거처하여 경사자집(經史子集) 수백 권을 시렁 위에 올려놓고 10년 동안에 돌려가며 보았다. …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고 첫새벽에 옷을 떨치고 단정히 앉아 읽고 외우기를 그치지 않았다.

1682년(숙종 8) 제주목에 귤림서원이 세워지자 정온을 배향하여 '오현' 중 한 분으로 모셨다. 1842년(헌종 8)에는 제주목사였던 이원조(李源祚)가 당시 대정에 유배와 있던 추사 김정희의 건의로 정온의 유배지에 '동계정선생유허비(桐溪鄭先生遺墟碑)' 를 세웠고, 다음해 사당을 세워 송죽사(松竹祠)라 이름 짓고 그를 모셔 배향했다. 송죽사는 후일 송죽서원으로 승격되었다가, 1871년에 철폐되어 지금은 없다.

우암 송시열

1607년에 태어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김장생(金長生)을 스승으로 모셔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고, 27세 때 과거에 장원급제해 관직에 나갔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왕이 치욕을 당하자, 10여 년 동안 시골에 묻혀 학문에만 몰두했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해 척화파와 재야학자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그도 벼슬에 나아갔으나, 1659년 현종이 즉위한 후에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재야에 은거했다. 숙종 때인 1689년 장희빈의 아들(경종)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유배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압송되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다.



송시열의 시비 '해중유감'

그의 학문은 전적으로 주자(朱子)의 학설을 계승해 일생동안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연구함으로써 관련 저술을 많이 남겼다. 1787년(정조 11) 그의 글을 모두 모아

《송자대전(宋子大全)》이 간행되었다. 송시열이 흠모했던 주자를 본떠 문인들이 그를 높이는 뜻에서 이름 붙인 것이다.

송시열이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 83세의 고령이었다. 그리고 제주 성안 산지골 윤계득의 집에서 100여 일을 지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시 중앙정계를 이끌던 노론의 영수인 그가 제주에 유배되자 제주 유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1694년 사후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자, 제주 유생 김성우가 상소해 당시 네 선현을 모시던 귤림서원에 송시열이 배향되었다.

1850년(철종 1)에는 제주목사 장인식(張寅植)이 '귤림서원묘정비기((橘林書院廟庭碑記)' 를 지어 비를 세웠는데, 그는 송시열을 이렇게 칭송했다.

> 우암 송(宋)선생은 … 일찍이 왕실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로 삼았는데, 이는 주자의 마음 쓰는 법이었다. 그러므로 일찍이 '주자는 공자 이후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우암 선생은 주자 이후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 우리 우암 송시열 선생은 율곡 이이(李珥), 사계 김장생(金長生) 두 선생의 정통 계승자이다. … 선배들이 이른바 '우암 선생은 곧 우리 조선의 유학을 집대성했다.' 는 말이 참으로 정확한 논평이다.

추사 김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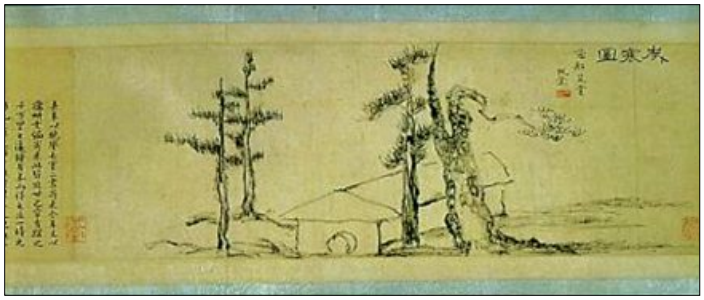
조선 후기의 문신, 서화가, 금석학자로 이름 높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는 충남 예산에서 1786년(정조 10)에 태어났다. 일찍이 북학파의 일인자인 박제가(朴齊家)의 눈에 띄어 그의 제자가 되었다. 1819년(순조 19) 문과에 급제해 관직생활을 시작했지만 1830년(순조 30) 부친 김노경이 윤상도(尹商度) 옥사의 배후 조종 혐의로 고금도로 유배되면서 그도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 부친의 유배가 풀리자 1836년 병조참판,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추사 적려유허비

그러나 1840년(헌종 6) 윤상도의 옥사가 재론되면서 다시 연루되어,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어 1848년까지 9년 동안 제주에서 지냈다. 그의 적거지는 처음에는 대정현 교리(校吏) 송계순의 집이었으나, 나중에 지금 추사적거지가 마련되어 있는 강도순의 집으

로 옮겼다.

김정희는 일찍이 24세 때 중국 연경(燕京)에 가서 당대의 이름난 유학자 완원(阮元), 옹방강(翁方綱), 조강(曹江) 등과 교유했고, 그들로부터 금석문의 감식법과 서도사 및 서법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옹방강의 서체를 따라 배우면서 그 연원을 거슬러 조맹부(趙孟頫), 소동파(蘇東坡), 안진경(顔眞卿) 등의 여러 서체를 익혔고, 다시 더 소급해 한(漢)·위(魏)시대의 여러 예서체(隸書體)에 서도의 근본이 있음을 간파하고 본받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들 모든 서체의 장점을 밑바탕으로 독창적인 길을 창출한 것이 바로 고풍스러운 추사체(秋史體)다.


세한도

추사체는 그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완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일정한 법식에 구애되지 않는 그만의 기품이 담겨 있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 추사와 동시대를 살았던 박규수(朴珪壽, 1807~1876)는 《박규수전집》중 〈유요선이 소장한 추사유묵에 부쳐〉를 통해 추사체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다.

> 추사의 글씨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 서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어렸을 적에는 오직 동기창(董其昌)에 뜻을 두었고, 연경을 다녀온 후에 옹방강을 따르며 노닐면서 열심히 그의 글씨를 본받았다. (그래서 이 무렵 추사의 글씨는) 너무 기름지고 획이 두껍고 골기(骨氣)가 적었다는 흠이 있었다. 그 후에는 소동파(蘇東坡)와 미불(米芾)을 따르고 이옹(李邕)으로 변하면서 더욱 굳세고 신선해지더니… 드디어는 구양순(歐陽詢)의 신수(神髓)를 얻게 되었다. 만년에 (제주 유배로) 바다를 건너갔다 온 다음부터는 구속받고 본뜨는 경향이 다시는 없게 되고 여러 대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법(一法)을 이루게 되니 신(神)이 오는 듯 기(氣)가 오는 듯, 바다의 조수가 밀려오는 듯하였다.

추사가 남긴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국보 제180호로 지정된 《세한도(歲寒圖)》다. 세한도는 1844년 추사 나이 59세, 제주에 유배 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제작된다. 이 그림은 역관 신분의 그의 제자 우선(藕船) 이상적(李尙迪)에게 그려준 것이다. 이상적은 스승 추사를 위해 1843년에는 계복(桂馥)의 《만학집(晩學集)》과 운경(惲敬)의 《대운산방문고(大雲山房文稿)》, 다음해는 하장령(賀長齡)의 《황조경세문편(皇朝經世文編)》을 연경에서 구해다 직접 제주에 들어와 전해주었다. 이상적의 이런 정성에 추사는 감격한 나머지 그의 변함없는 사제의 정에 감사하는 뜻으로 세한도를 그리고 발문(跋文)을 써서 넘겨주었다. 발문은 다음과 같다.

> 세상은 흐르는 물살처럼 오로지 권세와 이익에만 수없이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대는

> 많은 고생을 하여 겨우 손에 넣은 그 책들을 권세가에게 기증하지 않고 바다 바깥에 있는 초췌하고 초라한 나에게 보내주었다. … 공자께서 '날이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뒤늦게 시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 고 했는데, 지금 그대와 나의 관계는 예전에도 더한 것이 아니요, 유배당한 이후인 지금에도 덜한 것이 아니네. … 아, 쓸쓸한 이 마음이여!

이상적은 김정희에게 발문이 붙여진 이 그림을 받고는 몹시 기뻤다. 그해 10월 청나라에 가는 동지사 이정응을 따라 세한도를 가지고 연경에 갔다. 다음해 1845년 1월 이상적은 청나라 친구 오찬(吳贊)의 연회에 참석했는데, 이때 참석했던 반증위(潘曾瑋), 장악진(章岳鎭), 장요손(張曜孫) 등 청나라의 유학자 16명이 추사의 세한도를 보고 너도나도 시문을 붙였다. 이것이 세한도에 붙어 있는 '청유십육가(淸儒十六家)' 의 제찬(題讚)이다.

추사유배지와 제주추사관

서귀포시 대정읍성 동문자리 안쪽에 자리잡은 추사유배지는 추사 김정희가 유배생활을 하던 곳이다. 김정희는 이곳에 머물면서 추사체를 완성하고, 〈완당세한도〉를 비롯한 많은 서화를 그렸으며, 제주지방 유생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치기도 했다.

추사유배지에는 추사가 유배생활을 보냈던 초가 4채가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으며, 2010년 5월 추사의 제주 유배기간에 이룩한 업적을 기념하여 '제주추사관' 이 개관되었다. 추사기념홀과 전시실 3곳에서는 추사의 시, 서화 등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정난주 마리아

정난주(丁蘭珠)는 황사영(黃嗣永)의 부인이자 정약현(丁若鉉)의 딸이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의 조카딸이다.

정난주는 1801년(순조 1) '황사영 백서사건' 에 연루되어 제주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37년 동안 대정현의 관비(官婢)로 유배생활을 하다 죽었는데, '서울할머니' 라는 이름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의 남편 황사영은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충청도 제천

정난주 묘역

의 배론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유박해로 타격을 입은 조선 교회의 참상과 교회 재건책을 북경 주교에게 호소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다. 이것이 바로 〈황사영백서〉로 길이 62cm, 너비 38cm인 흰 비단에다가 검은 먹으로 한 줄에 110자씩 121행 도합 1만3천여 자를 깨알같이 써서 채웠다. 이를 1801년 10월에 떠나는 북경 동지사(冬至使) 일행에 몰래 끼워 보내려고 했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황사영은 서울로 압송된 뒤 처형되었고, 어머니는 거제도, 아내 정난주는 제주도 대정현, 아들은 추자도로 각각 유배되었다.

〈황사영백서〉는 그 후 약 100년 동안 의금부에 보관되어 오다가 1895년 조선교구 주교였던 뮈텔(Mutel)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1925년 7월 5일 로마에서 조선순교복자 79위의 시복식이 거행될 때 교황에게 전달되어 지금은 로마교황청에서 보관 중이다.

정난주는 제주에 유배 온 최초의 천주교 교인이다. 1994년 천주교 제주교구가 그의 묘를 찾아 천주교 대정성지로 성역화 했다.

한죽 신임

1639년(인조 17)에 태어난 한죽(寒竹) 신임(申鋹)은 신명규(申命圭)의 아들이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남인의 탄핵으로 제주에 유배 간 부친의 억울함을 호소해 방면하게 하였다.

1722년(경종 2) 신임옥사가 일어나자 소론을 꾸짖고 세자의 아우인 연잉군(영조)을 보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84세의 고령으로 제주도 대정현 감산리에 위리안치 되었다. 이로써 제주는 신명규, 신임 부자(父子) 2대에 걸친 유배지가 된 셈이다. 신명규는 1674년 대정현 예래촌에 유배 왔는데, 이곳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에게 수학한 제자 오정빈(吳廷賓)은 정의현 출신으로 서울로 유학해 문과에 급제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정의현 출신의 과거급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서재 임징하

서재(西齋) 임징하(任徵夏)는 1687년(숙종 13)에 태어났다. 1725년(영조 1)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왕의 분노를 사서 평안도 순안에 유배되었다가, 1727년에 제주도 대정현으로 옮겨 위리안치 되었다.

제주에 유배 온 지 2년 후 그는 역모의 죄명으로 다시 서울로 불려가 국문을 받았는데, 끝까지 왕의 각성을 촉구하며 항거하다가 옥사했다.

임징하는 제주 유배생활 중 예전에 제주목사를 지낸 임홍망(任弘望)의 손자라 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았다. 임홍망은 1681년(숙종 6) 8월부터 1682년 12월까지 제주목사를 지냈는데, 재임 중 제주민의 부역을 고르게 하고 무명세를 폐지시켜 칭송을 받았다.

산수헌 권진응

1711년(숙종 37)에 태어난 산수헌(山水軒) 권진응(權震應)은 송시열의 제자였던 한원진(韓元震)에게 배웠다. 1771년(영조 47) 영조의 탕평책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탄핵을 받아 대정현 창천리에 유배되었다. 유배 중 강필발의 집에 머물며 그 집을 '창주정사(滄洲精舍)' 라 이름 짓고 제주 유생들을 가르쳤다. 창주(滄洲)는 주자(朱子)의 호인 동시에 그가 만년에 지어 유학의 성현을 모셔 제례를 지냈던 건물 이름이다. 따라서 주자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그의 뜻이 담겨 있다. 송시열이 제주에 유배와 머물렀던 가옥을 돌아보고 지방 유림에게 유허비를 세우도록 하고 비문을 썼다. 그 비가 '우암송선생적려유허비' 로 지금 제주시 오현단(五賢壇)에 남아 있다.

조정철과 김윤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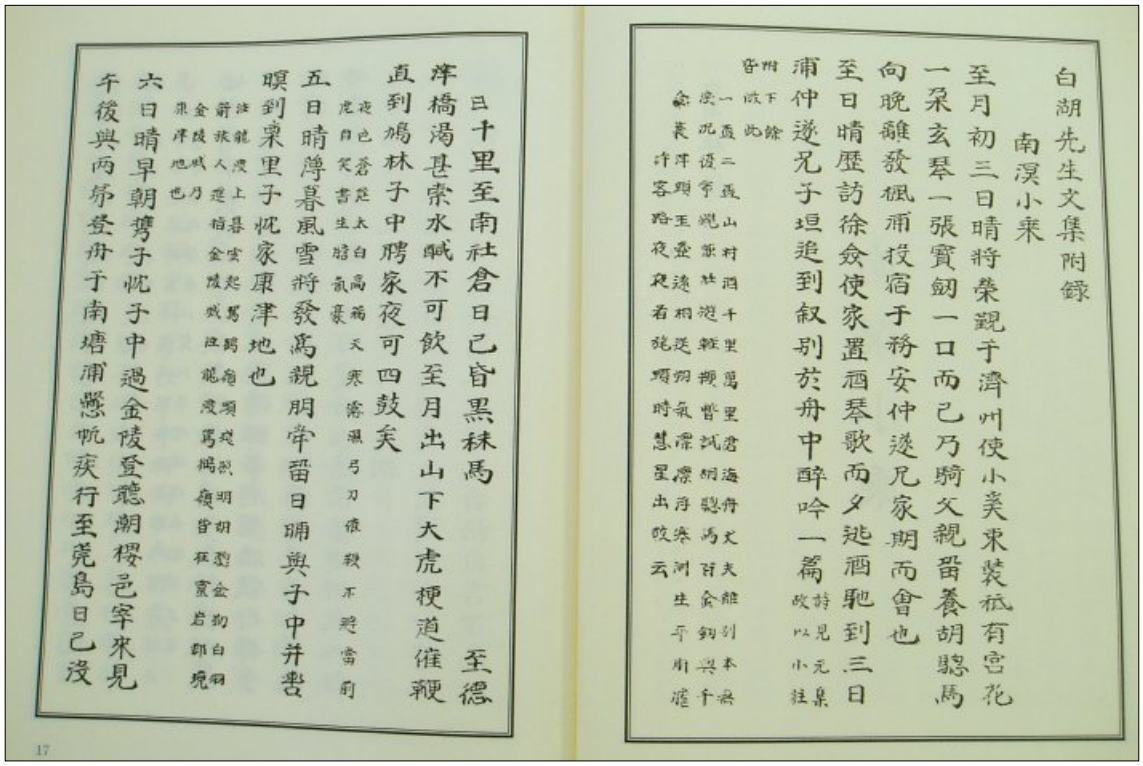
조정철(趙貞喆)은 1777년 정조 때 임금 시해 음모에 연루되어 26세의 나이로 제주에 유배되어 1805년까지 30여 년을 제주에서 지냈다. 1781년 제주목사로 도임한 소론(少論)의 김시구(金蓍耉)는 노론(老論)의 조정철 집안과 원수지간이었다. 조정철을 죽일 명분을 찾던 목사는 그의 제주 연인 홍윤애(홍랑)를 잡아 고문을 가하다가 옥사시켰고, 이 사건으로 목사 김시구는 파직되었다. 그 후 조정철은 유배에서 풀려 관직에 등용되었는데, 1811년 자신이 유배 왔던 제주목사로 부임해 홍윤애의 원혼을 달래며 비석을 세우기도 했다.

김윤식(金允植)은 개화기 온건개화파로 외무대신 등을 역임했다. 1897년 민비시해음모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제주에 유배되었다. 처음에는 제주에 들어 온 즉시 감옥에 갇히는 등 당시 목사였던 이병휘(李秉輝)에게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1898년 박용원(朴用元)이 목사로 도임하면서 대우가 현저히 달라진다. 김윤식은 목사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자유롭게 행동했을 뿐 아니라, 제주에서 우수한 문인들을 모아 자주 시회(詩會)를 여는 등 문학활동을 이끌기도 했다.

제주역사 속 향기

조선 천재시인 임제의 제주 유람

백호(白湖) 임제(林悌)는 1549년(명종 4) 임진(林晋)의 5남3녀 중 첫째로 태어나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천재시인이다. 1577년(선조 10) 문과에 급제한 후, 그 해 11월 3일 제주목사로 있던 아버지를 만나러 고향 나주를 출발해 제주로 향했다. 그는 스물아홉 살 때인 1578년 3월 3일까지 4개월간 제주를 여행하면서 일기체로 글을 남겼는데, 《남명소승》이라 이름 붙였다.


白湖先生文集附錄

南溟小來

至月初三日晴將榮覲于濟州使小奚來裝祇有宦花一朵玄琴一張寶劒一口而已乃騎父親留養胡驄馬向晩雖發楓浦投宿于務安仲遂兄家期而會也至日晴歷訪徐僉使家置酒琴歌而夕逃酒馳到三日浦仲遂兄子垣追到叙別於舟中醉吟一篇

附下餘此

音

一直二直山村酒千里萬里君海舟丈夫雖別本無庚況復予親兼妹遊難擲曾試胡驄馬百金鈞與千金裘洋順玉盞遠相送朔氣漂漂序寒洌生平肝膽洛客路夜夜者能燭時慧星出故云

至德

二十里至南社倉日已昏黑秣馬

泮橋渴甚索水飯不可飲至月出山下大虎梗道催鞭直到鳩林子中腾家夜可四鼓矣

夜色蒼茫太白高掛天寒霜風弓刀俱裂不堪前虎自笑書生膽氣豪

五日晴薄暮風雪將發爲親朋牽留日晡與子中并轡暝到栗里子忧家康津地也

註龍湫上昌寶起舊鶴龜頭蹙說明胡對金狗白銅箭狀人遥指金陵城乃金陵城江龍湫舊稱楊巖皆在寶啓郡境栗津地也

六日晴早朝餐于忧子中過金陵登應潮樓邑宰來見午後與兩弟登舟于南塘浦懸帆疾行至莞島日已沒

《남명소승》

1577년 11월 9일 제주에 도착한 임제는 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 열흘 동안 제주성 안의 명소 · 고적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 제주를 유람했는데, 해안선을 따라 일주하는 여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2월 10일에서 16일까지 7일 동안 제주의 칼바람이 부는 겨울 악천후에도 기어코 한라산에 올랐다. 제주 일주와 한라산 등정을 이룬 임제는 2월 그믐날 별도포(別刀浦)를 통해 제주를 떠나 3월 3일 비로소 고향 집에 돌아갔다. 4개월에 걸친 그의 여행이 끝난 셈이다.

제주 해안을 일주하다

임제의 제주 일주는 사전에 계획된 상태에서 진행된 게 아니었다. 아버지를 따라 제주성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싶은 감흥이 일어나 서둘러 행장을 꾸려 나선 것이다.

임제가 제주성을 중심으로 동쪽부터 시작해 서쪽으로 돌아온 6일 동안의 여정은 이랬다.

- 11월 22일 : 제주성 동문(東門) 출발. 조천관 → 김녕포 → 별방성(1박)
- 11월 23일 : 성산도(城山島) · 우도(牛島) 탐사, 정의현(1박)
- 11월 24일 : 정의현감과 여흥, 서귀방호소(1박). 이상 제주 동쪽 해안지방 유람에 3일 경과. 나머지 3일간은 제주 서쪽 해안지방 유람 일정
- 11월 25일 : 오늘날 서귀포와 대정 일대를 둘러보는 여정. 백호의 제주 기행 중 가장 바쁜 일정 소화.
  천지연폭포 → 고감사(高監司)의 옛 집터 → 천제연폭포 → 산방산 · 굴사(窟寺) → 대정현(1박)
- 11월 26일 : 송악산(松岳山) → 재암(財巖, 한림읍 협재굴) → 명월방호소(1박)
- 11월 27일 : 명월방호소 → 애월방호소 → 제주성 서문(西門) 도착

이 경로를 알기 쉽게 현재의 지명으로 나타내 보면, 제주시 동문 → 조천 → 김녕 → 구좌(하도) → 성산(수산) → 우도 → 성읍(정의현) → 서귀포(홍로천) → 천지연폭포 → 서귀포(용흥동) → 서귀포(강정동) → 천제연폭포 → 안덕(창천) → 안덕(사계) → 대정(보성, 대정현) → 대정(상모) → 한림(상명) → 한림(협재) → 한림(명월) → 애월 → 제주시(외도) → 제주시 서문이 된다.

우도

이 유람 중 임제는 성산일출봉과 우도를 탐사하며 그 경관에 감탄을 토해내는 명문을 남겼다. 특히 악천후였는데도 우도에 들어가 해안동굴까지 둘러본 것은 탐경(探景)을 좋아하는 그의 성격을 엿보게 한다. 임제가 성산 일출봉과 우도를 둘러보고 감격해 쓴 글들이 인상적이다.

> 성산도(城山島)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마치 한 송이 푸른 연꽃이 파도 사이에 꽂혀 솟아오른 듯했다. 위쪽으로는 석벽이 성곽처럼 빙 둘러쳐 있고, 그 안쪽(분화구)은 평평하니 드넓어 초목이 자라고 있었다. 바깥쪽 아랫부분들은 바위 굽이가 기괴하여 돛대 같기도 하고 막집도 같고 일산 친 것도 같고 짐승 같기도 해서 온갖 형상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
> 우도(牛島)는 그 형상이 마치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다. 남쪽 벼랑에 무지개처럼 열린 돌문이 있어, 돛을 펼치고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안의 굴은 천연의 요새여서 황룡선(黃龍船) 20척쯤은 숨겨둘 만하였다. 굴이 막혀질 즈음에 또 하나의 돌문이 있는데, 겨우 배 한 척이 통과할 만하였다. 이에 노를 저어 들어가니 백로(白鷺) 같은 신기한 새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굴이 남향이어서 바람도 없고 따뜻하기 때문에 바닷새가 서식하는가 싶었다. 안쪽 굴은 바깥 굴에 비해 조금 작지만 훨씬 더 기괴한데다 물빛은 그윽하여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았다. 위를 쳐다보니 달처럼 둥글둥글한 하얀 돌들이 희미한 광채를 낸다. 그 하얀 돌들은 사발 같기도 하고 술잔도 같으며 거위 알 같기도 하고 탄환(彈丸)도 같은데, 하늘의 별처럼 뒤섞여 있었다. 굴 안이 어둡고 검푸르기 때문에 흰 돌이 별이나 달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시험 삼아 피리를 불어보니 처음에는 은은하게 들리더니만 곧바로 굉굉한 소리가 되어, 마치 파도가 진동하고 산악이 무너지는 듯했다. 오싹하고 두려움이 일어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다.

이미 과원(果園)이 되어버린 고 감사의 옛 집터를 지날 때는 중국의 명승과 비교하며 그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고 감사는 한성부판윤을 지낸 고득종(高得宗, 1388~1460)을 일컫는다. 제주 인물 고득종은 1413년(태종 13) 효행으로 천거 받아 직장(直長)이 되고, 이듬해 알성문과에 급제했으며, 1438년 호조참의로 명나라에 다녀왔는가 하면, 1439년에는 통신사로 일본에도 다녀왔다. 문장과 서예에 뛰어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에 그의 시가 실려 있으며, 제주목관아 내의 '홍화각(弘化閣)' 글씨를 썼다.

그 '고감사의 옛 집터'는 지금의 서귀포시 용흥동에 있었다. 임제는 당시 과원이었던 그곳을 '귤이 있는 동정호(洞庭湖)와 매화가 있는 서호(西湖)의 경치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소개하고 있다.

> 고 감사(高監司)의 옛 집터를 둘러보았다. 지금은 대정현의 과원이 되었다. 귤과 유자가 숲을 이루

어 천 그루를 헤아리는데, 땅에 떨어진 열매들은 마치 황금이 쌓여 있는 듯했다. 매화는 고목이 되어 마치 규룡(虯龍)이 눕거나 서있는 듯 무수히 길을 끼고 늘어서 있었다. 섣달그믐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얼음을 머금은 꽃망울이 이제 막 터지고 있었다. 나는 농담처럼 '동정호에는 귤이 있고 매화가 없으며, 서호에는 매화는 있고 귤이 없다지. 여기는 동정호와 서호의 흥취가 함께 눈앞에 있구나. 아마도 신령께서 나의 호기심을 알고서 (귤과 매화를) 한 곳에 옮겨 놓으셨나보다.' 라고 중얼거렸다.

430년 전 저 편의 한라산은 어땠을까

해안을 따라 제주를 둘러본 임제는 이듬해인 1578년 2월 10일 한라산으로 향한다. 그의 한라산 등반은 7일간이었지만 사실상의 등반은 2월 15일과 16일 이틀이었다. 2월 10일 제주읍내를 출발해 존자암(尊者庵)에 도착했고, 2월 11일은 존자암 인근의 오백장군동(五百將軍洞), 곧 영곡(靈谷)을 둘러보았다. 백호는 이 곳이 제주에서 제일가는 경승으로 신선이 사는 동천(洞天)이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중국 한(漢)나라 전횡(田橫)과 오백의사들의 고사를 인용해〈오백장군동〉의 한시를 지었다.

오백장군동은 일명 영곡(靈谷)이라 한다. 층층의 봉우리들이 하얗고 깨끗하여 옥 병풍을 친 듯 빙 둘러 있다. 세 갈래로 흘러내리는 폭포가 하나의 골짜기로 쏟아진다. 참으로 이 섬 중에서 제일로 치는 동천(洞天)이라 하겠다. 또한 그 곳의 기암들이 마치 사람 모양으로 계곡과 산 위에 수없이 서 있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오백장군동이란 이름은 아마도 이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시간가는 줄 모르게 감상하다가 존자암으로 돌아왔다. … 영곡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신선의 흥취를 누르기가 어려웠다.

임제는 제주의 오백장군동을 예전 한고조(漢高祖)에게 신종(臣從)하기를 거부했던 전횡(田橫)을 따라 자결한 500여 명 지사(志士)들의 영혼이 제주에 들어와 빚어낸 경관으로 비유해 한시를 읊고 있다.

五百將軍洞	**오백장군동**
昔漢有天下	옛날 한(漢)나라가 천하를 차지하니
田橫入海島	전횡(田橫)은 해도(海島)로 들어가고 말았다네.
相隨五百人	전횡을 따라간 오백 의사(義士)들
勁氣摩蒼旻	굳센 기개 창공을 휩쓸었구려.
漢欲王侯橫	한나라는 전횡을 불러 왕후(王侯)로 삼았는데

橫死雒陽道	전횡은 낙양(洛陽) 도중에서 자살했다네.
客在海島中	섬에 남아 있던 오백 의사들
聞之當若爲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어찌하겠나.
雄心共激烈	영웅의 마음 아울러 격렬한 터라
一死酬相知	죽음으로 지기(知己)를 보답했다네.
精靈恥漢土	그 영혼 한나라 땅에 있기 치욕스러워
被髮翩然東	머리카락 날리며 동쪽으로 왔다네.
仙洲化爲石	선주(仙洲)로 오자마자 돌로 변하여
屹立滄溟中	한바다 가운데 우뚝 서 있소.
萬古一片心	일편의 단심(丹心)은 만고에 하냥
碧海孤輪月	바다 위 외로운 저 달을 보소.
客到起遐想	길손이 먼 생각을 일으킬 적에
英風吹鬢髮	영풍(英風)이 귀밑털을 휘날리누나.
一語慰幽窅	이제 한마디 말로 원혼을 위로하노니
韓彭亦鈇鉞	한신(韓信) · 팽월(彭越) 그네들도 죽음을 당했더라오.

임제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날씨가 너무 궂어 존자암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산중에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느라 존자암의 청순(淸淳) 스님과 얘기를 나누다 노인성(老人星) 얘기를 듣고는 한시를 짓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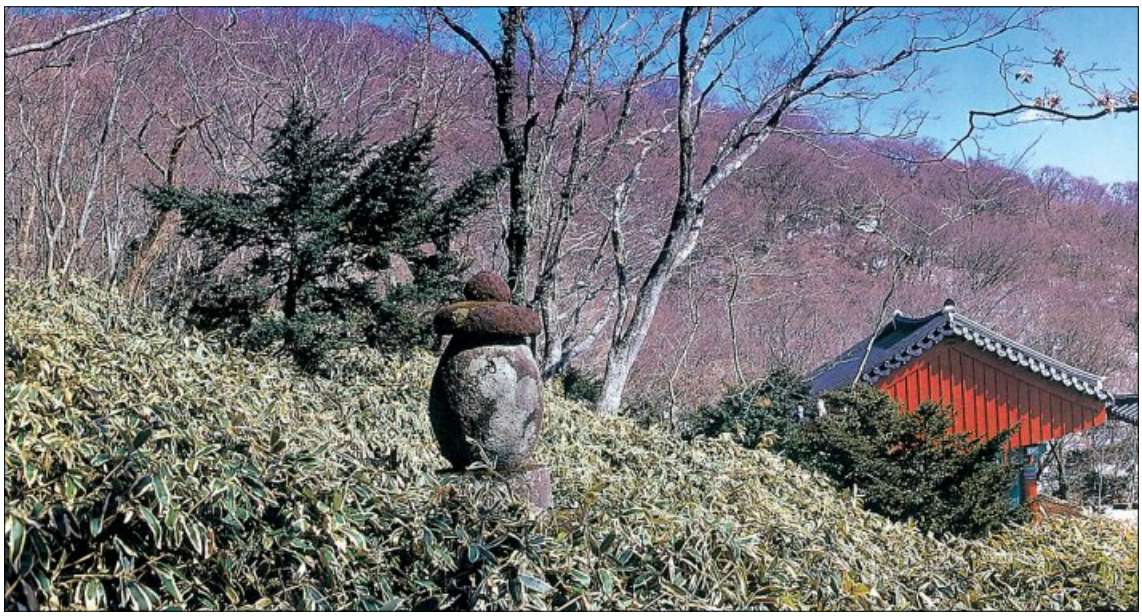
世傳老人星	세상에 떠도는 말 노인성이란 별
乃在天南極	아스라이 저 하늘 남쪽 끝에 있다지.
登玆山可望	이 산을 오르면 보인다는데
大與月輪敵	그 별 크기는 둥근 달만 하다고.
今聞長老言	내 이제 장로의 말씀을 들으니
前後無所覿	아직껏 구경한 일 없다 하네.
我欲掛之天中央	내가 저 노인성을 옮겨다 하늘 복판에 걸어두고
坐令四海爲壽域	온 천하를 장수하는 세상 만들 수 없을까.

노인성(老人星)은 카노푸스(Canopus)라고도 하는데, 시리우스(Sirius) 다음으로 밝은 별이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남극성(南極星),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남두성(南斗星), 수성(壽星) 등으로 부른다. 중국의 고대 천문학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맡아보는 별이라 해서 이 별을 보면 오래 산다고 믿었다. 한국에서는 한라산 정상과 서귀포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2월 15일, 마침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임제의 등산이 시작되었다. 그는 존자암에서 영곡을 거쳐 산방산과 송악산이 굽어보이는 제주 서남쪽 기슭을 타고 정상에 올랐다. 오늘날로 치면 영실코스를 통해 윗세오름을 거쳐 정상으로 향한 듯하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가는 곳마다 선경(仙境)이요, 걸음걸음마다 기관(奇觀)이 펼쳐진(行行仙趣 步步奇觀)' 산행이었다. 상봉에 올라 백록담(白鹿潭)을 감상하는데 날씨는 그야말로 청명했다. 임제는 하늘과 바다가 이어진 수평선까지 시야가 트였다며 정상에서 감회에 젖는다.

> 최정상에 도착하자 거기는 구덩이가 움푹 파여 못(백록담)을 이루고 있었다. 석봉(石峯)이 빙 둘러싸서 둘레는 7~8리가량 되었다. 바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물은 유리처럼 맑아 깊이를 측량할 수 없었다. 못 주위로는 흰 모래에 향기로운 덩굴이 뻗어 한 점의 티끌도 없었다. 인간 세계와는 3천리나 떨어져 있으니 난새의 퉁소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신선의 수레가 보이는 듯하다. … 사방의 시야는 해와 달이 두루 비치는 곳에서 배와 수레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모두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시야에는 한계가 있어 다만 하늘과 물 사이에 그칠 따름이니 한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산을 내리는 길은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다. 상봉에서 남쪽으로 내려 두타사(頭陀寺)와 쌍계암(雙溪庵)에 이르는 산행이었다. 벼랑으로 길이 끊기기도 했고, 허리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며 축축이 젖어드는 고통스러운 발길을 마냥 걸었다고 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꿰어놓은 물고기처럼 한 줄로 서서 내려가는' 난코스였다. 쌍계암에 이르자 피곤해 드러눕고는 일어



존자암지

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쌍계암을 흐르는 시내에 밝은 달이 비치는 아름다운 밤의 정경을 두고 임제는 술 한 잔에 그 경승을 감상치 못해 끝내 한탄스러웠다고 기록을 남겼다.

임제의 〈등한라산기(登漢拏山記)〉는 한라산 등산과 관련해 현재 전하는 자료 가운데 최초의 기록이다. 물론 이전에도 한라산 등산과 그 기록을 남긴 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등산코스를 자세히 기록해 남긴 자료는 임제의 글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따라서 《남명소승》에 기록된 그의 한라산 등정은 조선조 또는 그 이전 선인들의 한라산 등산코스를 귀띔해준다 하겠다.

한라산 등반을 마친 임제는 2월 그믐 제주를 떠날 때까지 13일 동안 제주목에 머물렀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 순풍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사이 임제는 제주성 주변의 용두암, 용연, 모흥혈 등을 둘러보고 한시를 남기기도 했다.

龍頭巖	**용두암**
海畔巉岏石	바닷가에 불끈 솟은 저 바위
龍頭謾說名	부질없이 용두(龍頭)라 이름 붙였네.
洪濤日夜擊	큰 파도 밤낮 와서 부딪치는 것이
猶作風雷聲	마치 우레 소리 같구나.

翠屛潭	**취병담**
城南只數里	성 남쪽 몇 리 쯤에
有峽淸而奇	협곡 하나 청아하고 기이하다.
石爲白玉屛	바위는 둘러 백옥병풍
潭作靑琉璃	못은 파란 유리잔.
岸上幾叢竹	언덕 위의 몇 무더기 대숲
蕭蕭海風吹	해풍이 불어 소소한데
扁舟倚桂棹	일엽편주 노에 기대어
吟玩歸遲遲	노래하며 즐기다 천천히 돌아가세.

毛興穴	**모흥혈**
昔有三異人	먼 옛날 세 이인(異人)이
湧出於玆島	이 섬에서 솟아났다고.
古穴餘鼎分	그 구멍 셋이 남아 있거늘
埋沒生春草	봄풀 속에 묻혀 있네.
奇蹤問未能	기이한 종적 물을 곳 없는데
日暮牛羊道	소, 양 다니는 길에 해는 저물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가 김만덕

김만덕(金萬德)은 1739년(영조 15) 아버지 김응열과 어머니 고씨 사이에서 2남 1녀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1750년(영조 26) 12세에 부모님이 사망하자 제주목 기녀의 수양딸이 되었고, 18세에 기적(妓籍)에 올랐다가 23세에 전후 사정이 감안되어 양녀로 복귀되었다. 그 후 제주목 동문 밖에 객주집을 차리고 말총 · 미역 · 전복 · 양태 · 우황 등 제주 특산물을 서울 등지에 팔거나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 · 장신구 · 화장품 등을 공급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

1790년(정조 14)부터 5년간 계속된 흉년으로 제주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였다. 특히 갑인년 흉년은 제주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에 장사를 통해 모은 재산 1천 금을 내놓아 배를 마련하고 육지로 건너가 쌀과 곡식을 사들여 10분의 1은 가족과 친척,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었고, 나머지 450석은 모두 관가로 보내어 구호미(救護米)로 쓰도록 기부했다.

당시 제주목사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자, 정조는 김만덕에게 내의원의 의녀반수(醫女班首) 벼슬을 내렸

다. 김만덕은 나이 58세인 1796년에 정조를 알현하고 영의정 채제공과 선혜청의 배려로 조선의 명산인 금강산을 유람했다. 그 후 김만덕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자선사업을 계속하여 온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만덕할머니'로 통칭되어 오다가, 1812년(순조 12) 73세의 나이로 운명했다.

김만덕 기념관(사라봉 모충사 소재)

김만덕의 선행에 채제공은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이라는 글을 김만덕에게 써주었다. 1840년대 제주도에 유배 중이던 김정희는 김만덕의 양자 김종주에게 '은광연세(恩光衍世: 은혜로운 빛은 세상에 길이 빛나리)' 라는 글을 써주었다.

김만덕의 정신은 오늘날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이룬 조선시대 여성전문경영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천한 신분에서 상인으로 성장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활용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실천가로 추앙받고 있다.

은광연세 (추사 김정희 글)

제주역사 속 에피소드

조선시대 제주를 세상에 알린 외국인들

1653년(효종 4) 8월, 네덜란드인 하멜(Hamel, H.)이 탔던 상선이 난파되어 제주 남서쪽 대정현 해안에 닿는다. 하멜은 당시는 조선이었던 한국에서 13년 동안 지냈다. 그리고 1666년 9월 동료들과 함께 탈출해 일본을 거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그 후 하멜은 《하멜표류기》로 일컬어지는 《난선 제주도 난파기(蘭船 濟州島 難破記)》를 써서 처음으로 서방세계에 한국과 제주도를 알렸다.

1901년 6월, 독일인 지그프리드 겐테(Siegfried Genthe)는 제주를 방문해 서양인으로서는 처

음으로 한라산에 올랐고, 그 높이가 1,950m임을 밝혔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 자신이 근무하는 〈퀼른신문〉에 한국과 제주도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1901년 10월 13일~1902년 11월 30일)했다. 이 연재 내용을 바탕으로 1905년에는《겐테의 제주여행기》가 독일에서 출간된다.

1902년부터 1915년까지 13년 동안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서 천주교 신부로 선교활동을 했던 프랑스인 타케(Emile Joseph Taquet)는 제주의 식물을 채집 · 조사해 많은 표본을 서방학계에 보냄으로써 제주도의 식물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특히 1908년 4월 관음사 부근에서 채집된 왕벚나무 표본(번호 4638번)은 제주도가 그 자생지임을 세계에 널리 알린 그의 성과였다.

네덜란드인 하멜

1653년(효종 4) 8월 16일, 네덜란드의 무역선 스페르웨르(Sperwer)호가 난파된 채로 제주도 대정현 차귀진 관할의 해안에 닿는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이 배는 타이완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심한 풍랑을 만나 난파되었고, 선원 64명 가운데 하멜을 비롯한 36명만 살아남아 제주 남서쪽 해안에 상륙하게 된 것이다.

하멜 일행은 곧바로 서울로 호송되었고, 이후 전라도 등지로 분산 수용되었다. 그리고 13년 후인 1666년 하멜을 포함해 8명의 선원들이 일본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그 후 하멜은 동인도회사에 그동안 밀린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하멜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보고서가《난선 제주도 난파기》, 일명《하멜표류기》로 서양에서 출판되어 한국과 제주도가 서방세계에 처음으로 알리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의 무역선 스페르웨르(Sperwer)호가 하멜 일행을 태우고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것은 1653년 1월 10일이었다. 배는 6월 1일 동인도회사의 동아시아 본거지가 있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바타비아(Badavia)를 거쳐 6월 14일 타이완의 안핑에 도착한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기 위해 7월 30일 나가사키를 향해 출항했다. 그러나 풍랑이 심해 8월 11일까지도 스페르웨르호는 대만 해협을 빠져 나오지 못했고, 결국 8월 16일 제주도의 대정현 대야수 해안에서 배가 난파되고 말았던 것이다.

64명의 선원 가운데 제주섬에 오른 생존자 36명은 곧바로 제주목으로 옮겨졌다. 말이 안 통했을 터, 통역을 위해 서울에서 벨테브레(J.J. Weltevree, 한국명 박연)가 제주에 파견된다.

벨테브레 역시 네덜란드 사람으로 25년째 한국에 살고 있었다. 그는 1627년(인조 5) 9월 우웨르케르크(Ouwer Kerk)호로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 물을 얻기 위해 제주에 상륙했다가 관원들에게 잡혔다. 그 뒤 서울로 호송되어 이름도 박연으로 고쳐 짓고, 훈련도감에서 총포 제작 등에 종사하며 지내고 있었다.

하멜 일행은 제주목에서 서울로 호송되었다. 박연은 하멜 일행과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조선의 말과 풍속을 가르쳤다.

1656년 3월 하멜 일행은 전라도 병영으로 옮겨졌는데, 그동안 14명이 죽어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다. 1663년에 이들을 다시 여수 · 남원 · 순천으로 분산, 수용되었다. 하멜이 억류생활을 한 곳은 전라도 여수 좌수영이었다.

1666년(현종 7) 억류생존자 수는 모두 16명이었는데, 하멜을 포함한 8명만이 같은 해 9월 4일 야음을 틈타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일본의 나가사키를 경유해 1668년 7월 암스테르담에 귀환했다.

《하멜표류기》는 1668년 암스테르담에서 출간됐으며, 1670년에는 프랑스어판, 1671년에는 독일어판, 1704년에는 영어판이 나오는 등,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간행되었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던 서양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최초의 저서였던 셈이다.

이 책은 1934년《진단학보》1~3호에 이병도(李丙燾)가 영역본(英譯本)을 번역해 전재했다. 그 구성은 제1부 난파와 표류에 관한 기록, 제2부 〈조선왕국기(朝鮮王國記)〉로 되어 있어, 한국의 지리 · 풍토 · 산물 · 정치 · 군사 · 풍속 · 종교 · 교육 · 교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1980년 10월 12일, 한국과 네덜란드는 우호 증진을 위해 그 당시 난파상륙 지점으로 추정됐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해안 언덕에 높이 4m, 너비 6.6m의 하멜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2003년 8월 16일 서귀포시는 하멜 표착 350년을 기념해, 하멜기념탑이 세워진 언덕 아래 용머리 해안에 하멜 상선 전시관을 준공 · 개관했다. '하멜호' 라 이름지어진 이 전시관은 당

복원된 하멜상선

시 난파된 스페르웨르호를 재현해 지어졌고, 내부에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1696년(숙종 22) 저술된 이익태 제주목사의 《지영록(知瀛錄)》에는 〈서양국표인기(西洋國漂人記)〉란 제목으로 하멜 일행의 제주 표류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진다. 그 첫 대목은 이렇다.

> 당시 목사는 이원진(李元鎭), 판관은 노정(盧錠), 대정현감은 권극중(權克中)이었다. 계사년(1653, 효종 4) 7월 24일 서양국 만인(蠻人) 힌얌신(헨드릭 하멜을 지칭) 등 64명이 함께 탄 한 배가 대정현 지방의 차귀진(遮歸鎭) 아래 대야수(大也水) 연변에 난파되었다. 익사자 26명, 병사자 2명, 생존자는 36명이었다. … 남만서양 등의 나라 사람으로 추정하여 조정에 아뢰니 곧 남만에서 표류해 온 사람 박연(벨테브레)을 내려 보냈다.

이 기록은 하멜 일행이 탄 배가 난파된 지역이 차귀진 아래 대야수 연변이라고 했다. 대야수가 어느 지경일까? 1702년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자료에 따르면 대야수포(大也水浦)는 산방산 쪽이 아닌 고산 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야수포는 고산리 '한장 대물(또는 대아물)'의 한자 표기다. 따라서 《지영록》의 기록이 옳다면 하멜이 난파한 지점은 고산리 한장과 신도2리 사이의 해변으로 추정된다.

독일인 겐테

> 화산 정상은 용암덩어리가 쌓인 원추형 봉우리인데 사방은 매끈하게 마무리되어 일정하게 급경사를 이루며 내려온다. 정상에 오르자 사방으로 웅장하고 환상적인 장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섬을 지나 저 멀리 바다 너머로 끝없이 펼쳐지는 파노라마였다. … 이처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제주의 한라산처럼 펼쳐지는 곳은 지구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한라산이 바다 한 가운데 있고 모든 대륙으로부터 100km이상 떨어져 있으며, 아주 가파르고 해수면에서 거의 2,000m 높이에 있는 이곳에 오르니 사방 해수면이 활짝 열리며 우리 눈높이까지 밀려올 듯 솟구쳐 올랐다.

1901년 6월, 지그프리드 겐테가 한라산 정상에 올라 쏟아놓은 감상이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두 개의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꺼내 한라산 높이 측정에 나섰다. 그 결과 분화구 맨 가장자리 높이는 해발 1,950m로 나타났다. 참고하기 위해 꺼낸 또 다른 영국산 기압계도 6,390피트를 가리켰다. 그는 분화구 측정에도 나서 직경 400m, 높이가 70m정도임을 알아냈다. 겐테는 "백인들이 아직 한 번도 오르지 못한 한라산 정상 등정은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이라고 감회에 젖는다.

1870년 베를린에서 태어난 겐테는 마르크부르크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퀼른신문에 입사했다. 그는 1898년 미국 워싱턴 특파원을 시작으로 중국 등 당시 유럽의 관심지역을

취재하고 있었다. 그가 중국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기간은 1901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이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한국의 강원도, 서울, 제주를 방문해 여행기를 남겼다. 그의 여행기는 '한국, 지그프리트 겐테 박사의 여행기' 로 퀼른신문에 연재됐고, 1905년에는 그의 동료 기자였던 베게너가《겐테의 제주 여행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했다.

겐테는 서울에서 미국인 샌즈(Sands)를 만나면서 제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샌즈는 당시 조선황실 고문으로 1901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재수의 난' 을 진정시키기 위해 제주에 다녀간 사람이다. 겐테는 샌즈에게 제주에 대한 정보를 듣고 여행을 결심했다. 당시 제주목사(이재호)와 친분을 맺은 샌즈는 친서를 써주었고, 겐테는 황실 상선 '현익호' 를 타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했다.

당시 제주는 이재수 난이 진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심이 흉흉했다. 제주목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호위병을 붙여주는 한편, 한라산을 측량하기 위해 외국인이 제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모든 관아에 알렸다. 겐테는 호위병과 통역관을 비롯한 길안내자 등 모두 11명의 일행과 함께 제주성 서문을 나서 옛 영실 등반로를 따라 한라산 등정에 나섰던 것이다.

프랑스인 타케

한국에서 나비박사로 널리 알려진 석주명은 "타케는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제주도 식물채집 조사가로서 오히려 유명했다." 며, 1942년《문화조선(文化朝鮮)》제주 특집란에 이렇게 전했다.

> 서귀포에서 북쪽 2리에 살고 있던 타케 신부는 기회만 있으면 한라산에 들어가 식물표본을 채집, 이를 구주의 학계에 보내고 있었다. 1908년 4월 14일 그는 관음사 부근(해발 600m)에서 한 그루의 벚나무에 꽃이 달려 있는 것을 채취, 자신의 채집(표본)번호 4638호를 달아 구주에 보냈다.

타케는 1908년 4월 14일 제주도 관음사 부근에서 채집한 벚나무의 표본을 서양에 소개했고, 이를 독일의 케네(Koehne) 박사가 '왕벚나무의 한 변이종으로 새로운 분류군' 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자생 왕벚나무의 최초 표본이 보고되었으며, 왕벚나무의 자생지는 제주도라는 학설이 수립되었다. 타케는 이처럼 제주의 특산식물들을 많이 채집해 서방학계에 알렸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제주의 식물표본 학명도 13종에 이른다.

타케는 1873년 10월 프랑스 노르드(Nord)주에서 태어났다. 1897년 파리 외방선교회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부로 임명됐는데, 첫 임지로 발령받은 곳이 한국이었다. 타케는 1898년 1월 서울에 도착했고, 1902년 4월에는 제주에 부임해 서귀포 호근동에 있는 하논 본당에 들었다. 여기서 잠시 거주한 후 그해 6~7월 사이에 지금의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의 홍로로 옮긴다. 그는 1915년까지 13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이곳(복자수도원 면형의 집)에서 지내며 선교활동

과 함께 왕성하게 식물채집에 나섰다. 타케가 머물던 홍로 본당은 제주의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제주 근대식물 연구에 매우 중요한 족적을 남긴 공간인 셈이다.

타케의 제주 포교활동 시기는 한국식물분류학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시기였다. 그가 채집한 많은 표본이 유럽으로 보내져 전문가들의 연구대상이 되었고, 그 표본으로 수많은 논문이 세계 각지에서 발표되었다.

타케의 식물채집 · 조사 활동은 제주도의 식물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지만, 그 못지않게 한라산의 식물은 물론 남해안과 백두산의 식물 등 한국의 식물자원을 유럽으로 유출시켰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조명되고 있다.

제주역사 속 어두운 기억

상처와 갈망이 낳은 평화의 섬

제주도는 고대부터 동북아시아를 잇는 해상교통로의 요지였다. 한반도와 중국대륙 및 일본의 삼각지점에 자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평화로운 시기에는 다양한 문화의 교차로가 되었다. 그러나 갈등의 시기에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했다.

13세기 후반 세계제국 몽골과의 항전을 명분으로 삼별초가 제주도로 들어오고 섬 전체가 고려 · 몽골연합군과의 전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고려 중엽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

로 계속됐던 왜구의 노략질 또한 제주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환해장성을 쌓고 3성 9진 25봉수 38연대라는 독특한 방어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제국주의 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제주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모했다. 그 양상은 20세기 들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됐다. 특히 1941년 12월부터 1945년 8월까지의 태평양전쟁 시기에 제주도는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섬 전체가 요새화된다. 세계사를 뒤흔든 태평양전쟁의 광풍이 제주섬을 휩쓴 것이다. 당시 제주도에는 7만5천여 명에 이르는 일본군 대병력이 진주했다. 이들은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해안가에서부터 중산간지대 및 한라산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군사비행장과 격납고시설, 지하 진지(갱도) 등을 만들었다.

일제로부터 벗어난 광복의 기쁨도 잠시 제주에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으로 꼽히는 4·3이 발생한다.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민들이 강제 동원돼 구축된 지하진지는 4·3 당시 일상적인 학살터로 이용돼 역사의 비극을 느끼게 한다.

제주섬에 산재한 전쟁유적과 방어유적은 제주가 겪은 고난과 비극의 역사 그 자체이자 고단했던 제주인의 삶을 전하며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알뜨르평원 항공사진, 왼쪽 끝에 알뜨르비행장 활주로가 보인다.

제주만의 독특한 방어유적을 만들다

제주도는 '성곽의 섬'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에는 제주읍성과 대정현성, 정의현성 등 3성과 9개의 진성, 봉수 25곳과 연대 38곳이 남아있다. 거기에다 고려시대부터 해안가를 따라 축조한 환해장성과 삼별초가 고려 몽골연합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항파두리성(국가사적 제396호)이 있다.

3성 9진 25봉수 38연대의 본격적인 축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시작됐다. 방어시설의 대대적인 정비는 제주도안무사 한승순이 1439년(세종 21)에 왜선이 정박할만한 곳에 방어대책 수립을 건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중종대 삼포왜란(1510년), 명종대 을묘왜변(1555년), 선조대 임진왜란(1592년)을 겪으면서 수축이 계속됐다. 해안가를 따라 돌다보면 만나게 되는 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애월진, 명월진, 차귀진, 서귀진, 수산진, 모슬진 등 9진성과 25개 봉수, 38개 연대 체제는 왕조시대부터 제주의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만든 독특한 방어시스템인 것이다.

별방진

9개의 진성 가운데 하나인 별방진성(別防鎭城 · 제주도기념물 제24호)은 해녀마을로 유명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에 있다. 별방진성은 1510년(중종 5) 제주목사 장림에 의해 축조됐다.

별방진은 제주 동부지역 최대의 방어시설이었다. 성곽은 둘레가 1,008m, 높이는 3~4m 정도로 타원형으로 축조됐다. 별방진은 인근의 봉수와 연대를 관할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했다.

왜선의 정박지가 우도 근처에 있었기에 김녕방호소를 이곳으로 옮기고 성을 쌓아 별방(別防)이라 했다. 별방이란 '별도의 방어시설' 혹은 '특별 방어시설' 을 뜻한다고 한다. 이후 별방진은 1848년(헌종 14) 장인식 목사가 중수했다.

별방진은 조선시대 제주 동부지역 최대의 방어시설이었다. 동문, 서문, 남문과 옹성 3개소, 치성 7개소가 만들어졌고, 주요 시설로는 진사, 객사, 사령방, 무기고 등이 있었다. 별방진 내에는 '동별창' 이라 하여 흉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창고까지 있었다고 한다.

별방진 관할 봉수대로는 구좌읍 한동리 왕가(往哥)봉수와 김녕리 입산(笠山)봉수 2곳, 연대로는 구좌읍 평대리 입두(笠頭)연대와 한동리 좌가(佐哥)연대 및 월정리 무주(無住)연대가 있었다.

별방진성은 일제 강점기에 허물어지기 시작하여 오랫동안 방치돼왔다. 현재 성곽의 일부를 정비하면서 회곽도 등을 만들어놓았지만 옛 정취를 찾아보기 힘들다. 문 위에 누각이 있던 동문, 서문, 남문도 헐린 채 마을 안길로 이용되고 있다. 속칭 성안물로 불리던 우물도 지금은 매

별방진성

립돼 버렸다.

별방진성의 옛 자취는 서문지와 남문지 사이 서쪽 경작지에 남아있는 원형의 성벽에서 느낄 수 있다. 수십m 길이의 성벽 구간이 3~4m 높이로 둘러쳐져 있어서 축성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 동부지역 최대의 방어진지였던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별방진 축성 당시에 관한 일화도 전해진다. 당시는 심한 흉년이 지속돼서 식량 사정이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성을 쌓는 데 동원됐던 역군들은 식량이 모자라 인분을 먹어가며 성을 쌓았다는 말이 지금도 전해질 정도다.

별방진과 부씨 종가에 관한 전설도 있다. "별방진이 헐리게 되면 부씨 종가(하도리 서가름)가 쇠할 것이다"라는 말이 전해진다. 이 말은 서동에서 북쪽으로 바다를 막은 별방진이 헐리게 되면 북쪽이 허해져서 좋지 않은 징조라는 것이다. 결국 일제 강점기에 별방진이 헐렸는데 부씨 종손은 죽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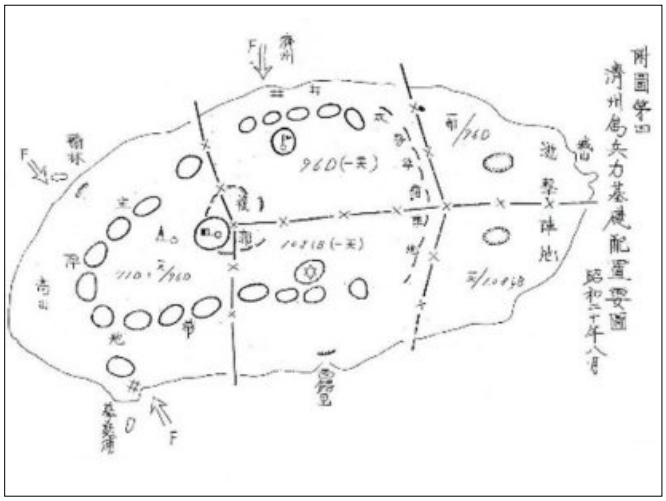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제주

제주도는 세계적인 오름왕국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360여 개에 이르는 오름이 분포해 있다. 이 가운데 1백여 곳 오름에 태평양전쟁 시기 일제 군사시설인 지하 갱도진지 등이 구축됐다.

일본군들은 왜 제주도를 거대한 전쟁기지로 만들었을까.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은 기습적인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1944년 10월 필리핀에 이어 1945년 3월 이오지마(硫黄島)에 미군이 상륙하면서 패전 위기에 몰리기 시작하자 일본 본토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제주도내 진지구축 상황이 표시된 〈제58군 배비개견도 제주도〉



일본군 사단 주둔지가 표시된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

당시 일본군은 중국대륙과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제주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 시기는 1945년 8월 이후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 판단에 따라 일본방위총사령관은 1945년 2월 9일 각 방면군 사령관에게 6월경을 목표로 한 일본 본토결전 작전, 곧 '결호작전(決號作戰)' 준비를 완성할 것을 명령한다.

결호작전이란 미국 등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작전을 일컫는다. 결1호 작전은 홋카이도(北海道)·지시마(天島) 방면, 결2호 작전은 토호쿠(東北) 방면, 결3호 작전은 간토(關東) 방면, 결4호 작전은 토카이(東海) 방면, 결5호 작전은 츄부(中部) 일본방면, 결6호 작전은 규슈(九州) 방면, 결7호 작전은 조선 방면(제

주도 방면)이었다.

결7호 작전의 수립과 함께 일본군의 제주도 진주 병력도 급속히 증가했다.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은 1944년 6월까지만 해도 수비대 등 300명이었으나 1945년 8월 종전 무렵에는 7만5천여 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들은 1945년 4월에 편성된 제58군사령부 예하에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독립혼성 제108여단 등 3개 사단 1개 여단 및 직할부대 등으로 편제돼 제주도 각지에 배치됐다.

제111사단은 제주 서남부 지역에, 제121사단은 제주 서북부 지역에, 제96사단은 제주 중앙부에, 독립혼성 제108여단은 제주 동부지역에 각각 주둔했다. 또한 58군사령부는 어승생악, 111사단은 안덕면 원물오름 일대, 121사단은 애월읍 녹고뫼 일대, 108여단은 조천읍 거문오름 일대에 사령부가 위치했다. 주둔지를 중심으로 한 오름에는 '위진지(僞陣地)', '전진거점진지(前進據点陣地)', '주저항진지(主抵抗陣地)', '복곽진지(複郭陣地)' 등 4종류의 진지가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해안에는 자살 특공기지를 구축해 놓았다. 특공기지는 제주 북쪽지역의 서우봉, 서쪽지역의 수월봉과 송악산, 동쪽지역의 성산일출봉, 남쪽지역의 삼매봉 해안 등 5곳에서 확인된다.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거나 주둔예정인 특공부대는 코료(蛟龍), 카이료(海龍), 카이텐(回天), 신요(震洋) 등이었다. 이 가운데 신요(震洋)부대는 일출봉 해안과 삼매봉 해안 및 고산리에 배치됐다.

일제는 육상과 해상에서의 진지구축과 함께 제주도내 4곳에 군사비행장을 건설한다.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은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서비행장(일명 정뜨르비행장)으로 처음 조성됐다. 조천읍 진드르에는 제주동비행장(일명 진드르비행장)이, 교래리에는 특공용 비밀비행장이 만들어졌다. 모슬포 알뜨르평원에는 '제주도항공기지', 일명 알뜨르비행장이 조성됐다.

일본군 군사시설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제주도민들 고통의 산물이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민 4만여 명 정도가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동원됐다. 당시 제주도 인구가 21만 명 정도였으니,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겠다.

오늘날 해안가와 오름 등지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는 이들 일본군이 남긴 어두운 역사의 잔재다. 오름마다 적게는 2~3곳에서 많게는 20곳이 넘는 지하진지가 구축돼 있다. 길이도 오름마다 수십 미터에서 길게는 2㎞ 이상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듯 당시 제주도는 일본군의 거대한 전쟁기지였다.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했더라면 '제2의 오키나와'가 되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에 산재한 일제 군사시설 중 현재 13곳이 국가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야욕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 되고 있다.

야외 전쟁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알뜨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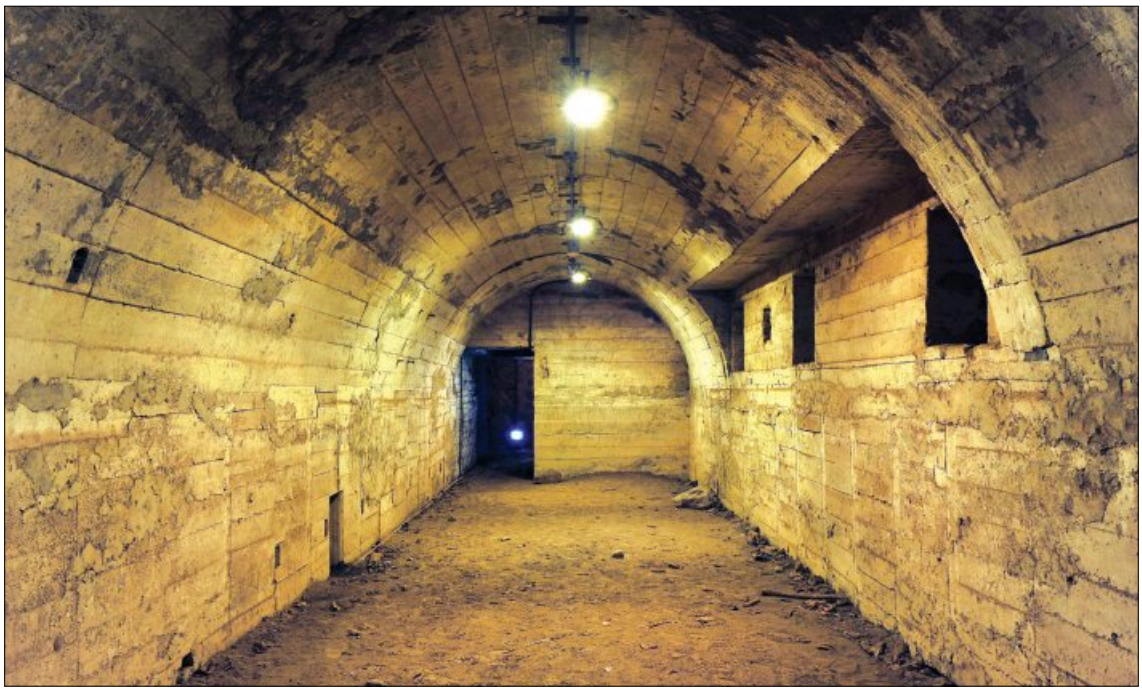
제주 서남부인 대정읍 모슬포 알뜨르는 제주도에서 가장 너른 평원에 속한다. 어느 볕 좋은 날 이곳에 가면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회색빛 구조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비행기를 숨겨놓기 위한 엄체호, 곧 격납고다. 알뜨르평원에는 격납고 19기가 온전히 남아있다. 격납고는 너비 20m, 폭 10m, 높이 4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알뜨르평원은 일제강점기부터 중국대륙 공격을 위한 군사비행장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알뜨르비행장 조성계획이 처음 구상되기 시작한 것은 1926년부터다. 처음에는 중·일전쟁에 대비해 중국대륙 공격을 위한 도양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 계획 하에 구상됐다. 그 후 1931년부터 1936년까지 이어진 1차 공사로 활주로 1,400m×70m 규모, 60만여 ㎡의 비행장이 완성됐다.

2차 확장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시작됐다. 당시 일제는 중국 난징 및 상하이를 공격하기 위해 나가사키현의 오무라(大村) 항공기지를 알뜨르비행장으로 옮겼다. 이 때문에 제주도항공기지는 한때 '오무라비행장'으로 불렸고, 모슬포 일대는 어처구니없게도 '오무라' 부락으로 불리기도 했다.

알뜨르비행장은 2차 공사(1937~1938년)를 통해 132만여㎡으로 확장되고, 실제 중국 대륙공



알뜨르 벙커 내부

격을 위한 해양폭격거점으로 활용된다. 알뜨르비행장에서 중국 난징 공습은 36회, 연 600기, 투하폭탄은 총 300톤에 달했다.

1944년 10월에 접어들면서 비행장 규모를 220만여㎡로 늘리는 제3차 확장공사가 시작된다. 알뜨르평원에 현재 남아있는 격납고 시설 등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전쟁유적이다. 이곳에는 제로센(零戰)과 함공(艦攻) 및 중공(中攻) 등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알뜨르비행장이 오무라해군항공대 연습비행장으로 활용되면서 일명 '잠자리비행기'라 불리는 연습용 '아카톰보'(Akatombo)비행기도 배치됐다고 한다.

알뜨르평원에 비행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마을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 일대에 있던 '알오름동' 등 6개 마을터가 수용된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제주도민을 동원해 격납고와 활주로 등을 만들었다. 이처럼 알뜨르비행장은 식민지 지배의 전형적인 상징물인 것이다.

알뜨르평원의 일제 군사시설은 다양하다. 유개격납고 19기뿐만 아니라 무개격납고와 지하벙커, 고각포진지, 탄약고, 비행장 활주로, 길이가 1㎞에 이르는 섯알오름 거대 지하호, 송악산 해안 자살특공기지 등이 반경 1㎞ 이내에 조성됐다.

알뜨르평원은 20세기 세계사를 뒤흔든 대사건인 태평양전쟁과 관련된 거대한 '야외 전쟁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섯알오름 일제 탄약고 터가 학살터로 변하다

일제 군사시설은 그 자체가 식민시기의 어두운 역사다. 일제가 패망한 후 지하진지는 또다시 비극적인 공간이 된다. 해방공간에 불어 닥친 제주4·3 시기에 무고한 죽임을 당하는 일상적인 학살터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섯알오름 학살의 비극은 1950년 6·25전쟁 시기에 발생했다. 섯알오름은 송악산 맞은편 북쪽으로 나지막하게 솟아있는 3개의 봉우리 가운데 맨 서쪽의 것을 말한다. 섯알오름은 정상부에 2개의 고각포진지가 만들어지고, 오름 지하에는 알뜨르비행장과 관련된 폭탄고(탄약고)가 구축됐다.

섯알오름 폭탄고는 일제 패망 후인 1945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미군 무장해제팀에 의해 폭파됐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함몰부가 생겼는데, 그로부터 5년 뒤 그곳에서 학살극이 벌어진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과 8월, 경찰과 군인(해병대)에 의해 예비검속자로 지목된 민간인 2백여 명이 커다란 구덩이 안에서 총살된 것이다.

1차 총살은 1950년 7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2차 총살은 1950년 8월 20일(음력 7월7일)에 발생했다. 이것이 '섯알오름예비검속학살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발표한 희생자 수는 모두 218명에 이른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이 된 경찰의 '예비검속'은 해방 후 폐지되어 정부에

섯알오름 학살터와 위령비

서 공식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제도였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지역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어떤 법령이나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예비검속을 불법적으로 실시했다.

예비검속 희생자들 대부분은 제주4 · 3이나 좌익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됐다. 특히 무고나 밀고, 경찰과의 불화, 개인적인 감정 다툼으로 예비검속된 경우도 많았다. 희생자들은 20~30대가 77%, 남자가 96%를 차지했으며 교사는 11명, 공무원 5명, 마을유지 5명 등 사회지도층 인물들도 포함돼 있다.

섯알오름 희생자들은 학살된 이후에도 몇 차례 수난을 겪었다. 희생자들은 사건 발생 6년여가 지난 1956년 3~4월에야 군 당국의 허가를 통해 시신수습이 가능했다. 그러나 수습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 탓에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시신별로 뼈를 맞출 수도 없었다. 유족들은 유해 132구를 수습해 사계리 공동묘지에 이장했다. 현재의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 ; 백 할아버지의 한 자손) 묘역은 처음 이렇게 해서 조성됐다.

제주섬이 지닌 향기, 문화 이야기

입으로 전해지다 / 신화
전설
민요
제주어

풍습으로 전해지다 / 무속신앙
세시풍속

삶으로 전해지다 / 돌문화
해녀문화
전통산업
의생활문화
식생활문화
주거문화

신화

1만8천 신들의 고향

제주섬은 1만8천 신(神)들이 사는 신의 나라다. 그 많은 수를 누가 다 헤아렸을까. '1만8천' 은 하나하나 낱으로 센 숫자를 일컫는 게 아니라, '그토록 많음' 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제주사람들은 하늘도 땅도 생겨나지 않았던 혼돈의 시대에 하늘을 열고 세상을 만들어 인간세계를 마련해준 것도 신들이며, 인간의 삶을 관장하는 것도 신들이라 믿었다. 신들이니 신통력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착한 신이 있는가 하면 모진 신도 있고,

보살펴주는 신이 있는가 하면 심술만 부리는 신도 있었다. 굿을 벌여 청해야 오는 신들이 있는가 하면 산에도, 바다에도, 들판에도 있었고, 마을마다에 자리잡고 사는 신들도 있었으며, 집안 곳곳에 깃들어 사는 신들도 있었다. 제주사람들의 상상력이 '1만8천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제주섬의 신화는 제주의 굿을 통해 전해져 왔다. 제주사람들은 신화를 '본풀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본(本)을 푸는 것'이다. '본'은 '신의 뿌리', '굿의 원리'를 뜻하고, '풀이'는 '끄르다', '열다'는 뜻과 '한풀이'로서 '해원(解冤)'의 뜻도 함께 지니고 있다.

제주섬의 본풀이, 곧 신화 중에는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인 '개벽신화'도 있다. 한국에서 개벽신화를 지닌 곳은 제주밖에 없다. 더 나아가 세계를 통틀어 봐도 개벽신화는 드물다.

무신도

제주섬이 지닌 신화는 참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흥미롭고 생생하다. 제주섬은 '신화의 보고(寶庫)'인 것이다.

제주신화 만나기

우주를 창조한 천지왕

천지왕은 개벽신화의 주인공이다. 최초의 세상은 '왁왁한 어둠'이었다. 신 가운데 가장 큰 신, 하늘 옥황의 천지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왁왁한 어둠'을 나누어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 다음엔 별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새벽을 만들어 낮과 밤을 구별해서 사람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게 했다.

그런데 이승과 저승, 사람과 귀신, 선과 악 따위로 가르는 일은 혼자 할 수 없어 땅의 총명부

인과 혼인을 맺는다. 그래서 천부지모(天父地母), 곧 하늘의 천지왕과 땅의 신 총명부인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다. 형인 대별왕은 마음씨가 착했고, 아우인 소별왕은 마음씨가 곱지 못했다.

천지왕은 대별왕에게 이승을, 소별왕에게는 저승을 맡아 다스리라고 한다. 그런데 소별왕이 꾀를 내어 자기가 이승을 차지하고, 착한 형에게는 저승이 돌아가게 되었다. 천지왕의 계획이 뒤바뀐 것이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승은 무질서한 악(惡)의 세상이 되고, 저승은 맑고 공정한 선(善)의 세상이 되었다.

소천국과 금백주

소천국은 사냥신이고, 금백주는 농경신이다.

한라산에서 솟아난 소천국은 금백주와 결혼해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을 낳는다. 금백주는 옷 달라, 밥 달라, 젖 달라 조르는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 소천국에게 농사를 짓자고 한다.

한참 밭을 갈고 있던 소천국에게 지나던 중이 점심밥을 나눠달라고 해서 적당히 먹겠거니 했는데, 몽땅 먹고 달아나 버린다.

배가 고픈 소천국은 자신의 밭을 갈던 소를 잡아 구워먹고 심지어는 남의 소까지 잡아먹는다. 그러고 난 뒤, 맨몸에 쟁기를 묶고 밭을 갈아나간다. 화가 난 금백주는 못 살겠으니 살림을 나누자 한다. 이혼을 한 것이다. 부인과 가족을 떠난 소천국은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첩을 얻어 사냥을 하며 살아간다.

서천꽃밭의 꽃감관 할락궁이

할락궁이의 아버지는 사라도령, 어머니는 원강아미이다. 할락궁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아버지는 서천꽃밭의 꽃을 관리하는 감관으로 살러 오라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는다. 부부는 서천꽃밭을 향해 떠난다. 그러나 길이 너무 멀고 험해 원강아미는 아이를 밴 몸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 부부는 얼레빗을 반으로 쪼개 한 쪽씩 나눠 갖고 헤어진다. 그리하여 사라도령은 혼자 서천꽃밭으로 떠나고, 원강아미는 제인장자라는 부잣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

원강아미는 제인장자에게 온갖 고초를 겪으며 할락궁이를 낳아 길렀다. 어머니를 탐내는 제인장자와 그를 뿌리치느라 고역을 치르는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할락궁이는 열다섯 살 되던 해 아버지를 찾아 떠난다.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에는 무릎에 차는 물, 잔등에 차는 물, 목까지 차는 물이 차례로 기다린다. 할락궁이가 그 물들을 다 건너가자 서천꽃밭이 나타났다.

서천꽃밭 입구에는 맑은 연못이 있었고, 궁녀들이 물을 긷기 위해 오고 있었다. 할락궁이는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피 두세 방울을 연못에 떨어뜨린다. 그러자 연못은 부정이 타서 순식간에 물이 말라버렸다. 궁녀들은 꽃감관에게 가서 어떤 총각이 조화를 부리니 물이 말라버렸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할락궁이는 꽃감관과 만나게 된다.

할락궁이는 어머니에게 받은 얼레빗 반쪽을 꺼내 꽃감관에게 보였다. 꽃감관은 자신이 지닌 얼레빗과 맞춰 보고 아들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할락궁이가 올 때 건넌 물에서 원강아미가 제인장자에게 세 번 고문당해 죽었음을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할락궁이를 서천꽃밭으로 데려갔다. 꽃밭에는 사람을 마구 웃게 만드는 웃음꽃, 마구 싸우게 하는 싸움꽃, 사람을 멸망시키는 악심꽃, 죽은 사람 살려내는 환생꽃 등 많은 꽃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할락궁이에게 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어머니를 다시 살리라고 일러주었다.

할락궁이는 꽃들을 종류별로 갖고 아버지와 헤어져 어머니와 살았던 곳으로 내려왔다.

제인장자는 돌아온 할락궁이를 죽이려 했다. 할락궁이는 제인장자의 일가친척을 불러 모아 웃음꽃을 뿌려 웃음판을 벌이고, 싸움꽃을 뿌려 패싸움이 벌어지게 한 뒤, 악심꽃을 뿌려 일가친족을 모조리 죽였다. 작은 딸 하나만 살려서 어머니를 죽여 던져버린 곳을 가리키게 하였다. 어머니는 머리는 끊어 청대밭에, 잔등이는 흑대밭에, 무릎은 띠밭에 던져 놓아 뼈만 살그랑하게 남아 있었다. 할락궁이가 어머니의 뼈를 모아 환생꽃을 뿌리니, 어머니는 "아이고, 봄잠 오래도 잤다" 하며 다시 살아났다. 할락궁이는 어머니와 함께 서천꽃밭에 들어가 아버지 뒤를 이어 꽃감관이 된다.

삼천 년을 산 사만이

집안이 가난한데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읜 소사만은 마을 어른들의 도움으로 장가를 간다. 사만이 부부는 바느질 솜씨 좋은 부인의 바느질품으로 끼니를 이으며 살았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살림이 너무 힘겨워졌다.

어느 날 부인은 치렁치렁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에게 주며 장에 가서 팔아 아이들 먹여 살릴 쌀을 사오라고 했다. 그러나 사만이는 조총을 사서 돌아왔다.

그날부터 사만이는 총을 메고 사냥을 나섰다. 매일같이 산에 올라 곳곳을 헤매 다녀도 노루 한 마리 걸리지 않았다.

산중을 헤매던 어느 날, 황혼이 지는 산길을 걸어오는데 왼쪽 발이 툭 채였다. 풀잎을 헤쳐 보니 백 년 해골이 뒹굴고 있었다. 우리 집안을 지켜줄 조상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사만이는 백 년 해골을 곱게 모셔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곳간 안 큰독에 모셔놓고, 제사며 명절 때마다 음식을 차려 조상님이라 위하였다.

그 뒤로부터 사냥을 나가면 노루며 사슴이며 뭇으로 잡혔고, 사만이는 삽시에 부자가 되었

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백발노인이 곳간에서 나와 사만이를 불렀다.

"사만아, 어찌 무심히 잠을 자느냐. 네게 정해진 수명이 서른셋, 만기가 되었다. 저승의 염라대왕이 너를 잡아가기 위해 차사 셋을 내릴 듯하다. 내일모레 밤이면, 차사들이 내려올 터이니, 네 이름을 써서 제상에 붙여놓아라. 그리고 날이 새면 굿을 하되, 염라대왕에게 관대(冠帶) 세 벌, 띠 세 개, 신발 세 켤레, 좋은 쌀을 담은 큰 동이를 올리고 황소를 잡아 액을 막아라."

사만이는 백발노인이 일러준 대로 제물을 차리고 백보 바깥에 엎드려 있었다.

밤이 되니 정말로 차사 셋이 내려왔다. 차사들은 음식상을 보자 시장기를 감추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먹었다. 배가 부른 차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상 밑을 보니 '사만이'라는 이름이 써 붙여 있었다. 음식을 공짜로 먹어놓고 사만이를 잡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차사들이 "사만이" 하고 부르자 백보 바깥에서 "예"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드는 것을 보니, 사만이가 분명했다.

차사들은 사만이를 따라 사만이의 집으로 갔다. 집에서는 굿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성이 지극했다. 후한 대접을 받은 차사들은 저승으로 돌아가 사만이에게 정해진 수명을 고치기로 의논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굿을 받으러 인간 세계로 내려간 사이에 사만이 수명장부에 적힌 삼십(三十)의 열십(十)자 위에 눈을 딱 감고 한 획을 더 비껴 그어 천(千) 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리하여 사만이는 삼천 년이나 살게 되었다.

운명의 신, 가믄장아기

윗마을엔 강이영성이란 남자거지가 살고, 아랫녘엔 홍은소천이란 여자거지가 살았다.

흉년이 든 어느 날, 두 남녀는 저마다 다른 마을은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동냥질을 가다가 중간지점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다.

얼마 없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었다. 가난한 부부를 도와주기 위해 동네사람들이 은그릇에 밥을 해다 먹이며 키워주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은장아기'가 되었다. 부부는 또 딸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동네사람들이 도와주었다. 그러나 첫딸 때만큼 성의는 없어 놋그릇에 밥을 해다 키워주었다. 그래서 둘째딸 이름은 '놋장아기'다. 부부는 다시 또 딸을 낳았다. 이 셋째 딸 역시 동네사람들이 도와줬으나 성의는 식어버려 나무바가지에 밥을 해다 주었다고 해서 '가믄장아기'가 되었다.

세 딸이 자라는 동안 이상하게도 운이 트여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거지생활을 하며 어렵게 살던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점점 오만해져 갔다.

세월이 흘러 딸들도 열다섯 살이 넘어갔다. 어느 날, 심심해진 부부는 세 딸을 불러 앉히고 "너희들은 누구 덕에 사느냐?"고 물어보았다.

은장아기와 놋장아기는 "하느님, 지하님 덕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덕입니다."며 부부를 흐뭇하게 했다. 그런데 셋째 딸 가문장아기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느님, 지하님, 아버님, 어머님 덕이기도 하지만, 나 배꼽 아래 선그믓(陰部) 덕에 사는 거지요." 하는 게 아닌가? 온갖 호강 다 시키며 키워줬는데 그런 괘씸한 소리를 하다니! 발칵 화가 치민 부부는 불효막심하다며 가문장아기를 내쫓아버렸다.

가문장아기가 집을 나서자 섭섭해진 부부는 큰딸 은장아기에게 가문장아기더러 밥이라도 먹고 가라 얘기하라고 했다. 은장아기는 시기심이 차올라 노둣돌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러 나오니 빨리 가버려라." 외쳤다. 언니의 속셈을 아는 가문장아기는 "지네 몸으로나 환생하라." 중얼거렸다. 그래서 은장아기는 지네가 되어 노둣돌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

기다려도 막내딸과 큰딸이 들어오지 않자 부부는 둘째 딸을 불러 가문장아기를 데려오라고 했다. 놋장아기는 문 밖으로 나가 두엄 위에 올라서더니, 역시 은장아기와 똑같이 외쳤다. 가문장아기가 이번엔 "버섯 몸으로나 환생하라"고 중얼거리자, 놋장아기는 두엄에 뿌리 박은 버섯이 되어버렸다.

세 딸이 모두 소식이 없자, 불길한 예감이 든 부부는 서둘러 문을 밀치며 나가다 눈이 부딪혀 봉사가 되고 만다. 그날부터 재산은 점점 탕진되고 부부는 다시 거지가 되어 동냥에 나서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한편, 가문장아기는 착한 남자를 만나 거부로 잘 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집에서 쫓겨난 뒤로 부모는 봉사가 되고 거지가 되어 얻어먹으러 다니고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부모 생각이 간절했다. 남편과 의논해 100일 동안 거지잔치를 열기로 했다. 거지가 되었다면 틀림없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잔치는 시작되었고, 소문에 소문이 번져 날이 갈수록 많은 거지들이 모여들었지만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100일이 다 지나 잔치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모여드는 거지를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날이 거의 저물 무렵에야 눈에 익은 거지부부가 나타났다. 가문장아기는 사랑방으로 모셔다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고 귀한 약주로 대접했다.

영문도 모르고 허겁지겁 먹고 난 거지부부는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거지로 얻어먹으러 다니다 부부가 된 젊은 시절,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문장아기를 낳고 일약 거부가 되어 호강하던 시절, 가문장아기를 내쫓고 봉사가 되어 다시 거지가 된 신세타령을 줄줄 늘어놓았다.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던 가문장아기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가문장아기여요." 하자 깜짝 놀란 부부가 "응! 네가 가문장아기?" 하며 술잔을 떨어뜨리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바람의 신, 영등할망

영등할망이 제주를 찾아오는 길은 시베리아 계절풍이 불어오는 바람길이다. 그러므로 영등할망이 제주에 온다는 것은 제주도 음력 2월의 세시풍속이며 2월의 일기예보를 신화로 들려주는 것이다.

영등할망은 음력 2월 영등달이 되면, 맨 먼저 한림읍 귀덕리 '복덕개' 라는 포구로 들어온다. 한라산을 돌면서 복숭아꽃, 동백꽃 구경을 하고 들판에는 오곡의 씨를 뿌려 주고, 갯가에는 해초 씨를 뿌려 주고 마을마을마다 씨를 뿌려 두고 우도를 통해 제주섬을 떠나가는 바람의 신이다. 그렇게 영등할망이 떠나고 나면, 바야흐로 제주에도 새 봄이 온다.

영등할망이 제주에 머무는 보름 동안은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런 날씨와 매운 추위가 계속된다. 제주사람들은 이 시기에 비가 내리면, "영등신이 우장(雨裝)을 쓰고 왔으니 비가 내리는 거"라 하며, 날씨가 따뜻하면, "헛영등이 왔다"고 한다. 영등할망은 바람의 신이기 때문에 독한 바람을 몰고 오는데, 헛영등은 허술한 차림으로 오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 바람에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영등할망이 딸을 데리고 올 때는 딸과는 사이가 좋아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지만,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며느리와는 뜻이 안 맞아 변덕스럽고 궂은 날씨가 계속된다고 한다.

영등제

아름다운 세경신, 자청비

'세경'은 땅을 뜻하며, 그 속에는 '농사를 짓다', '땅속에 묻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농토, 음택(陰宅)이란 의미까지 포함해 땅을 '세경땅' 또는 '세경너븐드르'라 부른다. 세경신은 땅을 지키는 신, 농사를 도와주는 농경신 '세경할망', 곧 자청비를 일컫는다.

상세경은 문국성 문도령, 중세경은 자청비, 하세경은 정이어신 정수남이라 부르기도 한다. 농경신 '자청비'는 그녀 자신이 하늘에 스스로 청하여 여자로 태어난 신이다. 부모 쪽에서 보면, 불공을 드리고 자청해 낳은 자식이었다.

자청비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에게 물그릇에 버들잎을 띄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농경신화다.

자청비는 연화못에 빨래하러 갔다가, 하늘에서 공부하러 온 문도령에게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된다.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라가 공부했다. 눈치 없는 문도령은 자청비를 못 알아보다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서수왕 따님과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돌아가기 직전에야 알게 된다. 문도령은 떠나버리고, 기다리던 자청비는 몸종 정수남이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정수남이가 할딱거리며 달려들 때마다 부드럽게 달래다가 결국 무릎을 베어 누우라 해서 청미래덩굴을 꺾어 귀를 찔러 죽이는 죄를 저지른다.

자청비는 우여곡절 끝에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났지만 어려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자청비는 모든 시험에서 통과해 서수왕 따님을 제치고 문도령과 혼인했고, 하늘 옥황에서 알콩달콩 살림을 차렸다.

어느 날, 하늘 옥황에 큰 난리가 일어난다. 그 난리를 평정한 공으로 자청비는 옥황상제가 나라를 준다는 것도 마다하고 대신 오곡의 씨앗을 청해 받아 7월 보름날 문도령과 함께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그리하여 문도령과 자청비는 백성들의 농사를 도와주는 농경신이 되고 정수남이는 목축신이 되었다.

자청비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아름다운 여신이다. 여성 영웅신, 지혜의 신, 생산과 풍요의 신, 사랑과 낭만의 신인 것이다.

도깨비 신화

'영감본풀이'를 보면, 도깨비를 '영감'으로 호칭한다. 이 영감은 서울 양반이며, 각 지역 명산을 차지한 산신이다. 한라산을 차지하러 온 막내 영감은 '술 잘 먹고, 소리 잘 하는' 광대놀음 때문에 신으로 대접받는다. 여기서 영감 도깨비는 광대의 신, 춤의 신, 예술의 신이다.

'거지 차림의 초라한 모습'의 영감을 달래어 잘 먹이며, 한편으론 희롱하고 쫓아 보내는 해학과 풍자는 '영감 놀이'를 만들었다.

현실의 양반은 포악하고 탐욕스럽고, 수탈과 행악을 일삼는 탐관오리형 인물들이다. 이들 때문에 겪는 좌절과 삶의 질곡은 민중을 병들게 하지만, 술 잘 먹고, 춤 잘 추고, 양반의 허상을 놀리며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민중의 정서는 신성 공간에서 신인동락(神人同樂)의 평등과 해방 그리고 자유를 얻어낸다. 이것이 예술의 근원적인 힘을 창조하는 동력이다. 이는 영감 신이 예인광대(藝人廣大)로서 창조의 힘, 소생의 힘, 불생불멸의 힘과 신명을 부추기는 '춤의 신명'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감놀이는 선왕(船王)굿, 당굿, 병치료굿에서 행해지곤 했는데, 영감신의 성격은 특히 병치료굿(일명 추는굿, 두린굿)에서 두드러진다.

탐라 개국신화

아득한 옛날, 세 사람의 신인(神人)이 한라산 북녘 기슭의 땅으로부터 솟아났다. 이들이 솟아난 세 개의 구멍을 '모흥혈(毛興穴)' 이라 하는데, 지금의 삼성혈이 그곳이다. 세 신인은 솟아난 차례로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라 했다. 용모가 의젓하고 기품과 도량이 넉넉하고 활달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며 살았다.

어느 날 한라산에 올라가 동해를 바라보니, 자줏빛 안개에 감싸인 나무상자가 떠오더니 바닷가에 닿았다. 세 신인이 가 상자를 여니, 그 안에는 관대를 갖추고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새알 모양의 옥함을 지키고 있었다. 옥함을 여니, 그 속에는 15~16세쯤 돼 보이는,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리따운 얼굴에 그윽하고 얌전한 기품이 느껴졌다. 옥함 속에는 또 송아지와 망아지 그리고 오곡의 종자도 있었다.

옥함을 지키던 남자가 세 신인에게 말했다.

"저는 동해 벽랑국의 사자입니다. 저희 임금님께서는 세 딸을 두셨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나 배필을 구하지 못해 탄식하며 여러 해를 보내던 중에 자소각에 올라 서쪽 바다를 바라보니, 보랏빛 기운이 하늘로 이어지고 찬란한 서광이 한라산 높은 봉우리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곳에 고량부 세 신인이 솟아나 나라를 세우려 하지만, 배필이 없는지라 저에게 세 공주님을 모시고 가라고 명하기에 여기에 왔습니다. 마땅히 혼례를 치르시고 대업을 이루소서."

말을 마친 사자는 홀연히 떠났다. 세 처녀를 싣고 온 상자가 닿은 온평리 해안을 '황노알' 이라는 곳이다. 이들이 꽃상자, 곧 '화상(花箱)' 에서 나왔다 하여 이 포구를 '화성개' 라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세 신인은 곧 하늘에 제사지내고, '흰죽' 에서 혼인을 했다. 사람들은 고량부 세 신인이 혼인한 못이라 해서 '혼인지' 라 불렀다.

이들은 물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저마다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사이좋게 나누어 일도, 이도, 삼도라 정했다. 그로부터 오곡의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으며, 가축을 기르니 날로

혼인지

풍요를 얻어 마침내 인간 세상 '탐라국' 을 이루게 되었다.

세 신인이 활을 쏘았던 곳을 '살쏜디왓' 이라 하고 화살이 박혔던 돌을 '삼사석' 이라 한다. 삼사석은 조선시대 목사로 왔던 김정이 수습해 지금의 제주시 화북동의 한 자리에 모아놓고 삼사석비를 세웠다. 삼사석에는 당시 김정이 지은 다음과 같은 시가 새겨져 있다.

毛興穴古	모흥혈의 아득한 옛날
矢射石遺	화살 박힌 돌 그대로 남아
神人異迹	삼신인의 기이한 자취
交映千秋	세월 바뀌어도 오래도록 비치리라

전설

드센 땅을 일구어낸 섬사람들의 삶

제주섬의 전설은 자연전설, 역사전설, 신앙전설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전설은 제주의 지리적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자연의 유래,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역사와 방식을 엿보게 한다.

역사전설은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형상화한 이야기다. 힘센 장사 등 비범한 능력을 가진 특이한 인물들이 세상 속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혹은 적응해 살아가는 이야기가 중심이다. 제주의 역사전설은 한반도부에 비해 몰락이나 좌절의 양상이 극심하지 않아 그 비극적인 맛이

덜하다. 이는 전설의 주인공들이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그 사실성을 지탱하려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앙전설은 풍수에 관한 것이 많다. 이는 불모지를 개척했던 섬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제주 자연의 두 얼굴과 비극을 낳은 인물들

제주섬의 자연은 아름답다 못해 경외감마저 들 정도로 신비롭다. 그러나 제주사람들은 제주 자연이 지닌 또 하나의 얼굴을 삶으로 체험했고, 그 다른 얼굴 때문에 좌절과 고통을 맛봐야 했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자리한 이 화산섬은 삶의 터전으로 삼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다.

제주자연이 지닌 두 얼굴 속에서 경외감과 더불어 갈증을 느껴야 했던 제주사람들은 그것을 전설로 재창조했다.

딱 하나가 모자라서…

영실(靈室)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천태만상의 기이한 괴석 무리는 어찌 보면 장군 같고, 어찌 보면 부처 같아 오백장군 또는 오백나한(羅漢)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수가 500개여야 하는데, 제주전설 속 숫자는 하나가 모자란 499개다.

경외감이 들 정도로 아름다워 신들의 방이라는 이름을 지닌 영실에는 슬픈 전설이 전해온다.

이 오백장군의 어머니라고도 하고, 제주섬을 만든 여신이라고도 전해지는 설문대는 남의 옷은 해주면서도 자신의 속옷은 해 입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 거대한 설문대의 속옷을 만들려면 100통의 옷감이 필요한데, 그 많은 옷감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설문대는 제주사람들에게 옷감을 100통 모아다 주면 제주섬과 육지를 이를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한다. 제주사람들이 아무리 모아도 옷감은 99통밖에 되지 않았고, 설문대는 다리를 놓아가다가 중단해 버렸다. 제주시 조천리와 신촌리 앞바다에서 북쪽으로 뻗어나간, 제주사람들이 '여'라고 부르는 바위 줄

기들이 그 흔적이라고 전설은 전하고 있다. 옷감 한 통이 모자랐기 때문에 제주 땅은 영원한 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제주섬에 맹수가 나지 않는 이유 역시 '하나'가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는 아혼아홉골의 전설이 품고 있다. 원래는 백 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때는 호랑이 같은 맹수가 많았었는데, 골짜기 하나가 맹수들을 다 모아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아흔아홉 골이 됐고, 제주는 더 이상 맹수가 나지 않는 섬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 섬의 혈을 끊어버린 바람에…

제주는 지하수가 콸콸 솟아나는 풍부한 물의 섬이다. 그러나 상수도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는 물이 귀한 섬이었다. 어찌하여 그리 됐는지를 전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호종단의 전설이다. 이 전설은 제주사람들의 풍수관념을 엿보게 한다.

왕후지지(王侯之地)의 땅인 제주에 중국의 진시황이 풍수사 호종단을 보내어 수맥(水脈)과 지맥(地脈)을 모두 끊어버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수신(水神)이 지켜냈기 때문에 호종단이 수맥 끊기에 실패한 '행기물' 이야기는 제주의 여러 지역에 전설로 남아 전하는데 그 내용은 비슷비슷하다.

호종단의 지맥 끊기를 소재로 한 제주의 전설은 척박한 불모의 땅이었던 이 섬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극복하려 했던 제주사람들의 심성을 읽게 한다. 그리고 원초로의 회귀, 낙원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여백에 담고 있다.

이러한 풍수 소재는 좋은 땅을 씀으로 해서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염원하고, 사람이 죽으면 좋은 음택지를 택해 자손 발복을 기원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제주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과 물은 풍수적으로 명당임을 강조하면서 후대에 훌륭한 인물이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이다.

지관이 장사지낼 터를 봐주고 장사지내는 방법을 가르쳤으나, 신성한 지역을 나타내는 돌이 있어 그 돌을 파내자마자 금장(禁葬)지가 되고 샘물이 나왔다는 음택 풍수 전설은 섬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비범한 인물들이 맞는 비극적인 결말

풍수전설에는 힘센 장사 등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곤 한다. 이는 제주섬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노동력을 요구해 힘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염원을 담은 장사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제주사람들이 체험한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 비범한 능력을 타고 났지만 그로 인해 당대를 살아나갈 수 없던 특이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

해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려 했던 것이다.

어느 젊은 부부에게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아기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쳐 있어 부부는 큰 걱정에 빠지고 만다. 아기에게 날개가 돋쳤다는 것은 힘센 장사가 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물이 될 징조였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날개 돋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관가에서 알게 되면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할지도 몰라 부부는 걱정이 태산인 것이다.

남편은 아버지의 묘소가 '장군대좌형' 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묘를 이장하기로 했다. 묘를 이장하려고 땅을 파서 막 헤집으려고 할 즈음, 그 안에서 큰 황새가 뒷발을 일으키고 날개를 벌리더니 푹 고꾸라져 죽고 말았다. 시신 이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제주에는 아기 장사에 대한 전설이 적지 않다. 곧 힘센 장사로 상징되는 비범한 인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힘이 센 장사이자 학식이 있는 이 좌수 이야기는 의로운 인물이지만 권력에 의해 패하는 저항적 인물로 묘사된다. 퇴폐한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반항과 관의 부패를 고발하는 정의로운 좌수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한림읍 명월리 출신 진 좌수라는 인물 이야기도 전설로 전해진다. 그의 본명은 국태(國泰)이며 조선 영조 때 좌수(座首)의 벼슬을 지냈다고 한다.

김통정이 제주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장수물

그가 금릉에 글 읽으러 다닐 때 미녀로 변신한 여우가 구슬을 물고 나와서 진 좌수의 입에도 물리며 피를 빨아먹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 좌수의 스승은 구슬이 입에 물렸을 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보고 그 구슬을 삼키라고 일러준다. 그러나 진 좌수는 막상 구슬이 입에 물려졌을 때는 당황한 나머지 사람만 보고 하늘과 땅을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 결과 진 좌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훌륭한 명의(名醫)가 됐지만 하늘과 땅에 대해서는 통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요

산 넘고 물 건넌 제주여성의 한풀이

제주에는 수많은 민요가 전해져 왔다. 제주의 민요는 놀면서 부르는 유희요(遊戱謠)보다는 노동요가 많다. 아니, 거의 모든 민요가 노동요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유희요는 성읍지역을 중심으로 관변의 기생들에 의해 전해지다 민간에 전파된 창민요가 남아있을 뿐이고, 집단 유희요나 춤을 위한 무용요 등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섬의 노동요 중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들이 일하며 부르는 여성노동요다. 이들 노래에는 여성들의 정서가 섬세하게 드러난다.

밭에 나가 김매기 등을 할 때 부르는 밭농사노래, 해녀들이 물질 갈 때 부르는 해녀노래, 또 보리 등 곡식을 맷돌이나 방아를 이용해 갈면서 불렀던 맷돌·방아노래는 제주여성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맷돌을 갈거나 방아를 찧는 일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힘이 덜 든다는 노동의 성격상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기에 알맞다.

맷돌방아노래 시연

그런가 하면 남자들이 상투 틀던 시절에 양반들이 썼던 갓이나 탕건, 모자, 망건 등을 짜면서 부르는 노동요인 관망노동요도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관망을 짜는 일은 화북, 조천, 도두 등 포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 마을에서 성행했는데 그 일 역시 주로 아녀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여성들은 노동요의 가사를 통해 고난을 딛고 일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왔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전해진 노래들

제주에서 전해지는 민요 가운데 몇 노래는 〈제주민요〉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돌또기, 산천초목, 봉지가 등 창민요와 맷돌노래인 'ㄱ레ㄱ는소리'가 그것이다.

특히 창민요 세 곡은 조선조 500년 동안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 소속 관기들에 의해 전해지던 노래가 민간에 전해지면서 널리 부르게 된 노래다.

'오돌또기'는 섬 전역에 전개되는 제주의 풍광과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낭만적 정서가 한층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불려진다. 일반적으로 오돌또기는 굿거리장단에 장구나 허벅을 반주도구로 사용해 노래한다. 판소리 '흥부가'와 '가루지기 타령'에도 오돌또기 첫머리와 비슷한 사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전국에 분포되어 불리던 노래가 제주 섬에 남아 그 원형을 간직하고 제주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천초목은 봄날의 경치를 노래한다. 만물이 피어오르는 봄 경치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유혹

하는 사설로 되어 있다. '봉지가'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불리는 창민요인데 한 폭의 섬세한 한국화를 보는 듯하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해녀노래'는 바다에서 물질 작업을 하던 해녀들이 불러 전해진 원시 어업노동요이다. 이 노래는 배의 노를 저으면서, 테왁을 짚고 바다로 물질 작업을 나가면서, 물질 작업이 다 끝나고 서로 홍겹게 놀 때도 불렀다. 특히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뱃물질 갈 때나, 제주 섬 밖으로 출가 물질 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해녀 노 젓는 소리'가 해녀 노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9호인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말방앗간 연자매의 웃돌과 알돌을 산이나 바닷가, 들판, 냇가 등지에서 제작한 다음 주민들 여럿이 동원되어 마을로 끌어들이는 운반 노동요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0호인 '멸치 후리는 노래'는 멸치를 후리는 작업을 하면서 부르는 어업 노동요다. 가사내용은 멸치 후리는 작업과정과 멸치 후리는 현장이 그대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다.

물질작업 나가는 해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제주농요'는 밭밟는 노래인 '밧ᄇᆞᆯ리는 소리'와 김매는 노래의 대표격인 '사대소리', 도리깨로 곡식을 타작하면서 부르는 '타작소리' 세 유형이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7호인 '진사대소리'는 애월읍 중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전해지는 민요로 제주의 다른 토속 노동요에 비해 아름다운 선율과 우아한 선법적 특성을 지녀서 토속적인 예술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하귀2리의 '귀리 겉보리농사일소리'인 '거름 밟는 소리', '돗걸름 ᄇᆞᆯ리는 소리', '짐 싣고 가면서 부르는 소리' 등 우마와 함께 하는 독특한 민요들이 전해온다.

제주어

한국사람들도 신기해 하는 독특한 한국어

한국인이 쓰고 있는 말을 한국어라고 한다. 한국어는 지역에 따라 또는 쓰는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를 방언적 차이라 한다.

제주어는 예로부터 제주사람들이 제주지역에서 써 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쓰고 있는 말을 일컫는다.

제주어는 엄연히 한국어이다. 그러므로 말소리나 어휘, 문법 등에서 한국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방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제주어를 신기

제주어를 사용한 상호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해한다. 웬만해서는 알아듣지 못하고, 언뜻 들으면 외국어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한다. 왜 그럴까?

제주어에는 한국어의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제주어에는 현대한국어의 다른 방언에 없는 독특한 말소리, 독특한 어휘, 독특한 어미가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주어에는 한국어의 옛말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한국어학계에서 제주어를 귀중한 학술자료로 평가하고 있고, 제주섬을 한국어의 보물창고로 부르고 있다.

그런가하면 제주어는 제주사람의 사상과 정서를 오롯이 반영하고 있어 제주문화의 정수를 읽을 수 있는 원형으로 꼽힌다.

독특한 말소리가 있다

현대 제주어의 말소리는 현대한국어 또는 현대한국어의 표준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 쓰였던 일부 말소리가 현대표준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데, 현대제주어에서는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소리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쓰이지 않는 독특한 어휘들이 존재하고 발화되는 것이다.

현대제주어의 말소리 중 독특한 것은 'ᄋᆞ'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리는 '오' 소리와도 다르고 '아' 소리와도 차이가 있다. 곧 'ᄒᆞ다'와 '하다'는 각각 현대한국어 표준어의 '하다[爲]'와 '많다[多]'에 대응하는 말로서 차이가 있다. 'ᄃᆞᆯ'과 '돌'은 각각 현대한국어 표준어의 '달[月]'과 '돌[石]'에 대응하는 말로서 차이가 있다. 'ᄆᆞᆯ'과 '말'은 각각 현대한국어 표준어의 '말[馬]'과 '말[言]'에 대응하는 말로서 차이가 있다.

'ᄋᆞ' 소리는 중세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말소리로, 일부 지역에서 근대한국어를 거쳐 현대한국어까지도 쓰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한국어와 현대한국어 표준어에서는 이 소

리가 쓰이지 않는다. 현대한국어 표준어에서는 중세한국어에서 'ᄋᆞ'로 발음되었던 소리는 첫 소리에서 대부분 '아'로 바뀌고, 일부 한국어 방언에서는 '오'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대제주어에서는 'ᄋᆞ' 발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독특하게 분화된 어휘가 많다

현대한국어의 지역 방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휘에 따라서는 한 지역에서만 독특하게 실현되는 것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공통으로 실현되는 것도 있다.

중세한국어에서는 주로 한 집의 주된 출입문인 대문을 뜻하는 어휘로 '오래'가 쓰였다. 이 '오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집과 집 주변 구조가 변하면서, 한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쓰이지 않아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형태변화 또는 의미변화 · 분화가 일어나서 쓰이기도 하고 있다.

현대한국어 표준어에서는 '오래'가 한 동네의 몇 집이 한 골목이나 한 이웃으로 되어 사는 구역 안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함경도에서는 '오래'가 '마을'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고, 이웃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또 가족이나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가문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중세한국어의 '오래'가 형태변화는 없고 의미 분화만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주어에서는 형태변화를 일으켜 '올레'로 실현되고 있다. 물론 의미 분화도 일어났다. 제주민가에서는 마을길에서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 따위를 뜻하는 말로 '올레'가 쓰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쓰이고 있다.

현대한국어 표준어에서 느릅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으로 '팽나무'라는 것이 있다. 이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팽'이라고 하는데, '팽'이 달리는 나무라는 데서 '팽나무'라고 부른 것이다. 현대제주어에서는 이 나무를 '폭낭[퐁낭] · 폭남[퐁남]'이라 하고, 이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폭'이라 한다. 그러나 '폭낭 · 폭남'을 한자를 빌려 쓸 때는 대부분 彭木(팽목)으로 썼다. 그러므로 '팽나무'에 대응하는 현대제주어 '폭낭 · 폭남'은 독특하게 분화된 어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특하게 만들어진 어휘가 많다

현대한국어 표준어 '마늘'은 중세한국어에서 'ᄆᆞᄂᆞᆳ · ᄆᆞᄂᆞᆯ[蒜]' 등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현대제주어에서는 '마농'으로 분화되었다. 그런데 현대제주어 '마농'은 다른 말과 결합해 말을 분화시킨다. 곧 현대한국어 표준어 '파' 또는 '쪽파', '줄파'에 대응하는 현대제주어는 '페마농'이다. '페마농'은 현대한국어 '파'에 대응하는 현대제주어 '페' 뒤에 '마농'을 덧붙여 만

든 말인 것이다.

또한 현대한국어 '마늘'에 대응하는 독특한 말로 '대산이(대사니)' 또는 'ᄀᆞᆸ대산이 · ᄏᆞᆸ대산이(곱대사니 · 콥대사니)'가 실현된다. '대산이'는 한자어 대산(大蒜) 뒤에 '-이'를 덧붙여 만든 말이고, 'ᄀᆞᆸ대산이 · ᄏᆞᆸ대산이'는 '대산이' 앞에 '마늘쪽'을 뜻하는 제주어 'ᄀᆞᆸ(곱), ᄏᆞᆸ(콥)'을 덧붙여 만든 말이다.

현대한국어 '달래'에 대응하는 현대제주어는 '꿩마농' 또는 '드릇마농'으로 실현된다. '꿩마농'은 들판에 사는 꿩이 먹는 '마농'이라는 관념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드릇마농'은 들판에 나는 '마농'이라는 데서 만들어낸 말이다.

현대한국어에서 매밋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은 일반적으로 '매미'가 실현된다. 이 말은 중세한국어 'ᄆᆡ미'에서 변한 말이다. 현대한국어의 지역 방언에 따라서 '매리이, 매롱이, 미암, 매아미' 등이 실현되지만, 'ᄆᆡ미'나 '매미'의 변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제주어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변음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독특한 어휘인 '재열, 잴, 재, 자, 자리' 등이 확인될 뿐이다. 이들 제주어는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어 옛말이 많이 남아있다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샤먼(shaman)'이라고 하는데, 현대한국어에서는 '무당' 또는 '단골'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주어에서는 '심방'이라고 한다. 이 '심방'이라는 말은 중세한국어 '심방'에서 온 말이다. 《능엄경언해(1462)》를 보면, 한자어 巫(무)는 '겨집 심방'이라 번역하고, 한자어 祝(축)은 '男人(남인) 심방'이라 번역했다. 이것을 보면 중세한국어에 엄연히 '심방'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이 제주어에 그대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어 이외의 다른 한국어에서는 '심방'이라는 말을 확인할 수가 없다.

지구 위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짠물이 괴어 하나로 이어진 넓고 큰 부분을 현대한국어에서 '바다'라고 한다. 이 '바다'에 대응하는 중세한국어는 '바ᄃᆞᆯ'과 '바ᄅᆞᆯ', '바ᄅᆞᆱ' 등이 확인되고 있다. '바다'에 대응하는 고대한국어는 한자 차용 표기로 波珍(파진) · 波珍(파진)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바ᄃᆞᆯ'의 표기로 재구되었다.

그런데 현대제주어에서는 '바다'에 대응하는 말로 '바당'과 '바르'가 쓰이고 있다. '바당'은 고대한국어 '바ᄃᆞᆯ'과 중세한국어 '바ᄃᆞᆱ'에 이어지는 것이고, '바르'는 중세한국어 '바ᄅᆞᆯ'에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제주어를 제외한 한국어에서는 변음 '바다'만 남아 있다.

문장구조는 현대한국어와 다르지 않다

현대제주어의 문장구조는 현대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문장구조에 나타나는, 일부 말소리와 어휘, 문법형태소 등에 있어서 방언적 차이가 반영되어 난다. 그래서 제주 사람이 말하는 문장의 뜻을 외부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대제주어 '하영 봅서' 와 '쉬엉 갑서' 에 나타나는 '하영' 또는 '쉬엉' 은 현대한국어 표준어에서 '많이' 또는 '쉬어서' 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런데 '하-[多]' 에 붙은 '-엉' 은 부사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쉬-[休]' 에 붙은 '-엉' 은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능하고 있다. '봅서' 와 '갑서' 는 현대한국어 표준어로 '보십시오' 또는 '보세요' , '가십시오' 또는 '가세요' 에 대응하는 말이다. '봅서' 와 '갑서' 는 각각 '보-' [見]와 '가-' [去]에, 정중한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ㅂ서' 가 덧붙은 말이다.

현대제주어 '왕 봥(방) 강 골읍서' 는 현대한국어 표준어로 '와서 봐서 돌아가서 말하십시오' 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왕' 과 '봥(방)' , '강' 은 각각 '오-' [來]와 '보-[見]' , '가-[去]' 에,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앙' 이 덧붙은 말이다. '골읍서' 는 현대한국어 '말하다' 에 대응하는 옛말이면서 제주어인 '곧-[曰]' 의 활용형 '골-' 에 정중한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으)ㅂ서' 가 붙은 말이다.

이상에서 봤듯이, 현대제주어의 문장 구조는 현대한국어와 차이가 없다. 다만 예로부터 전해진 고유 어휘가 그대로 남아서 쓰이거나, 특이하게 분화된 어휘나 어미가 쓰이고 있다. 그래서 제주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알아듣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와흘 본향당

무속신앙

제주문화의 뿌리

제주는 무속이 잘 보존·전승된 지역이다. 이른 시기에 불교와 유교가 들어왔지만 그 위세에 눌리지 않고 주도적 위치를 지켰다. 큰 갈등 없이 불교를 받아들여 포용했는가 하면 유교의 지배력도 제주에 쉽게 미치지 못한 듯하다. 18세기 초 '당 오백 절 오백 파괴'로 상징되는 이형상 목사의 대대적인 유교화 정책이 실시됐지만 이내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제주의 무속은 큰 전환점을 맞는다. 본향당을 중심으로 한 마을제가 무속에서 유교식으로 바뀌어 포제로 대치되었던 것이다. 물론 무속의 마을제와 병행해 남성 위주

의 포제가 동시에 거행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만, 유교식 의례가 민간에 파고들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신분제가 허물어지는 시기에 개인의례인 유교식 조상신 제사도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세기 초 일제의 침탈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마을제가 탄압 당하면서 일대 위기를 맞기도 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주에 들어온 기독교의 영향으로 무속이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세기 이후 기독교의 발흥으로 제주 서쪽 지역은 무속이 약화되었다. 1948년 제주4·3으로 중산간 마을의 당이 파괴되면서 마을 신앙도 함께 타격을 입기도 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1960년대 새마을운동과 미신타파운동이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무속신앙의 본령인 본향당이 훼손된 곳도 있지만, 그래도 마을신앙이 잘 지켜졌다. 물론 심방(무당의 제주어)은 그 수가 극감했고, 근대 교육을 받은 젊은층은 무속을 불신하며 그들 부모의 신앙을 세습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지만 제주의 무속은 나름대로 전통적인 위상을 지켜 왔다.

근대화의 기치를 내건 질풍노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무속도 전통문화의 일부분으로서 보호와 보존의 대상이 되고, 국가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무형문화유산(제주칠머리당영등굿)에 선정되면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제주무속 들여다보기

제주에는 지금도 360여 개소의 신당(神堂)이 마을 곳곳에 남아 있어 무속신앙의 끈질긴 생명력을 엿보게 한다.

제주의 마을당들은, 그곳이 마을 수호신이 좌정해 있는 '신의 집'이고 대부분 돌담으로 울타리를 둘러 당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공통으로 설명할 게 없을 만큼 저마다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도 묶어서 나눠본다면 형태에 따라 바위그늘에 자리한 궤형, 돌담으

성산 일뤳당

로 둘러싸인 돌담형, 건물을 지어놓은 당집형 등이 있고, 그 안에 좌정한 신의 직능에 따라 본향당, 일뤠당, 여드렛당, 해신당, 산신당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신을 모시고 있는 단독형이 있는가 하면 둘 이상의 신을 모시고 있는 통합형도 있다. 그런가하면 부부신이 서로 별거하거나 마을이 나누어지면서 똑같은 당이 다시 생기는 분리형도 있고, 여러 마을에서 한 개의 본향당을 공유하는 집중형도 있다.

본향당

본향당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당이다. 마을의 생산, 물고, 호적을 관장하는 신이 좌정해 있기 때문이다. 예전 역사서에는 광양당과 차귀당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제주도 전역의 신당이 광양당을 조종(祖宗)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송당을 조종으로 삼고 있다. 송당 백주또의 아들 열여덟이 제주시 근역에 좌정했다고 한다. 제주시 대부분의 본향당은 송당에서 '가지 갈라간' 당이다.

땅에서 솟아난 소로소천국은 강남천자국 금모래밭에서 솟아나 제주에 들어온 백주또와 혼인해 자식을 여럿 두었다. 사냥으로 먹고 살 수 없어서 백주또는 남편에게 농사지을 것을 권한다. 소천국은 밭을 갈다가 중이 시장하다고 하여 밥을 내주었는데, 밥 아홉 동이 국 아홉 동이를 모두 먹고 가는 바람에 밭 갈던 소를 잡아먹고, 배가 차지 않자 이웃집 소까지 잡아먹는다. 이를 안 백주또는 살림을 가르자고 요구한다. 얼마 후 둘 사이에서 난 아들 문곡성은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다가 쫓겨나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진다. 그러나 문곡성이 담긴 상자는 동쪽 바다 용궁으로 흘러들어간다. 문곡성은 용왕의 셋째 딸을 배필로 얻게 된다. 하지만 문곡성은 대식가인 아버지 소천국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답게 워낙 대식가라서 용궁에서 다시 쫓겨나 강남천자국에 다다른다. 거기서 난리를 평정한 후 군사 삼천을 데리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온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는 스스로 물러나 웃송당 · 알송당의 당신이 되었다. 신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셈이다.

송당 신화의 아들들이 제주섬의 전역에, 특히 제주시에서 표선면에 이르는 동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와흘본향당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본향신을 모신 당(제주도 민속자료 제9-3호). 커다란 팽나무 두 그루가 펼친 가지 아래 넓은 제장을 마련했다. 마을공동체의 성소(聖所)이면서 정기적인 당굿을 통하여 공동체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모신 당신은 마을 전체의 안녕을 지켜주고 생업, 산육, 치병 등의 기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관념된다.

와흘본향당에서는 하로산또와 서정승 따님아기를 모신다. 하로산또는 본향신이면서 산신이고, 서정승 따님아기는 산육신이면서 치병신이다. 직능이 다른 남녀 신을 함께 모시는 셈이다. 와흘본향당은 송당본향당의 한 줄기로 전승된다. 이는 하로산또가 송당본향당 금백주의 열한 번째 아들이라는 데서 구체화된다. 이 당에서는 1년에 두 차례 당굿을 크게 벌인다. 음력 정월 14일에 신과세제, 7월 14일에 마불림제를 한다. 매인심방이 있어 굿을 전담한다. 와흘리에서는 유교식 마을제를 따로 하지 않고 당굿을 유일한 마을제로, 남녀 공동의 마을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뤳당

일뤳당은 제일이 매 7일(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인 데서 유래했다. 산육과 치병을 관장하는 신이 좌정해 있어 아이가 아플 때 빌면 효험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피부병 치료에 효과가 크다고 전해진다. 토산일뤳당 계열이 유명하고 그 계열에 90여 개의 당이 있다.

송당의 금백주와 소로소천국 사이에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이가 버릇없이 굴다가 쫓겨났다. 무쇠상자에 담겨 죽게 된 신세였는데, 상자가 동해용왕국에 표착해 용왕의 막내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막내딸과 혼인하여 송당으로 돌아오게 된다. 부모에게 인사하고 내려오는 도중에 막내딸은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다가 돼지털이 코에 박히자 이를 태워 냄새를 맡는다. 남편은 아내가 돼지고기를 먹은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하다 여겨 마라도로 귀양 보낸다. 그 사이 아내는 아들 7형제를 낳아 키우게 되었고, 남편은 새로 첩을 얻었는데 큰부인의 죄가 없다고 여겨 데려와 함께 산다. 큰부인은 일뤳당신이 되어 어린이의 질병, 특히 피부병을 치료해주는 신이 되었다.

여드렛당

여드렛당은 제일이 매 8일(초여드레, 열여드레, 스무여드레)인 데서 유래했다. 이 당은 뱀신(蛇神)을 모신 당이다. 당굿은 대개 6월 8일에 크게 한다.

나주 금성산신은 뱀신이었는데 이 목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바둑돌로 변해 서울 종로거리에 날아갔다. 제주에서 진상을 간 강씨 · 한씨 · 오씨 형방이 이 바둑돌을 주워 제주로 돌아오는 길에 필요 없다고 버렸다가 큰 바람을 만나고 항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굿을 해 위난을 해결했다. 그러자 바둑돌은 뱃장 밑에 와 있다가, 배가 성산 온평리에 닿자 여인으로 변해 뭍으로 올라왔다. 그 여인은 맹호부인에게 인사하고 하토산리(알토산)로 가 당신으로 좌정했다. 하루는 삼만오리 연못으로 빨래하러 갔다가 왜놈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가시리 강당장집 외딸에게 흉험을 주고 자기를 위한 굿을 하게 했다. 그 후로 단골들이 뱀신이었던 이 하토산리(알토산) 당신을 잘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 당신은 단골의 딸로 따라다니면서, 모시다가 중단하면 해코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 제주도 남자들은 토산당 단골네 딸에게 장가들기를 꺼려하는 풍속을 낳았다. 그러나 제주 전역으로 시집간 단골네들에 의해 이 여드렛당 신앙이 널리 퍼졌다.

해신당

돈짓당, 개당, 영등당으로도 부르는 해신당(海神堂)은 어부와 해녀들의 해상안전과 풍요를 관장하는 당이다. '돈지' 란 물가의 언덕, 곧 둔치고, '개' 란 물가(浦)의 뜻이다. 남녀신(부부신)이 함께 있는 경우 개할마님(돈지 할마님), 개하르바님(돈지 하르바님)이라 한다.

월정리 베롱개 해신당

해신당은 제주 전역의 해안 마을에는 거의 다 있다. 메로 쌀밥, 떡으로는 시루떡과 돌레떡, 생선으로는 옥돔, 과일로는 귤과 사과와 배, 술로는 감주와 소주, 안주로는 달걀, 폐백으로는 물색과 한지를 올린다. 개인적으로 구덕(바구니) 안에 제물을 담아 당에 바친다. 정해진 자리는 없고 바친 순서대로 신당 가까이에 진설한다.

어떤 당굿이 있나

당에서는 마을의 무사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당굿이 치러진다. 마을당을 전속으로 담당하는 '메인심방' 이 당굿을 맡고, 마을 당신의 자손인 단골, 곧 마을사람들이 참여한다.

본향당에서는 1년에 네 번 정기적인 제의가 치러진다. 본향신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는 음력 1월의 신과세제, 영등신을 맞아 농업과 어업 등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2월의 영등제, 장마기운을 날려 보내고 곡식의 풍요를 기원하는 7월의 마불림제,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10월의 시만곡대제가 그것이다. 현재 이 4대 제의를 모두 치르는 당은 많지 않다. 대부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과세제를 중심으로 의례가 남아 있는 편이다.

신과세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제로 음력 정월 초에서 보름 사이에 치러진다. 한 해 마을의 안녕과 풍요, 집안의 건강과 번창을 기원하고, 한 해의 운수를 점쳐 액운을 피하고자 한다.

영등굿

영등신은 2월 초하루에 제주에 들어와 보름에 나간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영등신을 맞이하는 환영제를 하고 보내는 송별제를 하여 한 해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이 영등신은 바람의 신만이 아니라 바다 해산물의 풍요도 관장하는 신이다.

영등굿

영등굿은 마을단골인 제주도 해녀들이 힘을 모아 바다의 해산물이 잘되고 풍요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 벌이는 마을굿이다. 신년과세굿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가장 활발한 전승의 실제를 보이는 굿이다.

마불림제

마불림이란 장마의 습기와 곰팡이를 불어내고 떨어내고 풀어내는 여름 제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馬)의 불어남, 즉 증식을 기원하는 굿을 의미하기도 한다. 백중제라고도 한다. 이 전통 제의가 대체로 음력 7월 중순을 전후한 시기에 있었는데, 불교의 백중이란 의례가 보편화되면서 이 마불림을 백중제라 부르기도 한 듯하다.

시만곡대제

만곡(萬穀, 萬斛)이라 함은 많은 곡식의 수확을 뜻하니,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들인 후 지내는 추수감사제의 형식이라 하겠다. 한 해의 풍년을 맞이하는 즐겁고 뜻 깊은 제의여서 대제(大祭)라고 했다. 주로 음력 9월에서 10월 사이 일정한 날을 정해 이 굿을 벌인다.

굿의 절정, 굿놀이

굿의 본질은 제의라 하지만 실제로는 제의와 놀이, 신성성과 오락성이 함께 공존한다. 그러므로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노는 상황,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신을 놀리는 상황이 굿의 절정을 이룬다. 신에게 비는 제의성과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는 신인동락(神人同樂)의 오락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제주의 굿놀이는 희곡적(연극적) 요소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경놀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인데,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충격적이다. 한 여인이 들판에서 겁탈을 당한 후 팽돌이란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이 아이가 농사를 잘 지어 풍년을 맞이하게 된 내용이다. 팽돌이는 공부는 모르고 오직 "밥! 밥!"을 외치며 그 모습은 눈도 코도 없는 골계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큰 웃음을 자아낸다. 인간세계의 성적(性的) 행위가 자연세계의 풍요를 가져온다는 유감주술, 곧 비슷한 것들은 상호 긴밀한 영향을 끼친다는 원시적 사유가 담겨 있다. 풍년을 기원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밥그릇을 제공하는 만큼, 넉넉한 웃음도 함께 제공하는 종합예술적 의례였다.

전상놀이

전상은 전생(前生)이란 불교적인 용어에서 온 것 같다. 전생의 업을 잘 극복하여 현생의 복을 불러들이는 기원의 의미가 있고, 현생의 업을 잘 지어 내생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덧붙어 있다.

가문장아기 신화를 연희로 보여 준다. 가난에서 부자로, 부자에서 거지로, 다시 기아(棄兒)와 가난에서 부자로의 운명적 전환이 펼쳐지며 연희 속 주인공은 운명의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노력하면 제약된 운명을 떨쳐내고 복을 부를 수 있다는 이치를 일깨워 준다. 운명 극복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전상놀이 마지막 장면은 거지부부가 지팡이로 모든 전상(운명)을 집 밖으로 내쫓는 장면이 연출된다.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액운을 떨쳐내고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도록 제액초복(除厄招福)하고 있다.

영감놀이

영감놀이는 희곡적으로 구성된 무가라 할 수 있다. 이 놀이의 주인공은 영감이라고 불리는데, 도깨비신이다.

영감놀이

제주도의 영감신은 도깨비신이면서 불의 신이고, 배의 신, 풍요의 신, 병의 신이기도 하다. 도깨비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청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부를 주지만,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에게는 병마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고기를 몰아다 주는 풍요의 신이기도 하면서, 이 놀이에서는 심술을 부리는 병의 신으로 등장한다. 한편 쇠를 녹여 그릇을 만드는 풀무작업(제주에서는 불미작업이라 함.)에서는 이 영감신을 모시고 있으며, 이 성격이 확대되어 불을 관장하는 신으로도 숭앙된다. 선악을 동시에 구비한 원시적인 신의 모습을 보여 준다.

산신놀이

제주 중산간 위쪽에는 산신을 본향신으로 모시는 마을이 많다. 이 중산간 마을들에는 본향신이 군졸을 이끌고 한라산에 사냥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마을을 정해 본향신으로 좌정한 본풀이가 있다. 현재까지 와산리, 와흘리, 회천동 등의 지역에서 산신놀이를 행하고 있다.

놀이는 우선 심방 둘이 포수 역할을 맡는다. 머리에 끈을 묶고 막대기에 줄을 매어 꾸민 총을 들어 사냥꾼으로 분장한다. 먼저 한 명이 제장에 드러누워 잠을 자는 시늉을 하고 일어나 꿈 이야기를 한다. 사냥을 하면 수확이 많으리라는 것이다. 서로 주고받는 대사의 내용에는 성적인 표현이 가득하다. 그리하여 사냥에 앞서 함께 제사를 지낸 뒤 사냥에 나선다. 한 사람이 먼저 닭을 끌고 제장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닌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뒤를 쫓아다닌다. 닭이 바로 사냥감이다. 제장 안으로 돌아와 총을 쏘는 시늉을 한다. 서로 자기가 먼저 사냥감인 닭을 잡았다고 다툰다. 그러다가 수심방의 중재에 따라 화해를 하고는 사냥감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산신놀이가 끝나면 닭을 잡아 심방들에게 나누어 먹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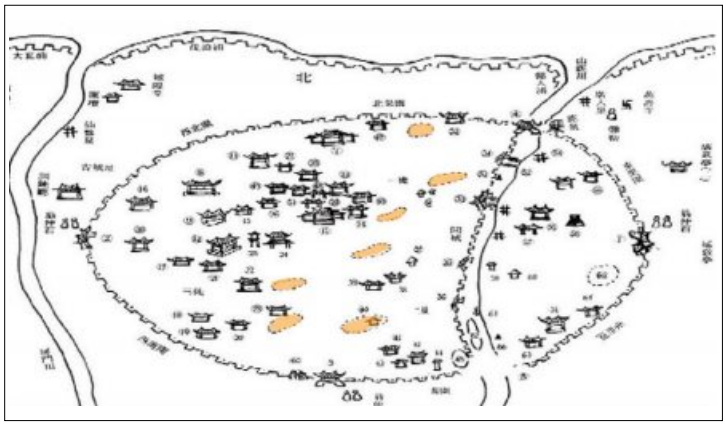
별 신앙

제주는 북두칠성과 인연이 있는 땅이다. 17세기 이원진의 〈탐라지〉에 의하면, 칠성도(七星圖)가 있는데, "돌로 쌓았던 옛 터가 있다. 삼성(三姓)이 처음 나왔을 때 삼도(三徒)를 나누어서 차지하였는데, 북두성의 형체를 모방하여 대를 쌓고 나누어 거처하였기 때문에 칠성도라 하였다"고 적혀 있다. 북두성을 신앙했던 흔적이라 하겠다.

삼신인이 땅에서 솟아나 벽랑국에서 온 세 여신과 혼인한 후, 탐라국을 건설하는데 그 당시부터 있었다고 하며, 그런 이유에서 왕을 성주(星主)라고 칭하였던 듯하다. 고려 초까지 탐라의 지도자를 성주로 불렀으니 별(星)과 관련된 신앙이 유별나다.

한라산 꼭대기에도 칠성대(七星臺)가 있다. 김치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에 "수행굴을 나서 10여 리 지나니 칠성대에 다다랐다. 이 대에서 동쪽으로 다시 5리쯤 지나 쳐다보니 석벽이 깎아지른 듯 우뚝 서서 기둥처럼 하늘을 떠받쳤다. 이것이 이른바 한라산의 상봉이다."는 기록이 나온다. 한라산 5리 못 미쳐 칠성대가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북두성에 제를 지내는 제단이었을 것이다.

칠성을 신앙하던 풍습은 매우 오래 되었다. 그런데 이후 뱀 신앙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칠성신이라 부르게 되었다. 아마도 고려 때 전라도 나주 금성산에서 모셔지던 뱀 신앙이 제주도에 유입된 이후의 사정일 것으로 본다.



1900년대 초 제주성내 고적도 중 칠성대

뱀신의 도래는 당본풀이에도 많이 남아 있고, 일반신본풀이에도 남아 있다. 칠성본풀이에는 '7' 이란 숫자가 여러 번 겹쳐 나온다. 아기씨가 '일곱 살' 되던 때, '이레' 되던 날, '일곱' 명의 잠수, 뱀 자식 '일곱' 등은 '7' 과 연관된 반복이다. 이런 이유로 북두칠성의 '7' 을 연관시켜 칠성신이라고 한 듯하다.

북두칠성을 신격화하여 북두성군이라 하는데, 도교에서 인간의 수명을 주재하는 신이다. 〈문전본풀이〉에서도 이본에 따라서는 일곱 아들이 북두칠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일곱' 이란 숫자와 연관된다. 〈풍속무음〉에서 칠성단을 만들어 칠성에게 기자(祈子)하여 딸을 얻고 '칠성아기' 라 이름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칠성신과의 관계가 명료한 편이다.

그러나 도교적인 칠성부군과 제주도의 칠성신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도교에서는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고, 무속에서는 풍요와 자손의 번성을 관장하는 신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제주도 무속의 오곡풍요신인 뱀신을 왜 칠성신이라 했을까. 도교에서도 뱀신, 그 중에서도 흰 뱀을 숭상하는 관습이 있고 그 신앙이 칠성신과 연관되어 후대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다.

마을마다 치러지는 마을제

제주섬의 마을제는 신당에서 무속으로 지내는 경우와 유교식 포제를 지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신당에서는 여성들이 제주(祭主)가 되어 무속으로 거행하고, 포제단에서는 남성들이 제주가 되어 유교식으로 거행한다. 둘 다 지내는 곳도 있고, 하나만 지내는 곳도 있다. 둘 다 지내는 경우, 포제를 지내면서 당에도 간단한 제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당에 제물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와흘과 송당은 무속 의례만 있고 애월 신엄과 구엄, 광령 등은 포제만 지낸다. 하나도 안 지내는 곳도 있다.

법환리 포제

제주의 마을제는 원래 마을의 신당에서 남녀가 함께 지냈는데 그 형태는 당연히 무속 굿이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압력에 의해 서서히 유교식 제사를 수용하게 되었다.

제주는 이형상의 '당 오백 절 오백' 파괴에서 알 수 있듯이 18세기 초반까지 유교 의례가 보편화되지 않았었다. 이형상 목사가 돌아간 후 당과 절은 다시 복원되었다. 그러다 19세기가 지나서 조정의 강력한 예악 정책에 의해 유교식 마을제가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때를 같이해 가정에서도 유교식 조상제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신당에서 지내는 마을굿을 폐기하지 않았다. 남성들이 유교식으로 포제를 지내는 마을제를 새로 만들고, 여성들은 예전처럼 무속으로 마을제를 지내고 있다. 2월 영등굿의 경우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인데, 이것을 파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당연히 잠수(해녀)굿은 지속돼야 했고, 다른 마을굿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포제는 철저히 남성들이 의례를 치르고 여성의 출입을 금한다. 여성은 음식을 장만할 뿐이다. 마을굿은 여성들이 의례를 치르지만 남성의 참여를 허용한다.

포제는 농작물에 충해(蟲害)가 심할 때 이를 기양(祈禳)하기 위하여 포신(酺神)에게 지내는 제사다. 포신은 재해(災害)의 신(神)이다. 원래 포제는 재해를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례였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마을사람들이 무사고와 안녕, 풍농, 육축번식을 바라는 뜻에서 지내는 유교식 마을제사를 특히 포제라 칭하고 있다. 주로 음력 정월과 음력 7월에 걸쳐 두 번 지내며, 1년에 한 번 지내는 곳도 흔하다. 마을 사람들이 제사 비용을 모아서 제물과 희생으로 쓸 돼지를 마련한다.

애월 납읍리의 경우 제단이 셋인데 돼지 세 마리를 통째로 제물로 올린다. 대상 신은 토신(土神), 서신(西神), 포신(酺神)이다. 토신은 마을의 토지신(土地神)으로서 마을수호신이며, 서신은 서쪽에서 온 손님 신을 뜻하는데 마마신(홍역신, 紅疫神)이고, 포신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신격인데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신격의 의미를 덧보태 인물재해지신(人物災害之神)이라고 한다. 원래 재해를 예방하는 포신에 대한 제사에 마을 수호신격인 토신을 덧보탰고, 여기에 재해의 신 중에도 특히 인간에게 큰 재앙을 주는 마마신을 덧보태 제사지낸다.

제주도의 마을제는 무당굿으로 이루어지는데, 추자도에서는 마을제가 농악대굿으로 거행되고 농악대굿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추자도는 음력 섣달그믐에서부터 정월 초사흘까지 걸궁을 펼친다. 이 걸궁에는 풍물패와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양반탈, 곱추탈 등이 따르고 마을사람들이 함께 탈놀이를 벌이는데, 이것이 탈춤의 기원일 것으로 본다. 한반도에서는 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희귀한 놀이다.

추자도의 농악대굿은 제주의 무당이 거행하는 마을굿이나, 마을의 남성들에 의해 거행되는 유교식 혹은 도교식 '포제' 와도 구별되는 놀이로서, 독자적인 영역의 풍요의례라 할 수 있다.

집안을 관장하는 신을 위한 굿

정기적인 가내신앙

가신신앙(家神信仰)의 대표적 의례로 멩감제를 들 수 있다. 멩감제는 신년 가정의 무사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의례로 문전제, 철갈이(문전철갈이), 멩감코ᄉᆞ, 요왕제 등이 있다.

문전제는 가정의 제액초복을 위한 행사이고, 철갈이는 밧칠성을 모신 칠성눌에 새 곡식을 갈아 넣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새(띠)를 갈아 덮는 행사다. 둘을 합하여 문전철갈이라고도 한다.

문전제는 〈문전본풀이〉에 의거하여 상방의 일문전신, 부엌의 조왕신, 올레와 정주목의 주목신(정살지신), 변소의 측도부인, 울타리의 5방토신을 모시는 의례다. 집안 곳곳의 신들을 두루 모시는 의례여서 유교식 의례를 행하면서도 문전신과 같은 중요한 신에 대한 상을 차려 위한다. 문전철갈이는 여기에 농기구의 신인 갈매신, 생명을 주재하는 삼승할망, 조상영가, 칠성신 등을 모신다. 요즘은 농기구가 기계화됨에 따라 농업기계와 자동차의 안전을 갈매신에게 기원하기도 한다.

멩감제는 생업의 공간에 따라 드르, 산신, 제석, 요왕의 멩감제가 있다. 멩감제는 애초 생업 가운데 수렵을 관장하는 산신에 대한 제사였는데, 수렵공간이 목축으로 변모하면서 소와 말을 관장하는 목축의 신격을 겸하게 되었다. 소와 말은 제주 뜬 땅을 밟아주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해변마을이나 중산간마을의 밭농사지대에서도 소와 말을 위한 의례가 중시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멩감제는 산신에서 요왕과 제석으로까지 그 직능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기적인 가내신앙

멩감제가 정기적인 가내신앙이라고 한다면, 비정기적인 가내신앙으로 성주풀이, 귀양풀이, 시왕맞이, 푸다시, 넋들임 등이 있다.

성주풀이는 집을 신축할 경우나 새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하는데, 건축에 쓰인 재목의 신인 목령(木靈)을 쫓아내고 성주신을 모셔 앉히는 의례다. 지금도 제주도민 다수가 거행하고 있다. 성주풀이를 하지 않으면 다른 무속의례를 할 수 없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례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귀양풀이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가내 무속의례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지내는 굿으로, 이 역시 망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관념이 높아서 지속되는 가내의례라 하겠다.

시왕맞이는 망자의 사망 뒤 3년이 지난 즈음에 하는 천도해원의례의 성격을 지닌다. 큰 병을 앓고 있을 때도 이따금 한다. 굿의 규모가 커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내에서 쉽사리 할 수 있는 굿이 아니다.

병굿은 넋들임과 푸다시 등이 있다. 넋들임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이 크게 놀라는 일이 발생하면, 마을 안에 있는 삼승할망이나 심방을 찾아가 빠져나간 넋을 들어오게 하는 굿이다.

푸다시는 오래 병을 앓고 회복의 기미가 없는 경우 하게 되는데, 점을 쳐 병의 원인을 묻고 택일을 하여 돌아온 후, 심방을 청해 굿을 한다. 그 외 호강굿이 있는데 무병 · 장수 · 재복을 비는 재수굿으로 몇 해 걸러 하고 있다.

세시풍속

생활리듬과 계절 정서가 녹아 있어

제주의 세시풍속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생활풍습이며 제주문화를 특징짓는 생활양식이다. 제주도의 자연적 · 지리적 환경 요인들은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행해진 세시풍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제주도의 세시풍속은 한국의 전통적 세시풍속의 틀을 지니면서도 제주지역의 고유한 생활문화의 특색이 가미되어 전승되고 있다.

세시풍속은 음력 정월부터 선달까지 1년 단위로 시간적 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전승의례이다. 시간의 주기는 태음력을 기준으로 하여 한 해를 춘 · 하 · 추 · 동 사계절, 즉 3개월 단위로 음력 정월부터 3월까지는 봄, 음력 4월부터 6월까지는 여름, 음력 7월부터 9월까지는 가을, 음력 10월부터 12월까지는 겨울로 삼고,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 한 달을 두 절기로 구분해 15일 정도에 걸쳐 한 절기를 맞이한다.

세시풍속의 관행은 생활공간과 생산활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주도의 세시풍속에는 절기, 물때, 달거리 등 시간의 주기에 따라 산간 · 중산간 · 어촌 마을이라는 생활공간에서 농사 · 목축 · 어로 · 수렵 등 생업활동의 관행 등이 반영된 지역적 특수성이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세시풍속은 농사와 어로, 의례 행위 등이 생활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상과 자손 모두를 위한 제사, 세시명절

설, 한식, 단오, 추석은 한국의 전통적인 고유 명절이다. 음력 정월 초하루에 지내는 설은 묵은해를 떨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곧 한 해 최초 명절이라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주에서는 명절을 '멩질', 설을 '정월 멩질' 이라고 말했다. 이 날은 친족 집을 돌며 제를 지내는데, 그 순서는 종손집에서 지낸 다음 서열에 따라 윗대 조상을 모신 집 순서로 돌거나, 반대로 아랫대 친족 집에서 마지막으로 종손집에서 도제명절을 지내는 등 집안에 따라 다르다. 설 차례 절차 역시 집안의 제례풍습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기제사 방식대로 병풍을 쳐서 지방을 써 붙이고, 삼헌관과 양 집사가 서서 참신 · 강신 · 초헌 · 아헌 · 종헌 · 첨작 · 유식 · 잡식 · 철변의 순으로 진행한 후 음복을 하고 다음 제를 지낼 집으로 이동한다.

설날에는 친족들끼리 세배를 주고받으며 서로 덕담이 오가는데,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다짐과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진다. 특히 삼년 상중에 있는 집에 혼백상이 있어 상식(床食)을 놓아두는 경우에는 각별히 찾아가 망인에게도 세배를 올렸다. 이러한 세배를 "상에 간다." 고 한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치르는 명절이다. 한식은 설이나 추석처럼 집집마다 제사 지내러 다니지 않고 집안에 따라서 '문전멩질' 이라 하여 해뜨기 전에 간단히 지낸다. 이 명절 때는 모든 제물을 찬 음식으로 준비했다. 전날 미리 음식을 장만해 메와 갱을 식힌 다음에 차례를 지내고 음복이나 식사까지도 찬 것을 먹었다.

한식날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고 특별히 택일을 하지 않아도 손 없는 날이라 동티가 나지 않는다 하여 산소를 돌보거나 이장을 해도 좋으며 비석을 세우는 등 묘소를 단장해도 좋다고 여겨왔다.

한편, 청명절과 한식날 전후로 묘제를 지내고 있는데 시제라고도 한다. 묘제는 5대손에서 지

제(止祭)된 조상에 대한 제의로 집안에서 제를 지내지 않고 묘소에서 지낸다. 묘제는 혈연 중심의 제사여서 같은 조상의 혈족 집단, 곧 많은 친족이 참여함으로써 혈연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명절이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월과 일이 겹치는 3월 3일, 5월 5일, 6월 6일, 7월 7일, 9월 9일 등을 양기(陽氣)가 가득 찬 길일(吉日)로 여겼다. 그 중에도 5월 5일은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여기며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렀다. 제주도에서도 기주떡과 곤떡, 새미떡, 과일, 육적, 해어 등 제물을 마련해 단오 명절을 지냈다.

벌초

제주사람들은 단오 때 솔방울, 죽순, 검은콩, 검은 쇠똥 등을 모아 두었다가 달여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믿었다. 이 시기는 만물이 물이 올라 기운이 찬 때이므로 풀뿌리 하나라도 약이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듯하다. 특히 5월 단오 때 쑥은 약쑥이라 하여 그늘에 말려서 1년 내내 매달아 두면서 약재로 이용하기도 했다.

연중 최대의 명절은 음력 8월 15일 추석이다. 제주에서는 '팔월 멩질' 또는 'ᄀᆞ실(가을) 멩질' 이라고 불렀다. 고대 사회의 풍농제에서 유래된 추석은 일종의 추수 감사절에 해당한다.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풍성하게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로 명절 중에서 최고의 명절로 삼아왔다.

제주에서는 추석 차례 전에 벌초하는 관행이 있다. 보통 음력 8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끝마치는 것이 상례다. 음력 8월 절기에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먼저 벌초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이 때문에 제주사람들은 자손을 멀리 내보는 것을 꺼렸고, 멀리 있더라도 벌초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8월 초만 되면 고향을 찾아와 친족들과 함께 산소에서 벌초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특히 음력 8월 1일은 모둠벌초라 하여 묘제를 행하는 윗대조의 묘소에 친족집단이 모여 함께 벌초한다. 모둠벌초 때는 한 가구당 1명씩은 참석해야 친족 간의 의리가 상하지 않고 따돌림을 받지 않는다. 이 모둠벌초가 끝난 후 형제들이 모여 가족벌초를 한다. 무엇보다도 추석 차례를 지내기 전에 조상의 무덤을 깨끗이 단장하는 것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신들도 새롭게 시작하는 날, 입춘

입춘은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계절로 '새철 드는 날' 이라 했다.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 양력으로 2월 4일에 해당된다. 이 날은 하늘에 올라갔던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신에게도 인간에게도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고 여겼다.

각 가정마다 새봄을 맞이하고 잡귀를 예방하는 뜻으로 흰 종이에 여러 가지 좋은 글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입춘축(立春祝)을 대문이나 기둥, 대들보, 천장 등 집안 구석구석에 써 붙이는데, 이것을 '입춘축 붙이기' 라고 불렀다.

입춘축은 붙이는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대문에는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을 써 붙이고, 마루에는 '화기자생군자택 근천하무난사(和氣自生君子宅 勤天下無難事)' , '백인당중유태화 일근천하무난사(百忍堂中有泰和 一勤天下無難事)' 라고 써 붙였다. 글씨 대신 돌하르방을 그려서 붙이기도 하는데, 잡귀를 예방하고 집을 지켜 준다는 의미에서 돌하르방에 오방신장의 푸른 옷, 붉은 옷 등을 입혔다.

입춘축

입춘날은 금기사항도 많았다.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중요시하여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집안에 액(厄)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유된 것 같다. 여자들의 집 밖 출입을 삼갔고, 특히 다른 집을 방문하는 것을 금했다. 여자가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 밭에는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속신 때문이다. 또한 이 날 돈 거래를 하면 일 년 내내 재물이 밖으로 새어나간다고 하여 돈 오가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 날 상주(喪主)를 만나면 그 해 운이 대통하여 잘 산다는 속설도 있었다.

입춘날 제주에서는 탐라시대부터 전해졌다는 입춘굿놀이가 벌어진다. 조선시대에도 제주목관아에서 제주목사를 비롯한 관리들과 무당 등 관 · 민 합동으로 풍농을 기원하는 입춘굿, 일명 춘경(春耕) 또는 입춘춘경(立春春耕)을 크게 벌였다고 한다. 입춘굿놀이는 일제강점기에 그 맥이

입춘굿놀이

끊겼다가 1999년 '탐라국입춘굿놀이'로 복원되어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입춘날에는 기상과 곡식의 모양을 보아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입춘점이 행해졌다. 보리뿌리점은 입춘이 드는 시간에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세 개쯤 뽑은 뒤, 보리뿌리가 있으면 그 해 보리농사가 잘 되고 없으면 잘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키점의 푸눈체점 치기는 부녀자들이 부엌에서 화덕 앞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입춘 시간에 푸눈체를 덮어 두었다가 입춘 시간이 지난 후 열어 보고, 좁쌀이 몇 알 있으면 조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다. 그런가하면 입춘날 바람이 많이 불면 그 해 내내 바람이 많아 밭농사가 어려워진다고 믿었다. 이렇듯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며 한 해의 풍농을 기원하는 생활모습이 생활세시 속에 절절이 녹아 있다.

신들의 부재 동안 이사하는 철, 신구간

제주에서 이사는 신구간(新舊間)에 하는 관행이 있다. 신구간은 신구세관교승기간(新舊歲官交承期間)의 줄임말로,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 사이이며 신들이 한 해 동안의 임무를 교체하는 기간으로 여겨 왔다. 즉, 인간 세상을 관장하는 1만 8천 신들이 한 해의 임무를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보고한 뒤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내려오는 시기로 신들의 부재 기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사나 집수리, 나무를 자르고, 묘소의 담을 손보는 일 등 평상시 꺼렸던 일들을 처리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고 믿었다. 특히 변소를 고치는 일은 신구간에 '동티'가 나지 않는다 하여 이때를 기다렸다가 했다. 이처럼 제주 사람들은 이사하는 일과 같은 일상생활조차도 신들과 관련되거나 택일을 하는 등 생활 세시를 따르며 항시 조심스레 살아왔음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구간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사다. 일반적으로 신구간은 이사하는 철로 인식되고 있다. 제주 사람들은 지금도 신구간에 이사를 하는데, 미처 이사를 하지 못하

면 택일한 날에 솥만 옮기거나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반드시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었다. 이처럼 불씨 옮기는 일은 이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었다.

몸을 보호하는 지혜로움, 세시 음식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 제주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몸을 보호하는 지혜로움이 있었다.

제주에는 "3월 되면 해촌 사람들은 고사리 볶은 거 얻어 먹으러온다."라는 말이 있다. 고사리 반찬은 봄철의 별미 음식이다. 제사상에 올릴 고사리는 꼭 스스로 꺾은 것이어야 정성이 있다고 했다. 때문에 청명을 전후로 가늘게 '고사리 장마'가 오고 나서 여린 고사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부녀자들은 들판을 돌아다니며 고사리 꺾기에 여념이 없을 정도였다. 다만 묘소 위에 자란 고사리는 제사 때 쓸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고사리가 기제사와 명절의 중요한 제물인 까닭은 고사리가 돋아날 때 꺾고 또 꺾고 해서 아홉 차례나 재생하므로 자손이 번성한다는 의미와 조상신이 제사 때 먹다 남은 제물을 고사리의 세 줄기로 지게처럼 뻗은 가지에 끼워서 승천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개역은 보리를 솥에 볶아서 맷돌로 갈아 가루로 만든 것이다. 보통 5~6월경 보리수확이 끝난 직후 장맛비가 내려 일손이 한가해지면 만들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개역을 만들어 올리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보릿가루도 한 줌 안 주는 며느리"라고 흉볼 정도로 중요한 계절음식이었다.

음력 6월 20일은 '독(닭) 잡아먹는 날'이라 하여 집집마다 닭을 잡아먹는 풍속이 있다. 봄에 병아리를 사다가 마당에서 키워서 중닭으로 자랄 때쯤에 식용이 가능했다. 음력 6월 스무날에 닭을 잡아먹으면 만병통치로 보약이 된다 했는데, 특히 여자는 수탉을 먹고 남자는 암탉을 먹어야 더욱 효과가 있다고 했다.

고사리밭

11월은 동짓달이라고 하며, 동짓날은 양력 12월 22일에 맞게 된다. 예부터 동짓날에는 붉은색을 띤 팥죽을 쑤어서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다. 동짓날 팥죽을 먹기 전에 먼저 마당이나 축담, 문간에 뿌리는 풍속이 있다. 이것은 붉은 팥은 사악한 것을 막는 힘이 있다고 여겨 액을 막기 위함이고, 또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을 달래어 보낸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동지가 초열흘 전에 들면 애기동지라 하여 팥죽을 쑤지 않았다.

제주에서는 장 담그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장은 묵은해에 담아야 좋다고 하여 대개 11월에서 1월 사이에 담갔다. 장을 담글 때는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 따른다. 콩 삶는 날부터 주부의 생기복덕(生氣福德)에 맞춰 용 · 뱀 · 쥐 · 범날은 피하고, 개 · 닭 · 염소 · 토끼 · 말날은 좋다고 하여 좋은 날을 택해 장을 담갔다. 그런가하면 좋은 날이라고 해도 가족의 띠와 겹치는 날은 장을 담지 않았다. 그리고 메주 수는 짝수여야지 홀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일(未日)은 납팽날이라 하여 엿을 고아 먹었다. 흔히 동짓날에 엿기름을 넣어서 납팽날에 엿을 고았다가 먹었는데, 납팽엿은 속병에 특효가 있고, 궂은 부스럼에도 바르면 좋다고 믿었다. 속설 때문이기도 하지만 납팽엿은 겨울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간식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별미 음식이었다.

돼지는 관혼상제 등 큰일을 치르는 데 쓰이는 소중한 가축이었다. 정월명절이나 추석을 앞두고 명절 제숙을 마련하기 위해 몇 사람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소나 돼지를 추렴하였다. 특히 돼지고기는 마을에서나 집안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준비하는 음식으로, 예전에는 추렴하지 않으면 좀처럼 먹기 힘들었다.

안녕과 풍요 기원하는 세시의례

제주도의 마을들은 대부분 반농반어의 생산 활동으로 생계를 이끌어 왔다. 자연환경은 이러한 생산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사람들은 어떤 위협을 가할지 알 수 없는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중 한 방법이 바로 자연신, 조상신, 토지신, 해신 등 많은 신들에게 끊임없이 정성을 드리는 것이었다.

마을사람들은 해마다 정초에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와 무속식 마을제인 당굿을 행하여 마을 · 가정의 안녕과 화합, 생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를 거행해 왔다. 이러한 주기적인 세시의례는 생산공동체이자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화합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밖에도 생업의 형태에 따라 소규모 집단의 무사안녕과 번영을 위한 잠수굿, 요왕굿, 테우리코ᄉᆞ(백중제), 그물코ᄉᆞ(해신제), 사농코ᄉᆞ(산신제) 등의 의례가 세시에 따라 행해졌다.

포제는 남성들이 유교식 제법으로 시행하는 마을제로서, 마을수호신인 포신지위(酺神之位)

께 마을의 평안과 무사,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를 말한다. 마을에 따라 포제의 명칭은 마을제, 포제, 이사제, 동사제, 거릿제 등으로 달리 쓰인다. 제일은 상정일(上丁日)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날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궂은 일이 생기면 해일(亥日)에 행해진다.

제관은 보통 12~15명으로 구성되는데, 제관으로 선출되면 3일 전 제청에 들어 재계(齋戒)를 한다. 이를 '3일 정성' 이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제청 입구와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요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성을 다한다. 제관은 개고기나 말고기와 같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성행위도 삼가야 한다. 부정 탄 사람들은 금줄 친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입제 후에 마을에 초상(初喪)이 나면 포제가 끝나기 전에는 초혼(招魂)을 못하게 할 정도로 정성을 들인다.

신과세제

한편, 새해가 되면 '신과세제' 라 하여 각 마을마다 본향당에서 주민들이 당신(堂神)에게 신년하례를 드리는 당굿이 행해진다. 본향당은 각 마을의 생산 · 물고 · 호적 · 장적을 관장하여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호해 주고 지탱해 주는 신성한 성소로 당신은 마을 토주관(土主官)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향당의 신과세제는 가장 중요한 당굿으로 마을여성들 대부분이 참가한다. 신과세제는 대개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 사이에 치르며, 마을 전체의 무사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계절 제의다. 또한 주민들마다 개인적인 축원도 드리는데, 가내 안전과 생업의 번창을 기원한다.

해안 마을에서 행해지는 잠수굿은 해녀들의 무사 안녕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다지는 무속의례다. 보통 매해 음력 1월~3월 사이에 치러지는데 마을마다 제의 시기는 다르다.

제의 절차는 크게 삼석울림, 초감제, 요왕맞이, 지드림, 씨드림, 씨점, 액막이, 배방선, 도진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씨드림과 씨점이다.

씨드림은 건강하고 잠수기량이 뛰어난 50~60대 해녀들 중에서 맡는다. 씨드림을 하는 사람들은 '씨멘통' 이라는 것에 좁쌀을 가지고 제상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다가 바닷가를 마음대로 돌아가며 신나게 씨를 뿌리고 제청으로 돌아온다. 제청에 돌아와 한판 놀고 난 다음에 돗자리

지드림

를 펴고서 심방이 잡기를 소망하는 전복, 소라, 오분자기의 씨를 뿌리자고 노래하면서 좁씨를 돗자리에 뿌린다. 이렇게 하여 좁쌀의 밀도를 보고 심방은 해녀의 채취물의 풍요를 점치게 되는데, 이를 '씨점'이라 한다.

지드림은 바다의 세계를 관장하는 용신과 가족 중에 바다에서 죽은 조상신들에게 1년 동안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며 제물을 종이에 싸서 바다로 내던지는 행위를 말한다. 제물들을 백지에 조금씩 싼 것을 '지'라 하며, 이것을 바다에 내던지는 행위를 '지 드린다'라고 한다.

제주의 목축은 우마를 목야지에 연중 놓아기르는 방목을 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많이 의존했다. 특히 강수량, 가뭄, 폭설, 전염병 등은 우마사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었다. 목축을 하는 마을에서는 음력 7월 14일 우마가 한 해 동안 잘 번식하고 무병하기를 기원하는 제를 올렸는데 이를 '백중제'라 한다. 이 제사를 테우리코ᄉᆞ, ᄆᆞ쉬멩질, 테우리멩질 등으로도 부르며, 우마를 기르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하는 명절이라 할 수 있다.

일생 동안 거쳐야 할 통과의례

제주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숯과 빨간 고추를 꿰어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알렸다. 또 산신(産神)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방구석이나 벽장 위에 삼신할망상을 차려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려 아이가 무탈하게 성장하도록 기원했다.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면 혼례를 치르게 된다. 혼인의 절차를 간단히 보면, 중매쟁이를 통해 새각시와 새신랑 구하기, 사주 맞춰보기, 신랑 측에서 택일하고 막편지 가져가기, 혼례 날짜 정하기, 납폐(納幣), 돗잡기, 가문잔치, 혼례식 순으로 진행된다.

혼인이 결정되면 택일해 형편에 따라 혼례에 필요한 예물과 음식 재료를 신부집으로 보내고, 잔치 전날에는 친족끼리 가문잔치를 양가에서 각각 벌인다. 잔칫날 신랑집에서는 홍세함을 준비한다. 이는 예장을 넣은 함으로 붉은 보자기로 싸서 보자기의 매듭 위로 상봉(上封)이라 종이

에 적어 봉인한다. 이것을 신랑과 상객 일행이 신부집으로 가져다주는데 이를 '납폐'라고 한다. 신부집에서는 예장을 면밀히 검토해 신랑을 맞이했다. 신랑과 상객 일행이 신부집에서 식사를 마치면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신랑 집으로 데려와 신랑 집 마당에서 혼례식을 치른다.

자식들은 부모가 60세 생일을 맞으면 정성들여 음식을 마련하고 환갑 잔칫상을 차렸다. 다른 지방에 비해 매우 검소하게 가족끼리 모여 앉아 자식들이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목숨이 다하면, 먼저 운명을 확인한 후 고인의 홑적삼을 시신(屍身)에 잠시 덮었다가 지붕 위로 가지고 올라가 북향하고 주소, 이름, 나이를 부른 다음 고인의 혼을 부른다. 이러한 고복이 끝나면 상주들은 사돈과 친지들에게 초상 난 것을 알린다. 이때 상주의 사돈은 팥죽을 만들어 가서 상주들과 상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접한다. 택일한 날과 시간에 맞춰 고인의 몸을 닦고 수의를 입히고 입관한 후 상주들은 제대로 상복을 갖춰 입고 성복제를 올린다. 성복 전에는 문상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발인 전날 일포제를 지내고 문상객을 받았다.

관을 실어 장지로 옮기는 상여를 제주에서는 '생이'라고도 불렀으며, 이를 보관하는 집을 '생이집'이라 했다. 상여는 동네마다 계(契)를 조직해 운영했는데, 계원들은 장례가 있을 경우에 모든 일을 접고 반드시 참석해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운반해주었다. 장례가 끝나면 3년 뒤 대상을 치를 때까지 방안에 혼백과 혼백상을 모신 상청을 마련해 상식을 올리는 등 정성을 다하였다.

제사는 기일 전날 밤 초저녁에 제물을 진설해 놓았다가 자시(子時)에 제를 올리는데, 본제를 지내기 전에 문전에 제물을 진설해 문전제를 지낸다. 제사절차는 집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돌문화

흔하지만 허투루 볼 수 없는 쓰임새

제주문화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기층을 이루고 있는 돌문화의 기저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돌 자원이라는 핵심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 돌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돌 자원, 그 중에서도 제주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돌은 현무암이다.

오늘날에도 활용되고 있는 현무암의 돌 자원은 크게 일반적 이용과 특수적 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일반적 이용은 건축용 재료, 생산용 재료, 생활도구용 재료, 신앙생활용 재료, 비석용 재료 및 놀이용 재료로써의 이용으로, 그리고 특수적 이용은 통신 · 방어용 재료와 경계용

재료로써의 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무암의 쓰임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어진다.

일반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생활도구인 정ㄱ레, 풀ㄱ레, 약ㄱ레, 돌화로, 봉덕, 소줏돌, 갈돌, 돌등잔, 물확(빨래확), 물통, 돌세면기, 돌방아, 돌절구, 돌확(혹), 기름틀은 물론이고 작은 자연마을 단위나 마을전체로 사용하는 포구 및 봉천수 · 용천수 축조용 돌담, 신당 보호용 돌담, 원(갯)담, 연자마,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벽보판인 방문석, 도대불, 송덕비 · 공덕비 등의 비석류로도 사용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가 주택이나 그 주변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울담과 축담을 시작으로 우영(채전)담, 통싯담, 올렛담, 마을길 돌담, 들판의 경작지 사이사이를 가로지르는 밭담과 잣담, 그리고 중산간 지역의 목장용 경계석인 잣성(하잣성 · 중잣성 · 상잣성) 등 그 쓰임새는 한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심지어는 어쩌다 짬을 내어 놀이를 할 때도 돌이다. 아이들은 공깃돌, 사방치기 및 비석치기용 돌 등을, 어른들은 듬돌 등 현무암으로 만든 놀이도구를 사용했다.

묘 주변을 두른 산담(묘지 경계석)에서부터 그 내부를 장식하는 동자석, 문인석, 망주석까지, 제주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돌을 사용했다.

이처럼 현무암의 활용도는 참으로 다종다양했다. 이는 선사시대로부터 거주해온 선사인들이나 역사시대 이후의 제주도민들이 현무암의 돌 자원을 오랜 세월동안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고뇌와 지혜의 역사가 반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돌문화의 화신, 돌담

돌담은 제주 돌문화의 근간이자 화신(化身)이다. 돌담은 제주 돌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주자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돌담이 보이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없다. 그만큼 돌담은 이 섬의 특성과 화산활동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돌담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연자원인 돌을 이용해 쌓아 올린 울타리'다. 돌담은 그 어느 것 하나, 아무 의미 없는 장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소에 나름대로 목적을 지니고 제주도민들의 손으로 쌓아올려진 것이다. 그러나 돌담을 쌓아 올린 목적은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다르기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돌담의 종류는 다양하다.

제주섬에 쌓아진 수많은 종류의 돌담 가운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돌담은 울담과 밭담 그리고 산담이다.

울담은 개별 주택의 가장자리에 쌓아올린 돌담이다. 울담의 주된 역할은 근본적으로 택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 기능이다.

울담

경계선 기능은 다른 종류의 돌담들도 기본적으로 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돌담 자체가 안과 밖을 구분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요소나 대상을 보호하거나 보전하기 위해 설치됐다는 것이다.

울담의 역할은 경계선 기능 외에도 외부인의 시선과 비바람을 차단하고, 다른 집의 소나 말 등 가축이 함부로 택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

외부인의 시선을 막아주는 울담 덕분에 특히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여름과 초가을까지 가족들이 집안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으며, 울담 덕분에 강풍이나 태풍이 많은 이 섬에서 특히 비를 동반한 바람이 먼지와 쓰레기 따위를 몰고 집안으로 날려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울담의 높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2m정도에 이른다. 울담의 높이가 높을수록 계절풍이나 계절 따라 부는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밭담은 경작지인 밭 가장자리에 쌓아올린 돌담으로, 높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1.5m 내외다. 밭담은 자신이 소유하는 경작지임을 의미하는 경계선의 기능 이외에 우마의 침입을 막고, 바람 때문에 밭의 흙이 깎이는 것을 방지하고, 작물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산담은 한반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매우 이색적인 돌담이다. 산담은 우선, 죽은 사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경계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마와 산불 등으로부터 묘지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밭담

산담의 높이는 보통 30~12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돌담을 쌓는 형태도 외담과 겹담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외담으로 쌓을 경우에는 그 높이가 보통 50~60㎝를 넘지 않는다.

산담은 그 모양새에 따라 크게, 전체적으로 타원형이면서도 앞 부분이 직선형인 전방후원형(원형 포함)과, 사각형이지만 길이가 앞쪽보다는 뒤쪽이 다소 짧은 부등변사각형(사각형 포함)으로 나눌 수 있다.

원형은 전방후원형의 변형 그리고 사각형은 부등변사각형의 변형으로 보고 있다.

제주 돌문화 감상 포인트

제주 돌문화의 상징적 이미지는 다공질현무암이 지닌 검은색, 거칠고 투박한 질감, 바람구멍, 직선과 곡선, 그림 같은 작품, 제주다움, 제주 선민들의 숨은 지혜 등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

먼저 '검은색' 의 이미지는 제주 돌문화의 재료인 돌 자원의 외형적 색채를 강조하는 키워드다. 검은색과 제주 돌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거칠고 투박한' 이미지는 다공질 현무암이 주는 질감과 돌을 만졌을 때 손에 와 닿는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는 키워드다. 제주도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거칠고 투박한 다공질 현무암을 제대로 활용해 온갖 생활용구를 만들었고, 또 필요한 장소에서 나름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바람구멍' 은 울담이나 밭담 등을 쌓아올리는 과정에서 돌과 돌 사이에 생긴 틈새를 상징하는 키워드다. 현무암의 돌담에서 바람구멍은 그저 단순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람의 일부가 빠져나가면서 울담이나 밭담 전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직선과 곡선의 이미지' 는 특히 돌담에서 쉽게 연상할 수 있는 키워드다. 울담과 울담이 만나면서, 또 밭담과 밭담이 만나면서 직선과 곡선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돌담은 한 마디로 자연 속에 제주도민들이 만들어놓은 예술작품이다.

'그림 같은 작품' 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돌담이 끝없이 이어지거나 어느 한곳에 모여 있는 형태에서 느낄 수 있는 키워드다. 들판이나 오름 사면에 오밀조밀하게 어울려 있는 산담의 무리에서, 줄기차게 이어지는 밭담에서, 또한 끊길 듯 끊길 듯 이어지는 올렛담이나 마을길 돌담에서도 그림 같은 작품의 이미지는 연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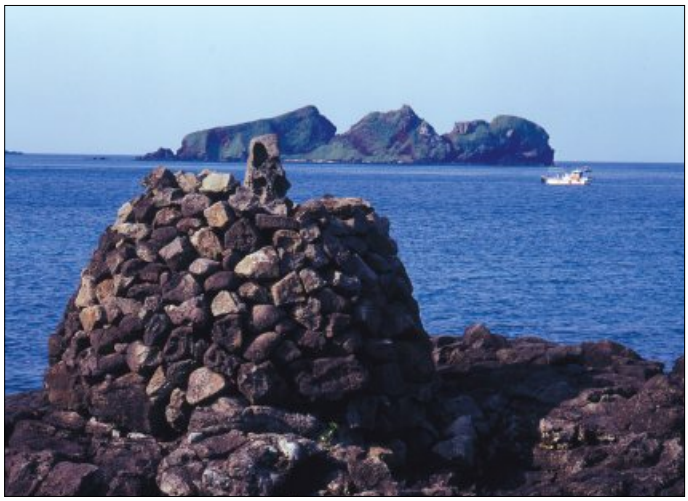
'제주다움' 의 이미지는 화산활동의 결과 탄생된 용암대지 위에 한라산과 오름이 펼쳐지고 검은색 돌담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연상되는 키워드다. 여기에다 봄의 꽃무리, 여름의 녹음, 가을의 억새, 겨울의 잘 익은 황금빛 감귤과 하얀 눈 등 계절에 따른 색채가 더해지면, 제주다움의 이미지는 더욱 더 중층적으로 다가온다.

'제주 선민들의 숨은 지혜' 는 제주 돌문화의 근본을 묻는 상징적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생활용구와 농기구를 비롯해 들판의 밭담과 산담, 택지내의 울담과 올렛담, 우영담, 또 바닷가의 원담과 도대불, 마을 밖 특정지점에 세워진 방사탑까지 다양한 기능체들의 쓰임새를 생각하게 되면, 제주선민들의 숨은 지혜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다.

제주 돌문화의 진수(眞髓) 들여다보기

방사탑

방사탑(防邪塔)은 '사악한 것을 막는 탑' 이다. 제주섬에는 오래 전부터 마을의 자연지형이 허(虛)하다고 생각되거나 살(煞)이 비치는 곳에 돌탑을 세우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돌탑을 세워서 마을 내부로 들어오는 사악한 기운을 막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방사탑

인성리 방사탑은 모두 3기인데, 그 가운데 2기의 탑 위에는 사람의 얼굴 형태만을 갖춘 석상이, 1기의 탑 위에는 두 팔을 배 앞에 모은 상반신 형태의 석상이 세워져 있다. 방사탑의 전체적인 형태는 상부의 폭이 다소 작아지는 원탑형으로 탑의 높이는 2~2.3m다.

용수리 방사탑은 마을 포구를 사이에 두고 2기가 바다 쪽을 향해 세워져 있다. 탑 위에는 저마다 새의 부리 모양을 한 돌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이들 방사탑은 용암류 암반 위에 쌓아올렸는데, 탑의 형태는 원뿔형이고 북쪽의 세원탑(1호)은 높이 2.1~2.7m, 화성물탑(2호)은 2.7m다.

신흥리에는 방사탑이 5기나 있다. 방사탑이 많은 마을이라는 것도 특이하지만, 5기 가운데 3기는 바닷물이 들고나는 얕은 수변공간에 위치해 있어 더욱 흥미를 끈다.

신흥리 방사탑은 원래 동서남북과 중앙에 저마다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중앙에 자리한 큰개탑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오다리탑, 남쪽에는 개몰탑, 동쪽에는 다발탑, 서쪽에는 다릿개탑이 자리해 있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지만, 큰개탑과 오다리탑 2기만 남겨져 있었다. 나머지 3기는 2000년대에 들어 복원된 것이다.

하가리 돌담

하가리는 전통초가, 돌담길과 올렛길, 봉천수(물통), 연화못 등 과거의 생활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마을이다. 특히 설촌 당시의 옛 돌담길이 잘 보전돼 있어 제주마을의 옛 정취에 흠뻑 빠져볼 수 있다.

돌담과 더불어 국가지정 문화재인 잣동네말방아와 지방문화재인 전통초가 등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의 돌하르방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자리한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 돌문화의 진수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부지면적 3,270여㎡, 광대한 면적 면에서도, 돌을 주제로 한 공원이라는 점에서도 한국에서 제주돌문화공원만한 곳은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돌문화공원은 크게 실내 전시관과 야외 전시장으로 나뉘는데, 실내 전시관은 주 전시관인 제주돌박물관을 비롯해 돌문화전시관, 설문대할망전시관, 오백장군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야외전시장은 제주전통초가, 제주전통마을 재현 공간, 돌문화 야외 전시 공간, 교래자연휴양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하르방공원

북촌 돌하르방공원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돌하르방공원은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돌하르방을 주제로 개원한 테마공원이다. 하늘갤러리, 체험공방, 아트샵, 찻집 등의 실내공간과 재현전시 공간, 기능전시 공간, 창작전시 공간 등의 실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하르방공원의 실내와 실외에 전시된 다양한 전시물은 오로지 개인의 끝없는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돌이 또 다른 생명체임을 느끼게 한다.

해녀문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 온 여성생태주의자

제주해녀는 기계장치 없이 맨몸과 맨숨, 맨손으로 바다 생태환경에 적응해서 물질 기술과 지식을 발달시키고, 가정경제의 주체적 역할을 한 여성생태주의자(Eco-Feminist)들이다.

제주해녀들의 삶과 문화의 초점은 특히 그들이 맨몸으로 해내는 '물질'에 두어볼 수 있다. 물속에서 해녀는 큰 파도의 흐름에 자신의 움직임을 맞추어야만 하고 부력과 눈앞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했다. 해녀들의 물속 작업인 자맥질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숨을 참고' 15m나 되는 물속에서 1분 이상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은 가히 초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일컫는 호칭으로 '해녀' 말고도 '줌녀,' '잠수' (潛嫂)가 쓰이기도 한다.

'해녀(海女)' 는 한국에서 일반화된 호칭이다. 제주에서는 주로 '줌녀' 라 했는데, 조선시대 고문헌에는 '잠녀(潛女)' 로 나타난다. 조선시대에는 잠수업의 성별 분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포작' (鮑作)이라 했던 남성들은 주로 깊은 바다에서 전복을 따고, '잠녀' 라 했던 여성들은 미역과 청각 등의 해조류를 채취했지만, 17세기 후반에 들어서 물질은 여자만 전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잠수(潛嫂)라는 호칭은 1953년 수산업법 개정 당시 자유당 수산분과위원회가 '나잠업' 으로 명칭을 지정하고 '잠수' 라는 용어를 문서 등 행정상에서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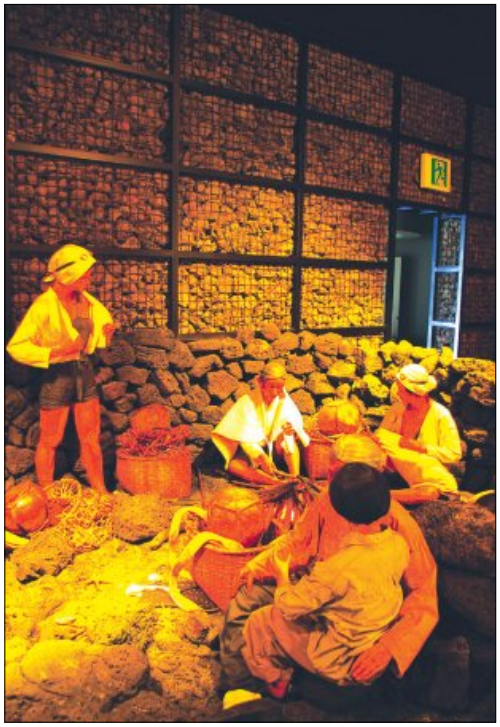
옛 문헌에 나타나는 역사 속 제주해녀들

제주해녀에 관련된 옛 문헌 기록들은 다양하다. 고려조 이전의 기록은 주로 해녀들의 채취물인 진주나 전복 등의 조공(朝貢) 관련된 자료가 주종을 이룬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문자왕 13년(503년) 기록에 나타난 '가칙섭라소산(珂則涉羅所産)' 의 가(珂)는 제주의 진주 혹은 패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사》에는 "문종 33년(1079년) 때 탐라국의 구당사 윤응균이 큰 진주 2매를 고려에 보내었는데, 그 모습이 별과 같아서 사람들은 이를 야명주라 했다(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光曜如星時人謂夜明珠)." 고 전한다. 그런가 하면 충열왕 2년(1276년)에는 "원나라에서 임유간 및 회회 사람 아실미리를 파견해 탐라의 진주를 채취하게 했다(閏三月丁酉元遣林惟幹及回回 阿室迷里來採珠于耽羅)." 고 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6년(1460년)의 기건(奇虔) 목사에 관한 기록은 유명하다. 그는 해녀들이 전복 따는 괴로움을 십분 이해해 제주에 있는 동안 전복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건(李健)은 《제주풍토기》(1629)를 통해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潛女)라 하는데 2월부터 5월까지 바다에서 작업한다. 미역을 캘 때는 잠녀가 발가벗은 몸으로 낫을 들고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올리는데 남녀가 뒤섞여 일을 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해녀박물관 내 불턱 재현 전시

없다. 전복을 잡을 때도 이와 같이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익태(李益泰)는《지영록(知瀛錄)》(1695)을 통해 "미역 캐는 잠녀가 많게는 8백 명에 이르는데, 물속에 헤엄쳐 들어가 깊은 데서 미역을 캐는 것은 채복녀(採鰒女)나 다름없다. 익숙지 못하다고 핑계를 대어 위험한 것을 고루 피하려고만 한다. 이 잠녀들의 괴로움의 차이는 현격하게 다르다. 장래에 전복 잡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을 염려하고 또한 균역(均役)을 시키려고 하여 전복잡이를 익히도록 권장하여 미역잠녀에게 추인복을 나누어 정하였다."고 전해 여성에게 잠수업이 전가됐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형상(李衡祥)의《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중 '병담범주(屛潭泛舟)' 편에는 해녀들의 물질 작업 모습도 나타난다. '잠녀(潛女)'라고 쓰인 글자와 함께 둥근 테왁 망사리와 소중이(해녀복) 차림을 한 예닐곱 명 해녀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제주 전통문화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제주해녀들은 초인적인 나잠수 작업, 물질작업에 대한 몸의 기술, 그리고 조수의 이용 등 그들만의 기술과 지식체계를 축적해 전승시켜왔다. 또한 이들은 생업과 함께 신에게 의지하는 생활에서 생겨난 무속신앙, 노동과 함께 만들어진 노래, 언어, 공동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조직 등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해 왔다.

해녀들은 10세 무렵이면 물가에서 헤엄을 배우고 16세가 되면 잠수기술과 어장의 지형을 익혀 완전한 해녀가 된다. 그리고 30~40세가 되면 어장 지형을 숙지해 암초와 같은 지형물의 특성을 터득하고 해산물의 생태에 따른 서식처도 거의 알게 되며, 전복 따위의 중요한 해산물이 있을 만한 곳도 가늠할 수도 있게 된다.

해녀들의 작업일정은 보통 물때라고 하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주시는 '조금' 부터 '여섯물' (음력 7~14일, 23~29일)까지 작업한다. 이 기간은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 조류의 흐름이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다.

해산물은 산란기를 피하는 등 해산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채취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녀들의 경험에 의한 삶의 지혜의 결과다. 채취시기는 해산물의 생태를 중시해 세시처럼 조정하고 작업에 운용한다. 예를 들면 소라의 금채기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전복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작업할 때 입는 전통복장인 '물옷' , 전복을 따기 위한 빗창, 부력을 이용해 해산물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짚고 이동할 수 있는 테왁, 해산물을 종류에 따라 분류해 넣는 망사리, 해초를 베기 위한 낫과 호미 같은 도구의 변용은 물질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욕구와 민속지식 총합의 결과다.

해녀들이 물질작업을 할 때 입는 옷을 '물옷'이라고 하는데 '소중이'와 '물적삼'으로 구성돼 있다. 소중이인 경우 옆트임이 되어 입고 벗기에 편하며 몸의 체중 변화나 체격에 맞게 조절하는 융통성을 보여준다. 소중이는 허리와 가슴의 몸을 감싸주는 기능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속옷으로 종종 입었다. 그 외에 머리를 감싸는 물수건, 상어나 돌고래 등을 물리치기 위해 이마에 묶는 이멍거리가 있다.

빗창은 '전복 따는 창'이라는 뜻을 지닌, 길이 30㎝ 정도의 날카로운 철제 도구다. 해녀들이 짚고 이동하거나 물 위로 올라와 잠시 쉬기도 하는 테왁은 박으로 만든다. 망사리는 식물재료를 이용해 그물 모양으로 짜서 채취한 해산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들여와 사용하게 된 물안경은 해산물 수확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해녀들은 습기로 안경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쑥을 이용해서 닦았다.

이 외에도 테왁이 조수에 의해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망사리에 적당한 크기의 돌을 넣어 닻으로 사용했고, 숨이 부족해 따지 못한 해산물을 다시 따기 위한 표지(標識)로 '본조갱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해녀공동체의 상징과도 같은 '불턱'은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올려 바람을 막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옷을 갈아입던 곳이다. 이곳에서 해녀들의 정보 소통뿐만 아니라 상호 협조를 재확인하고 의사 결정과 물질 학습이 이루어지곤 했다.

성산일출봉 우묵개에서 물질에 나서는 해녀들

어촌계의 바다 어장 규약과 해신당의 무속의례도 해녀공동체가 존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규약은 해녀회 구성과 운영, 해산물의 금채에 관한 사항, 바다 어장의 어업권, 경계 지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해녀들의 무대는 제주바다만이 아니었다

제주해녀들이 제주 섬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물질하는 것을 '출가(出稼) 물질'이라 한다.

출가물질의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 잠수기 어선들의 남획으로 어획물이 줄어들었고 동시에 외부세계와의 연결망이 형성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옛 물질 모습을 재현하는 해녀들

제주해녀가 첫 출가 물질을 떠난 것은 1895년 경상남도였다. 그 이후 강원도, 다도해, 경상북도, 함경도 등 한반도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쿄, 오사카, 중국의 칭따오(青島)와 따리엔(大連)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등 많은 곳으로 출가물질을 나갔는데, 특히 일본 출가 물질은 아주 극성스러웠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역사적 자존

192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일제의 수탈이 본격화되고 제주도사가 해녀어업조합장을 겸하면서 그 횡포가 극심해갔다.

해녀들에게 항일에 대한 의지를 의식화시키고 조직화시킨 배후에는 구좌, 우도 중심의 지식인 계층인 '혁우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다. 이 조직은 1930년 3월 1일에 결성됐는데, 훗날 독립유공자가 된 신재홍, 강관순, 문도배, 오문규, 김순종 등을 중심으로 한 항일 비밀결사단체였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해녀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야학을 통해 해녀들을 학습하는 등 조직적인 항일운동이 이루어지도록 배후 역할을 수행했다.

혁우동맹원 산하 하도강습소 1기 졸업생들인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고순효, 김계석 5인의 해녀 대표들은 야학을 통해 민족교육을 받았으며, 청년 민족운동가들과 연계해 단순한 생존권 투쟁의 차원에서 항일운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공헌했다.

1931년 12월 20일, 하도리 해녀 시위를 결의하고, 최고 지도자 3명과 대표위원 10명을 선출해 요구조건과 투쟁 방법을 결정한 후 배를 타고 제주읍의 해녀어업조합 본부로 가서 항의투쟁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기상 관계로 실패하고 말았다.

한수풀해녀학교 해녀상

1932년 1월 7일, 하도리 해녀 300여 명이 세화리 장날을 이용해 본격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해녀어업조합이 있는 제주읍으로 행진하다가 해녀어업조합 구좌면 지부장이 해녀들의 18개조 요구조건의 해결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받고 해산했다.

1932년 1월 12일, 구좌면의 하도리, 세화리, 종달리, 연평리와 지금의 성산읍인 정의면의 오조리 시흥리의 해녀들 1,000여 명이 집결해 시위를 전개했다. 해녀들은 세화리 주재소를 순시하던 제주도사를 포위하고 격렬하게 투쟁해 해녀의 요구조건 8개 항목을 2~3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만세를 외치며 해산했다.

제주 해녀들의 항일운동은 일제의 경제 수탈에 맞선 생존권 수호 투쟁인 동시에 일제의 수탈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여성 항일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녀문화의 현장 만나기

김녕리 바다

구좌읍은 현재 제주도 전역의 읍면 단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 1,000여 명의 해녀가 있는 곳이다.

구좌읍 김녕리는 8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어장마다 생산되는 해산물의 종류가 다르고 그 양도 달라서, 동서 어촌계의 각 마을은 소득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번갈아 가며 작업했다. 바다에는 소라나 전복, 문어, 해삼, 성게 등의 물량도 많고 '천초'라고 하는 우뭇가사리도 많이 난다. 김녕리 해녀들의 연령대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60~70대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잠수굿

해녀 사회를 유지하며 해녀들의 신앙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은 '잠수굿'이다. 특히 김녕리는 제주도의 해녀마을로 대표될 정도로 해녀활동과 잠수굿 등의 해녀문화가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김녕리의 세기알 바닷가에서 해마다 음력 3월 8일에 잠수굿이 행해진다. 제물 준비나 모든 의식을 치르기 위해 드는 비용은 해녀회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성산일출봉 우묵개

성산 일출봉을 오르노라면 왼쪽 편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다와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우묵개다. 바다가 깊숙이 들어와 조수 간만의 차가 적고 해초와 해산물이 많아 바다 어장 상태가 아주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바다 어장의 명칭들도 곰들레기, 창곰, 갯도, 옷덕(오전개), 용당, 용솔리(용꼬리), 푸는체개 등 다양하다. 제주 고유어를 이용해 바다의 신인 '용왕'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지형과 관련된 명칭들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일출봉으로 상징되는 성산 해녀들의 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성적이다. 물질 작업에 참여하는 해녀는 90여 명이며, 물질은 조금에서 여덟물까지 9일 동안 작업한다. 우뭇가사리와 톳 등의 해조류는 공동으로 작업하

성산일출봉 우묵개

고 수입도 동일하게 나눈다.

우묵개에서 물때에 관계없이 하루 두 차례 해녀노래 공연과 해녀 물질 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우묵개 '해녀의 집' 은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을 파는 식당 겸 직판장이다. 전복죽, 소라, 전복구이, 홍삼, 문어, 멍게 등을 맛볼 수 있다.

서귀포시 법환동 잠녀마을

범섬이 손에 잡힐 듯 앞바다에 펼쳐지는 서귀포시 법환동은 해녀 수가 많고 물질 작업이 왕성하게 치러지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해녀들의 물질 작업을 '바르칠' 이라고 한다. 서홍리, 호근리, 서호리, 법환리의 해녀들이 법환동 어촌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바다 어장은 서홍리 지경의 '외돌개' , '돌아간 덕' , 호근리 지경의 '가린여' , 서호리 지경의 '소꼴' , 그 외 법환 지경의 '진머흘' , '일렝이' , '망다리' , '도리물코지' , '베염줄이' , '큰목' , 강정마을과의 경계인 '두문이물' 등이다.

현재 60~70명의 해녀들이 바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조금' 에서 '여섯물' 까지 한다. 범섬 주변 어장은 파도가 거칠어 보통은 2개월에 한 번 '한물' 에서 '두물' 중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서 전복, 소라, 성게 등을 잡는다.

한수풀 해녀학교

한림읍 귀덕2리 어촌계 해녀들 30명이 해녀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해녀학교는 매년 5월에서 8월에 걸쳐 매 토요일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해녀도구 사용법, 잠수법, 호흡법, 수영법, 채취 중심의 해녀 실습 등이다. 현재 제4기의 졸업생이 151명이며, 졸업생 중 해녀 작업에 임하는 인원도 12명이나 되고 있다.

해녀학교는 사시사철 바다와 싸워가며 억척스럽게 수산물을 채취해 생업으로 이어온 제주해녀의 삶의 지혜와 강인한 개척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제주 해녀문화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2012년부터는 학교시설도 늘리고, 관광객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녀체험장을 개설해 해녀의 일상도 체험하고 해녀 음식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은 건물부터 제주의 오름과 해녀들의 물질 도구인 테왁을 닮아 있어 눈길을 끈다.

제1전시실에서는 제주 어촌의 모습과 해녀의 집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어촌의 세시일상을 배경으로 해녀의 생활, 신앙, 농사 등에 관한 유물들과 소라, 전복, 성게 등의 해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모형과 생활도구들을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에는 물질할 때 옷을 갈아입고 언 몸을 녹이며 서로 정담을 나눴던 불턱의 원형을 재현하고, 제주도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된 빗창, 테왁망사리 등 작업도구와 해녀옷인 '소중이' 등 15점이 보존 ·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해녀항일 운동과 관련된 역사자료와 당시 야학당의 모습을 모형으로 재현하는 등 제주해녀 항일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해 놓았다. 이곳에서 출가 해녀에 대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해녀박물관

제3전시실은 해녀의 작업장, 어부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어로문화를 전시한 공간이다. 테우를 이용한 자리잡이, 멸치잡이, 전국 유일의 돌 염전 모형이 전시되고 해녀와 관련된 속담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제주의 전통문화와 해녀들의 생업과 문화를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해녀체험관도 마련되어 있다.

갓 전시

전통산업

제주자연을 닮은 산업

제주는 자연자원이 한정된 화산섬이기 때문에 전통산업의 발전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농·축산·어업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이 생산되어 지역 내에 공급되거나 일부는 한반도 지역으로 판매되었다. 목장지대에서 길러진 우마들과 청정 바다의 수산물 그리고 갓모자 등이 타 지역으로 반출된 대표적인 물품이었다. 그 밖에 주물, 옹기, 관모 등의 물품도 생산되었다.

이처럼 제주의 전통산업은 화산섬이라는 환경과 제한된 자연자원을 반영해 척박한 땅과 넓

은 바다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제주의 전통산업은 땅을 배경으로 한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어업과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생산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중산간 초원의 산물, 제주마와 검은쉐

목축업은 제주 자연환경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섬의 해발 200~600m 일대에는 초원 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이 제주도 전통산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컸던 목축업을 낳은 무대였다.

제주는 예로부터 명마산지로 유명했다. 조선시대에는 14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제주지역의 초원에 국마장이 설치됐다. 당시 제주도 목장은 크게 십소장(十所場)과 산마장(山馬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마

조선 초기 중산간 초원을 10개 목장으로 구분한 십소장의 등장에는 제주출신 고득종(高得宗)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고득종이 세종에게 그동안 자유롭게 방목되던 우마들이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막고 체계적인 우마 사육과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영목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헌마공신' 으로 유명한 남원읍 의귀리 출신 김만일(金萬鎰)의 후손들에 의해 산마장이 운영되면서 조정에 어승마(御乘馬)가 진상되기도 했다.

국영목장은 오늘날의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에 근거해 마감, 군두, 군부, 목자(테우리)로 구성된 마정조직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목자(牧子)들은 목장에서 우마 사육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16세부터 60세까지 우마생산과 관리에 몸을 바쳐 일해야 했다. 한 번 목자가 되면 자식 대까지 세습됐으며, 거주를 옮기는 것도 직업을 바꾸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각 목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말 가운데 1년에 대략 500필씩 조정에 진상되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25만 마리 이상이 한반도로 반출되었다.

제주지역 목축업의 상징적인 존재는 조랑말로 널리 알려진 제주마와 제주에서 '검은쉐'로 부르는 흑우(黑牛)였다.

제주산 흑우는 조선시대 조정에 진상되어 궁궐 내 각종 의례에 이용되면서 명성을 날렸다. 이에 따라 당시 제주목사는 흑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 모동장과 천미장, 황태장 등을 만들어 운영했다.

제주마방목지

제주마는 체격은 작지만 체질이 강건하고 지구력과 내병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해발 600m 지경 견월악 기슭에 위치한 제주마 방목지는 1986년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혈통 보전과 번식을 위해 설치된 목장이다. 제주마로 등록되어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말들은 그 고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다른 말들과의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제주마들은 동절기에 종모마, 종빈마, 육성마, 자마 등을 격리해 중산간 마을 해안동에 있는 방목장에서 사육한다. 하절기에는 이곳 제주방목지에서 방목하는데, 푸른 초원과 제주마들이 어우러진 풍광이 '고수목마'(古藪牧馬)를 연상시킬 정도로 아름다워 관광객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고통만 안겨주던 특산물, 감귤

제주에서 언제부터 감귤이 재배되기 시작했을까. 여러 주장이 있지만 《고려사》(1052년)에 "탐라에서 세공(歲貢)으로 바쳐오던 감귤의 양을 1백 포로 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고려 초기에 이미 감귤을 재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제주에서 생산된 감귤은 진상품이었다. 이에 따라 관원에서 관리하는 과원이 조성됐다. 이원진의 《탐라지》(1653)는 중종 21년(1526년) 제주목사 이수동(李壽童)에 의해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서귀, 별방, 수산, 동해, 명월 등 5개 방호소에 과원을 설치해 이곳에 감귤나무를 옮겨 심은 뒤 군사로 하여금 과원을 지키게 했다.

진상용 감귤은 과원에서만 재배된 게 아니다. 일부 가정에서도 감귤재배가 이루어졌으나 관청에 의해 철저히 통제받았다. 관청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진상용 감귤을 생산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 제주도민들이 감귤나무를 일부러 고사시키는 사례도 빈번했다. 조선시대 제주의 감귤 생산은 제주도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었던 것이다.

제주만의 농기구, 보습

제주는 한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그러나 조금만 흙을 걷어내면 기반암이 드러나는 토양조건을 지니고 있어, 하늘은 습하지만 땅은 쉽게 메말라 버리는, 이른바 '천습지건'(天濕地乾)의 땅이다.

더욱이 제주사람들이 '뜬땅'이라 부르는 화산회토가 바람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아 농사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여름철 농작물 파종 후 우마들을 이용해 토양을 밟아주는 진압농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보습'이라는 쟁기 날이 필요했다.

김상헌은《남사록》(1669)을 통해 "밭가는 자들을 보니 농기구가 어린애 장난감과 같았다. 주민들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흙 두어 치 속으로 들어가면 모두 바위와 돌이다고 답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렇듯 조금만 땅을 파고 내려가면 바위지대가 드러나는 지질조건 때문에 농기구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보습'이라고 부르는 쟁기 날 역시 한반도의 그것과 비교하면 크기가 당연히 작았다.

덕수 불미공예

제주도내에서 보습이 생산된 대표적인 마을은 안덕면 덕수리였다. 덕수리의 불미조직이 생산한 보습들은 전도에 판매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아직도 불미공예 문화가 남아 있다.

'불미'는 풀무를 뜻하는 제주토박이 말로, 쇠를 달구거나 녹이는 데 필요한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일컫는다.

전통사회에서 덕수마을 주민들은 무쇠로 보습 등의 농기구와 솥을 제작해 수입을 올렸다. 불미공예는 '불미마당'에서 이루어졌다.

불미마당은 보습, 벼, 솥 등을 대량으로 주조하는 공간이며, 10명 내외의 기술자로 조직되었다. 불미마당의 구성원은 원대장 1명, 알대장 1명, 젯대장 3명, 둑대장 1명, 질먹대장 1명, 일꾼 4명 등이다. 덕수리 불미공예는 여러 장인(匠人)들에 의해 각 생산단계별로 분업화 · 전문화되어 보습생산이 이루어졌다. 불미마당에서는 손풀무를 이용해 쇠를 달군 후 칼이나 호미, 괭이 등을 만들고, 골풀무를 이용해 둑(용광로)에서 녹인 쇳물을 '뎅이'(器本, 보습틀)에 부어 넣어 솥과 보습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 특히 보습은 덕수리 불미공예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물품이었다.

덕수 불미마당

활발한 생산 무대, 바다

제주에서 생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바다다. 제주바다는 제주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의 터전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연중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바다는 일 년 내내 어로작업이 가능해 일찍부터 해녀와 어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고 고기를 잡으며 삶을 영위했다.

바다의 여왕, 제주해녀들은 조간대에 위치한 마을어장과 가까운 바다에서 미역,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했다. 이들이 물질을 하며 수면 위로 올라와 내는 숨비소리는 오직 제주도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해녀들은 작업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구분된다. 2011년 현재 제주해녀들은 모두

전통배 테우

4,881명이다.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해 멀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조간대의 바다에서는 미역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미역의 성장기인 12월부터 3개월 정도 채취를 금지했다가 3월 15일경에 일제히 허용하는 '미역해경' 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먼 바다에서는 어선을 이용한 어부들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졌다. 어부들은 주로 방어, 갈치, 자리돔, 다금바리, 멸치, 옥돔, 조기 등을 잡았다.

소금밭과 소금바치

제주지역은 갯벌이 없고 흐리고 비오는 날씨가 잦아 소금밭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제주도민들은 소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말(馬)과 말총(馬尾), 해산물 등을 팔아 한반도에서 소금을 구입해 이용했다.

제주에서는 언제부터 소금 생산이 이루어졌을까.

염전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자료는《남사록》(1602)과《남환박물》(1702)이 대표적이다.

《남환박물》에서는 제주목사로 왔던 이형상이 한반도부에서 들여온 철 4,000여 근으로 가마솥 3개를 제작해 제주목에 두 개, 대정현에 한 개를 주어 소금을 만들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남사록》에는 현재의 구좌읍 하도리 일대인 별방에서 정의현까지의 해안에 염전이 있었으며, 해안을 따라 7군데의 염분(鹽盆)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남사록》의 이런 기록도 눈에 띈다.

> 일찍이《충암록》(1520)을 보니, 서해와 같이 전염(田鹽)을 얻고자 하여 물을 떠다가 졸여도 소금을 만들지 못하자…, 강려(姜侶) 제주목사는 해변의 노지(鹵地)를 보고, 도민들에게 한반도부의 해염 생산법을 가르쳐 소금을 만들게 했으며, 부족분은 남해안의 진도(珍島)와 해남(海南) 등지에서 구입했다.

제주도에서는 소금을 생산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소금바치' 라 했다. 소금을 만들었던 마을 가운데 구좌읍 종달리는 일제강점기 때 이름난 제염지였다.《한국수산지》(제3집, 1911)는 "종달리는 이름 있는 제염지로 인가 353호 중에서 제염에 종사하는 자가 160명에 달하며 가마솥은 46개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1945년부터 1950년경까지 소금을 만드는 '가망집' 이 9개 있었다. 과거 소금을 생산했던 제염지는 논과 밭으로 변하고 말았다.

구엄 돌염전

재현해 놓은 구엄 돌염전

구엄마을은 예로부터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주했던 마을이라는 뜻에서 '엄쟁이(嚴藏伊)' 라 부르기도 했다. 이 마을에서는 해안에 위치한 암반을 이용해 태양열로 해수를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했다. 그 암반을 마을 사람들은 '소금빌레' 라 부른다.

암반지대에서 생산된 소금은 굵고 넓적한 천일염이었다. 이 소금은 생산에 참여하는 가구들에게 조금씩 분할되었다. 소금 생산이 경제적 이득을 보장했으므로 소금밭은 자연스럽게 상속이 가능했으며, 매매되기도 했다. 이 마을 김상순 씨 집에는 1953년 음력 5월 6일에 작성한 '염전매도증서' 가 남아 있다.

제주흙을 이용한 옹기 생산

옹기 빚는 모습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옹기는 제주도민의 생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생활용품이었다. 제주지역의 옹기는 양질의 진흙이 많은 한경면 고산리와 조수리 그리고 대정읍 신평리 일대에서 생산되었다.

옹기를 굽는 가마를 제주에서는 '굴' 이라고 부른다. 가마에는 보통 오후부터 불 넣기를 시작하여 5~7명이 서로 교대하면서 2~3일 동안 작업을 계속했다. 화력이 강한 참나무와 소나무가 화목으로 이용되었다. 생산된 옹기들은 옹기장수들에 의해 배나 마차로 운반되어 판매되었다.

제주산 말총을 이용한 갓 생산

《현종실록》 5년 3월조에는 "제주의 풍속에 여자라면 누구나 갓(총) 모자를 결어서 육지에 내다팔고 생활을 돕는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조선시대 제주도에는 말(馬)이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말 꼬리털인 '말총'을 이용해 갓모자(총모자), 탕건, 망건을 만들어 한반도에 내다 팔았다. 이 중에서 갓은 말총과 대나무를 재료로 한다.

이들 재래 수공업품들은 제주시 화북동을 중심으로 조천읍 함덕리, 신흥리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었다. 모두 제주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산지포, 별도포, 조천포 등 북쪽 포구들과 가까운 거리의 마을들이다.

제주에는 갓을 만들 때 소요되는 대나무(凉竹)가 많았다. 부족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하동과 진주 일대에서 분죽(粉竹)을 사다가 만들기도 했다.

1925년 당시 제주도내에서 갓 생산에 종사하던 호수는 1만3,700호였으며, 1930년에 생산된 갓양태는 17만5,600개, 갓모자는 8만3,770개였으니, 제주에서의 갓 생산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짐작될 것이다.

갓일

상업중심지, 오일장

제주의 오일장은 1906년 윤원구(尹元求) 군수가 부임해 오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는 도민들의 물자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당시 제주읍 내를 비롯한 이호, 외도, 애월, 삼양, 조천, 김녕, 세화, 서귀포 등 9개 지역에 오일장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렇게 등장한 오일장은 제주도 여러 농어촌 마을까지 상거래가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민들이 오일장을 통해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고 또 자신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제주지역의 오일장은 인구증가를 반영해 1970년대 말에 25개 지역으로 증가하기도 했으나 1980년대부터는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 제주도의 오일장은 1992년 14개 지역에서 2006년 현재 제주시, 서귀포, 중문, 세화, 한림, 대정, 고성, 성산 및 표선 등 9개 지역으로 줄어들었다.

제주도내 최대의 오일장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이다.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 다니다가 1998년 현재의 위치에 이르렀다. 2일과 7일이 들어간 날 장이 열린다.

제주 · 서귀 오일시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재래시장 중 대표적인 것은 오일장이다. 제주도내 최대의 오일장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이다. 이 시장은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장소이동을 경험했다. 관덕정 앞마당과 탑동 주변(1910년대~1960년대)에 자리잡았던 오일장이 1998년 현재의 위치인 제주시 도두1동 1212번지로 이전, 정착했다. 현재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시장면적이 6,700여㎡이며, 옷가게, 대장간, 식당, 나무 시장 등 다양한 공간구성이 이루고 있다. 2일과 7일에 장이 열리고 있다.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역시 도시화에 영향을 받아 장소이동을 경험했다. 1995년 10월 서홍동 솜반천 인근에서 현재 위치인 동홍동 779-3번지 일대로 이전되었다.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의류와 신발, 가공식품, 가정용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점포수는 500여 개에 달하며, 부지면적은 43,500㎡이다. 명절 대목에는 2만 명 이상이 찾는 산남지역 최대의 전통재래시장이다. 4일과 9일에 장이 열린다.

제주오일시장

동문재래시장

동문재래시장

동문시장은 (주)동문시장, 동문재래시장, 동문공설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주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재래 상설시장이다.

현재의 동문공설시장은 대지 2,802㎡, 건물 3,940.98㎡로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점포수는 약 960개소에 이르며, 상인 수는 약 2,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올레길 트레킹이 인기를 끌면서 서귀포매일시장에서 이름을 바꾼 이후 손님이 증가한 것은 물론,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침체일로에 있던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이 주목받게 된 것은 제주올레 6코스와 연결, 올레꾼들이 자연스럽게 시장까지 방문하도록 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가고 싶은 전통시장 50선' 에 선정해 홍보가 이뤄진 덕도 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새롭게 단장하여 수산물거리, 잡화거리, 야채거리, 먹거리촌 등으로 구획되었으며, 시장 안에는 제주올레 안내센터가 있어 안내와 함께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최근에는 중국항주시장협회와 해외자매시장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활발한 국제민간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시장 정보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최첨단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기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예촌

제주도예촌

제주도예촌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전통옹기 생산업체이다. 1960년대에 소멸된 돌가마[石窯]를 복원해 전통옹기와 자기 등을 생산, 보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7년 당시 제주도 전통가마와 옹기 연구자와 인근마을 '허벅' 생산 장인들이 힘을 모아 도예촌을 개원했다. 2000년에는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허벅장 신창현과 함께 노랑굴 복원에 성공했다. 허벅장은 제주 옹기의 대표격인 '허벅'을 만드는 장인을 말하며, 허벅은 식수가 귀했던 전통시대에 제주도 부녀자들이 식수 운반용로 사용했던 옹기이다.

갓전시관

갓 전시관

갓전시관은 갓일의 양태 기능보유자 장순자 씨가 전통문화를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기부한 교래리 457-1번지 소재 부지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립한 것이다. 규모는 부지면적 2,645㎡, 연건축면적 999.21㎡에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2009년 5월 개관하였다.

전시관은 고구려시대의 갓부터 시대별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다양한 갓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갓일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실, 갓일 과정을 담은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영상실, 갓일 작업을 하는 공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문화관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의생활문화

한 조각도 버리지 않았다

농경지가 척박한 화산섬이라는 자연적인 특성과 지리적인 특성을 안고 살았던 제주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크다보니 옷치레를 할 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궁리하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나가는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왔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의생활에도 영향을 끼쳐 제주만의 생활문화를 만들어 왔는데, 그 특성이 참으로 독특하다.

아무리 흔한 풀이라도 꼭 쓸 만큼만 채취해 사용했는데 '과하면 화가 된다' 고 하는 삶의 철

학을 가지고 있다. 한 올의 실오라기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궁리해 실용성과 편리함 그리고 다양성을 염두에 두었다. 낡아 못 쓰게 되더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해 사용하는 지혜가 뛰어나다.

물리적인 옷이지만 입게 됨으로써 그 옷에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건강하거나 복이 있는 사람의 옷을 얻어 입히려고 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태워서 저승으로 같이 보냈다.

전통의상

지금은 다른 지역과 별 차이는 없지만 호상옷과 갈옷만은 여전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섬의 옷 만나기

봇뒤창옷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서 최초로 입게 되는 옷이 '봇뒤창옷' 이다. '봇' 은 태반(胎盤)을 뜻하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봇뒤창옷은 '아기집에서 떨어져 나온 다음 입는 큰 옷'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제주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3일이 되어 생명이 온전하다고 판단되면 산모와 아기는 쑥물로 목욕을 하고, 아기를 보호하고 돌보아 준다고 믿는 여신인 삼신할망(產神)에게 상을 차리고 나서야 아기에게 봇뒤창옷을 입히고 젖을 물렸다.

이 옷은 다른 지방의 베넷저고리와 다르다. 봇뒤창옷은 몸을 보호하는 기능보다는 그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길 바라는 염원이 깃든 주술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재료도 다른 지방에서 보통 사용하던 면(綿)이 아니라 계절에 상관없이 삼베를 사용했다.

봇뒤창옷

미리부터 옷을 만든다고 부산을 떨면 숭시[凶事]난다고 믿어 아기가 태어나서 무사하다고 해야만 만들었다. 손이 귀하거나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하는 집안에서는 무병장수하고 복덕 있는 할머니의 속옷을 얻어와서 해 입히거나 아기가 잘 자라는 집의 옷을 빌려와서 입혔다. 그리고 이 옷은 복이 깃든 옷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었다가도 반드시 돌려받았다.

제주사람들은 의복에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아무리 입을 것이 없다고 해도 아무 옷이나 얻어다 입히지 않았고 그 아이 옷 속에 잘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고스란히 담았다.

물소중이

소중이

오늘날 속곳(팬티)에 해당하는 여자들의 옷으로 실용성과 편리함을 두루 갖춘 속옷이다.

소중이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옷으로 모양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물소중이와 같지만 상의가 가슴까지 올라오지 않고 허리에서 끈으로 매도록 되었다. 제단은 실오라기 하나도 남지 않도록 평면제단으로 했지만 밑바대는 바이어스로 제단 되

어 있어 몸의 움직임이 자유스럽고 몸에 달라붙지도 않고 통풍도 잘 된다.

머리수건과 ᄀᆞ는대구덕

남자가 외출할 때 갓을 써야 예를 갖춘다고 여기는 것처럼 제주여자들은 맨 머리로 나가는 것은 예가 아니라 여겨 수건을 쓰고 다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통 나들이 할 때 여성들은 ᄀᆞ는대구덕을 핸드백처럼 옆구리에 끼고 다니거나 먼 길을 갈 때는 등에 지고 다녔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ᄀᆞ는대구덕을 옆구리에 끼고 가는 모습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사돈구덕' 이라는 명칭도 생겨났는데 이는 사돈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 ᄀᆞ는대구덕에 부조할 쌀이나 떡을 넣어서 들고 가곤 했기 때문이다. 보통 한 말 정도 들어가는 크기로, 지금도 결혼식 때 사돈집에 보내는 음식을 담아서 보내기도 한다.

물옷

제주도의 노동복은 편리함과 견고성,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어 어려운 노동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궁리하여 지혜를 모았다.

물옷은 물질을 할 때 입는 노동복이면서 전문 직업복이다. 물소중이와 물적삼, 물수건이 있는데 처음에는 물소중이만 입다가 후에 물적삼, 물수건을 썼고, 1970년대는 고무옷을 입게 되었다.

전통적인 물옷은 스스로 만들어 입었는데 상체는 몸에 꼭 맞게 하고 하체는 밑바대가 바이어스로 되어 신축성이 있도록 하고 겹으로 되어 있다.

트임은 옆으로 되어 있어서 노천에서 입고 벗을 때에도 신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 한 쪽 다리만 열고 갈아입을 옷을 입어가면서 벗으면 되었다. 특히 물소중이는 임신해 작아져서 못 입거나 혹은 아이를 낳고나서 커서 못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매듭단추를 여미는 고리 끈을 조절할 수 있도록 미리서부터 염두에 두어 만들었다.

갈옷

제주도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땅이다. 그래서 노동복을 벗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여름철 날씨는 후덥지근하여 모든 물건이 상하기 쉬운 날씨이고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빨래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이 구비된 옷이 갈옷이다.

갈옷은 떫은 토종풋감의 즙으로 물을 들여서 농어민들이 노동복 또는 일상복으로 입었던 옷이며 '갈옷' 이라는 명칭은 '감물을 들인 옷' 또는 '갈색을 띠는 옷' 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갈옷은 통기성이 좋고 풀 먹인 옷을 입는 것처럼 촉감도 좋으며 시원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땀이 나거나 물에 젖어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또 빨리 마른다. 가시덤불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잘 찢겨지지 않는데 이는 감물을 들이면 강도가 강해져 질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옷을 입다가 헐어서 후줄근해지면 다시 감물을 들여 입기도 했다. 그리고 보리까끄라기 따위가 쉽게 달라붙지 않고 만약 붙었다가도 털면 잘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복으로 최고의 조건이 구비된 셈이다.

갈옷은 빛깔이 제주 흙 색깔과 비슷해 더러워져도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또 감 염색으로 옷감에 코팅되어 있어서 더러움도 덜 타고 더러워진 것도 물에 주물럭거려 활활 헹궈 탁탁 털어 말리면 그만이니 참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인 옷이다.

그런가하면 땀에 젖은 옷을 그냥 두어도 쉽게 썩거나 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데, 이는 화학염료로 염색한 옷에 비해 항균성이 무척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자외선 차단효과가 완벽에 가깝다.

우장

다른 지방은 기름진 토양이 많아 논농사가 대종을 이루고 있어서 짚을 이용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제주도는 산야에서 얻을 수 있는 야생풀을 이용하는 지혜가 일찍이 발달했다. 우장도 그 중 하나다.

우장은 추울 때는 방한복이고 비가 오면 비옷, 들에서 노숙해야 할 때는 이불 역할을, 마소를 위한 제사를 지낼 때는 돗자리 역할도 했던, 중요한 의복이자 생활용품으로 어떤 옷으로도 이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다.

모양은 망토와 비슷한데, 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 재료는 억새 속잎인 '미' 와 초가지붕재료로 쓰이는 '띠' 다. 띠는 볏짚에 비해 가볍고 방습성이 뛰어나다. 비가 많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재료인 셈이다.

호상옷

죽어서 입는 수의를 제주에서는 '호상옷' 또는 '저승옷' 이라고 하고 최상의 것으로 준비했다. 남자는 큰 옷인 도포를, 여자는 혼례 때 입었던 장옷이나 원삼을 저승 갈 때 입고 가기도 했다.

다른 지방에서는 삼베로 장만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명주를 그리 여긴다.

시름시름 아픈 사람은 호상옷을 미리 만들어두면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여 미리 장만하는데 보통 윤달이나 환갑 때 만들며 복이 많은 사람에게 부탁해 만들었다.

호상옷은 떠나는 사람에게는 좋은 곳으로 잘 가라는 염원과, 남겨진 후손들에게는 아무 탈 없이 잘 살기를 바라는 염원이 동시에 담겨진 옷으로 지금도 옛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식생활문화

'장수의 섬' 제주의 먹거리

제주는 한국에서 인구비례당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장수의 섬'이다. 제주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기록은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

16세기 임제는《남명소승(南溟小乘)》에 30가구가 사는 조그만 해안마을을 방문했을 때 7명의 100세인을 만났다고 했다. 17세기 초 이형상 목사의《탐라순력도》〈제주양노(濟州養老)〉편에는 80세 이상 제주 노인들 183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치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원진의《탐라지》는 제주노인들이 장수하는 이유를 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의 한가운데 한라산이 있어 남쪽 큰바다의 독기는 산에 막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습기와 열기를

몰아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 내에서도 한라산 남쪽에 비해 북쪽이 더욱 장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수의 자연환경적인 요인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 애월, 한림, 한경 등지의 장수지역과도 일치한다.

사실 제주도는 건강자원이 넘치는 고장이다.

흔히 개인건강의 세 가지 요소로 신체활동, 휴식, 식생활이라고들 말한다.

제주에서는 할머니들이 장수한다. 할머니들의 왕성한 활동성은 가히 지존이라 할 만하다. 평생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활발히 노동하면서 독립적으로 살림살이를 한다. 수면의 질은 휴식의 근본이다. 은퇴하지 않고 평생 현역으로 활기차게 활동하는 제주 할머니들의 밤잠은 달다. 그리고 비록 먹거리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이웃과 함께 일하고 먹으며 마음이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제주 할머니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제주를 장수의 섬으로 만든 비결이라 할 것이다. 라이프스타일 중 특히 식생활은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수의 원천, 제주음식문화

한국의 생물상 가운데 40% 이상이 제주에 분포한다. 다양한 생태계의 섬이다 보니 제주 전통식품의 종류는 무려 500품을 헤아린다. 한국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따라올 수 없는 수치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제주의 장수 핵심은 대대로 물려온 내림음식문화다.

제주의 전통적인 식생활은 한반도와 크게 다르다.

제주밥상은 소식(素食)해가며 다함께 나누어 먹는 식단이다. 밥은 '낭푼이'에다 푸고 국은 제각기 따로 담아낸다. 이와 반대로 한반도 지역에는 국은 가운데 그리고 밥은 각기 제 밥그릇이다. 언제 누가 와도 그릇에 국만 더 뜨면 함께 먹을 수 있는 상차림이 제주밥상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밭농사를 주로 했다. 그래서 보리, 조, 메밀, 콩 등 여러 가지 잡곡들이 생산되었고, 여기서 인체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얻었다. 사계절 날씨가 따듯해 사시사철 푸른 채소를 얻을 수 있어 신진대사 조절에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산물이 풍부했는데, 이는 인체에 중요한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었다.

또한 제주사람들은 돼지치기를 잘했다. 집집마다 화장실을 겸한 돼지사육 공간인 '돗통시'에다 돼지를 한 마리씩 길렀다. 가난했던 시절, 양질의 단백질은 여럿이 돼지를 도축해 나눠가지는 '돼지추렴'에서 얻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위한 이러한 추렴문화는 공동체를 이루는 공식(共食)의 식문화를 만들어냈다. 영양학에서는 맛있는 단백질 자원을 함께 나눠 먹는 식문화 집단에서는 장수자가 많다고 말한다.

가을철 제주의 들판에는 지천이 콩밭이다. 제주요리의 기본양념은 간장이 아니라 콩된장이

다. 이 콩된장으로 냉국이나 자리물회를 만들어 먹어왔다. 오이나 해산물을 생된장에 버무린 다음 냉수를 부어 냉국을 만들었다. 짠맛이 강한 간장이나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살아있는 된장의 구수한 맛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염식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날콩을 가루로 내어 채소와 함께 끓인 콩국은 마치 순두부와 같아 한 끼에 두세 그릇씩 먹었다. 그 외에 날콩가루로 죽을 쑤거나 딱딱한 해수두부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심지어는 밥을 부드러운 날 콩잎에 쌈으로 싸서 먹는다. 이처럼 다양한 콩 음식문화는 콩의 섭취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주만의 장수 식생활법이다.

낭푼이밥

장수 음식가든 '우영팟'

제주 전통가옥에는 울담 안의 안채나 바깥채에 낮은 돌담으로 둘러 만든 별도의 남새밭이 있다. 부엌에서 가까운 공간에 장독대를 만들고 그 옆에 인접한 공간을 택해 제철 채소를 가꾸었다. 제주에서는 이곳을 '우영' 또는 '우영팟'이라 하고, 주곡을 짓는 곳을 밭(田)이라 하여 용도와 명칭을 달리했다.

우영은 식사 때마다 먼 밭으로 나가 부식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었다. 계절에 따라 무, 배추, 상추, 깻잎, 오이, 마늘, 쪽파, 고추, 부추 등등 제철 채소를 재배했다. 이들 채소를 제주토박이들은 '송키'라고 부른다. 송키는 국거리와 김칫거리, 숙채와 생채 그리고 양념 등으로 쓰였다.

제주의 밭이 에너지를 생산해 인체에 공급하는 발전소라고 한다면, 우영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연중 생산해 공급하는 바이오 식품공장과 같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신진대사 조절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절영양소다. 제때에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체리듬이 깨져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채소의 비타민은 수확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파괴되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우영에서 가꾼 채소로 차려진 제주 전통밥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영은 제

때에 싱싱한 채소를 부엌으로 곧바로 공급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의 계절밥상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상차림이다. 장수와 식생활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제주의 전통 식생활 방식은 우영에서 시작해 부엌으로 그리고 밥상으로 이어진다. 제주 장수의 근원은 바로 '우영문화' 에 있는 셈이다.

'바당' 이 좋아, 웰빙 국거리 죽거리

한반도 지역에서는 생선을 진한 탕이나 찌개로 끓인다. 반면 제주사람들은 탕보다는 가볍게 끓인 국으로 먹는다.

외지에서 온 사람에게 생선국을 내놓으면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해서 숟가락 들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한두 번 맛보고 나면 달라진다. 제주사람들은 싱싱한 생선이 아니면 국거리로 쓰지 않아 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선국거리에도 계절이 있다. 봄이 오면 조기국과 멜국, 여름에는 보말국 · 벤자리국 · 북바리국, 가을엔 갈치호박국 · 각제기국, 겨울에 옥돔국 · 성게국 · 우럭국을 끓인다.

생선국은 펄펄 끓는 맹물에 생선을 토막 내어 넣고 채소나 해조류를 더하면 그만이다. 토박이들은 비린내가 적은 옥돔, 우럭, 북바리 등의 하얀 살 생선류나 성게, 보말 등의 어패류에는 미역이나 무를 넣고, 갈치, 각제기, 멜 등 비린내가 나는 생선에는 배추를 넣는다. 이것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 토박이들이 만들어낸 '재료 궁합' 의 조리과학이다.

제주사람들은 죽 쑤기를 잘한다. 죽의 종류가 무려 50여 품을 헤아릴 정도다. 죽은 곡물 음식에서 가장 원초적인 요리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음식에 죽이 많은 것은 조리법이 간편하고 곡물이 적게 들어가므로 구황 음식으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옥돔국

제주에서는 옥돔만을 생선이라고 부르고 다른 바닷고기는 고유 이름을 붙여 부른다. 생선 중에 으뜸으로 치기 때문에, 생선국이라 함은 곧 옥돔국을 칭한다.

옥돔국은 옥돔에 미역이나 무를 넣어 짧게 끓인 생선국이다. 제주에서는 미역을 '메역' 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역과 함께 끓인 국은 '옥돔메역국' 이라고도 한다.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갱국' (羹)으로 흔히 올리는 옥돔국은 행제 바로 직전에 따뜻하게 올리는 정성을 지킨다. 국을 좋아하는 제주 조상을 위한 자손들의 배려에서 비롯된 관습이다.

성게국

성게국

성게국은 성게알에 미역을 넣어 끓인 국이다. 제주 해안가 암반 틈새에 보라성게들이 군집을 이루어 서식한다. 해녀들은 암반 구석에서 검보라색 큰 가시가 촘촘히 박혀있는 큰 성게를 골라 따낸다.

잔치나 상례 등 경조사에 성게미역국을 끓여 손님에게 접대하는 일은 제주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성게알은 국에 노란빛을 더하고 순두부처럼 엉키어 담백한 맛으로 미역국의 품위를 높인다. 색이 짙은 황색의 암컷 성게알은 씁쓸한 맛이 있어 미역국으로 좋고, 옅은 황백색의 수컷 성게알은 죽이나 반찬용으로 좋다.

갈치호박국

갈치호박국

갈치호박국은 가을철의 대표적인 생선국이다. 갈치에 늙은 호박과 푸른 배추를 넣고 끓인다.

가을이 오면 제주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은 갈치다. 싱싱하고 은빛 찬란하여 상인들은 은갈치라고 부른다. 옥돔과 달리 갈치는 비늘이 없고 또 흔한 생선이므로 제수용 등 특별 의례음식으로 쓰이기보다는 주로 제철 일상음식으로 먹는다.

보말국

보말국은 삶은 고둥을 주물러 우려낸 국물에 미역을 넣어 끓인 국이다.

제주사람들은 뭍의 땅만 밭이 아니라 바다 속의 땅도 밭이라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보말이 많이 잡히는 곳을 '보말밭' 이라고 했다.

제주속담에 "보말도 궤기여"(고둥도 고기다)라는 말이 전해온다. 비록 보말이 흔하고 하찮은 작은 조개에 불과하지만, 고기 섭취에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더 새겨듣자면 하찮은 보말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먹거리로 소중히 여기라는 충고다.

전복죽

전복죽은 전복살과 내장을 넣고 쌀로 쑨 연두색의 죽이다. 다른 지방 전복죽과 제주의 전복죽이 다른 점은 내장이 반드시 들어가고 내장 특유의 색으로 인해 연두색이 진하다는 점이다.

전복죽

제주도 해변지역의 민간요법에서 어린이의 이유식과 임산부에게 전복죽을 먹여 영양을 보충했다. '좀녀 애긴 전복죽으로 산다' (해녀 애기는 전복죽으로 산다)는 말은 어린이 이유식으로 전복죽이 그만이라는 뜻이다. 또한 입맛이 떨어진 환자나 간질환자의 단백질 보충을 위한 식이요법으로 널리 쓰여 왔다. 지금도 부모가 병환이 있으면 전복죽을 쑤어 드리는 관행이 지켜지고 있다.

깅이죽

깅이죽은 제주도 바닷가에 자생하는 '폿깅이' (작은 게)를 넣고 쑨 죽이다. 깅이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 썰물 때, 제주도 해변에서 쉽게 잡을 수 있다.

깅이를 민물에 씻어 잡물을 제거하고 '돌도고리' (돌확)에 넣고 덩드렁마께(방망이의 일종)로 곱게 빻은 다음, 물을 넣고 보자기에서 꼭 짜서 딱딱한 껍질을 제거하면 연두갈색의 국물

을 얻는다. 이 국물에 쌀을 넣고 약한 불에서 뭉근히 오래 끓이면 연두색 갈색 빛이 도는 죽이 된다.

깅이죽은 물질로 지친 해녀들에게 다리뼈 아픈 데 좋다고 하여 민간식이요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옥돔죽

옥돔죽은 옥돔 살을 발라 쌀과 함께 쑨 생선죽이다.

옥돔은 겨울과 봄 사이에 많이 잡히는데, 제주근해에 어획된 것이 색이 붉고 맛이 좋다. 먹이가 풍부하고 물살이 세어 운동량이 많기 때문이다.

민간식이요법에서 환자의 회복식으로 전복죽과 함께 많이 사용한다.

여름철 군침 도는 먹거리, 자리돔

여름철 제주섬 연안에서 많이 잡혀 흔히 먹었던 생선이 자리돔이다. 자리요리 중 '자리물회'는 여름철 음식 가운데 으뜸으로 쳤으며, 자리로 담근 자리젓은 제주사람들의 밥상에서 가장 흔한 밥반찬이었다. 타향에 나가있는 제주 출신들은 초여름이 되면 자리음식이 생각나서 향수에 젖을 만큼 자리돔은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어종이다.

자리장수

서귀포 보목동과 모슬포는 제주도에서 전통적인 자리 주산지로 알려져 있다. 자리는 바다 암반이나 돌무더기가 깔려 있는 곳에 붙박아 산다. 그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름도 '자리'인 것이다. 자리가 떼를 지어 서식하는 지역을 '자리밭'이라고 하며, 지금도 그 터는 크게 변함이 없다.

제주사람들은 자기 동네 자리맛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다. '보목리 사람이 모슬포 가서 자리물회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다른 마을에 가서 자기 마을 자리

맛이 좋다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싸움이 날 정도다.

흔히 가파도 모슬포 자리돔은 크기가 커서 구워 먹기에 좋고, 서귀포시 보목동의 자리돔은 뼈가 부드럽고 맛이 고소해서 날로 썰어 회나 물회에 알맞고, 비양도 연안에서 잡은 것은 자리젓 담기에 좋다고 회자된다.

자리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생선이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자리구이를 손에 집어 들고 머리부터 차근차근 차례로 꼭꼭 씹어 먹는다.

팔전구기(八顚九起), 세손 납짝 고사리

제주 풍속어에 '고사리는 아홉 번 꺾어도 아홉 번 돋아난다'는 말이 있다. 제주여성의 삶은 고사리를 닮았다. 여덟 번 넘어져도 아홉 번 일어서는 '팔전구기'는 제주여성의 고사리 정신이다. 척박한 농토와 변덕스런 날씨,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한 바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맞서 물질로 밭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모진 역사의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이 섬을 굳게 지켜왔다.

제주여성의 고사리 식문화도 그렇게 이어져왔다. 조선시대, 3년이 멀다 하고 한 번씩 찾아드는 흉년에 먹거리가 턱없이 부족해 고사리 뿌리까지 캐어다 구황음식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일제강점기에도 식량공출로 곡물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에도 고사리 뿌리에서 전분질을 우려내고 범벅을 만들며 버텨왔다.

제주여성이 마련한 고사리나물은 굿상의 제수용 나물뿐만 아니라 조상 제례의 제수로도 빠짐없이 올라가는 제찬이다. 고사리는 생명력이 왕성하여 꺾고 또 꺾어도 다시 돋아난다. 그래서 자손이 고사리처럼 번성하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올렸다.

묘지 위에 돋아난 고사리는 제수용 나물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어린 고사리는 아기 손처럼 생겼기 때문에 묘지에 솟아난 고사리는 생명의 탄생, 곧 자손의 탄생을 상징하는 생명초이기 때문이다.

중산간 마을의 조상 제사상에는 계란반죽에 고사리를 둘러놓아 부친 계란전이 올라가기도 한다. 신이 강신할 때 고사리의 손을 타고 내려와서 제사를 먹고 간다는 뜻에서 그리 만든다. 제사를 먹고 승천할 때는 고사리전에 음식을 싸고 올라가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따리전'이라고 부른다. 이런 연유로 제수용 고사리는 고사리의 손을 털지 않고 장만했다. 고사리 꼭지에 갈라진 세손은 지게인 셈이다.

에코 리사이클링 돼지나라, 돼지고기 요리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주의 농가마다 토종 흑돼지를 한 마리씩 길렀다. 돼지우리는 돌담으로 둘러 터를 잡고 변소를 겸한 '돗통시'를 만들었다. 돼지에게 최적의 공간을 마련해준 셈이다.

돼지는 잡식성이다. 인간의 식생활 활동에서 유래되는 모든 부산물을 먹어치울 수 있다. 이러한 돼지의 융통성은 집안을 깨끗이 하고 나아가 마을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더 나아가 돼지는 농사에 필요한 거름생산과 더불어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축이었다.

돼지는 생활 폐기물을 고단백질과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 옛 제주의 생활환경에서 탄수화물은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단백질과 지방은 늘 부족한 형편이었다. 돼지고기는 다른 음식물과는 달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고기였다. 다른 지방에서는 고기라고 하면 쇠고기를 가리키나 제주에서는 돼지고기를 가리킨다.

마을공동 대소사나 혼례나 상례 때 돼지를 도살하거나 추렴했다. 돼지고기 요리는 제주 의례음식의 핵심 축이다. 의례음식은 돼지에서 시작해서 돼지로 끝난다고 할 정도다. '아강발'(족발), 내장 등등 돼지의 모든 부분을 사용한다. 제주 돼지고기의 5대 요리는 '돔베고기', '몸국', '돗수애', '돗새끼회' 그리고 고기국수다.

돔베고기

'돔베'는 도마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돔베고기'는 솥에 물과 함께 잠기도록 넣어 장작불로 삶아낸 수육을 말한다. 돔베고기는 수육을 돔베에서 썰어서 먹는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수육은 소금 또는 간장에 찍어 먹는다. 큰일을 치를 때 수육을 관장하는 직책을 '도감'이라고 한다. 돼지 한 마리로 부족함이 없이 일인일반(一人一盤)의 원칙에 따라 하객에게 분배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돔베고기

몸국

몸국

'몸국' 은 수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물에 제주에서는 '몸' 이라 부르는 모자반을 넣어 끓인 탕이다. 제주사람들이 즐겨먹었던 해조류인 모자반은 3~4월에 연안에서 채취해 집집마다 말려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식용했다.

돼지고기 국물에 메밀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끓이기 때문에 해조류의 떫은맛과 돼지의 비릿한 맛이 줄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돼지를 잡고 고기를 삶는 작업은 남성이 주관하나, 국물을 2차 요리로 만드는 작업은 여성이 담당했다.

돗수애

'돗수애' 는 돼지순대를 일컫는 제주토박이 말이다. 돼지창자에 돼지피, 메밀가루 또는 보릿가루, 부추, 마늘, 소금 등을 버무려 채우고 돼지고기 국물과 함께 삶아낸 것이다. 다른 지방에서는 순대의 결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찹쌀을 사용하나, 제주 순대는 주로 메밀가루를 사용해 조직감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돗수애

돗수애는 3종류가 있다. 창자의 부위에 따라 '조배설수애' (작은창자 순대), '홀근배설수애' (큰창자 순대), '막창수애' (직장 순대, '창도름') 등으로 부른다. '창도름' (길이 25~30cm)으로 만든 막창수애는 두께가 두껍고 투명한 지방층이 형성되어 있어 씹히는 감이 좋고 고소한 기름 맛이 있어 제일 고급으로 친다.

고기국수

고기국수

고기국수는 삶은 건면에 돼지고기 육수를 넣고 돼지수육을 얹은 가락국수로 밀가루 건면상품이 나오면서 개발되었다.

6·25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제주로 피난 온 사람들은 돼지 특유의 냄새가 난다하여 돼지고기국수보다 멸치국수를 더 좋아했으나, 제주사람들은 돼지고기 국수를 무척 좋아했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 이 법률로 제정되면서, 혼례와 상례의 방문객들에 대한 접대음식이 반상차림에서 국수상차림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반도부에서는 결혼 잔치를 '국수 먹을 일' 이라고 하여 멸치국수를 대접했지만, 제주에서는 고기국수를 대접했다.

고난과 시련의 극복, 말고기 식용문화

말고기 식용문화는 대부분 몽골의 유목문화에서 유래했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13세기 말 제주에 몽골목장이 신설되어 말의 생산이 크게 증산됨에 따라 이용가치가 적은 말들을 식용하면서부터 말고기 식용문화가 퍼져나갔을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에서는 매년 겨울철이 되면 궁중의 제사음식으로 말고기 육포를 만들어 진상했다. 그러나 말의 공급이 부족하자 말고기 섭취 금지령을 내려 말의 도축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하지만 말고기 식용습관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제주에는 자연재해가 빈번해 흉년이 잦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이 절대 부족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말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풍토에 젖은 도민들은 민가에서 여럿이 모여 말고기를 아름아름 추렴하여 나누어먹었다.

조선 세종 때의 일이다. 말 밀도살이 성행하자 조정에서는 말고기를 먹은 자를 포함한 650명을 가려서 평안도로 강제 이주시킨 사례가 있었다. 이 중에는 제주 풍속에 젖어 자기의 말을 잡아 제사하고 그 고기를 먹은 자까지도 모두 색출에 걸려들어 억울하게 타향살이를 한 자도 많았다. 제주도 속담에 '물괴기 숢은 뒨 가지 말라' (말고기 삶는 데는 가지마라)라는 말이 있다. 말고기 삶는 데 얼씬거리다가는 얻어먹은 것 없이 애꿎게 밀도살의 누명을 써서 관원에게 오해

를 살 수도 있어서 나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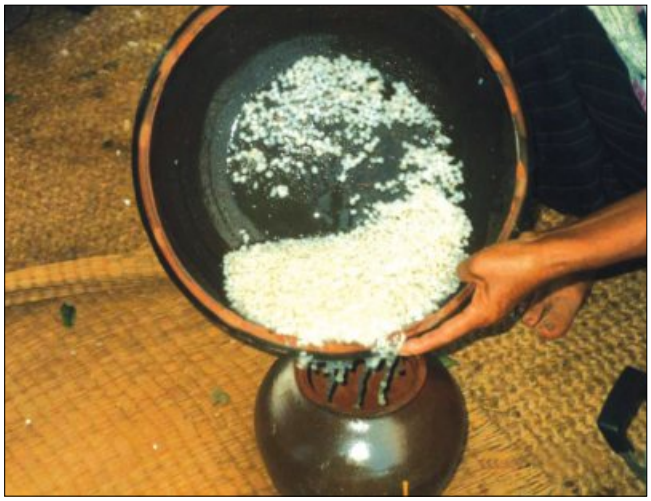
그런가하면 "물 잡는 밭에 든 사람같이"라는 말도 있다. 심부름을 시키거나 만날 약속을 했는데 시간에 맞춰 나타나지 않았을 때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말추렴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간 한 점 얻어먹기 위해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말 창자는 그냥 삶아서 소금에 찍어먹기도 하고 탕으로 먹기도 한다. 말고기국은 무를 듬성듬성 썰어 놓고 메밀가루를 걸쭉하게 풀어 만든다.

갈증 풀고 몸보신 하고… 전통음료

제주에도 술 말고 서민들이 즐겨 마셨던 음청류가 있다. 그 중 '순다리(쉰다리)'는 여름철 갈증을 푸는 데 안성맞춤이다. 순다리는 찬 보리밥에 누룩덩어리를 거칠게 빻아 넣고 물을 부어 알알이 푼 다음 옹기 등에 담아 상온에서 삭히면 된다.

순다리는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누룩의 곰팡이 효소가 녹말을 포도당과 맥아당으로 분해해서 단맛이 나는 것이고, 동시에 젖산균이 포도당을 분해서 유기산을 만들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 순다리가 가장 맛이 나는 시점은 보리밥알이 문드러져 삭혀지는 때다. 보리 순다리는 이렇게 흡수가 잘되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아 마셨다하면, 갈증이 해소되고 에너지가 보충되어 심신의 피로가 말끔히 풀린다. 그뿐만 아니라 순다리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덩어리째 들어있다. 순다리 한 사발을 마시면 4~5천만 마리를 단숨에 삼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름철 순다리를 마시는 사람의 장은 튼튼했다. 서양에 장을 지키는 요구르트가 있다면 제주엔 순다리가 있는 셈이다.


순다리

'댕유지차'는 식이요법으로 쓰여 왔던 전통 액상 차다.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가정마다 댕유지차를 달여 먹던 습속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다. 가정마다 뒤뜰에 심어두었던 당유자를 따서 보리가 든 항아리 속이나 나무그늘 아래 짚으로 덮어 저장해두면서 제수용으로 쓰거나 감기를 다스리는 약으로 사용했다.

당유자(唐柚子)를 '댕유지' 또는 큰 유자라는 뜻으로 '대유지'라고 부르고 보통 유자는 '소유지'라 해서 달리 구분한다.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자와 달리 쓴맛이 나고 향이 강한 것이 당유자의 특징이다.

술 익는 마을 성읍의 오메기술과 고소리술

성읍은 해발 125m의 중산간 마을이다. 조선 전기(1423년)부터 현청이 설치된 이래 조선말까지 500여 년 동안 이어졌던 정의현 소재지로 중산간 지역의 음식문화가 잘 보존된 곳이다. 주변에 평평한 농토가 잘 조성되어 있어 예전부터 조 농사를 많이 지었다.

오메기술은 차조를 가루로 내어 오메기떡을 만들고, 여기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 좁쌀술이다. 쌀로 고두밥을 지어 낱알 형태로 누룩과 함께 빚는 다른 지방의 곡주와 다르다.

고소리술을 내려 받는 모습

오메기술을 담그면 위층은 맑은술 청주가 되고 아래층은 걸쭉한 탁주가 된다. 청주는 그 양이 많지 않아 귀하게 쓰였다. 예전에 관아를 중심으로 각종 향교제례와 포제 등 유교식 제례에 쓰이기도 하고, 현감과 관비들이 주변 오름에서 꽃놀이를 즐기면서 마시기도 하였다. 일반 주민들은 신당과 굿 등 무속의례나 관혼상제가 있을 때 제수용으로 쓰였다. 반면 분량이 많은 탁주는 주민들이 일용주로 음용했다.

고소리술은 잡곡으로 빚은 탁주를 증류용기에 얹어 증류시켜 알코올분을 받아낸 소주이다. '고소리술'이란 명칭은 증류기인 고소리에서 내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소리에서 땀처럼 내린다 하여 '한주'(汗酒)라고도 한다.

제주도는 날씨가 고온다습해 양조곡주가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주로 증류주를 제조했다. 고소리술은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주로 혼례나 상례 때 손님접대용으로 빚었다. 또한 단오에는 백약이오름 주변에서 나는 백가지 약초를 캐어다 고소리 술에다 넣고 약용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막 돋아오는 새싹에는 기가 살아있다 하여 약술로는 최고품으로 쳤다.

성읍민속마을

주거문화

독특한 삶의 공간

단일 건축에 한정한다면, 건축의 기본은 무형적 공간(생활의 장소)과 유형적 형태(시각적 전달의미)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적, 유형적 결합 과정에 지역의 기후 조건과 생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가족제도 등 다양한 인문 사회적 요인과 물리적 환경들이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건축물이 창출된다.

제주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었기에 자연히 전통건축은 육지부의 그것과 구별되는 독특한 공간과 형태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개발과정 속에 제주의 전통건축이 지닌 지역성이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거환경과 취락구조 개선, 그리고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제주지역의 전통적인 주거양식이 소멸되어 갔다.

1970년대 들어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제주의 초가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려하게 되면서 제주의 전통건축이 지닌 가치와 의미가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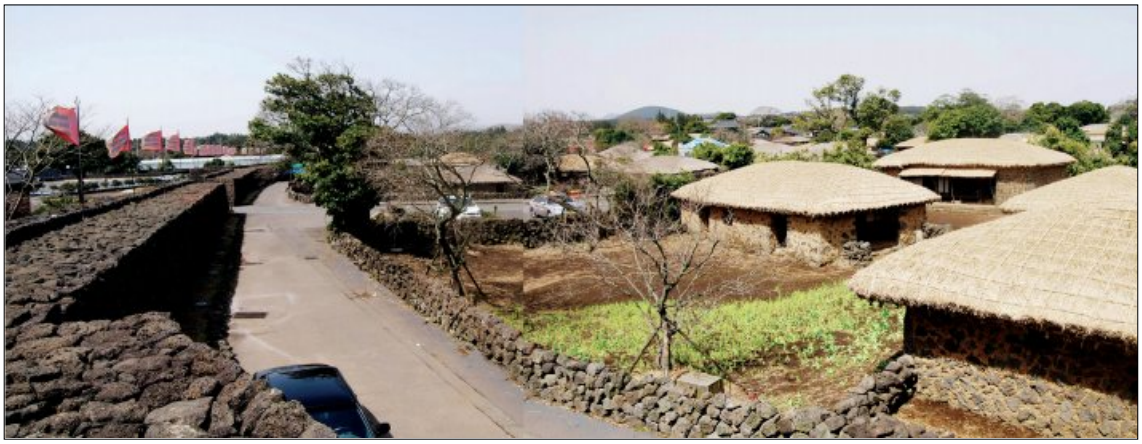
성읍민속마을은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 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해 1980년 제주도 지방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가 1984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민속자료로 승격되었다. 성읍마을은 해안에서 8㎞정도 떨어진 중산간에 위치해 있어 근대의 개발 바람이 미치지 못했고, 덕분에 전통적인 읍성형태와 민가, 민속적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읍민속마을을 둘러보노라면 제주사람들이 이루었던 독특한 주거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제주의 전통주거문화가 잘 남아있는 성읍민속마을

성읍마을은 조선시대에 제주지역에 설치되었던 정의현의 마을로 성곽을 가진 도시였다. 애초에는 지금의 성산읍 고성리에 두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지리적 문제와 우도를 통한 왜구의 잦은 침입 때문에 1423년(세종 5년) 지금의 터로 옮겨졌다.

정의현성 안에는 각종 관아와 객사 등 관청시설과 교육시설인 향교뿐만 아니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다행히 제주도의 보물인《탐라순력도》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대략적인 마을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민가 1,436호, 주둔군 664명이 거주하고



성읍민속마을 전경

있었고 전답 140결, 말 1,178필, 흑우 228수의 생산자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한 규모의 현성이었음은 틀림없다.

다채로운 풍경 담아내는 성읍민가

기본적으로 제주의 전통건축은 멀리 한라산의 영봉(靈峰)이 보이고 바다의 수평선이 펼쳐지는 원풍경(遠風景), 마을 어귀에서 바라보는 완만한 곡선의 초가지붕들이 겹겹이 중첩되면서 연출되는 중풍경(中風景), 그리고 올레를 따라 진입하면서 느낄 수 있는 완만한 곡선과 높은 담장의 집을 중심으로 한 울안의 근풍경(近風景)으로 되어 있다. 성읍민속촌의 내부를 거닐다 보면 읍성, 초가의 돌담 그리고 주변의 오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제주적인 삶의 문화는 건축양식에 있어서도 잘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옥배치는 一자, 二자 모양과 모로 앉은 모양 세 가지가 있는데, 모로 앉는 형식이 많은 편이다.

주택 내부의 공간구성을 보면, 제주 전통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건축물의 배치방법이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부모와 자식 2세대가 가계와 경영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을 두 채 별동으로 배치하는데, 안채를 '안거리', 바깥채를 '밖거리'라고

성읍민속마을의 전통초가

부른다. 이러한 배치가 제주도 주택의 기본형이 되어 있다.

울안은 마당을 중심으로 가족적 관계를 견지하면서도 철저한 세대구분을 하는 안거리와 밖거리의 공간적 계층화를 이루고 있는데, 진입방법에 있어서 유도공간인 '올레', 전이공간인 '올레목', 주공간인 '안마당' 이라는 삼분할 공간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읍민속마을 안에는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민가 5가옥 16동이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문화재 보전차원을 벗어나 적극적인 활용의 개념으로 전환되어 민가의 외관은 유지하되 내부공간은 현대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최소한 개조해 민가 숙박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성수기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제주의 전통마을은 어땠을까

한국의 마을은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원칙을 따라 전면(前面)에는 하천을 두면서 산을 등지고 마을을 배치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형적 특성상 한반도에서 적용되는 풍수론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는 풍수지리설의 형국론(形局論)에 따라 좌청룡 우백호에 의한 분지형의 지형에 배치하는 원칙에 따른다.

제주의 마을 입지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지질학적 특성상 식수를 구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과 척박한 토양환경 속에서의 생산성 확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는 해안지역, 내륙지역, 산남지역, 산북지역에 따라 다른 취락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촌(集村), 소상집촌(疎狀集村), 산촌(散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촌(集村)은 산북지방의 해안지대로부터 산남지방의 서부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취락형태로 집들이 불규칙하게 모여서 덩이 모양으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괴촌(塊村)의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물이 쉽게 지하로 흘러 해안을 따라 용출수가 발생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어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대체로 해발 200m 이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바다와 내륙에 접해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어업이나 반농반어의 생활을 했다.

소상집촌(疎狀集村)은 가구밀도가 집촌보다는 낮은 집촌과 산촌의 중간 형태로 산남지역의 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물을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옥 내에 심어 놓은 나무에 짚을 묶고 항아리에 놓아두어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지의 면적을 크게 해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유리했다. 따라서 해안지역의 집촌과는 달리 가구 수가 적고 취락의 형태도 분산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취락유형이 산촌(散村)이다. 이것은 중산간지역의 내륙에 산재했던 취락형태로 해발 300m 이상 지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반농반목의 생활을 했다.

제주민속촌

제주민속촌은 1890년대를 기준 연대로 삼아 제주도 옛 문화의 역사를 원형 그대로 생생하게 되살려 놓은 제주의 민속문화 공간이다. 100여 채에 달하는 전통가옥은 실제로 제주도민들이 생활하던 집과 돌, 기둥 등을 그대로 옮겨와 완벽하게 복원해놓은 것으로 제주도의 산촌, 중산간촌, 어촌을 비롯하여 무속신앙촌, 제주관아 등을 고루 살펴볼 수 있다.

단순히 제주의 전통건축인 민가뿐만 아니라 목공예, 서예, 서각, 대장간, 혁필공예 등 전통민속 공예방도 있어서 당시의 생활모습과 함께 옛 공예품도 체험해볼 수 있다.

제주민속촌 전경

제주섬의 이모저모, 이런저런 이야기

- 기후와 토양
- 인구와 취락
- 산업경제
- 근대 예술 활동
- 테마로 체험하는 제주

기후와 토양

섬 곳곳이 다른 날씨, 다른 땅

제주섬을 한 바퀴 돌아보노라면, 한라산의 북쪽 지역인 제주시와 동쪽 지역인 성산포, 남쪽지역인 서귀포, 서쪽 지역인 고산에서의 날씨가 어쩐지 달리 느껴질 때가 많다.

심지어는 같은 날 같은 시간인데, 제주시에서는 멀쩡히 맑은 하늘을 보고 있고, 서귀포에서는 우산을 쓰고 다니고 있고, 고산에서는 바람 때문에 옷깃을 여미고 있을 정도로 지역에 따라 날씨가 그 얼굴을 휙휙 바꿀 때도 있다.

하나의 섬 안에서 곳에 따라 달리 일어나는 이 종잡을 수 없는 날씨는 섬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문화의 차이로 나타난다.

제주섬은 또 곳에 따라 기후만 다른 게 아니다. 화산섬이라 땅은 돌 아니면 대부분 화산회토로 덮여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화산회토인 화산재 토양과 화산쇄설물에서 빚어진 비화산회토인 풍화 토양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또 색깔별로 암갈색 비화산회토, 농암갈색 화산회토, 흑색 화산회토, 갈색삼림토로 나눌 수 있다.

이 토양들은 저마다 분포하는 지역도 다르고 기름진 정도도 달라 농업생산력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제주문화와 풍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곳에 따라 다른 날씨는 한라산 때문

제주에서는 한라산의 존재가 참으로 크게 다가온다. 그 자락은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의지처이고 그 봉우리는 영적 숭배의 대상이자 심적 위안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산 자체가 매우 높은데다 섬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바람에 나타나는 기후 현상이 산남과 산북이 두드러지게 달라 그에 따른 제주사람들의 삶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기도 했다.

한라산이 지닌 지형적 특성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산북지역과 산남지역 사이에는 기온과 강수량 그리고 풍속에 큰 차이를 보인다.

산북지역은 기온이 낮고 강한 바람이 불며 강수량이 적게 나타나는 반면, 산남지역은 기온이 높아 따뜻하고 연중 약한 바람이 불며, 강수량은 산북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좀 더 살펴보자면,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남동계절풍이 불어오다가 한라산에 가로막혀 산남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게 되고, 겨울철에는 반대방향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한라산이 차단하면서 푄(Föhn)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남지역에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이다.

산남과 산북만 다른 게 아니다. 한라산의 서쪽 지역인 고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강수량은 가장 적지만 풍속은 가장 강하다. 동쪽 지역인 성산포는 산북지역에 비해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의 강도는 약하다.

결국 이들 기후요소의 차이는 해상을 통해 제주로 불어오는 남동 및 북서계절풍과 더불어 항상 주기적인 특성을 보이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바람 타는 섬

제주는 바람이 많은 섬이다. 시도 때도 없이 불어댈 뿐만 아니라 강하고 빠르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풍속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의 바람은 부는 방향에 따라 산북지역과 산남지역에 대조적으로 흐린 날과 맑은 날을 초

풍력단지

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북서계절풍이 부는 겨울에는 서귀포시가 맑은 날이 많고, 남동계절풍이 부는 여름에는 제주시가 맑은 날이 많다.

제주섬에 끊임없이 불어대는 바람은 제주만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낳게 했다. 전통가옥인 초가는 한반도 지역의 그것과 달리 지붕의 용마름이 없게 했고, 지붕 전체를 집줄을 이용해 바둑판 모양으로 꽁꽁 얽어매게 했으며, 가옥 전면에는 '풍채'라는 독특한 바람막이 시설을 하게 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는 제주의 바람은 공공자원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풍력에너지를 얻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8월 이후부터 2012년 7월까지 제주도 곳곳에 70여 기의 풍력발전기를 해상과 육상에 이미 설치했거나 새로 신설하는 단계에 있다.

곳에 따라 다른 땅은 화산과 기후 때문

제주섬의 토양은 기본적으로 화산활동에 의해 탄생되었다. 다시 말하면, 화산활동 때 뿜어져 나온 다양한 화산쇄설물과 부석(경석), 화산재 따위로 구성된 화산회토(火山灰土)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화산회토는 제주처럼 비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금기가 부족해 강한 산성을 띠며 인산이 결핍된 토양특성을 보인다. 이런 토양에서는 작물의 발육성장이 나빠지기도 하고 열매의 수량이나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제주섬의 토양 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화산회토에서는 농업생산 활동이 크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화산회토가 지니는 또 다른 특성은 상당히 가벼워 바람에 잘 깎이고, 비가 많을 때에는 쉽게 휩쓸려 다닌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화산회토를 조금이라도 기름지게 하기 위해 예로부터 다양한 방법을 써왔다. 그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은 진압농법(鎭壓農法)이다. 봄과 가을에 보리와 조, 밭벼와 피(稷) 등의 씨앗을 뿌린 후 흙이나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사람

이나 우마 또는 '돌테'나 '남테'라 부르는 전통농기구를 사용해 밭 전체를 골고루 밟아주었던 것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섬피'라고 부르는 나뭇가지로 엮은 농기구를 사람의 힘으로 끌면서 흙을 덮어주기도 했다.

화산회토의 지력을 위한 방법은 또 따로 있다. 해안에서 채취한 감태 등 해초를 밭에 섞어주기도 하고, 유기질 비료인 돗거름(돼지거름)과 소거름을 경작하기 전에 밭에 뿌려 지력을 높이기도 했다. 중산간 지역에서는 보리씨를 아예 돗거름과 섞은 다음 밭에 뿌려 경작하기도 했다.

땅에 따라 다른 문화

제주섬의 토양을 색깔별로 나누면 암갈색 비화산회토, 농암갈색 화산회토, 흑색 화산회토, 갈색삼림토가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암갈색 비화산회토가 가장 기름져 농업 생산력이 높다. 이는 현무암이 풍화해 만들어진 토양인지라 다른 토양에 비해 오랜 형성시기를 지니고 있고, 형성과정에서 많은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훨씬 유리한 것이다.

이 암갈색 비화산회토는 산북지역의 북서부 해안지역과 남서부 해안지역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극히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농암갈색 화산회토는 동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산간 지역과 일부 산간지역에 분포하며, 흑색 화산회토는 동부 해안지역과 중산간 지역을 비롯한 일부 산간지역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갈색삼림토는 국립공원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산간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그 면적은 흑색 화산회토와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흙색에 따른 제주도의 토양 중에서 가장 농업 생산력이 높은 암갈색토는 예로부터 보리, 조, 콩, 유채, 고구마 등 식량작물이나 환금작물을 생산하는 데 아주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왔다. 따라서 이들 암갈색토를 띠는 농경지는 농지를 사고파는 데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해왔으며, 많은 가족을 거느린 가정에서는 비옥도가 뛰어난 암갈색토의 농경지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토양색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차이는 과거 제주문화와 풍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화산회토 지역의 토양은 생산성이 낮아 김 메는 노래도 후렴이 길고 주술적이며 슬픈 음률의 '진사댓소리'를 불렀다. 또한 재산(토지)을 물려줄 때 형제 모두에게 나누어주면 다 같이 굶기 때문에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제사 의무도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특이한 문화가 형성됐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 생산성이 높은 비화산회토 지역에서는 흥겨운 김 메는 노래인 '쫄른사댓소리'를 불렀고, 재산도 형제에게 골고루 물려주고 제사도 나누어 지내는 풍습이 이어져왔다.

그런가하면 토양의 특성은 옛날 마을의 형성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증거인 고인돌과 유적지도 주로 비화산회토가 분포된 북서부 지역에서만 발견됐고, 화산회토 지역인 동쪽, 남쪽 지역에서는 고인돌과 유적지가 발견된 적이 없는 것이다.

인구와 추이

역사의 부침 속에서

제주에는 지금 57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외지로 나가 살고 있는 제주출신 사람들까지 합하면 100만을 육박한다고 해서 '백만 제주인' 이라는 말도 곧잘 등장하곤 한다. 이 섬이 낳거나 살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제주섬에 사는 사람의 수가 구체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였다. 몽골이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자마자 민심을 회유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곡식을 지급하도록 고려에 명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제주백성 1만223명에게 곡식을 나눠줬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 몽골은 삼별초에 동조했던 일부 제주백성들을 한반도로 옮겼다는 기록도 있는 걸 보면, 당시 제주인구는 1만

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몽골의 제주 간섭기 100년을 보내고 고려 말기와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제주 인구는 들쭉날쭉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제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됐을 취락은 또 어땠을까?

고대의 유물과 유적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본 제주도 취락의 분포는 제주시와 한림읍 사이의 해안과 산록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이 어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고 식수를 구하기 쉬운 좋은 점 등 원시촌락이 들어설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부터 탐라시대까지 해안지역에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던 제주는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산간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모해왔다.

제주의 들쭉날쭉한 인구 변화와 취락의 변모 속에는 제주가 겪었던 역사의 부침(浮沈)이 맞물려 있다.

들쭉날쭉했던 조선시대 제주의 인구

조선시대 인구 추정의 근간이 되는 호구조사는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신분을 파악하고 각종 역역(力役)과 공납(公納)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되었다. 당시 호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과 군병의 수를 파악하고 각종 조세를 거두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으므로, 호주들은 가능한 장정의 숫자를 줄여 보고하려 했으며, 특히 남자아이들에 대한 보고가 많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학자들은 조선시대 호적에 실린 인구가 전체의 50~7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다.

수만 명이 섬을 떠나자 내려진 출륙금지령

세종대와 성종대의 기록을 참고해 제주섬의 인구를 분석해보면, 세종 1년(1419) 3,576호에서 세종 16년(1435)에는 9,935호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419년의 인구가 부역, 군역 등의 의무를 지게 되는 남자 성인만을 중심으로 인구를 파악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세종대까지는 한반도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 원(元)나라의 군인과 목호 등 몽골사람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고, 조선 건국과정의 유배인, 정치적 망명자 유입이 영향을 미쳐 김, 이, 박 등 많은 성씨들이 이때부터 제주에 들어와 정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구 증가 현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15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 200여 년

동안 제주는 두드러진 인구 감소현상을 겪는다. 그 원인은 전염병이나 기근 등 자연재해도 심했지만, 관의 지나친 부역과 진상품 요구, 지방토호와 관리들의 횡포로 많은 제주도민들이 제주를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제주를 떠난 사람들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한반도 해안지역에 정착했다.

그러저런 사정으로 조선 전기 조사된 제주 인구는 6만 명 정도였는데, 조사방법상의 문제를 감안하면 10~12만 명쯤으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성종대 이후 지속적인 출륙으로 2~3만 명 정도가 제주를 떠난 것으로 본다면 임진왜란 전후의 제주 인구는 8~10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제주섬을 떠나버린 바람에 인구가 줄어들자 조선 조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거주환경 개선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제주민의 섬 밖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출륙금지령' 이라는 강력한 통제정책을 펼친다.

200년 동안 사람들이 떠났던 제주섬을 또 200년 동안 묶었던 출륙금지령은 제주도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었지만, 한반도의 다른 지역 문화와의 접촉을 차단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한국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출륙금지령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 제주의 인구는 더 줄어들지 않았고 18, 19세기에 걸쳐 조금씩 증가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이한 점은 개항 직전인 1873년(고종 10년)에 87,927명이었던 인구가 한일합방 이후 1910년에는 12만6,028명으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호구조사에서 상당부분의 인구가 누락됐음을 의미한다.

최초의 근대식 인구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1925년 조사에서는 제주인구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조선 후기 제주의 실제 인구는 12만~16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일제강점기

〈전라남도제주군세일반(1914, 全羅南道濟州郡勢一斑)〉과 1937년과 1939년에 간행한 《제주도세요람(濟州島勢要覽)》 등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제주도 인구는 1925~1949년까지 20여 만 명 전후로 정체되었는데, 1930년대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제주도민의 출륙현상이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시대의 인구이동이 주로 한반도로의 이동이었다면, 일제강점기에는 그 주요 대상지가 일본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주도민의 도외 이출은 1922년 12월에 자유도항제가 실시되면서 활발해졌는데, 1930년대

중반에는 제주도내 거주인구의 25%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의 도민이 제주를 떠났다. 1940년 이후 태평양전쟁으로 제주도의 인구는 또 한 번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탄다. 2차 대전 중에 5만여 명의 제주도민이 일본으로 징병과 징용으로 강제 연행된 것이다. 이로 인해 1945년 광복 당시 재일 제주도민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제주를 떠난 인구의 특징은 대부분이 생산연령층이라는 점, 남성인구의 이출이 높다는 점이다. 젊은 남성 위주의 이출현상은 제주 인구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여초(女超) 현상을 심화시켰고 혼인시장이 교란되어 여성의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더불어 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남성 부재의 가정에서는 여성이 가정경제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구 성장이 시작되다

제주의 인구는 197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감귤과수원의 개원에 따라 노동력이 흡수되고 본격적인 관광개발이 시작되는 등 사회적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다. 더불어 제주 인구는 1970년 36만3,000여 명에서 1975년에는 40만 명을 넘어서고 1990년에

서귀포시 전경

는 50만 명을 넘어서, 2011년 현재 58만여 명에 이르는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유소년층 인구가 1995년에 11만8천 명에서, 2010년에는 10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1995년 3만3천 명에서 2010년에는 6만7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해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 성별 인구추이를 보면 인구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연령층 인구(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성비는 남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제주 인구의 구조적 특징으로 일컬어지던 여다 현상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의 인구분포를 동(洞)지역과 읍(邑) 면(面) 지역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제주시 동지역으로의 인구 집중현상이다. 제주시 동지역은 1985년 20만에서 2010년 32만 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반면,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제주시 동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격차가 점차 커지고 서귀포시 인구의 제주시 집중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의 인구는 1985년 20만 명, 전체 인구의 41.6%에서 2010년에는 13만 명, 25.2%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동해 동지역의 인구가 제주도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

역사와 맞물린 취락구조

제주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취락은 고대부터 해안지역에 형성되었던 촌락들이다. 고려시대에 촌현취락, 포구취락, 진취락 등이, 조선시대에는 읍성취락, 원취락 등이 형성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귀일, 고내, 월정, 귀덕, 명월, 신촌, 함덕, 김녕 등에 동서 도현이 설치되어 촌현취락이 발달했고, 주요 포구인 명월포, 월정포, 북포(화북), 함덕포, 조천포, 차귀포(고산), 토산포 등에는 포구취락이 발달했다. 해안의 외적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진을 설치했던 조천, 김녕, 도근포(외도), 애월, 차귀(고산), 명월, 서귀, 오조 등의 포구취락에는 방호 및 수전소가 설치되어 진취락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행정중심지로서 제주읍성과 동부 정의현, 서부 대정현이 설치되어 읍성취락이 발달했다. 또한 특수취락으로 과원취락과 봉수취락, 포구취락, 진취락, 원취락 등이 생겨났다.

과원취락은 정의현과 대정현을 중심으로 과원을 설치해 귤, 매실, 감, 유자 등의 과실을 재배해 진상하면서 발달했다. 봉수취락은 군사상 목적으로 봉수제를 시행해 왜군의 침입에 대비하고 통신망 기능을 담당했다. 원취락은 읍성촌과 읍성촌을 연결하는 도로교통의 요지에 형성된

소규모 교통촌락이었다. 관리들의 공문서 전달, 관물(官物)의 운송, 출장관리의 왕래 등에 숙박을 담당하고 당시의 교통수단인 말을 관리하는 등 관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다. 서귀포 상효리, 중문리 등에 원이 설치되어 원취락이 발달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지방행정 중심 취락이 발달했다. 한일합방 이후에도 삼군제가 지속되다가 1914년 대정군과 정의군이 제주에 통합되었고 1915년 도제(島制)와 면제가 실시되면서 면이 지방행정을 담당했다.

도제 실시 당시 면소재지는 애월, 명월, 대정, 서광, 중문, 의귀, 정의, 고성, 평대, 조천 등 조선시대 관도(官道)가 통하는 중심 취락에 위치했으나 1917년 자동차 위주의 육상교통을 위한 일주도로가 개통되면서 일주도로 중심의 취락이 발달했다.

한반도, 일본과의 연결을 위한 항만시설이 축조되면서 이들 촌락은 수륙교통의 편의성과 지방행정 중심지 기능을 기반으로 신흥취락으로 발달하였고 인접지역의 인구를 흡수해 도시화되기 시작했다.

도시화되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시가지의 범위가 제주읍성 내로 국한되었으나 1920년부터 산지항구가 축조되면서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제주도와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관문인 산지항을 중심으로 외부와의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들과 주정공장, 선박공장, 상업시설 등을 비롯한 도시적 기능요소들이 집중현상을 보였고 도시적 경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50년에 이르러 6 · 25 피난민의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청 청사가 오늘의 제주시청사 위치에 부속기관과 유관기관들이 함께 이전되었고, 때를 같이해 도시 내부에서 외곽을 향한 공간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도시화는 중앙로 로터리~제주시청을 연결하는 도시화였으나 점차 주변 지역과 연담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주시는 T자형의 시가지 형태를 보이게 된다.

1960년대~1980년대에는 T자형 시가지의 공백지대인 남동쪽과 남서쪽을 도시화하기 위해 1960년대 제2지구(삼도동), 삼성혈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본격화되었고 1970년대에는 제3지구(서사라)와 신제주 1,2지구(연동 신시가지) 등이, 1980년대에는 화북지구가 개발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이도지구, 노형지구, 삼양지구, 외도지구 등이 개발되어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장됐다.

서귀포시에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439년에 서귀진(西歸鎭)이 축조되어 진취락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경찰주재소, 우편국, 도 지청(支廳) 등 행정관서가 들어

1960년대 초 광양벌의 모습

1978년 신제주 시가지 조성사업 모습

서면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중심기능을 갖게 되었다.

1960년대~1970년대에 제1횡단도로(5 · 16도로)가 개통되면서 제주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관광객이 증가해 각종 관광서비스 시설이 입지하면서 도시화가 촉진되었다. 이후 중문면이 서귀포시 중문동으로 통합되면서 도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신시가지가 건설되어 서귀포시청, 경찰서, 우체국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입지하면서 새로운 업무지구로 부상했다. 또한 중문관광단지 개발과 국내 소득증가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는 중문지구의 도시화와 서귀포시 서부지역 중심의 도시기능의 외연적 확장을 가져왔다.

물 따라 마을 형성

세계 어느 나라나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을 이루고 문화를 가꾸어왔다. 제주 자연마을의 설촌 역시 물(용천수와 봉천수)의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제주에서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한 물은 지층 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표와 연결된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솟아나오는 용천수였다. 특히 용천수가 밀집되어 있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음은 용천수가 마을 입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걸 반증해 주고 있다.

용천수는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축산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되어온 제주인의 생명수이자 젖줄이었다. 마을주민들이 용천수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 보전과 이용에 대한 연대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물허벅', '물구덕' 그리고 '물팡'이라는 제주의 독특한 물이용 문화가 싹트는 계기도 용천수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제주 용천수 이용 역사는 제주 물 이용 역사이고 제주마을 역사인 것이다.

물허벅

마을 물통

제주의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했던 물터를 제주에서는 '물통' 이라 불렀다.

용천수가 솟는 물통은 주로 해안마을에 집중되어 있다. 중산간마을에는 용천수 물통도 더러 있지만, 암반과 수풀 등으로 이루어진 곳을 깊고 넓게 판 웅덩이에 고인 지표수를 이용하는 봉천수 물통이 대부분이다.

용천수는 그 흐름에 따라, 가장 위쪽은 마시는 물통, 그 다음은 채소 씻는 물통, 그 아래는 빨래하거나 목욕하는 물통 등으로 구분해서 사용했다. 봉천수 역시 식수용과 생활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했다.

용천수는 상황, 양, 쓰임새 등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했다.

바위틈에서 새어나오거나 땅속에서 솟아 흐르는 용천수는 '통물' 이다. 바닷가나 하천가의 큰 바위 밑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는 '엉물' , '엉덕물' 이라 불렀다. 암석의 틈이나 움푹 파인 땅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는 용천수는 '고망물' , 비가 많이 올 때에만 솟아나는 물은 '구멍물' 이다.

'큰물' 은 용출량이 많거나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물 또는 마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물이고, 반대로 용출량이 매우 적은 물은 '생이물' 이라 불렀다. '생이' 는 새의 제주사투리다. 새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졸졸 흐르는 물이라 해서 생이물이라 부르는 것이다. '절물' 은 절 주변이나

고내리 해안의 '시내물' 용천수

사찰 안에서 솟아 절에서 이용하는 용천수를 일컫는다. 그리고 치성 등 정성을 드릴 때 이용하는 물은 '할망물' 이라 불렀다.

물이 귀했던 섬, 제주

상수도가 개발되기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는 물이 귀한 섬이었다. 제주의 삼재(三災)로 꼽혔던 한재(旱災), 풍재(風災), 수재(水災)가 모두 물과 관련된 재해지만, 특히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가뭄은 가장 고통을 주는 자연재해였다.

대부분의 마을은 샘이 솟는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해안 마을은 바닷가에서 솟는 용천수를 이용했다.

그러나 샘이 없는 마을도 적지 않았다. 샘이 없는 마을에서는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받은 '구릉물' 을 이용하기도 했고, 나무기둥에 새(띠)로 깔때기를 만들어 그곳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물항(물항아리)에 받았다가 쓰기도 했다. 본섬에 딸린 섬에서는 바닷가 암반에 고인 물을 헝겊에 적셔 허벅에 짜 넣으면서 물을 얻기도 했다.

먹는 물은 대부분 여자들이 물허벅으로 길어 물구덕에 담고 등에 지어 날랐다. 집안의 물항

에 물이 없으면 게으른 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물 긷기는 여자의 책임처럼 여겼기 때문에 물항이 비면 아무리 고단해도, 한밤중이라도 물허벅을 지고 물 길러 다녔다.

한국명수 100선 중 제주명수 8곳

사라져가는 우리의 '맑고 맛있는 물'을 더 늦기 전에 찾아내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작업으로, 1987년 한국자연보호중앙협의회와 경향신문사가 공동으로 '한국 명수 100선'을 조사·선정했다. 전국적으로 ①원류·계곡·폭포 44곳, ②샘물(샘·우물·약수) 46곳, ③호소(湖沼)·연못 10곳 등이 '한국 명수 100선'에 선정됐다. 그 중 8곳이 제주지역에 있다. 원류·계곡·폭포 부분에서 제주시 도두동의 오래물, 서귀포시의 천제연과 돈내코가, 샘물(샘·우물·약수) 부분에서 제주시 건입동의 금산물, 애월의 하물, 외도동의 수정밧물, 서귀포시 서홍동의 지장새미, 안덕면의 산방굴사 약수 등이 선정된 것이다.

제주 최초의 수도

수도의 효시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5월 용천수를 자연유하식으로 송수해 서귀포지역 일부 가정에 공급한 정방간이수도로 기록되고 있다. 1927년 7월에는 '절곡지물'을 수원으로 서호·호근 간이수도가, 1932년 7월 30일에는 '돈내코물'을 수원으로 토평·하효·신효 간이수도가 완성됐다. 서호·호근 간이수도의 시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서호리 마을에 보존돼 있다. 토평·하효·신효 간이수도는 돈내코수원지 곁 북측 암벽에 당시 수도시설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새겨져 있다.

실질적인 의미의 제주 첫 수도는 제주시내 10곳의 공동수도라고 할 수 있다. 1957년 6월 24일 저녁에 제주시내 10곳의 공동급수전에서 맑은 물이 힘차게 흘러나오자 그 앞에 몰려 있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런 세월을 거쳐 이제는 광역상수도시스템이 갖춰져 물을 구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제주의 물을 국내외로 수출하는 '블루골드' 시대를 맞고 있다.

산업경제

수치로 본 제주의 살림살이

2011년 말 현재 제주지역 경제활동 인구는 29만6천명이며 그 중 취업자는 29만1천명이다.

산업구조는 2010년 기준 서비스업이 68.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어업도 17.7%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은 4.2%로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이는 2005년의 3.1%에 비해 1.1%p 높은 수치이다.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2009년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5만5,800명이며 SOC 및 기타서비스 부문은 22만1,8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6.8%가 SOC 및 기타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사무직이 3만7,400명, 전문 · 기술 · 행정관료직이 4만100명, 기능 · 기계조작 · 단순노무직이 9만1,700명,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4만9,400명이다.

2010년 제주의 지역총소득은 9.6조원으로 전국의 0.8%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민 1인당 GRDP는 1,758만 원으로 전국 1인당 GRDP의 73.1% 수준이다.

전국을 휩쓰는 농산물

제주의 농가인구는 1985년 18만5,339명이었던 것이 2009년 현재 10만4,80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농현상이 심화된 결과였다. 제주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 구성 비율은 2009년 현재 19.2%로 전국의 6.6%의 약 2.8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주의 호당 농가소득은 1993년 이래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지만 감귤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1997년과 1999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호당 농외소득은 1993년 이래 1997년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 이후 제주도 농작물의 재배면적의 변화를 보면, 그 동안 비중이 높았던 맥류, 잡곡, 콩, 고구마, 유채, 참깨와 일부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감귤, 감자, 화훼류와 함께 당근, 마늘, 양파, 쪽파 등의 월동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소폭 증가에 머물러 연간 총 작물재배 면적은 1990년의 6만7,065ha에서 2008년에 5만4,361ha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조수입의 구성을 보면, 과수류가 5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채소류 27.9%, 식량작물 9.1%, 특용작물 4.6%, 화훼류 2.2%이다. 품목별 순위를 보면, 감귤이 5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마늘 7.7%, 감자 5.6%, 당근 3.6%, 양파 · 화훼 2.2%, 콩 1.8%, 참깨 1.3%, 양배추 1.1% 순이다.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제주에서 재배한 채소 생산량은 품목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건고추, 무, 마늘, 양배추, 배추의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수박, 양파, 당근, 참외의 생산량은 감소했다.

전체 면적이 한반도의 1%밖에 안 되는 이 섬에서 2009년에 당근은 전국 생산량의 72.3%를, 양배추는 42.1%를 차지했고, 유채는 44.3%를 차지했다.

FTA의 파고 앞에 놓인 제주 감귤산업

감귤산업은 제주지역 1차 산업 총생산 중 1/3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감귤의 생산량은 한국 과수 총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199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감귤 재배면적은 2008년 제주 총 경지면적의 37%인 2만937ha로 나타났다. 감귤재배 농가수는 제주지역 전체 농가수의 89.6%에 해당하는 31,027호다. 감귤농가의 호당 평균 재배면적은 0.67ha로, 가족농의 적정규모로 알려진 2ha 이상의 농가비율은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감귤

감귤산업의 조수입은 1996년산 6,079억 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2002년산까지 감소되고 있는데 감귤가격이 대폭 하락했던 1999~2002년산 4개년 평균은 3,436억 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렇지만 2003년부터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실시와 감귤품질의 향상, 1999년 이후 2002년까지의 감귤가격 폭락의 여파로 인한 대규모 폐원에 따른 감귤생산량의 조정으로 2003년산은 4,704억 원으로 증가했고, 2004년산 6,105억 원, 2005년산은 6,006억 원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07년산은 과잉생산과 품질하락으로 4,318억으로 감소했으나 2008년산 6,313억 원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나날이 성장하는 관광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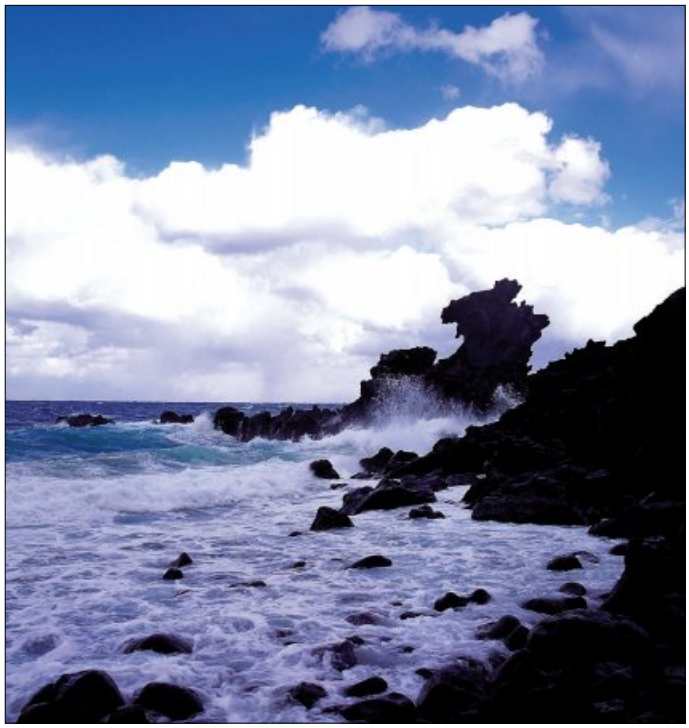
대부분 자연관광지로 구성된 제주관광은 기존의 자연자원 중 한라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자원을 소중히 관리하고 이미지를 강화하여 그 파급효과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관에서 관리하는 43개의 관광지가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관광지(민속자연사박물관, 만장굴, 비자림 등), 제주시가 관리하는 8개 관광지(용연 · 용두암, 절물자연휴양림 등),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23개 관광지(섭지코지, 송악산 등)가 그것이다.

사설 관광지로는 총 46개소가 있는데, 제주시 지역 19개, 서귀포시 지역 27개 관광지가 분포해 있다. 도서 관광지로 가파도, 마라도, 우도, 비양도, 추자도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수욕장은 총 10개소로 제주시 지역에 6개소(이호, 삼양, 협재, 곽지, 김녕, 함덕), 서귀포시 지역에

총 4개소(중문, 신양, 화순, 표선)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 현황을 보면, 관광단지로는 국제종합관광거점지인 중문관광단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성산포(섭지지구) 해양단지가 개발중이고 신화·영상·음식 테마파크인 신화역사공원단지도 개발 중에 있다. 아울러 가족단위종합휴양단지로 팜파스 종합휴양단지가 개발중에 있으며 관광지로는 금악, 오라, 봉개, 돌문화공원 등 여성테마, 가족단위관광, 돌 및 전통가옥 테마관광, 해양레포츠, 온천관광, 레저휴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17개 관광지가 개발 중에 있다.



용두암

관광객 1천만 시대를 꿈꾸며

제주에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500만 관광시대를 열었고, 2008년에는 580만 명을 유치해 23,736억 원의 관광수입을 기록했다. 2010년 750만, 2011년 870만으로 관광객 수는 점점 늘어나 머지않아 제주지역 관광객 천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지역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4년 460만 명에서 2011년 769만 명으로 67.2% 증가했고, 외국인 관광객은 2008년 현재 54만 명, 2010년 77만7천명, 2011년 104만5천명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은 34.6%가 증가했는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2010년 406,164명에서 2011년 570,247명으로 40.4% 증가했다.

이야기로 만나는 제주의 산업경제

한 해 내내 부지런했던 제주농가

제주도 전통농가에서는 음력 4월 하순경 산디(밭벼, 陸稻)씨를 파종한다. 대부분 중산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 우마의 발길을 이용해 다진다.

본격적인 고사리 꺾기가 시작되는 것도 이 시기다. 제주도 명물인 고사리는 청명(4월 5일)부터 하나씩 나기 시작하여 고사리 장마 때 절정을 이룬다.

아직 덜 여문 보리를 장만해 먹거나 해초류, 나무뿌리 등 그야말로 못 먹는 거 빼고 다 먹을 정도로 식량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다. 보릿고개로 더 잘 알려진 춘궁기가 그것이다. 이 시기에 농사는 보리밭 김매기, 각종 묘종 파종하기(고구마 묘상 설치, 호박 심기, 감자 파종), 밭 자갈 치우기, 돌담 정리, 우마 낙인찍기, 가축관리 등으로 분주했다.

가파도의 보리농사

보리 수확은 대개 6월 상순에서 하순까지다. 보리수확은 보리를 베고 밭에서 하루나 이틀쯤 말린 후 깨로 묶어 소나 말로 집으로 가져온다. 집에 실어온 보리를 마당에 깔아놓고 타작한다.

고구마 줄심기는 장마철인 6월 중순에서 7월 초순에 이루어진다. 이미 묘상에서 키운 고구마의 줄기를 잘라 고구마 밭에 옮겨 심는다.

6월 하순 경 보리수확의 끝난 뒤 좁씨 파종을 한다. 오줌 버물린 재에 좁씨를 섞어 뿌리고 말이나 소 혹은 사람이 밟아준다. 이를 '조밭 볼리기' 라고 한다. 6월 상순에서 7월 하순까지 휴경지나 보리를 수확한 밭에 콩씨나 팥씨를 뿌리고 이를 갈아엎는다.

화학비료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연작하면 지력이 떨어져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가을걷이가 끝나면 바로 보리를 갈지 않고 1년 동안 밭을 쉬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휴경했던 밭에 보리를 갈기 위해서는 '두불갈이' 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 갈이를 '초불(초벌)갈이' 라 하고 7월 상순경에 한다.

메밀은 보통 목장밭에 소의 겨울먹이인 자굴씨를 뿌리고 2년 간 촐을 벤 다음 이 밭을 갈아서

2년간 메밀농사를 짓는다. 2년 윤번연작(輪番連作)인 셈이다. 그 외에도 새밭(띠밭)을 갈아서 메밀농사를 짓는데 '초불번' 한다고 한다.

좁씨나 산듸씨를 뿌린 뒤 1개월쯤 지나면 검질(김, 잡초)을 맨다. 이를 '초불 검질매기' 라 한다. 초불 검질매기에는 수눌음으로 많게는 20~30명이 사대소리를 부르며 한다. 이 시기에는 봄감자 수확도 해야 한다. 초불 검질을 매고 한 달쯤 있다가 '두불 검질매기' 를 한다.

8월 하순경에는 메밀씨를 재에 섞어 세 번째 간 밭에 촘촘히 점번(點播)으로 뿌리고 나서 섬피를 소에 매어 밭 위를 끈다. 또한 이때 갈옷을 만들기 위한 감물 들이는 작업을 할 시기이다.

9월 상순경에 자굴촐을 시작으로 겨울철 소의 먹이인 촐베기 작업이 시작된다.

10월에 들어서면 조를 시작으로 산듸, 콩, 팥, 고구마 등의 ᄀᆞ슬걷이(가을걷이)가 시작된다. 조나 산듸는 소로 실어와 눌을 만든 다음 장만한다. 조는 이삭을 낫으로 잘라다 ᄆᆞᆯ고래로 돌려 장만하고 산듸는 훌쳐서 장만한다. 콩이나 팥은 마당에 풀어서 도리깨로 타작한다.

11월에는 메밀을 수확하는데 메밀을 베어 멍석을 깔고 멍석 위에 풀어놓아 도깨(도리깨)로 타작해 장만한다. 이렇게 메밀 장만이 끝나면 비로소 가을걷이 완료되는데, 이때부터 돗거름밭하기(돗거름 내기)가 시작된다.

돗거름밭하기란 보리 파종에 필요한 돗거름을 밭에 운반하는 작업이다. 일 년 동안 외양간에서 소나 말을 키우면서 얻어진 소거름을 돗통에 담아 넣었다가 늦가을 보리 파종을 하게 될 때 이 거름을 파내어 조금 두껍게 펼쳐놓고 보리씨를 뿌리고 쇠스랑으로 잘 고른 다음 소나 말로 이 거름을 잘 발린다. 이 거름을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면 보리 파종이 되는 것이다. 이제 쟁기를 매어 갈아엎으면 보리 파종이 끝난다.

보리 파종이 끝나면 농한기가 시작된다. 제주의 전통 농촌에서 '농한기' 란 보리 파종이 끝난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농사가 시작되는 4월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밭에 나가 농사를 짓지 않을 뿐 다음 농사에 대비해 농기구를 손질하고 새로 만드는 일, 집을 손보는 일, 땔감 마련하는 일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농번기보다 더 바빴던 농한기

제주에서는 농한기에 숯을 굽느라 바쁘기도 했다. 숯을 만드는 일을 제주에서는 '숯을 굽는다' 또는 '숯 묻는다' 고 했다. 숯 구울 철이 되면 농가에서는 작은 솥이나 냄비 등 간단한 취사도구를 가지고 한라산에 올라가 대개 1박 2일간 노숙하며 숯을 구웠다.

다 구운 숯을 짊어지고 집으로 옮기다 등에 불이 붙거나, 남의 숯을 몰래 훔쳐오다 엉덩이에 불이 붙기도 하는 등, 웃지 못할 일화들을 겪기도 한다.

농한기 때는 또 농사에 필요한 멍석이나 멩텡이, 가마니 등을 짜느라 바쁘기도 했다. 멍석이나 멩텡이는 산듸짚을 이용해 짜는데 부탁을 받고 짜거나 보리쌀 등과 교환하기 위해 짜는 경

숯가마터

우도 있었다. 간혹 숯가마니를 짜는 경우도 있었는데 숯가마니는 산듸짚보다 억센 억새를 잘라다가 짰다.

농한기 때 제주농가에서 남자들이 가마니를 짰다면 여자들은 미녕(무명)짜기에 여념이 없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거의 베틀이 있었고 면화를 갈아 무명을 짜서 식구들 옷을 만들 옷감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가계에 보태기도 했다. 미녕은 다래를 따다가 씨 뽑기, 솜 태우기, 고치말기, 실잣기, 베날기, 베매기, 베짜기 순으로 이루어지며 직조는 보통 봄철에 많이 했다.

제주경제생활의 뿌리, 해녀의 '물질'

해녀들이 물질로 벌어들인 수입은 근대 제주경제의 가장 큰 변동요인이었으며 제주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제주해녀들은 어로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주지역 전통 농촌에서는 농번기와 해산물의 채취기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제주도의 해녀들은 농사노동과 어로활동을 동시에 해야 했다. 그 당시 제주해녀들의 하루를 살펴보면, 7, 8월에는 아침 일찍 2시간 정도 밭에서 김매기를 한 다음, 물질 때가 되면 바다로 향한다. 오전 물질을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밭으로 가서 김매기를 하다가 다시 오후 4시쯤 바다로 가서 작업을 하다가 해질 무렵 귀가한다.

해녀

현재 제주에 사는 80대 중반의 한 해녀는 이렇게 증언한다.

열살부터 물질을 배우기 시작하여 열일곱에 이미 상군이 되었고 스무 살에 결혼을 한 후에도 물질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제주도, 한반도 바다는 물론 도쿄, 쓰시마, 블라디보스토크, 청진 등으로 물질하러 다녔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밭 99개를 샀다. 이 중 1/3인 33개의 밭은 4 · 3 때 낮에는 경찰, 밤에는 산사람들로부터 큰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아서 썼고, 다음 1/3인 33개의 밭은 둘째 아들을 6 · 25전쟁 징집에서 빼내기 위해 팔아 썼다. 마지막 1/3인 33개의 밭은 제주4 · 3 사건 때 죽은 큰아들을 대신해서 큰손자 대학공부 시키고 결혼자금 보태느라 다 팔아버렸다. 지금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 '할망바당' 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며 살고 싶다.

이렇듯 제주해녀는 제주지역의 경제활동과 제주역사 속에서 여전히 활발히 활약하고 있다.

감귤산업의 선물

1964년 2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연두순시에서 서귀포 지역을 방문해 "서귀포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은 오직 감귤이다" 며 모두 감귤농사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때 "제주도는 여건이 다른 지역이니 만큼 전국 공통사업인 식량사업은 염두에 두지 말고 수익성이 높은 감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라" 며 내렸던 특별지시를 계기로 1965년부터 재식 붐이 일기 시작했다.

초가와 감귤

1968년 감귤증식사업이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책정되어 저리 융자로 감귤원 조성자금을 지원하게 되면서 1969년부터 획기적인 증식이 이루어졌다. 1975년에 제주도 감귤재배 면적이 1만ha를 상회하게 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감귤농사가 확대되면서 마을 내에는 감귤과수원 부자가 많이 생겨났고 제주 농촌마을은 부촌이 되었다. 부작용도 있었다. 점점 근로의식이 약해지고 근검절약과 같은 생활의식이 나태해지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러나 대부분 자녀 교육에 투자하거나 건전한 자산증식에 힘썼는데 오늘날 제주지역 교육수준이 높고, 제주 출신들이 서울이나 외국에 나가 공부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감귤농업이 제주에 준 선물인 셈이다.

이중섭이 거처했던 초가와 이중섭미술관

근대 예술 활동

제주의 창작 무대

제주에서의 모든 활동이 그렇듯, 예술계도 시대의 상황에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발전해왔다.

일제강점기 제주에서는 1919년 조천에서부터 발발한 독립운동과 1930년 구좌와 우도에서 일어난 해녀항일운동 등 굵직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세월이 흘러 1948년에는 제주의 불운한 역사인 제주4·3이 일어나고 뒤이어 6·25전쟁이 발발했다. 이 시기 제주인들의 의식과 내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6·25전쟁으로 숱한 피난

민들이 제주에 들어왔는데, 피난민 중에는 예술인들이 제법 있어 그들에 의해 제주예술계는 직간접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다시 시대가 변하고 4 · 19혁명을 시작으로 대략 10여 년 동안 국내의 다양한 변혁기에 제주도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펼쳐졌고, 3 · 15부정선거와 관련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으로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는 학생을 위시한 사회 각계의 소요 속에 휩싸이게 된다.

이 시기에 제주에서는 대학생 중심의 문학 활동 동인모임이 생겨났으며, 기타 여러 분야에 소그룹의 예술단체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4 · 3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대되면서 문학에서는 4 · 3을 주제로 한 예술운동이 일어난다. 미술과 음악분야에서도 경연대회라든지 활발한 창작운동이 일어나고, 연극분야에서도 다수의 극단이 창단되면서 제주에서도 연극 활동이 시작된다.

1980년대로 넘어 오면서, 5 · 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한다. 제주에서는 4 · 3을 내용으로 한 문학작품이 계속 발표되었으며, 음악분야에는 제주대학교에 음악과가 신설되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예술단인 제주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서귀포시립합창단이 창단된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제주에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 등과의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제주는 '평화의 섬' 이라는 분위기에 싸이게 된다.

1990년대는 제주문인들이 급성장한 시기다. 80여 명이던 문인 숫자가 165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급증한 문인들에 의해 제주문단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1998년에는 〈한국문학작가회의〉가 제주에서도 출범되었으며, 4 · 3관련 문학과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 많은 창작활동이 계속되었다.

문학

일제강점기 제주의 문학예술 활동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명식, 김문준, 김지원, 강관순 등이 있다. 김명식(金明植, 1891~1943)은 조천리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때 발간된 월간지《신생활》에 줄곧 항일에 대한 글을 게재하면서 칼보다는 글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문학인이다. 김문준(金文準, 1893~1936)이 1915년《농림학교회보》에 발표한 작품 〈농부가〉는 근대 제주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지원(金志遠, 1903~1927)은 조천 출신으로 1925년《조선문단》에 '애원' 이, 같은 해 11월에 '거지할미' 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해 활동했다. 강관순(康寬順, 1909~1942)은 우도 출신으로 강철(康哲)이란 필명으로 활동을 했으며, 1932년 해녀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된다. 그가 옥중에서 쓴 작품 〈해녀의 노래〉는 급속도로 제주 전역으로 퍼져 나

가기도 했다.

광복 후의 제주문학은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계속되는 힘든 일들이 뒤섞이는 시대였다. 그러나 문학은 최고의 지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46년 제주에도 잡지《신생》이 출간된다. 1946년 5월에는 애월면 인민위원회와 청년동맹에서 공동으로《신광(新光)》을 창간한다.《신생》은 최길두, 이영복, 김병현, 김이옥 등의 시가 실린, 제주 최초의 잡지다.

1952년 제주대학이 개교하면서 제주지역 문학분야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 대학 졸업생들은 교직이나 문단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제주의 문학세계를 활발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957년 6월 〈제주문화〉, 1958년 8월 〈비자림〉, 1959년 6월 〈문주란〉, 1959년 10월 〈시작업〉 등 문학동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1959년에는 제주문학동인회가 조직되고, 이어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지부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즈음에 문학계는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모색한다. 4 · 19 혁명과 5 · 16 군사정변이 공존하는 모순과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안고 출발한다. 이전의 아픈 역사를 안고 있는 제주지역인지라 현실참여의 외침이 점점 커져가고 비판적인 현실인식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동인으로는 1961년 〈절벽〉, 1963년 〈아열대〉가 결성되었다. 〈절벽〉은 서귀포 문인들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1965년 중학생 중심으로 결성이 된 〈人〉은 1966년 4월에 창간호를 낸다. 1968년에는 제주대학 학생이 중심이 된 〈백파 문학회〉가 프린트 판으로《백파》를 발간한다. 1969년에는 〈토요구락부〉가 활동을 개시해 제주대와 제주교대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다방에 모여 작품 발표와 문학토론을 벌였다.

제주도 최초의 문학단체인 〈제주문학동호인회〉는 1956년에 조직된다. 그 후에 〈제주문학인협회〉, 〈제주문학자협회〉, 〈제주문학협회〉, 현재의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로 바뀌게 된다.

제주문인회가 중앙의 〈한국문인협회〉의 인준을 받은 것은 1968년 10월 제주문학협회 때였다. 1970년 협회 내부의 이런저런 어려움에 의해 거의 해체 분위기로 갔다가, 1972년 8월 30일 재결성되면서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가 출발하게 되었다. 〈문인협회〉에서는 해마다《제주문학》을 발간하는데, 1972년부터 현재까지 54집을 펴냈다.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는 1987년에 발족한 예총 제주도지회서귀포분회의 문학분과 회원들로 구성된 '서귀포문학' 의 중심이며, 1993년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로 인준을 받았다. 〈서귀문인협회〉에서도 해마다《서귀포문학》을 발간하고 있으며, 제22집을 2011년 12월 펴냈다. 1987년 〈민족작가회의〉가 발족되었는데, 이는 1974년 창립된 자유실천문인협회가 개편된 것이다. 이 단체에서는《제주작가》를 1998년도부터 발간했었는데, 다음 해부터 연 2회 발간, 2012년 4월 38호를 발간했다.

(사)한국신문학협회제주지회는 월간《문예사조》에서 등단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1996년 창립되면서 창간호《저슬사리》가 나온 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4월 〈동서문학회〉로 개칭하고,《저슬사리》에서《동서문학》으로 개편하여, 2011년 11월에 제16집을 펴냈다.

2001년에는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제주지역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제주시조문학회〉에서는 1984년 《시조문학》 창간호를 냈고, 후에 《제주시조》로 개칭하여 2011년 1월 제18집을 펴냈다.

〈제주아동문학협회〉는 1980년 2월 창립하고 1981년 1월 창간호 《새벽》을 발간한다. 후에 〈제주아동문학회〉로, 1987년 또 다시 〈제주아동문학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한라산 몽생이》 30집을 2011년 11월에 펴냈다. 〈제주수필문학회〉는 1994년 5월 《수필문학》을 발간했으며, 《제주수필》 제18집을 2011년 12월 펴낸다. 〈제주여류수필문학회〉는 2002년 창립되었고, 2011년 6월 《제주여류수필》 제10집을 발간한다. 〈한라산 문학회〉는 1987년 9월에 결성하여 동인지 《시간을 둥굴리다》 24집을 발간한다.

미술

일제강점기 제주의 경제 상황이 무척이나 악화되는 중에서도 미술을 위해 일본 유학길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다. 원용식, 김광추, 고성진, 박태준, 장희옥, 조영호, 변시지, 양인옥 등은 일본에서 미술공부를 하고 귀향해 제주의 미술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친다. 제주 출신 김인지는 조선미술전람회에 세 번이나 입선함으로써 제주 출신 작가가 최초로 입선작을 내는 쾌거를 이룬다.

이들 중 김광추(金光秋, 1905~1983)는 화가이자 서예가이면서 1942년 〈아사히 카메라〉지 주최 사진 공모전에서 '나루터'가 입선하는 등 제주 사진계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는 전각, 사진, 수석 등에 두루 견문이 넓은 예술인이었다.

변시지(邊時志, 1926~)는 서귀포 출신이다. 6살 때에 도일했는데, 1948년 23세 때 일본 광풍회전에서 최연소 나이로 최고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70년 귀향해 새로운 필력으로 제주의 토착적인 정서와 풍토를 화폭에 담아 '황토 빛의 미학'을 개척했다.

신천지미술관

1970년대 들어선 제주미술에서는 근대적 구상화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1972년 제주대학교에 미술교육과가 설치되면서 도내 미술분야에도 양적, 질적으

로 인구가 양산되고, 미술의 체계적 운동이 일어난다. 학생과 졸업생들은 대학미전과 제주도예총이 주최하는 미술대전에 출품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게 된다. 〈濟美동문전〉, 〈교수작품전〉, 〈학생그룹전〉들과 각종 동아리의 미술전이 줄을 잇게 되면서, 제주는 바야흐로 미술계의 봄날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민족미술, 민중미술이 등장하게 된다. 1987년 여름, 제주미술계는 일대 사건을 겪게 된다. 그림패 〈바람코지〉 주최로 민중미술 순회전인 '민족해방과 민족통일 큰 그림 잔치'가 동인미술관과 한국투자신탁전시실에서 열렸는데, 이때 출품한 대다수의 작품들이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적표현물로 지목되어 몇몇은 압수당하고 화가들은 체포된 것이다.

이때부터 제주에도 민중미술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들은 〈탐라미술인협의회〉와 〈한국민예총제주지회〉를 창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운동 조직과 연계하면서 민중운동의 예술적 지원을 뒷받침하게 된다.

1990년대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이 개관되면서 미술계의 양상이 이전과는 판이한 활동을 보이게 된다. 크고 작은 전시들이 줄을 이으면서 다양한 장르의 단체가 결성이 되고, 교류전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 · 3미술제〉를 〈탐라미술인협의회〉에서 추진하게 되고, 4 · 3의 의미를 문학과 더불어서 제주의 중요한 예술의 한 부분으로 형성해 나가게 된다.

〈제주한국화회〉가 1992년에 결성되면서 창립전을 가지고 해마다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1996년에 〈재경한라미술인협의회〉가 결성되고, 1994년에 제주도문화진흥원이 추진한 〈제주청년작가전〉은 제주의 청년작가들의 발표 기회를 확대하면서 신진작가들을 발굴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

1996년 〈탐라미술인협의회〉에서는 〈제주미술〉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4 · 3 미술을 특집으로 제주미술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제주판화가협회〉는 제주판화예술의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1999년 7월에 창립되었다. 〈제주산업디자인협회〉가 1995년에 창립되어 제

주산업디자인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87년 7월에는 기당(寄堂) 강구범이 〈기당미술관〉을 건립하여 서귀포시에 기증하면서 개관한다. 이는 국내 최초 시립미술관의 효시이며, 서귀포 관내 지역만이 아니라, 국내의 원로, 중진, 중견작가의 작품 64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상설전시관에는 현재 미국 스미소니언뮤지엄에 전시되고 있는 '폭풍의 화가' 로 알려진 제주의 화가 변시지의 작품이 연중 전시되고 있다.

또한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이중섭미술관〉이 2002년 7월에 개관했는데, 이중섭의 작품 세계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2007년 9월에 〈제주현대미술관〉이 개관하게 된다.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 서부권의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 2009년 6월에는 〈제주도립미술관〉이 건립되었다. 전시실, 시민갤러리, 장리석 기념관 등으로 이루어진 이곳에서는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 상설전시를 하고 있다.

서예

제주인 서예가로 기록할 만한 인물은 고려 원종 때의 고적, 조선시대 고득종,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써서 향교의 교수가 되었다는 고양필 등이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제주 서예는, 조선 헌종 6년(1840)부터 9년 동안 대정현에서 유배생활을 한 추사 김정희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 게 보편적이다. 추사는 제주의 한란과 수선화에 심취해 많은 그림과 서예 작품을 남겼고, 그의 애제자 김구오, 강도흔, 박계첨 등 서도가를 배출시키면서 제주 서예의 전통을 잇게 된다. 추사 이후 향교, 서당을 중심으로 서예 교육이 왕성하게 전개되면서 홍종시, 이응호, 김석익, 고순흠, 홍완표, 김용하, 현영오, 김창하, 김성택, 현창훈 등이 서예계의 맥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해방공간의 혼란, 제주4 · 3과 6 · 25전쟁 등으로 침체상태에 놓였는데, 1963년 현중화, 김광추, 양중해, 문기선, 이완규 등이 〈담담회〉를 결성하면서 제주 서예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소암 현중화(1908~1997)는 서귀포시 법환동 출신으로 '제주가 낳은 서단의 거목' 으로 꼽힌다. 2008년 서귀포시 서귀동에 〈소암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청탄 김광추(1905~1983)는 제주도에 전각(篆刻)을 보급한 선도자이며 서단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해정 박태준(1926~2001)은 제주시 용담동 태생으로 '초서의 대가' 로 불리며 서화일치의 독특한 서풍을 개척했다.

1958년 6월 문총서귀포지부 주최로 열린 제1회 탐라예술제에서 서예 등 6개 부문의 전시와 공연 행사가 있었다. '서예전' 이라는 이름을 붙인 전시는 1965년 30명 회원으로 창립된 '영주연묵회전' 이 처음이다. 제주도 최초의 서도회라 할 수 있는 〈영주연묵회〉는 47회에 걸친 회원전을 개최했다. 1970년대에 결성된 서예단체는 제주예묵회(1971), 소묵회(1974), 서귀포서예

가협회(1975) 등이다. 소암 현중화의 목적과 필법 연마를 목적으로 출발한 소묵회와 맥을 같이 하는 모임은 '목포 · 서귀포 · 광주 · 제주도청 소묵회' 가 있다.

1980~1990년대 제주 서예단체로는 〈우묵회〉(1981), 〈정연회〉(1982), 〈반석서숙연우회〉(1983), 〈상묵회〉(1984), 〈서예협회제주도지부〉(1989), 〈제주도서예가협회〉(1990), 〈백암서회〉(1990), 〈벽연회〉(1990), 〈중묵회〉(1991), 〈통묵회〉(1991), 〈미술협회 제주도지회 서예분과〉(1994), 〈제주도서예교육연구회〉(1994), 〈한연회〉(1994), 〈남국한글서예사랑회〉(1996), 〈제주서각회〉(1998), 〈한묵회〉(1998), 〈조천연묵회〉(1999) 등이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제주도서예학회〉, 〈제주전각연구회〉, 〈문인화협회 제주도지회〉 등이 결성되었다.

음악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다녀온 제주사람 중에는 연주자로서 음악의 길에 들어선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제주음악계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6 · 25전쟁 중 많은 피난민들 중에 국내의 유명한 음악인들이 섞여 있어서 제주 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즈음 제주는 서양음악을 시작하는 시기를 맞았다.

이 시기 제주중학교에 관악대 편성이 확충되고, 1951년 모슬포 제1훈련소의 군악대가 생겼다. 미국인 길버트 소령(제주도 UN 민간협력단체 부사령관)이 제주보육원 관악대를 40인조로 확대 편성했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조치였다. 음악을 전공했던 길버트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제주농업고등학교, 경찰악대, 구세군 고적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오현고등학교 관악대 창설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6개 관악단을 순회하면서 지휘법을 지도하기도 한다. 그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1953년에 오현고등학교에서는 음악관을 준공하며 '길버트 음악관' 이라 명명하게 된다.

제주국제관악제

1952년부터 1953년에 이루어진 제주여고, 신성여고, 군악대와 도내 모든 학교가 참가한 합동연주회가 있었고, 군경 위안의 밤 음악회, 오현고와 군악대와의 합동연주회, 군관민 합동 연주회 등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오현고등학교의 관악대는,

1953년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된 제4회 진주개천예술제 관악부분에 참가해 예술제 전 부문 최고상(개천예술상)을 받고, 이후 15년 동안 15연승이라는 대기록으로 제주음악사에 금자탑을 쌓았다.

제주도의 관악은 점점 그 숫자가 불어나 제주시내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음악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도내의 음악 전공자들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

1980년대 초, 제주대학교에 음악과가 신설된다. 그로 인해 연주회가 많아지고 제주도민들의 음악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어 가면서, 제주에 음악의 터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대학에서 배출된 학생들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피아노 분야의 활동 또한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후 한라대 음악과, 관광대 음악과가 설치되었다.

1988년 8월 제주도문예회관이 들어서면서 제주음악의 무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어서 한라대학에 800석 규모의 〈한라아트홀〉, 1,200석 규모의 〈제주아트 센터〉, 제주대학에 500석 규모의 〈아라뮤즈홀〉, 제주여성문화센터의 400석 규모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관광대학에 500석 규모의 〈컨벤션홀〉과 같은 공연장이 개관하면서 제주의 음악활동 무대는 풍족한 시대를 맞고 있다.

제주음악협회는 청소년음악회, 신인음악회, 콩쿠르, 탐라합창제 등 많은 행사를 통해 제주 음악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4년 4월에 제주해변공연장이 개관하면서 제주에는 새로운 음악활동의 장이 열리게 된다. 해변, 곧 야외에서도 공연이 가능해졌고, 여름 내내 도내외 연주자들의 공연이연일 펼쳐지고 있다. 국제관악제가 국내외에서 명성을 높여가는 제주의 명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해변공연장 개관 이후 가능했던 일이다.

연극

1962년 1월에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약칭 예총)가 발족되고, 4월에는 제주도에도 예총이 설립되었다. 연극계에서도 연극협회를 조직했지만, 중앙의 한국연극협회에는 등록하지 못한 채 제주도내의 연극 동호인 모임에 그친다.

1962년 5월에 제주도 주최, 예총 제주도지부 주관으로 제1회 제주예술제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탐라문화제의 시작이다. 제1회 예술제에는 연극협회에서도 참가해 공연하게 된다.

제주출신들이 중앙에서 대학 전공으로 연극을 선택한 경우가 별로 없어, 제주의 연극은 실로 명맥을 이어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1975년 7월 동호인 모임이었던 제주도연극협회가 중앙의 연극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게 된다. 그러면서 도내 대학에 연극동아리가 결성되고 〈가람극단〉이 창단된다. 1978년 3월에는 극단

〈이어도〉가 출범한다. 이후 1980년에는 극단 〈정낭〉이, 1988년에는 극단 〈무〉가 창단되었다.

1991년부터 제주연극인의 지속적인 활동과 단합을 위한 〈소극장연극축제〉가 창설됐다. 1997년에는 〈청소년연극제〉를 창설해 도내 청소년들의 연극 활성화를 도모했다.

1992년 제주연극협회가 제주도에 전국연극제를 유치함으로써 제주연극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국연극제는 2만여 명의 유료 관객을 동원했다. 이로써 제주연극인들의 단합에 의한 성공적인 대회로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극계는 한층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사진

제주의 사진예술계는 1960년대 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게 된다. 제주 최초의 〈사진예술동호인회〉는 1965년 2월 창립되었다. 이 모임은 1년에 4회의 전시를 연다는 계획으로 출발해 한라산 적설 설경 촬영대회를 하고 3월에는 사진 전시회를 갖는 등 그 해에 3회의 전시회를 가졌다. 1967년 2월에 명칭을 '제주카메라 클럽'으로 바꾸고 회원들이 전국공모전에 입상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보이면서 제주의 사진예술계의 성장에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1967년 12월에는 제주사진작가협회가 창립됐다. 이렇게 2개의 단체가 만들어지자, 제주도민들에게 다양한 사진 자료를 보여주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진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제주건설사진공모전〉, 신성여고 학생들로 이루어진 〈신성사진전〉 등 다양한 단체전이 줄을 이었다.

이후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가 조직되어 제주도와 예총이 주최하는 탐라문화제 사진부문 전시회를 꾸준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지부 및 사진동아리들이 자신의 단체에 맞는 특색을 살리기 위한 전시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국악

제주도에 국악이 들어오게 된 시기는 1416년(태종 16)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 모습을 갖춘 것은 해방 후의 일이다. 1956년 제주국악원(원장 박우상)이 개원하면서 신국악이 시작된다. 1967년 예총 국악협회 제주지부(초대 지부장 박치순)가 결성된다. 1967년 제주여고 제주민속예술단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제7회 제주도문화상을 받는다.

1972년에 '인당민속무용단' (단장 고수선)과 (사) 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부가 결성된다. 이 단체들은 도내 국악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민속예술의 보급에도 전념한다. 1984년 KBS제주방송총국이 주최하는 전국민요경창대회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이 대회는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제주 국악협회의 활성화와 제주민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97년 국악협회는 문화예술인들의 노력들이 모아져 4월 25일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에서 국악협회제주도지회의 재창립 총회를 갖게 된다.

무용

제주 무용계는 예총 무용협회제주지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 무용의 역사는 1956년 10월 23일 문총제주지부가 결성되고 그해 11월 12일 중앙으로부터 인준을 받는다. 송근우는 제7, 8, 9, 11대 예총 부지부장을 맡으면서 제주 고유의 민속무용을 발굴하고 창조하는 작업을 계속한다. 1964년 도내 학생들로 구성된 민속예술단을 이끌고, 제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제주무용이 전국무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다. 1990년 3월 제주도민속예술단이 창단되어 현재까지도 제주의 민속무용과 함께 현대 무용까지 보급하고 있다. 해마다 1~3회 정기공연을 통해 제주 무용을 선보이고, 한층 높은 수준의 무용을 창작해 나가고 있다.

테마로 체험하는 제주

가서, 보고, 느껴라

국립제주박물관

선사실, 탐라실, 고려실, 조선실, 탐라순력도실, 기증실, 특별기획실, 상설 체험실, 야외 돌문화 등의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탐라실은 탐라시대를 배경으로 탐라국의 탄생과 주변 국가들의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발굴유물로 보여주고, 고려실에서는 고려와 탐라가 한 나라가 되는 과정과 문화 변천사, 도자문화의 유입과 융성했던 불교문화, 대몽항쟁 등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자료 중에 탐라순력도는 제주에 부임한 이형상 목사가 숙종 28년(1702) 당시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을 순시하면서 다양한 행사 장면을 기록한 채색 화첩이다. 이 목사의 지시에 따라 화공 김남길이 그렸으며, 모두 41폭으로 각각의 폭 하단에 행사 그림에 대한 설명을 남겼다. 탐라순력도는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건물, 군사시설, 지형, 풍물, 수렵문화 등 제주 역사를 연구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어, 1979년 2월 국가지정 보물 제652호로 지정되었다.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천혜의 수려한 제주 자연과 제주사람들의 독특한 고유민속이 아우러져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공립박물관이다. 1984년 5월 24일에 개관한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내에 산재해 있는 고유의 민속 유물과 동물 · 식물, 지질 및 해양식물 등 다양한 자연사적 자료들을 조사, 연구, 수집, 전시하여 제주지역의 민속자연사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박물관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전시 및 소장 유물 현황을 보면, 고고민속유물 9,909점, 자연사 관련 유물 28,165점으로 총계 38,074점을 보유하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내 애기구덕과 금줄 전시

상설전시관, 세계자연유산전시관, 자연사 전시실, 해양종합전시관, 민속전시실과 특별전시실이 있으며

야외전시장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생각하는 정원

자연은 제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에게는 늘 경이롭고 신비롭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곳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는 곳이다. 관람하는 동안 정원에 담긴 땀과 노력 그리고 철학에 저절로 감동하게 된다. 자연의 경이로움이 사람의 손과 악수하는 동안, 자연도 사람도 놀라게 만든 최고의 예술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음을 절로 느끼게 한다.

생각하는 정원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정제된 정원예술의 세계를 안내하는 이곳은 모두 7개의 테마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 위에 자라는 곰솔이 다소곳이 숙이면서 방문객을 맞는 환영의 정원, 제주 돌을 겹겹이 쌓아 만든 겹돌담과 7층 돌탑과 함께 연회 장소로 이용하는 영혼의 정원, 향나무, 물이 솟아나는 샘을 형상화해 봄의 평화로움을 간직한 영감의 정원, 나무는 인생, 분재는 철학을 연상케 하면서 나무 철학자의 명상과 사색을 즐기는 철학자의 정원, 금귤, 산귤과 같은 제주의 재래감귤을 감상할 수 있는 감귤의 정원, 비단잉어들의 유영과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로 인도하는 평화의 정원, 최고의 만남 행사를 열기 위한 비밀의 정원이 그것이다. .

오' 설록

국내 유일의 녹차 박물관이다. 제주는 물 빠짐이 좋은 화산회토의 천연의 암반수를 지니고 있어 중국의 황산, 일본의 후지산과 함께 세계 3대 녹차 산지로 손꼽힌다.

박물관 건물은 녹차잔을 형상화시켜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했다. 1층에는 상설전시관인 잔(盞)갤러리와 차(茶) 체험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잔갤러리에는 한국에서 다기로

사용됐던 귀한 토기와 자기 1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귀한 잔들을 시대별로 전시해놓아 시대별 다기문화 변천과 아울러 차문화 특징을 감상할 수 있다.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했던 찻잔들도 전시되어 있어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설록차박물관

아홉굿 의자마을

한경면 낙천리,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13.8m에 달하는 대화합문 의자를 비롯해 모양, 크기, 주제, 이름이 제각각인 천 개의 의자를 갖춘 의자공원을 만나게 된다. 의자들의 이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전국적 닉네임 공모전을 거쳐 정했으며, 2009년 7월 31일 의자공원 마을로 선포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낙천리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저갈물, 오빼미를 비롯하여 불미와 관련된 못 등 9개의 연못이 있다. 아홉굿 연못을 컨셉으로 아홉굿 의자 마을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낙천리(樂泉里)라는 이름도 샘(泉)이 많아서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은 불미(대장간) 작업에 필요한 흙을 파고 난 뒤에 형성된 것이다. 주민들은 낙천리가 불미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흙을 파낸 곳은 구덩이가 되어 물이 고이게 되고, 세월이 오래도록 흘렀지만 물은 깨끗하게 남아 있다. 이런 마을의 역사성과 생태 연못은 농촌이나 도시인들에게도 좋은 문화 자원이기에 '아홉굿' 이라는 상징적 테마(굿, 영어 Good)를 가지게 되었다.

한경면 낙천리 아홉굿 의자마을

마을의 좋은 자원은 아홉 가지가 넘는다. 우선 인심이 좋다.

누가 언제 어디서 찾아오더라도 따뜻하게 맞아준다. 멧돼지가 즐겨 찾았던 저갈물 연못과 팽나무는 마을사람들의 안식처이면서 소통의 공간이 되어 좋다. 토질이 좋아 감귤, 보리, 오이, 방울토마토의 맛을 좋게 한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이어주는 이정표가 되어 주고 있고, 특히 의자공원은 올레 13코스를 찾는 이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 주고 있다.

곶자왈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이용되는 아홉굿마을숲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친 심신을 치유해주며, 산새들에게도 좋은 피난처를 제공해준다.

어멍아방잔치마을

성산읍 신풍리(新豊里), 그 이름에 새롭고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마을에는 현재 200여 세대 600여 명이 살고 있다. 마을 주변으로 천미천이 흐르고 남산봉과 통오름이 있다.

주민들의 애환이 깃든 검은덱이멜통, 사장터, 도운데못, 가시랑골, 용궁올레, 갈뫼못 등을 탐방할 수 있다. 검은덱이멜통은 마을 포구 서쪽, 길게 뻗어나간 '검은덱이'라는 코지에 멸치들이 밀려드는 통이라 해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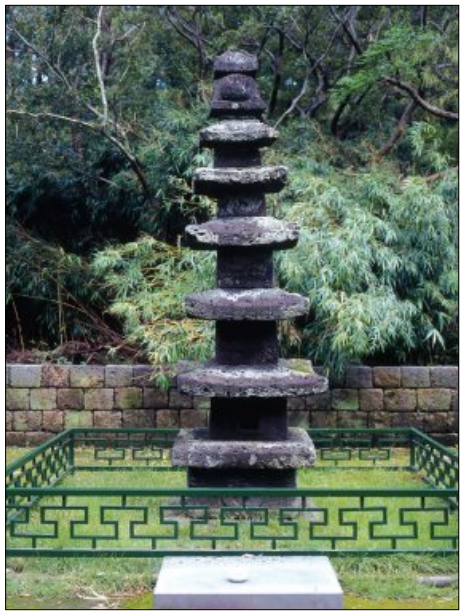
어멍아방잔치마을

제주 고유의 올레길과 제주방언이 고스란히 잘 남아 있다. 이 마을을 방문하면 어멍(어머니), 아방(아버지), 할망(할머니), 하르방(할아버지), 도새기(돼지), 폭낭(팽나무), 구젱기(소라), 구들(방), 정지(부엌), 양지(얼굴) 등의 제주방언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아마도 80세 전후의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문화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고, 신선같이 장수하는 비결과 신선 같지 않는 부지런함을 간직한 탓이 아닐까. 이런 마을의 장점을 살려서 제주전통 문화체험이 계절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불탑사

제주시 삼양동 원당봉에 있다. 원래 원당사가 있었는데 조선 중기에 폐지되었고, 그 절터에 1950년대 이후 불탑사가 새로이 지어진 것이다. 불탑사에 있는 고려시대 석탑인 오층석탑(보물

1187호) 높이는 약 4m로, 기단은 뒷면을 뺀 세 면에 안상(眼象)을 얕게 새겼는데, 무늬의 바닥선이 꽃무늬처럼 솟아나도록 조각하였다. 현무암으로 축조된 이 탑은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가 황후가 된 기황후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탑사 5층석탑

약천사

서귀포시 대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약천사는 지금 모습으로 지어지기 전까지 오랜 세월 명맥만 이어오던 조그만 초막이었다. 1,500㎡가량의 절터에 약수암이라 불리는 제주 전통 초가삼간이 전부였다. 본격적인 불사가 시작되고 그 후 절의 규모가 갖추어져서 이름을 약천사(藥泉寺)로 부르게 되었다. 불사가 마무리된 현재까지도 약수는 새로 조성한 연못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약천사

약천사는 혜인스님이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웅장한 3층 구조의 대적광전 조감도를 그리고 1991년 대법당을 완성했다. 1993년 큰법당에 비로자나부처님을 봉안하고 봉불식을 거행했고, 1996년에 낙성식을 거행했다.

천왕사

제주시 신시가지에서 한라산 1100도로를 따라 가면 1,176m 높이의 어승생오름 동쪽에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로 이루어진 아흔아홉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는데, 천왕사는 아흔아홉골 중 하나인 금봉곡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다.

1955년 현재의 천왕사 삼성각 근처에 있던 토굴에서 참선수행하던 비룡스님에 의해 수영산선원이란 명칭으로 창건되었다. 1967년 천왕사로 사찰명을 변경하면서 관음사 말사로 등록되

었다. 1994년 4월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다.

법화사

법화사는 존자암과 함께 고려의 비보사찰로 12~15세기에 제주도에서 번창했던 절이다. 조선 태종 때까지 법화사의 노비가 280여 명이었고, 배불정책으로 사찰을 정비한 이후에도 30여 명의 노비를 거느린 큰 사찰이었다.

이원진(1651-1653)의 《탐라지》에는 "현 동쪽 4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지금은 단지 초가 암자 몇 칸만이 남아 있다."고 했다. 지금의 건물들은 1987년 다시 세운 것이다. 현재의 법당 자리에서 금당지로 보이는 건물터가 발견되었는데, 앞면 5칸 · 옆면 4칸에 면적이 약 330㎡인 대규모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법화사

출토된 도자기와 기와조각 등으로 보아 10~12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법화사 출토 명문 기와에는 고려 원종 10년(1269)에 중창이 시작되어 충렬왕 5년(1279)에 완공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발굴된 용과 봉황문 막새는 고려의 왕궁지인 개성 만월대와 몽골 왕궁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흡사하다. 특히 기와는 왕실 건축에만 쓰던 것이었다. 이로 보아 원나라 조정과 왕실과 관련된 원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규모가 매우 큰 절로 제주도 3대 사찰 중 하나였다.

산천단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산천단은 '한라산신제'를 올리던 제단이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되어 있는 곰솔이 있는데 무려 키가 19m에서 23m에 이르며, 수령이 500~600년으로 우리나라 곰솔 가운데 가장 오래된 노목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 숲 터널을 지나면 솔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하늘로 솟아오르다 가지를 늘어뜨린 곰솔 나무 아래의 이끼 먹은 제단은 정적 속에서도 수백 년의 역사를 말해준다. 나무 사이에 앉으면 신제를 올렸던 선인들처럼 깨끗한 마음의 바다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절부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포구에 사철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난대식물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에 절부암(제주도 기념물 제9호)이란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조난당한 남편을 기다리다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애절한 사연이 전해온다.

조선말기 차귀촌의 고씨는 어부 강사철에게 출가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표류하고 말았다. 고씨는 며칠 동안 해안가를 배회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용수리 바닷가 '엉덕동산' 에서 나무에 목을 매고 말았다. 그러자 그 나무 아래로 홀연히 남편의 시체가 떠올랐다. 이를 신통히 여긴 판관 신재우가 바위에 '절부암(節婦岩)' 이라 새기게 하고 부부를 합장하였다. 그리고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제전을 마련하여 용수리 주민으로 하여금 해마다 3월 5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절부암 인근 도로는 드라이브코스로도 유명하다. 신창리에서 용수리를 거쳐 고산리로 가는 해안도로와 분위기 있는 곡민도 등대를 거쳐 차귀도를 바라보며 달리는 해안드라이브는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다.

납읍리 난대림(금산공원)

마을에 인접해 있으면서 천연림이 잘 보존되어 있다. 원식생의 천이과정이 잘 남아있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후박나무, 종가시나무와 같은 난대성 수종이 다양해 천연기념물 제375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처음에는 금산(禁山)이었는데, 뜻을 바꿔 금산(錦山)으로 부르고 있다. 700년 전후로 마을이 형성될 때에, 풍수지리상 마을의 화를 막기 위해 이곳에 숲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선인들의 숨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숲인 셈이다. 마을의 재해를 막고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나무를 베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금산(禁山)이었던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숲은 점점 수려한 비단(錦)처럼 변하게 되자 금산(錦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금산공원의 난대림

여미지식물원

2,000여 종의 식물을 전시하는 동양 최대의 온실이다. 중앙홀의 전망대를 기준으로 원형의 실내 식물원과 외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이 38m의 전망대에 오르면, 중문관광단지는 물론 서귀포시의 앞바다 그리고 멀리 가파도, 마라도까지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여미지식물원

실내는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꽃의 정원', 세계 최대의 아마존산 빅토리아연과 가시연꽃, 부레옥잠 등 각종 수초들로 가득 찬 '수생식물원', 공중에 자라는 박쥐란을 비롯해 열대 원시림과 정글벌레잡이 식물이 자라는 '열대 정원',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을 만날 수 있는 '열대 과수원', 130여종의 선인장들로 가득 메운 '선인장 정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온실 안에서는 끈끈이주걱, 파리지옥과 같은 벌레잡이식물 코너, 제주의 옛 정취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를 비롯해 음악회, 각종 예술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외부는 제주의 돌담과 야생화로 꾸민 '제주자생식물 정원'을 비롯해 잔디광장, 한국식, 일본식, 이탈리아식, 프랑스식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한림공원

한림공원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오른 야자수길, 희한한 식물의 왕국 아열대식물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236호인 협재·쌍용굴의 지하세계, 세계 여러 나라의 돌과 분재예술, 제주전통생활상을 볼 수 있는 재암민속마

을 등 볼거리가 풍부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꽃축제로 펼쳐지는 곳이다.

관람시설로는 먼저 야자수길이 있으며, 분재와 돌을 주제로 한 5천 평 규모에 500여 점의 분재와 100여 점의 자연석을 감상하실 수 있는 제주 석 · 분재원, 사라져가는 제주 전통초가의 보존을 위해서 실제 초가를 원형 그대로 이설, 복원한 재암민속마을도 눈여겨 볼 만하다.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노루생태관찰원은 면적 52ha에 사육동 등 노루보호시설과 관리 · 편의시설을 갖추고 2007년 개장했다. 200여 마리의 노루가 자연에서 자유로이 뛰놀고 있고, 이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로와 함께 상시관찰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노루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천혜의 대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제주의 명물 노루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이곳은 50ha의 산림과 각종 동식물들이 자연 그대로 보호되고 있는 곳으로 자연학습과 생태체험, 오름 산행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2002년 8월에 폐교된 성산읍 삼달초등학교를 문화갤러리로 탈바꿈한 곳이다. 제주출신은 아니지만 제주의 오름을 사진으로 신격화한 김영갑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김영갑은 1957년 충남 부여 태생으로, 1982년부터 제주도를 오르내리며 사진 작업을 하다가, 1985년부터는 아예 제주에 정착했다. 그 후 바닷가와 중산간, 한라산과 마라도 등 제주 곳곳을 다니면서, 오름, 노인, 해녀, 바다, 구름, 바람, 들판, 마라도 등 제주도의 모든 것을 필름과 사진 속에는 담아냈다.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필름과 사진들을 지키기 위해 2001년 겨울에 폐교를 임대해 이듬해 여름에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문을 연 것이다.

이후 모든 치료를 거부한 채 생명의 자연치유력에 의지하며 갤러리를 지키다가 2005년 5

김영갑갤러리 내 조형물

월 29일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의 뼈는 그가 손수 만든 갤러리의 그가 좋아하던 감나무 밑에 뿌려졌다.

전시관에서는 작가의 작품들을 포함해 생전의 연구실, 영상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작가의 촬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일출랜드

미천굴(美千窟)을 중심으로 도시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가득한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곳이다. 천연 용암동굴인 미천굴과 제주토종수목, 제주 민속 문화를 소재로 한 제주형 테마공원이다.

미천굴

미천굴은 일천 가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하여 붙여졌다. 1,714m의 주굴과 415m의 가지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지굴 중 365m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동굴 입구에는 제주의 현무암 55만여 개를 촘촘하게 쌓아올린 5~7m 높이의 돌탑인 방사탑과 돌벽이 있으며, 동굴 내부는 용암선반과 종유석, 석순, 다층굴 등 용암동굴이 갖는 아름다움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동굴 주변에는 향토수종으로 나무숲이 조성되어 있고 선인장하우스, 아열대식물원, 수변공원, 광장연못, 아트센터, 제주현무암 분재정원, 놀이분수, 잔디광장, 민속놀이체험, 감귤농원, 산책로 등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들이 있다. 특히 워싱턴 야자, 카나리아 야자, 종려나무 등 아열대 식물로 조성된 아열대 산책로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연인들의 대화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각종 선인장들을 한군데 모아놓은 선인장하우스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제주4·3평화공원

1948년에 일어난 제주4·3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영혼을 달래며 유족들을 위무하기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상생 그리고 인류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제주4 · 3평화공원

관람동선은 역사적 사건에 따라, 제주4 · 3이 일어나기 전의 과거로 거슬러가는 '역사의 동굴',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자치, 미군정실시, 제주4 · 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 · 1절 발포사건과 총파업 등 긴박한 상황을 연출한 '흔들리는 섬', 5 · 10 단독선거를 반대해 봉기한 제주4 · 3, 남북한이 굳어지는 상황 등을 담은 '바람 타는 섬', 토벌대와 무장대의 진압과 공격으로 제주도민들이 학살되는 과정을 그린 '불타는 섬', 제주4 · 3 60주년을 맞아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 4 · 3특별법의 제정과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지는 '흐르는 섬', 제주도 마을 공동체의 염원을 상징하는 팽나무를 통해 제주4 · 3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면서 새로운 화해평화를 염원하는 '새로운 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삼다수 공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삼다수 공장에서는 1998년 시판 이후 국내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해온 '제주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거대한 제주도 화산암반이 자연 필터한 지하수, 즉 순수한 화산암반수라 하겠다. 화산활동으로 생긴 수십 겹의 현무암층을 거치면서 각종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고 천연 미네랄 성분이 자연적으로 녹아 물맛이 부드럽고 깨끗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맛있는 물의 지표인 O-index 값(2 이상이면 맛있는 물)이 7.81로 국내외 타 먹는샘물에 비해 높다는 점과 약알칼리성 물(pH 7.1~8.5)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같은 특성으로 말미암아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선호도 1위, 만족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50.7%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등 매출액(2011년 1,452억 원)이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삼다수 공장은 1996년 12월 착공하여 1998년 1월 준공했으며, 1998년 3월 '제주삼다수' 시판에 들어갔다. 같은 해 미국 FDA와 일본 후생성 수질검사 기준에 합격했으며, 최근에는 물류체계 개편과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수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미래 대체 에너지원으로써의 스마트그리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과정 그리고 국가 비전과 시범운영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스마트그리드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아껴 쓰고, 화석연료 대신에 풍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보급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망이다. 곧 기존의 전력망(Grid)에 정보통신기술을 현명하게(Smart) 연결하여 전기 공급지와 사용자가 실시간 쌍방향으로 전력망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행원풍력발전단지

한국 최초의 풍력 발전 단지이며,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풍력으로부터 전기생산은 공기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 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켜 공기의 운동에너지를 날개의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킨 후 발전기를 가동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풍력, 태양광 같은 자원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전력량의 안정적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제주는 지난 1995년 '제주도지역에너지계획' 을 수립하고, 1996년 제주에 무한한 풍력 자원을 청정 대체 에너지로 개발 · 공급하기 위

구좌읍 행원리 일대 풍력단지

한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에 착수했다.

1997년 구좌읍 행원리 일대를 풍력 단지 사업지로 선정함에 따라 행원 지역에 600㎾급 풍력발전기 1·2호기를 설치해 1998년 8월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가 국내 최초로 풍력발전 상업화에 성공했다. 이후 2003년 4월까지 총 203억 원을 투입하여, 750㎾급(기둥높이 45m, 날개 24m) 5기, 660㎾급 7기, 600㎾급 2기, 225㎾급 1기 등 총 15기 10㎿ 규모의 풍력발전기가 가동되고 있다. 발전기 15기에서 1만 8561㎿/h의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7천?8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용량이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시민환경체험장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음식물 자원화센터, 재활용품 선별장, 폐플라스틱 처리장 등으로 구성된 '자원 재활용 선별장'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시민환경체험교육센터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음식물 자원화센터에서는 2000년 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퇴비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촉진은 물론 농업생산성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은 1992년 8월부터 매립을 시작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매립과정에서는 발생되는 메탄가스의 자원화사업은 악취문제 해결을 통한 매립지 주변 환경과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온실가스 방출량 감소, 자원 재활용을 통한 대체에너지 개발, 매립지의 조기안정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저장하는 시설에서는 연간 20만1,000㎥ 규모로 저장 처리되고 있다.

에필로그

바람으로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의 보물섬

제주는 200만 년 전 일어난 화산 태동의 흔적부터 5,000년 전 마무리된 화산의 몸짓까지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신선한 화산섬이다.

이 섬에는 수많은 종의 생물이 붙박아 살고 있다. 제주섬이 지닌 생물세계는 다양할 뿐 아니라 독특하다. 이 섬이 자리 잡은 위치와 높은 한라산 덕분에 한대에서 온대, 난대, 아열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 생물들 중에는 남방한계종과 북방한계종 그리고 지구상에서 오직 이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종들이 있어 다양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제주는 바람의 섬이다. 제주섬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갔을 바람은 바다와 더불어 섬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어루만지며 신비로운 자연생태계를 함께 빚어냈고, 제주사람들에게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이루게 했다.

온갖 생물세계를 품어 안고 바람으로 살아 숨 쉬는 화산섬 제주의 자연과 그 속에 독특하게 녹아든 사람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만나노라면, 자연유산의 위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문화유산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섬이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이유다. 제주는 세계가 감동하고 사랑하며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의 보물섬인 것이다.

제주생물권보전지역

제주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 이란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 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결합시킨 육지 및 해양생태계 지역을 일컫는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영천과 효돈천 등 2개의 하천, 문섬, 섶섬, 범섬 등 3개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한라산, 하천, 섬, 이 3개 지역과 주변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핵심지역에는 고산성 관목림, 상록침엽수림, 낙엽활엽수림과 남대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해 있으며, 많은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완충지역은 국유림으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 산지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전이지역은 농업, 어업, 임업 활동이 가능하고 주거지로도 이용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활동하는 구역이다.

제주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UNESCO)는 유엔의 전문기관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문화기구다.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문화사업 가운데 하나가 세계유산이다.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세계유산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재' 다. 세계유산은 곧 '세계적인 문화재' 인 셈이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에 세계 국가 간 협약을 맺어 만들어진 것으로서 전 세계적인 공인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188개국이며 한국은 1988년에 102번째로 가입했다.

유네스코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유네스코 자체의 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세계유산은 바로 이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총회를 열어 결정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다른 사업에 비해 그 중요도가 높고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문화유산은 유형의 문화유산이며 자연유산은 자연과학 분야의 유산이다. 복합유산은 일정한 지역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적 가치가 동시에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연계되어 있는 기구는, 세계유산의 등재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세계유산위원회'와 자문역할을 하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국제자연보존연맹' 등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세계유산 등록대상 문화재의 심의·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위원회로 임기 6년의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다.

백록담

2011년 현재 세계유산은 153개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936점이 등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문화유산으로 725점에 이르며 자연유산은 183점, 복합유산은 28점이다.

세계유산은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은 자국 내 세계유산의 보존상태와 보호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의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 조치 가운데 하나가 해당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의 경우 매년 보존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실제로, 현재 936점의 세계유산 가운데 위험에 처한 유산이 35점(문화 18점, 자연 17점)이나 된다. 세계유산에 등록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 또한 그 못지않은 것이다.

한국에는 현재 10점의 세계유산이 등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9점은 문화유산이고 1점은 자연

유산이다. 제주의 세계유산은 한국의 유일한 자연유산인 셈이다.

제주의 감동적인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등재 준비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해 1월에 제주자연유산지구 등 7건을 잠정목록으로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검토를 거쳐 2002년 3월부터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갔다.

1차적으로 기존에 이루어진 학술조사 내용을 정리한 후, 그해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대상지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주자연유산지구 중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주제와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때 제주에 있는 다양한 화산활동의 근거와 용암동굴 2차 생성물 등이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한라산, 산굼부리,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주상절리대, 산방산, 수월봉 퇴적암층 등이 유산신청 대상지로 잠정 확정됐었다.

1차 종합학술조사 자료를 토대로 2004년 제주자연유산지구 등재신청서 초안이 작성되었고, 등재추진위원회, 등재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계획서 등의 검토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서 보강 작성과 관리계획서 작성 등 2차 작업이 추진되어 제주자연유산과 세계자연유산과의 정밀 비교조사,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계획과 자연유산에 대한 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이 최종 신청대상지로 확정되었다.

준비 과정 6년 만인 2006년 1월, 드디어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그리고 제주가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임을 알리는 일련의 작업과 더불어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도민의 이해와 동참을 얻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그해 10월에 예정된 유네스코의 제주 현지실사를 앞두고 8월 16일부터 시작된 등재 염원 서명운동이 벌어졌는데, 도민과 국내 · 외국인을 포함해 150만 명 이상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 전체의 열렬한 지지와 합의를 이룬 이 서명운동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일로, 유네스코 현지실사 때 인상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현지실사 후 2006년 12월부터 시작된 1차 패널회의를 시작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여부를 결정짓는 일련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2007년으로 접어들면서 2차 패널회의를 시작으로 IUCN 심사결과보고서가 완성되고, 그해 6월 23일부터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년 7월 2일 등재된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명칭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이다. 제주에 남아있는 화산활동의 흔적들이 결국에는 세계유산이 된 것이다.

용천동굴

제주 화산섬은 제주의 아름다운 화산지형을 말한다. 용암동굴은 화산활동의 결과물 중에서도 특히 용암동굴의 발달이 특징적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등재 지역은 크게 보아 제주도 전역이 해당하지만, 3군데의 핵심유산지구를 별도로 지정했다.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이 바로 핵심유산지구다.

유산지구의 전체면적은 188.46㎢로 제주섬 전체면적의 약 10%에 해당한다. 면적이 비교적 넓은 이유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대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구분되는데 핵심지역이 94.75㎢이고, 완충지역이 93.71㎢에 해당된다.

제주세계지질공원

지질공원(Geopark)이란 지질학적인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희소성과 심미적 가치를 지닌 지질유산으로서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거기다 보존,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의 통합된 개념이 포함된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면서 이를 토대로 관광을 활성화해 주민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네스코 프로그램이다. 2004년 유네스코와 유럽지질공원의 협력으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설립되었으며, 2011년 현재 세계 26개국이 가입, 78개소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있다.

세계지질공원은 보존, 교육, 지질관광 등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 세계지질공원은 중요한 지질학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지질유산의 우수한 보전 사례를 보여주어야 하고, 일반대중에게 지질학적 지식과 환경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 활동요령을 작성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인 지질관광이란 어떤 관광지 중에서 지질공원의 특징을 강조한 관광을 의미한다.

지질공원의 특징은 지질유산이나 자연경관, 지구과학의 대중화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래서 지질관광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 중점을 둔다.

첫째, 지구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얻고 지질유산을 보호하려는 관광객의 의식과 능력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특별한 가치를 지닌 지질유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지질공원의 경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묘한 산봉우리, 환상적인 동굴, 계곡과 폭포, 샘, 빙하, 화산과 변화무쌍하고 다채로운 모습의 산이나 암석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관광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만이 갖는 역사나 문화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다.

결국 지질공원은 지질관광을 통해 경제활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극하는 곳인 셈이다.

수월봉 응회암

독특하고 수준 높은 제주세계지질공원

지질공원은 비교적 넓은 지역을 하나의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질공원 내에 핵심지역과 같은 개념의 여러 지질사이트가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설명하고 지질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는 2010년 10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다양한 화산지형과 지질자원을 지니고 있는 제주는 섬 전체가 지질공원이며, 제주의 상징인 한라산, 수성화산체의 대표적 연구지로 알려진 수월봉, 용암돔으로 대표되는 산방산, 제주형성초기 수성화산 활동의 비밀을 간직한 용머리해안, 주상절리의 형태적 학습장인 중문 대포주상절리대, 제주 형성과정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층이자 100만 년 전 해양환경을 알려주는 서귀포층, 퇴적층의 침식과 계곡 · 폭포의 형성과정을 전해주는 천지연폭포, 수성화산체 응회구의 대표적 지형이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가운데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만장굴 등 9군데의 대표적인 지질명소가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그런가하면 중산간지대의 화산평원에서 어깨를 맞대며 펼쳐지는 오름 무리와 제주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곳간인 곶자왈지대, 화산섬이라서 더 독특한 사람발자국 등의 화석지, 특이한 화산지형인 산굼부리 분화구, 우도와 비양도 등 제주에서 중요하기로 손꼽히는 화산지질학적 자원들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곳으로, 제주의 지질공원으로서의 독특한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참 여 자 (가나다순)

강경희 강만익 강문규 강문칠 강순석 강승진 강정효 강진영 강창민
강창화 고광민 고기원 고선영 고성보 고시홍 고인종 고희송 권상렬
김남수 김동전 김범훈 김완병 김은석 김준택 김지택 김찬수 김창집
김철수 김태수 김태윤 김태일 김태호 김홍구 문무병 문소연 문순덕
박상수 박원배 박찬식 백규상 서재철 송시태 신동일 안웅산 양영자
양종렬 엄상근 오수정 오순자 오승훈 오영주 오창명 오희삼 윤원수
이문교 이성용 이윤형 이지훈 임영이 장제근 장혜련 정광중 정구철
정상배 정승훈 조미영 좌혜경 진관훈 최영근 허남춘 현승환 현원학
현정화 현진숙 현해남 현혜경 홍기표 홍영철 황석규

2012 제주 WCC 생태 · 문화탐방 길벗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이야기

인 쇄 ‖ 2012년 8월 일
발 행 ‖ 2012년 8월 일

발행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제주발전연구원장 양 영 오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Tel. (064) 758-1500